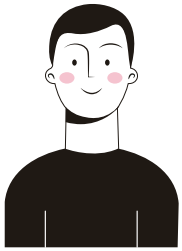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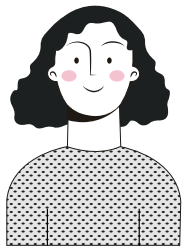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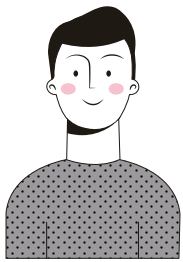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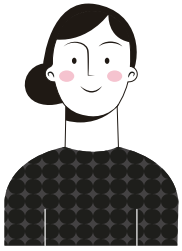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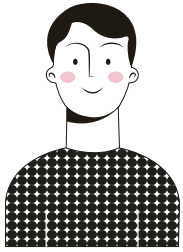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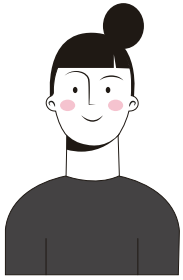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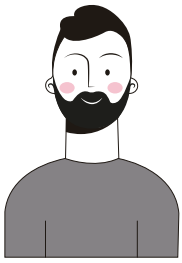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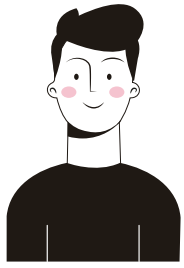
2019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사서들의 책이야기 2019

2019 경기도사서서평단 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Gyeonggi-do Cyber Library

2019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사서들의 책이야기 2019

2019 경기도사서서평단 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Gyeonggi-do Cyber Library

작가와 독자 사이

> 작가는 자신의 공간을 만드는 창설자이며, 언어의 땅을 경작하는 옛 농부의 상속인이며, 우물 파는 사람이며, 집짓는 목수다. 이와 반대로 독자는 여행객이다. -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로제 샤르티에와 굴리엘모 카발로는 그들이 엮은 책『읽는다는 것의 역사 (Histoire de la Lecture dans le Monde Occidental)』의 서문에서 미셸 드 세르토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자로 씌어 진 것과 그것을 읽는 것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한다. 서문에서는 쓰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에 대해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것, 독서법의 중요한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작가와 독자 사이, 쓰는 것과 읽는 것의 사이의 간극이 눈에 들어왔다. 독자에게 말을 건 내는 것과 읽게 만드는 것. 그 사이의 역할 말이다. 작가와 독사의 사이에 사서를 떠올리는 일은 사서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작가와 독자 사이에 사서가 있다. 책을 읽게 하는 역할,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조언을 덧붙이는 사람들. 어떤 책을 골라도 좋을 만큼 넉넉한 공간을 꾸려가는 사람들. 사서. 그리고 그 공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약 없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사서들 말이다.

같은 책에서 도서관을 공공재산으로 생각하는 근대적 개념을 설명하면서 대중독서, 대중에게 유용한 도서관 관리를 위해 국가나 사회가 부담해야하는 책임의 제도적 정의라는 표현••에 매우 강한 동의를 보낸다. 도서관은 사회의 기반시설이며 공공재산으로 운영된다. 사회의 책임을 다 해내기 위해서 말이다. 도서관이 그 책임을 충분히 다 해 내기 위해서 사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서가 충분히 책을 읽어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책을 적절한 사람에게 권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평집『사서들의 책 이야기, 2019』는 경기도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서들의 일 년 간의 목소리다. 어떤 책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걸까를 고민하면서 책을 고르고, 읽고, 그 책에 대해 이야기를 쓴다. 사서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더 들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이다.

일 년에 한 권씩, 벌써 11번째 책이다. “서평집”이라는 형태로 책에 대한 사서들의 목소리를 전해온 지 11년, 두 번째 강산의 시작이다. 새로운 각오로, 초심을 다시 떠올려야 할 때이다. “책”으로 시작되는 책의 생태계 속에 작가와 독자, 편집자, 출판사와 서점에 도서관과 사서가 있음을 서평을 통해서 이야기 해 본다.

그 사서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라 초대한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재인용. Michel de Certeau, L’Invention du quatidien, vol.1. of Arts de Faire, Paris, Gallimard, 1990, p.251(초판, 1980). -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읽는다는 것의 역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로제 샤르티에, 굴리엘모 카발로 엮음.『읽는다는 것의 역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p.260.

차례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9
어린이 그림책 / 8
어린이 문학 / 130
어린이 비문학 / 210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찾은 책. 2019
청소년을 위한 책 / 244
일반 성인을 위한 책 / 290

내가 권하는 어린이 책
2019 서평공모전 수상작 /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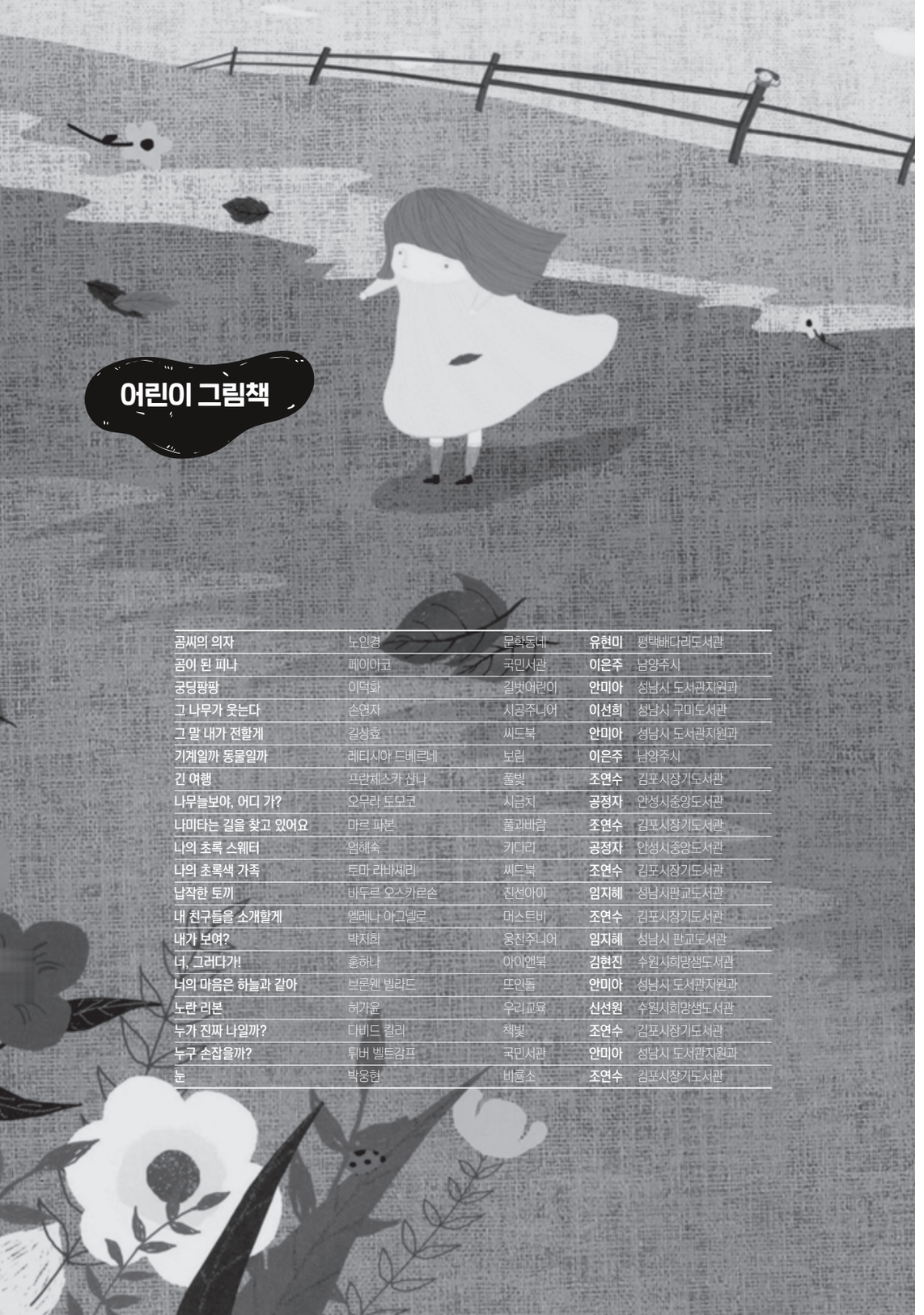
2019 경기도사서서평단 추천도서 목록 462

색인
도서명별 / 470
저자별 / 472
서평자별 / 474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9

어린이 그림책
어린이 문학
어린이 비문학





어린이 그림책

곰씨의 의자	노인경	문학동네	유현미	평택배다리도서관
곰이 된 피나	페이아코	국민서관	이은주	남양주시
궁딩팡팡	이덕화	길벗어린이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그 나무가 웃는다	손연자	시공주니어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그 말 내가 전할게	길상효	씨드북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기계일까 동물일까	레티시아 드베르네	보림	이은주	남양주시
긴 여행	프란체스카 산나	풀빛	조연수	김포시장기도서관
나무늘보야, 어디 가?	오무라 도모코	시금치	공정자	안성시중앙도서관
나미타는 길을 찾고 있어요	마르 파본	풀과바람	조연수	김포시장기도서관
나의 초록 스웨터	엄혜숙	키다리	공정자	안성시중앙도서관
나의 초록색 가족	토마 라바셰리	씨드북	조연수	김포시장기도서관
납작한 토끼	바두르 오스카르손	진선아이	임지혜	성남시판교도서관
내 친구들을 소개할게	엘레나 아그넬로	머스트비	조연수	김포시장기도서관
내가 보여?	박지희	웅진주니어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너, 그러다가!	홍하나	아이앤북	김현진	수원시희망샘도서관
너의 마음은 하늘과 같아	브론웬 빌라드	뜨인돌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노란 리본	허가윤	우리교육	신선원	수원시희망샘도서관
누가 진짜 나일까?	다비드 칼리	책빛	조연수	김포시장기도서관
누구 손잡을까?	튀버 벨트감프	국민서관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눈	박웅현	바룸소	조연수	김포시장기도서관

동구관찰	조원희	엔씨문화재단	유현미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드르렁 : 문크그림책	문크	북극곰	임지혜	성남시판교도서관
떨어질 수 없어	마르 파봉	이마주	공정자	안성시중앙도서관
린 할머니의 복숭아나무	탕무니우	보림	공정자	안성시중앙도서관
마들린느의 예절 수업	존 베멀먼즈 마르시아노	한솔수북	유향숙	성남시중앙도서관
말도 안 돼!	미셸 마켈	산하	이연수	수원시대추골도서관
맨발로 축구를 한 날	조시온	찰리북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바닷가 탄광마을	조앤 슈워츠	국민서관	공정자	안성시중앙도서관
부모님 제대로 키우는 법	카타리나 그로스만-헨젤	듬뿍	조연수	김포시장기도서관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허은미	여유당	김현주	수원 바른샘어린이도서관
비 오는 건 싫어	사토 와키코	한림	이은주	남양주시
사진관집 상구	유애로	보림출판사	공정자	안성시중앙도서관
삼거리 양복점	안재선	웅진주니어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서서 걷는 악어 우뚝이	레오 리오니	마루벌	유향숙	성남시중앙도서관
선	이수지	비룡소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세상 끝에 있는 너에게	고티에 다비드, 마리 꼬드리	키다리	이선희	성남시구미도서관
쉬잇! 다 생각이 있다고	크리스 호튼	비룡소	공정자	안성시중앙도서관
식물도 움직여?	레베가 E. 허쉬	현암주니어	공정자	안성시중앙도서관
안녕, 우리들의 집	김한울	보림출판사	이선희	성남시구미도서관
어서 오세요	세바스티엥 조아니에	웅진주니어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여우지만 호랑이입니다	코리 R. 테이버	꿈꾸는달팽이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정책과
완두	다비드 칼리	진선아이	이은주	남양주시
우리 가족 만나볼래?	욜리아 귈름	후즈갓마이테일	이선희	성남시구미도서관
으뜸 헤엄이	레오 리오니	마루벌	유향숙	성남시중앙도서관
이백하고도 육십구일	칼 데스카, 로알	책빛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자유 자유 자유	애슐리 브라이언	보물창고	조연수	김포시장기도서관
작은 벽돌	조슈아 데이비드 스타인	그레이트북스	조연수	김포시장기도서관
적당한 거리	전소영	달그림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전쟁 : A Guerra	조제 조르즈 레트리아	그림책공작소	김현주	수원시 바른샘도서관
줄리의 그림자	크리스티앙 브뤼엘	푸른책들	이연수	수원시대추골도서관
최강 청결 히어로 비누매	우에타니	아이세운	공정자	안성시중앙도서관
추억을 담은 지도	프란 누뇨	씨드북	조연수	김포시장기도서관
콩 퐛콩 콩나물	고야 스스무	시금치	공정자	안성시중앙도서관
콩고에서 온 편지	박준형, 홍지민	달라이트리	김현진	수원시희망샘도서관
크게 작게 소곤소곤	로마나 로맨션, 안드리 레시브	길벗어린이	조연수	김포시장기도서관
파랑오리	릴리아	킨더랜드	임지혜	성남시판교도서관
하루	강혜진	논장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학교가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	아담 렉스	북뱅크	임지혜	성남시판교도서관
생각하는 감자	박승우	창비	이은주	남양주시
엄마의 품	박철	바우솔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곰씨의 의자

노인경 저. - 문학동네. 2016.
유아부터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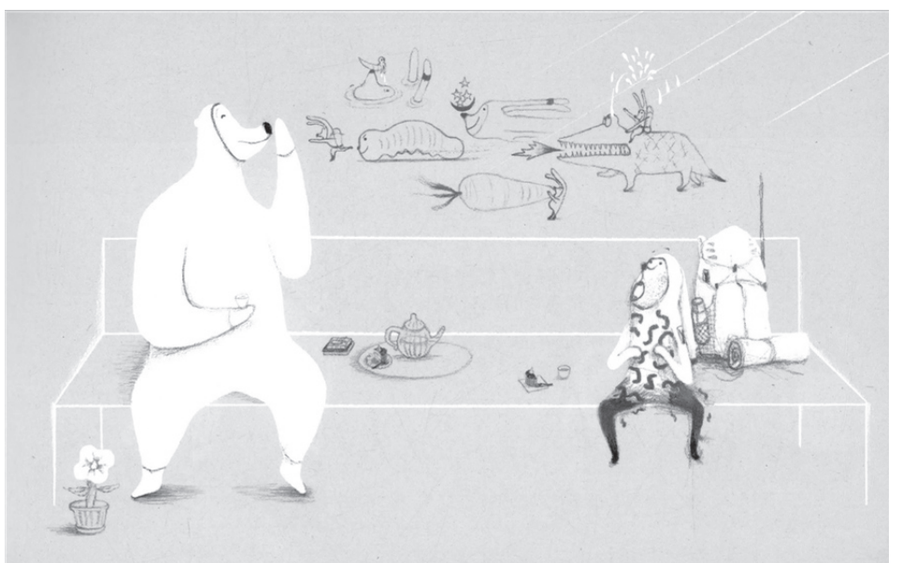
유현미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사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한때 크게 화제가 되었던 영화 속 대사입니다. 영화에서는 악역의 권력자가 상대방의 당연한 권리를 '호의'에 빗대며 적반하장격 갑질에 사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공분을 샀지만, 담고 있는 뜻만 본다면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이 꾸준히 회자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영미권에서도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네 일과가 되고 만다.'라는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뒷일이 무서워 처음부터 호의를 베푸는 일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렇듯 친구, 부부, 직장동료를 막론하고 인관관계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와 관련한 심리서나 자기계발서가 많다는 것이 관계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세상에 다시 없는 친절한 곰씨는 몹시 지쳐있는 토끼에게 쉬어갈 의자를 내어 줍니다. 그러나 곰씨는 선의에서 출발한 그 친절로 인해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빠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토끼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곰씨는 조용히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사색을 즐기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곰씨는 토끼가 족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곰씨는 차마 토끼에게 '혼자있고 싶다'고 말은 못하고 그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번번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고 곰씨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태는 점점 꼬여가고 급기야 절망 속에 몸져누운 곰씨의 사정은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말로 하면 될 것을 말을 못하고 쩔쩔매는 곰씨에게서 매사 맺고 끊음이 분명치 못하고 거절도 잘 못하는 나의 모습이 겹쳐보여서 더욱 깊이 그림책에 몰입하게 됩니다. 과연 곰씨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작가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간혹 '싫어'라는 말도,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라는 말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작가 또한 그런 말을 해 볼 기회가 없었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작가의 말을 통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위로도 받고 '그러니 나도 곰씨처럼 노력해 보아야겠어'라는 마음도 내보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즐겁기 위해서는 간혹 솔직해질 용기가 필요하다는 깊은 성찰에 이르게 하는 멋진 그림책입니다.



곰이 된 피나

페이아코 글·그림, 양선하 역. - 국민서관. 2019.
초등 저학년

애정의 대상을 넓혀가는 유아 및 저학년



피나가 곰이 되었습니다!

이은주
(남양주시 사서)

페이와 아코의 공동작업으로 탄생한 「곰이 된 피나」는 애정의 대상을 넓혀가는 유아들이 좋아할 그림책이다.

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진 피나에게 엄마가 곰 인형 옷을 만들어준다. 복슬복슬 곰 인형 옷을 입은 피나는 영락없이 아기곰처럼 보인다. 아기곰 놀이에 빠진 피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기곰을 만난다. 피나는 의젓하게 아기곰의 가족들을 찾아준다. 우는 아이의 욕구를 단번에 채워주는 엄마처럼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아이들은 이 그림책을 단번에 사랑할 것 같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듯이 말이다.

엄마 잃은 아기곰을 데리고 '산딸기 덤불'을 빠져나가자 수많은 곰들이 모여 숲속에서 파티를 하고 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기념파티'란다.

사실 성장하는 아이들은, 아니 성장하려는 모든 사람은 '시련'이라는 것을 빠져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의 화원이나 비밀의 통로들에 열광하지 않던가. 그 불안한 상징적 공간을 뚫고 나오면 기다려 주는 매력과 가치 말이다.

피나는 곰돌이 식구들의 반가운 손님이 되어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곰이든 새든 나무든 서로 통하기만 하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건 생명 있는 것들의 진리다.

피나와 곰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장면과 알고 나서 신나게 어울려 노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서로에 대해서 묻고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림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에 대한 긍정의 한 판을 보여준다.

신나게 놀다가 피나의 코와 눈이 떨어져서 드러난 모습에 서로 당황하지만, 피나의 절친은 '그래도 피나는 피나인 걸!'하며 피나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한 사람, 특히 양육자의 아이에 대한 신뢰는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정신적 에너지가 된다. 마치 음식으로 튼튼한 뼈를 취하듯이, 삶에 대한 야무진 고정핀을 꽂는 것처럼.

"아, 더 놀고 싶은데…"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피나가 탄식한다. 아이들은 언제나 더 놀고 싶다. 곰들은 "내년에 또 오면 되지!" "그래, 내년 파티에 또 와!" 이렇게 피나를 위로한다. 오늘 벌였던 '겨울잠에서 깬 기념파티'는 내년에나 다시 할 수 있는데, 피나는 내년 초대를 미리 받고 돌아온다. 소망과 기대로 가득한 미래를 선물 받은 것이다.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간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 과거가 즐거운 동시에 현재가 즐겁고, 현재가 즐거운 동시에 미래가 즐거운 그림책이다.

헤어지는 피나에게 곰친구가 약속의 징표같은 도토리 하나를 쥐어 준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의 언약징표로 반지를 건네듯이. 피나는 돌아오는 길에 한 손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한 손에는 도토리를 쥐고 온다. 맛있는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생존을 같이 하자는 무언의 약속! 양손의 약속은 그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이다. 더불어, 작가는 숲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함께 주인노릇을 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 책의 그림들은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화려하고 빛난다. 연두색과 노란색을 주로 사용한 그림은 따스한 숲속의 봄을 잘 표현하고 있고, 한 올 한 올 섬세한 스케치는 곰의 복슬복슬한 털을 입체감 있게 잘 묘사하고 있다. 아이들의 순수한 이미지를 곰에 비유한 사랑스런 장면들이 따듯하고도 순수한 광채를 발한다.

궁디팡팡

이덕화 글, 그림. - 길벗어린이. 2019.
40p. : 삽화 ; 21*25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08.9 ㄷ87 v.81)
유아, 성인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마법의 주문, 궁디팡팡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괜찮아 괜찮아."

"토닥토닥 궁디팡팡."

작은 숲속 마을에 상처받은 마음을 낫게 해주는 '궁디팡팡 손'이 있다. 케이크를 떨어뜨려 엄마를 실망시킨 토끼도,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한 하마도, 엄마가 동생들을 더 좋아해서 슬픈 돼지도, 그림이 별로라고 놀림당한 소녀도 모두 '궁디팡팡 손'의 위로면 슬픔과 걱정이 스르르 사라진다. 그러던 어느 날, 각자의 이유로 위로 받고 싶은 친구들이 줄을 서서 '궁디팡팡 손'을 기다리지만 오지 않는다. 모두 실망해서 시무룩하고 훌쩍훌쩍 울고 있을 때, 사자가 먼저 머리가 부스스하다고 놀림 받는다고 털어놓자 주변의 동물들은 멋지기만 하다고 위로한다. 각자의 속상한 일들을 털어놓고 서로를 다독이자 모두들 '궁디팡팡 손'의 위로만큼 마음이 가벼워진다.

위로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표현한 것은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운 손뜨개와 수채화 느낌의 그림이다. 손뜨개로 귀여운 캐릭터들을 표현했으며, 수채화 느낌의 붓터치가 이야기를 더욱 세심하게 표현해준다. 이덕화 작가는 「뽀루뚜아 아저씨」의 그림으로 2010년 볼로냐국제어린이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었다. 「뽀루뚜아 아저씨」, 「100개의 달과 아기공룡」을 쓰고 그렸으며, 「거루로 쌤」, 「맨발로 축구를 한 날」의 그림을 그렸다.

슬픔과 고민들에 묻혀 아무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스스로 참고 견디는 것도 해결책이지만, 힘듦이 줄어들지 않을 때, 「궁디팡팡」은 주변을 둘러보고 사랑하는 사람의 공감과 위로를 얻으라고 조언한다. '궁디팡팡 손'이 해 준 일은 '너 힘들었구나'의 공감과 '괜찮아, 괜찮아.'의 위로가 전부였다. 이런 공감과 위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받는 것만큼 최고의 힘은 없다. 서로를 위로하는 '궁디팡팡'을 스스로에게도, 주변의 힘든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작은 것에 좌절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음챙김이 필요한 모든 어른들이 이 그림책의 '궁디팡팡'을 받고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마디마디에서 등을 밀어주고 때로는 등을 토닥여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지요.
내 등에는 분명 많은 따듯한 사랑의 손자국이 또렷이 찍혀 있을 겁니다." 「결국 못하고 끝난 일」, 요시타케 신스케. 2018. 中

그 나무가 웃는다

손연자 글, 윤미숙 그림. - 시공주니어. 2016.
42p. : 천연색삽화 ; 23 cm
아 808.9ㅅ194시(성남시 구미도서관)
유아~초등학교 저학년

소외감이 느껴질 때
유난히 힘에 부치는 하루



주는 즐거움이 주는 힘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그 나무가 웃는다.

나무가 웃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제목이다. 사과나무와 새 한 마리가 있는 싱그러움이 가득한 예쁜 표지의 책이다. 이 책의 삽화들은 자수 스티치 기법으로 패브릭과 자수가 주는 밝고 따뜻한 느낌이 있다.

책은 아픈 나무의 자기 비하로 시작된다. 죽을 둥 살 둥 새 잎을 틔워도 벌레들을 막을 수 없고, 모두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어떠한 노력도 하기 귀찮아진 나무. 그런 나무를 불쌍히 여긴 새 한마디가 외롭지만 따뜻한 편부가정의 가족을 나무에게로 이끈다. 아이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병에 걸린 나무를 불쌍히 여기고, 이에 마음이 아픈 아빠는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자 나무를 살릴 결심을 한다. 이 가족의 도움으로 나무는 예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살다 보면 누구나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 '난 안돼! 난 글렀어! 될 대로 되라지!'라고 마음먹으며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혼자 있을 때 나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누군가의 관심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꽃을 피울 힘을 얻는다. 가슴에 아픈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는 불시에 뛰어나와 매번 상처를 주지만 다른 사람과 나눈다면 상처는 그리 위협적인 상처로만 남게 되진 않는다.

어느 가을밤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나무는 고심 끝에 일곱 송이 하얀 꽃을 피운다.

봄에나 피어나야 할 것을 보고,
"우와, 나무가 웃는다! 나무가 웃는다!"
아이가 그 나무를 보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맘을 알았지?"
아빠가 가만가만 가지들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나무는 그제야 홀가분했습니다.

나무는 '저 이제 괜찮아요.' 하듯이 꽃을 피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덜어낸다. 서로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주는 관계, 이런 관계의 힘은 비단 받는 이뿐만 아니라 주는 이에게도 똑같이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다.

이 책은 참 착한 책이다. 곳곳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드러난다. 아픈 나무를 그냥 둘 수 없어 가족을 데려오는 새, 아프고 지저분한 나무에 벌레를 잡아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랑을 마냥 받기 미안해져 계절과 관계없이 꽃을 피워 웃음을 주는 나무, 모두의 웃음과 사랑으로 열린 사과를 함께 나눠 먹는 예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그 기운을 전달한다. 대화체의 글과 서정적인 우리말들, 반복되는 의성어로 마치 동시를 읽고 있는 듯하다. 눈으로 읽기보다 조곤조곤 낭독하면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그 말 내가 전할게

길상효 글, 송은경 그림. - 씨드북, 2019.
27p. : 삽화 ; 29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아 808.9 ㅅ812ㅆ v.111)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찾는 사람
엄마가 그리운 세상의 모든 사람



대신, 시간을 좀 주겠니?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빨간 전화기가 언덕 위에 하나 놓여있습니다. 넓은 들판에 놓여있는 전화기에는 연결선이 없네요. 빨간 머리의 소녀가 전화기에 다가갑니다. 수화기를 잡기도 전에 "엄마"를 부르는 소녀가 유선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 내가 전할게」 그림책은 '바람의 전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뒤 이와테현의 작은 언덕에 전화기 한 대가 놓여있게 됩니다.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 전화기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그 전화기를 '바람의 전화'라고 부르며 찾고 있답니다. 모티브가 된 '전화'에 대한 글을 읽고 다시 그림책을 보면 아이의 표정이 변화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끊어진 전화선이 말해주는 엄마의 부재는 소녀의 말 속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은 아이의 심정을 어루만져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짧았던 단발이 길어 아이의 예쁜 원피스에 닿아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걸까요? 전화기 옆에서 서성이던 아이는 여러 경험을 하며 한층 성장해 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극복한 걸까요?

글쓴이 길상효는 「점동아, 어디가니?」, 「김치 가지러 와!」, 「최고 빵집 아저씨는 치마를 입어요」, 「해는 희고 불은 붉단다」, 「골목이 데려다줄 거에요」 등을 저술하였으며, 「선생님 기억하세요?」 「꿈 배달부 톨리」, 「둥지 아파트 이사 대작전」 등을 번역한 작가입니다. 엄마와 떨어져 사는 아이의 이야기를 담담하지만 사실적으로 서술한 이 그림책은 송은경 작가의 따뜻한 그림이 겹쳐져 너무 우울하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나뭇잎이 전해준다는 아이의 소식은 어떤 여정을 거쳐 엄마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를 그리워하는 성인 모두에게 "그리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 내가 전할게」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날, 사랑하는 아이에게 그림책의 뒷장에 쓰여진 작가의 말을 읽어주세요.

"아프다고 용기 내어 속삭인 그 말을 바람이 싣고 갈 거예요. 꽃가루를 날리고, 장맛비를 뚫고, 가을 이파리들을 거두고, 눈보라를 안고 가느라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커다란 아픔이 언젠가는 아물 거예요. 바람의 손길, 시간의 손길에"



기계일까 동물일까

레티시아 드베르네 지음, 시아 옮김.
- 보림, 2017.
유아부터 초등 전학년

자연을 관찰하기 좋아하거나,
상상하기 좋아하는 어린이 모두



기계와 동물

이은주
(남양주시 사서)

동물들이 자기랑 닮은 기계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비행선, 카누, 소방차, 낙하산, 비행기, 굴착기, 기중기, 잠수함, 곤돌라, 열기구, 오토바이, 스쿠터, 행글라이더, 정크, 전차, 지하철, 스텔스기, 청소차, 기차, 헬리콥터, 인력거, 로켓을 우리가 아는 동물과 연결 지어본다면 어떤 동물들이 떠오를까?

이 떠올림의 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이 책을 강하게 권하고 싶다.

이 책은 이런 상상놀이를 종일이라도 할 수 있는 신나는 놀이책이자, 아름다운 색의 조화를 감상케 하는 명화그림책이다.

'기계일까 동물일까'의 첫 페이지를 열면 입과 눈이 동시에 '우와~' 환호하는 걸 느끼게 된다. 그리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 친근한 글씨체의 글을 보게 된다. '비행선'에 대한 설명글이다. 당연히 비행선에 대한 친절한 안내글을 상상하고 읽어가는데 비행선이 공기보다 가볍단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단다? 지느러미랑 비행선이랑 무슨 관계일까? 글은 기계인 비행선을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행선과 비슷하게 생긴 고래를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한 면 가득 채워진 화려하고 진중한 그림은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게 한다. 고래가 비행선이 된 것이다. 그림 속 고래는 바다 속인지 하늘인지 모를 파란 공간을 날고 있다. 그제야 '아, 그래서 제목이 「기계일까 동물일까」이구나!' 한다.

첫 페이지의 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다.

'아주 아주 거대하지만 공기보다 가벼워요. 양쪽의 지느러미가 프로펠러인 이 하늘의 거인은 봄의 노래를 부르며 우아하게 하늘을 납니다.'

글과 그림을 번갈아 보면서 배가 불룩한 하얀 고래가 봄날 하늘을 나는 것을 상상한다. 몸집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지느러미가 프로펠러가 되어 열심히 돌아가는 걸 상상하게 된다. 풋! 웃음이 절로 난다. 그리고 그림 속 고래의 어이없어 보이는 표정을 발견하면 고래가 결코 노래하면서 나는 것 같지 않아 풋! 다시 웃음이 난다. 솔직히 그림 속 고래의 눈은 자신이 비행선이 되어 하늘을 날고 있는 상황이 기뻐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글과 그림과 독자의 생각이 어우러져 한번 펼치면 쉽게 덮어질 것 같지가 않다.

다른 면을 다시 볼까?

일부러 그랬을까? 22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22종류의 동물과 곤충은 자신이 기계처럼 보이기 위해서인지 연출이라도 하듯 눈을 비롯한 표정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하는 작가의 의도를 고민해 보는 재미도 있다.

멸종위기의 동물들도 더러 나오는데, 이 동물들을 위한 배려와 그들을 소중히 대접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진중한 경고인지도 모르겠다.

이 책의 매력을 한 두 가지로 말하고 그치기는 쉽지 않다. 그림을 가리고 글을 읽었을 때는 글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해보는 시간으로도 흥미롭고, 그림을 보고 있으면 더 '아하,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하는 작가의 은유적 발상을 만끽하게도 한다.

이 그림책은 동물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동물이야기로, 동물의 특성과 기계의 특성을 연결 지을 힘이 있는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는 내내 '원 플러스 원'의 풍족함을 갖게 될 것이다. 어른도 선뜻 '갖고 싶은 책'이 된다. 또한 자연에서 생의 아이디어를 얻게 하여 생각의 틀을 깨는 힘을 키워주는 책이다. 이 책을 읽은 아이라면 인류의 각종 의복의 디자인과 색상들은 자연 속 누구랑 닮았을까? 를 확장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튼튼한 갑옷은 장수하늘소에서, 엄마의 아름다운 치마는 7월의 능소화에서 라고 말할 수는 관찰력과 바깥활동으로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겠다.

볼수록 매력 있는 이 책은 보림콜렉션 시리즈의 15번째 책으로 1982년에 태어난 레티시아 드베르네 작품이다. 작가는 2011년 Diapasson이라는 그림책으로 〈볼로냐 라가치 상〉을 수상한 페이퍼커팅의 대가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긴 여행

프란체스카 산나 글·그림, 차정민 옮김.
- 풀빛, 2017.
김포시 장기도서관 아동808.9-풀48그-62
초등 고학년 이상

난민에 대해 알고, 평화로운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추천합니다.



평화를 향한 여행

조연수
(김포시 장기도서관 사서)

'난민'문제가 요즘 사회적인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종, 정치 혹은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해 고국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에서 종종 접하곤 합니다. 여기 평화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긴 여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주인공의 가족은 바다가 가까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 도시에서 일어난 전쟁은 행복도, 아빠도 앗아갔습니다. 엄마의 친구의 조언으로 주인공의 가족은 전쟁이 없는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출발하여 여러 날을 달렸습니다. 가는 동안 짐도 계속 줄여야했습니다. 국경 앞에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 벽을 타고 넘어야 했습니다. 국경 경비원들이 가족을 추적해 오자 엄마는 한 아저씨에게 돈을 줬습니다. 아저씨는 가족들이 국경을 넘게 해주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작은 보트에 타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여러 날을 달리고 달려 여러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차창 밖으로 날아가는 새들을 보았습니다. 새들처럼 안전한 보금자리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책의 주인공 가족처럼 난민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8년 5월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들을 기억하시나요? 난민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함께 알아가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난민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평화로운 삶과 더 나은 삶을 함께 영위하기 위한 변화의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 책은 작가가 이탈리아 난민 수용소에서 만난 두 소녀의 이야기에서 느낀 생각을 담은 실제 난민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탈리아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첫 번째 책입니다. 책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작가의 뛰어난 그래픽 감각이 돋보입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가 특히 아름답습니다.

2017년 국제 앰네스티 추천도서이며, 2017년 어린이도서관서비스협회(ALSC)선정 주목할 만한 책, 2017년 미국청소년도서위원회(USBBY) 선정 탁월한 어린이책, 2016년 뉴욕 타임즈 선정 가장 유명한 어린이 책, 2016년 미국 학교도서관저널 선정 최고의 그림책, 2016 뉴욕 공공도서관 선정 최고의 어린이책 등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권에 대해 알려 주는 좋은 그림책입니다. 난민에 대해 알고, 평화로운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은 초등 고학년 이상 어린이들에게 추천합니다.



나무늘보야, 어디 가?

오무라 도모코 글 그림, 고향옥 옮김.
- 시금치, 2018.
32p. : 삽화 ; 28cm.
안성시 중앙도서관 (유833.8 오36ㄴ)
유아



물놀이는 즐거워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여러 동물 중 대표적으로 게으른 동물로 나무늘보를 들 수 있다. 나무늘보는 움직이기를 무척 싫어하고 하루 평균 18시간 정도 나무에서 잔다고 한다. 이 책의 주인공은 나무늘보이다. 웬만해선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는 나무늘보에게 날씨가 너무 덥다.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가기로 한 나무 맨 위에 사는 나무늘보.

워낙 느리다 보니 나무늘보보다 늦게 물놀이 하러 출발한 독수리, 날다람쥐, 원숭이에게 뒤처진다. 연못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던 나무늘보는 언제 연못에 도착할 수 있을까? 나무열매를 따려다 미끄러져 순식간에 연못에 풍덩 빠져 생각보다 빨리 친구들과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다. 어느덧 저녁이 되자 친구들은 나무 위 집을 찾아 벌써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할 나무늘보는 천천히 움직인다. 워낙 느린 나무늘보는 한밤중에나 나무 맨 위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텐데 코끼리의 도움으로 한 번에 집에 돌아온다. 나무늘보는 느리지만 나무에서 미끄러져 쉽게 내려오고 코끼리의 코로 한 번에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다.

"나무늘보야 어디가?", "물놀이 하러 가", "우리도 가자"와 같은 대화가 반복적으로 나오며 전체적으로 나무늘보가 나무에서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그림이다. 그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기둥과 나무늘보의 행동을 주로 그렸으며, 나무 옆으로는 하늘색으로 배경을 그렸다. 그림 중 코끼리가 긴 코에 나무늘보를 놓은 장면만 나무 그림이 없다. 코끼리 코로 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은 세로로 더 길게 종이를 펼쳐서 앞에서 나온 나무 전체를 한 번에 보게 한 그림은 이 그림책의 절정을 보여준다. 긴 그림에 "슈~융"이라는 글자만 나오지만 나무에 같이 살고 물놀이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 벌써 집에 가 있으며 나무늘보가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모두 놀라 바라보는 그림이 글을 잘 보충하여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림 속 동물들의 표정은 글이 표현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 책은 키 큰 나무에 함께 사는 동물들과 긴 나무를 그리기 위해 세로로 긴 판형이다. 국내 소개된 일본 그림책으로 세로로 긴 판형이면서 인기있는 다른 책으로 「100층짜리 집」 시리즈(이와이 도시오 지음, 북뱅크), 「나무는 변신쟁이」(나가사와 마사코 지음, 비룡소)가 있다. 반복적인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의 즐거움을 더하며 유아들에게 읽어주기 좋은 책이다.

나미타는 길을 찾고 있어요

마르 파본 글, 마리아 히론 그림, 엄혜숙 옮김.
- 풀과바람. 2016.
37p. : 천연색삽화 ; 29cm
김포시 장기도서관 특화 859.3파45나
초등 고학년 및 청소년

여성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은
어린이 및 청소년



길을 찾는 소녀들에게

조연수
(김포시 장기도서관 사서)

나미타라는 소녀를 통해 여성들의 선택과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나미타는 자기 자리를 찾고 싶어하지만 잠자리를 정리하라는 엄마, 점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할머니, 동생을 돌보라는 아빠, 심부름을 시키는 아주머니, 학교에서 교실을 청소하라는 할아버지까지 나미타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일만 시킨다.

그러던 어느 날 식구들이 모여 나미타에게 네 자리는 여기고, 안노의 아내가 되라고 한다. 나미타는 '싫어요'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가족들은 어떤 권리도 나미타에게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미타도 이번에는 가족들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다. 책은 나미타에게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주고,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도록 도왔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하루 12~14시간씩 일하면서도 선거권,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등의 기본적인 권리도 갖지 못하자 대대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그 이후 여러 움직임의 확산으로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여성인권은 과거에 비해 훨씬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차별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여성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본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건강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길을 찾는 모든 소녀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 주체적인 여성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책을 권한다.

푸른 배경에 아름다운 흰 꽃이 가득 핀 나무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는 표지 속 소녀. 마치 새벽의 푸르스름함이 조금 두렵지만 설레는 시작이라는 느낌을 준다. 특히 하늘 높이 달 가까운 자리에 앉은 모습은 새장을 벗어나 꽃보다 아름답게 피어날 소녀의 미래를 그린 것 같다. 이 책은 '억압당하는 곳에서 살며, 그들에게 주어진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위해'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끝…(사실은 여기가 바로 시작이에요.)'라는 문구로 마무리되어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 책은 소녀의 자기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 간결한 문장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잘 표현되었다. 스페인 만레사에서 태어난 마르 파본이 글을 쓰고,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마리아 히론이 그린 책이다. 초등학생 고학년 및 청소년에게 추천한다.



나의 초록 스웨터

엄혜숙 글, 권문희 그림. - 키다리. 2019.
40p. : 삽화 ; 24cm.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813.8 엄94ㄴ)
초등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선물,
1970-1980년대 생활이야기



엄마가 짜주신 입학선물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작가의 어렸을 적 경험을 담은 이야기이면서 키다리출판사의 이야기 〈별사탕 시리즈〉 중 한 권이다. 이야기 별사탕시리즈는 현재 총 12권으로 1970년부터 1980년대의 생활모습을 배경으로,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부모와 함께 읽고 소통하는 생활 그림책이다. 이 책은 오래전 국민학교 입학을 주제로 한다. 작가 소개에는 "겨울이면 늘 엄마 손에는 털실과 뜨개바늘이 있었어요. 초록 스웨터와 1학년 되기를 기다리던 마음이 늘 함께 생각나요"라는 글이 있다. 소개 글을 보면 이 책의 제목이 왜 「나의 초록 스웨터」 인지 유추할 수 있다.

1월에 취학통지서를 받고 2월에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한 가정이 나온다. 눈 내린 겨울날 눈을 치우고 밖에 나가서 놀다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따듯한 난로 옆에서 뜨개질을 하신다. 첫째의 입학을 준비하며 엄마는 주인공이 좋아하는 초록색 털실을 사서 따뜻하라고 목까지 오는 스웨터를 짜준다. 현재와는 많이 다른 1970년과 1980년대의 겨울나기, 입학을 위해 새 구두, 가방, 학용품을 준비하고 이름 쓰기를 연습하기,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입학식 하는 모습 등 그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그림 속에서 의상, 가구, 집 내부 등을 통해 그 시대의 삶을 알 수 있으며, 책 속 달력의 날짜 그림으로 시간의 흐름도 표현하였다. 책의 마지막에는 부연설명으로 "손뜨개질 그리고 학교 입학"에 대한 설명이 있어 이 책의 두 가지 중요 주제를 다시 상세히 설명한다.

책 표지에 초록색 스웨터를 입고 책 가방을 매고 있는 여자 주인공의 웃는 모습을 그린 권문희 그림 작가는 「줄줄이 꿴 호랑이」, 「깜박깜박 도깨비」 등 옛이야기 그림책이 있다. 이 책과 같이 입학식을 다룬 송언 작가의 「(오늘의 일기) 학교 가는 날」과 함께 비교하며 읽어보면 좋겠다. 「(오늘의 일기) 학교 가는 날」은 오래 전 국민학교 입학식을 앞둔 남자 아이 구동준과 현대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앞둔 아이 김지윤 등 두 주인공이 대비하여 이전과 달라진 입학식을 설명한다. 구동준의 이야기는 이 책의 주인공과 비슷한 상황이다.

어린이나 학부모에게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설레이는 일이다. 입학식을 앞둔 설레이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으며 뜨개질을 소재로 엄마의 자녀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 이야기 별사탕 시리즈 세트(전12권)
나의 초록 스웨터
편지 할머니
1982 야구소년
이야기 별사탕 시리즈 세트
도시락 도둑
연탄집
머릿니 전성시대
엿서리 특공대
똥통에 풍덩
달빛 기차
으악, 쥐다!

나의 초록색 가족

토마 라바셰리 지음, 김지애 옮김.
- 씨드북, 2018.
김포시 장기도서관 아동808.9-씨27ㅌ-30
6세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

입양에 대해 알고, 생각해보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새로운 가족

조연수
(김포시 장기도서관 사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입양 아동 수는 378명, 국외 입양 아동 수는 303명입니다. 2008년 이전부터는 국외입양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양에 대해 어린이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작가가 입양된 동생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쓴 그림책입니다. 입양 아동의 입장에서 자신의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 합니다. 주인공은 살던 지구를 떠나 초록색 가족에게 입양됩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 곳으로 말입니다. 새로운 이름도 생겼습니다. '구굴 구덕'이라는 이름입니다. 주인공은 이곳 사람들이 하는 말도 배우고, 생각들도 배웁니다. 일 년이 216일인 이 행성에서 주인공은 어엿한 숙녀가 되어 해양대학교에 진학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살던 나라나 지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은 지금, 초록색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초록색 가족」이라는 제목처럼 이 책은 초록색을 기본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표지를 살펴보면, 키도 크코 귀도 뾰쪽하고 팔도 네 개인 아빠, 엄마, 오빠 사이에서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주인공에게도, 읽는 이들에게도 이 초록색 세상은 다소 낯설지만 책을 읽다보면 아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주인공이 새로운 가족과 세상에 적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나 만화가, 미술사학자, 영화 제작자, 다큐멘터리 작가, 앨범 제작자,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온 토마 라바셰리 작가는 이 책으로 2018년 〈벨기에 프랑스어 공동체 어린이 문학〉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제14회 입양의 날 표어는 "입양,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책은 그 시작입니다. 입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책을 통해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입양을 선택한 이들을 지지하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함께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6세 이상 어린이부터 입양에 대해 알고,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이들에게 권합니다.

납작한 토끼

바두르 오스카르손 지음, 권루시안 옮김.
- 진선아이, 2019.
30p. : 천연색삽화 ; 25 cm.
성남시 판교도서관 (유859.8ㅇ392ㄴ)

주변인의 아픔을 스쳐 지나간 사람
자녀의 상상력이 궁금한 부모
세상살이가 각박하다고 느껴질 때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난 납작한 토끼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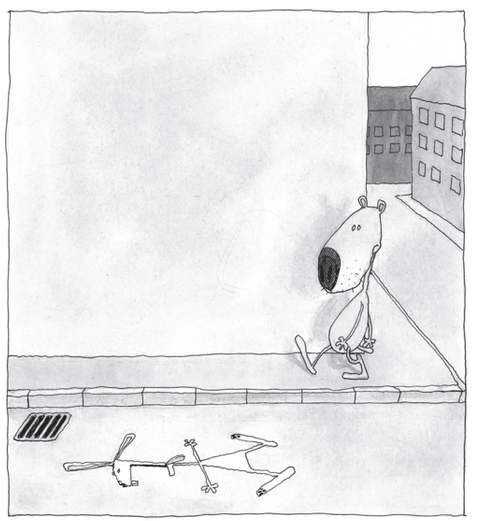
어느 날 길을 가던 개는 도로에 누워있는 납작한 토끼를 보게 됩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쥐 한 마리가 나타나고 이제 둘은 함께 토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토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곧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이 책은 두 주인공 개와 쥐의 행동을 따라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납작해져서 혀까지 빼고 누워있는 토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주인공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마치 토끼는 원래부터 종이처럼 마른 상태로 누워있었는듯 토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듯 토끼의 그림이 잔인해 보이거나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개와 쥐처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토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 바두르 오스카르손은 페로제도에서 태어났으며, 작가, 삽화가, 미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그림책인 「개와 고양이와 쥐」로 2006년 〈북서유럽 아동청소년 문학상〉을 받았으며, 작품 「나무」로 2018년에 〈북유럽 아동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납작한 토끼」로 저자 강연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가의 그림 속 개, 쥐 그리고 납작한 토끼의 모습은 어설프기 그지없습니다. 개와 쥐는 눈이 삐뚤빼뚤하고, 누워있는 토끼는 눈을 부릅뜨고, 혀도 내밀고 있어 여느 그림책의 캐릭터들처럼 귀여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눈여겨볼 것은 작가가 개와 쥐의 모습에는 늘 그림자를 그린다는 점입니다. 그림자가 이들의 동선을 따라 그린 탓에 그림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많은 추측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이 그림책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성인들에게는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타인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읽는다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다면 이미 납작해져 버린 토끼를 위해 머리가 쥐가 나도록 노력했던 개와 쥐처럼 어떤 기발한 행동을 상상해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작가가 그림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정확한 결과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들을 소개할게

엘레나 아그넬로 글, 아드리 르 루 그림, 강이경 옮김. - 머스트비, 2016.
김포시 장기도서관 아동843.6-아17내-강
6세 이상 어린이~성인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싶은 어린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향하여

조연수
(김포시 장기도서관 사서)

"피부색 때문에, 배경 때문에,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하는 걸 배웁니다. 미워하는 걸 배울 수 있다면, 사랑하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펼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의 말을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따뜻하게 표현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메시지는 책의 주인공 알렉스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생일의 주인공인 알렉스가 소개하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둘인 친구, 코란 구절을 읽어주는 아빠를 둔 친구, 아기 때 사고를 당해 휠체어를 타게 된 친구, 엄마와 살고 교회에 다니는 친구, 사리를 입는 할머니와 인도의 전통춤을 가르쳐주는 엄마를 둔 친구까지. 책을 읽고, 책표지를 다시 살펴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민트색 배경에 다양한 케이크, 다양한 음식,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알렉스의 생일에 온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문화, 사상, 국가 등 개인별로 다양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른 사고를 존중하고, 문화를 배려하며 공존해야 하는 시대 속에서 말입니다. 글을 쓴 엘레나 아그넬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나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열정을 지니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모든 이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 책을 읽는 어린이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보다 더 많은 다양성을 만납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어린이들이 사회에서 다양성을 접할 때 다른 점보다 공통된 점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편견이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다름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함께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문화를 어른들이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행복을 나르는 버스」, 「하늘의 별부터 바닷속 물고기까지」, 「사랑에 빠진 토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다르면 다 가둬!」, 「분홍 모자」, 「너는 어떤 씨앗이니?」, 「나는 본다」 등의 책들도 함께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내가 보여?

박지희 지음. - 웅진주니어. 2019.
23p. : 천연색삽화 ; 19 x 24 cm
성남시 판교도서관 (유808.9ㅂ94)
세상의 모든 초등학생

친구도 있고, 학교생활도 무난히 견디는 평범한 초등학생



응, 우리는 네가 보여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내가 보여?」 그림책의 표지에는 많은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리코더 부는 아이, 뜨개질하는 아이, 브이를 하며 한 곳을 응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그림들은 평소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얀 구멍이 뻥 뚫려있고 그 안에 책의 제목 "내가 보여?"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독자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책 표지 덕분에 책을 펼치기 전에 어떤 내용일지 잠시 상상하게 됩니다.

「내가 보여?」는 제1회 웅진주니어 그림책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으로 한 장, 한 장 속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글이 작가가 표현한 그 상황대로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는 글쓴이와 그린이가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일 것입니다.

투명하게 표현된 영우의 모습은 떨어진 친구의 지우개를 주워주면서, 그리고 넘어진 친구의 손을 잡아주면서 점점 진하고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그 후로 같은 반 친구들 앞에 점점 뚜렷한 형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영우와는 다르게 친구들은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존재를 인식하고 바로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이에 당황한 영우를 위해 한 친구가 꾀를 냅니다. 그리고 독자의 예상대로 해피엔딩으로 책이 끝나게 됩니다.

책의 줄거리를 책 표지에서 단 한 번에 표현했지만, 영우와 친구들이 서로 마음을 열게 되는 장면에서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글 속에 나타난 주인공은 마치 왕따 혹은 은따를 당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영우는 단순히 소심한 아이였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글쓴이는 소심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조금씩 다가갔고, 같이 다가갈 수 있는 상냥함을 친구들이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듯 저자의 의도를 알고 나서 책을 읽으면 숨어있던 의미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아쉬운 점은 제목과 내용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명만 보면, "내가 보여?"는 마치 주위에 사람이 있는 데도 일부러 그 사람을 모른 척 지나쳤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소위 말하는 왕따나 은따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혹은 유령 내지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작가의 의도를 나타내는 제목은 "영우의 용기나 표현"과 연관되어 있다면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우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읽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학급 안에 소심하거나 지극히 내향적인 성향으로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너, 그러다가!

홍하나 글, 그림. - 아이앤북. 2019.
34p. ; 26 cm
수원시 희망샘도서관(아 813.8-홍92ㄴ)
유아, 부모님

생활습관, 태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김현진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세대를 거쳐 모든 부모에게 공감을 사는 말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바른 행동을 하기까지, 뒤에서 부모님의 피나는 노력이 이어진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은 협박이다. 신나게 놀고 와서 꼬질꼬질한 아이에게 '너 그러다가, 까마귀가 와서 형님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까마귀가 아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형님으로 모신다. 이어진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황소, 나무늘보, 그리고 청개구리까지 아이를 형님처럼 모시는 아우들이 따라온다.

표지와 본문은 전체적으로 파란 물감으로 어우러져 이야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준다. 앞표지의 까마귀를 닮은 새까만 아이 얼굴은 순수한 고집을 익살스럽게 표현한다. 뒤표지에 그려진 동물들은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면지에는 진한 파랑색 배경에 아이의 발자국이 하얗게 찍혀있다. 잘못된 행동인 걸 알면서도 주체하지 못하는 듯, 면지를 넘기면 아이는 뒤따라오는 까마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엄마에게 혼이 났어도 유쾌해 보이는 아이와 동물들의 표정은 장난기가 넘치는 아이의 순수한 내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억센 고집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흔적들 하나하나가 앙증맞게 표현되어 있다. 형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어지르는 행동을 하는 동물들을 살펴보자. 마치 범행을 저지르는 동료를 하나씩 모아가듯, 그 수가 늘어날수록 행동이 대범해진다.

"까마귀가 늘보가 황소가 청개구리가 형님 좀 하면 어때? 좋기만 하구만."(p.18~20)

엄마에게 도발하듯 더욱 고집을 부리는 아이. 계속 어지르고 고집을 부리다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바로 동물 아우들이 자신보다 더 지나치게 난동을 부리기 때문이다. 마치 부모님이 바라본 아이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싶다.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눈을 떼면 그 뒤에서 사고 치는 아이들. 마치 자신을 보는 부모님처럼, 아이는 엄마의 입장을 어렴풋이 알게 된다.

이 책에서 표현된 시간은 아이가 집에 돌아와 씻고 밥을 먹기 전까지의 짧은 순간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일이 벌어진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면서도 마치 아이가 옆에서 정신 사납게 방해하는 것처럼 그림책이 온통 시끄럽다. 하지만 그 행동이 마냥 밉지만은 않다. '안 된다'는 부정의 말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듣게 된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성실하게 실천하는 아이의 모습은 통쾌해 보이기까지 한다. 답답한 일에 부딪힌 상황이라면 아이의 행동이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 청개구리처럼 구는 아이의 고집을 맞닥뜨리게 된다. 몇 번을 말해도 반복학습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무릎에 앉혀놓고 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함께 읽어보자. 아이의 미운 행동이 마냥 밉지만은 않게 느껴질 것이다.

너의 마음은 하늘과 같아

브론웬 발라드 글, 로라 칼린 그림, 이재석 옮김.
- 뜨인돌, 2019.
35p. : 삽화 ; 23*29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43.6 ㅂ622ㄴ)
유아, 성인

기분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싶은 어린이
아이들에게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부모

마음 다스리기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나에게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두려운 일도 외로운 일도 상처받을 일도 매순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해나가는 각자의 속도는 다르다. 멘탈이 강하다고 표현하거나 자존감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은 수월하게 느껴진다. 상황에 집중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에 대해 알려주는 그림책이 있다.

「너의 마음은 하늘과 같아」는 어린이들에게 마음챙김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는 그림책이다. 마음은 맑고 푸른 하늘이 될 수도, 잿빛을 띠는 하늘이 될 수도 있다. 생각도 구름과 같아서 멋진 생각이 둥둥 떠다니기도 하지만, 어둡고 심술궂은 비구름 생각이 밀려올 때도 있다. 비구름 생각을 무시하기도 싸우기도 해보지만 더 깊고 긴 슬픈 생각 속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럴 땐 비구름 생각을 인정하고 차분히 이해해보는 것이 상황이 나아지게 돕는다고 알려준다.

비구름 생각이 머릿속에 밀려들면 이렇게 말해 봐.

"아, 비구름 생각이 또 찾아왔구나."

그러고는 흰 구름처럼 폭신폭신한 다른 생각들도 있다는 걸 떠올리는 거야.

비구름 생각은 단지 네가 떠올리는 수백, 수천 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그걸 알아차린 다음에는 비구름 생각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그냥 놓아두면 돼.

이제 너는 선택할 수 있어. 이들 가운데 어떤 생각에 관심을 둘 지를 말이야.

심리학자인 저자 브론웬 발라드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마음챙김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쓴 그림책으로 로라 칼린의 따뜻하고 섬세한 그림체가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도와준다. 이야기가 끝난 후 아이들과 직접 해볼 수 있는 마음챙김의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 부모님도 함께 읽어보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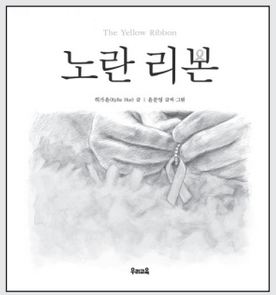
연약한 자아를 극복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친절해져야 한다. 그리고 나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고, 내 안의 소리와 감정을 받아들이는 마음챙김을 연습해보면 좋을 듯하다. 소라게의 하루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인 「마음조심」(윤지. 2017)도 함께 읽어보고 위로받길 바래본다.



노란 리본

허가윤 글, 윤문영 글씨, 그림. - 우리교육. 2017.
40p. : 삽화 ; 27 cm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아813.8허12ㄴ)
어린이부터

노란리본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



벚꽃의 계절에 다시 보는 그림책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우리 도서관 옆에는 황구지천이 흐른다. 황구지천 가에는 매년 4월이면 벚꽃이 흐드러진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동안 장관을 연출하는 풍경에 오갈 때마다 눈길이 갔다. 점심시간에 산책을 나가면 평소엔 한산하던 길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다. 곳곳에 서서 누구는 포즈를 잡고 누구는 휴대폰을 들고 찍어주기에 여념이 없다. 아름다운 풍경을 눈앞에 두고 마음 한 쪽이 묵직해진다. 벚꽃의 계절이면 노란색의 감정은 더욱 짙어진다.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5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노란 리본」은 만들어진 과정이 특별하다. 책의 내용은 앨범을 녹음하고 텔레비전에 출연할 정도로 노래에 재능이 있는 저자 허가윤이 고등학생 때 만든 노래이다. 참사 당시 중학생이던 저자는 시간이 흘러 자신이 희생당한 친구들의 또래가 되었을 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고 피아노를 직접 연주해 부른 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외할아버지이자 삽화가인 윤문영의 손글씨와 그림을 만나 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인터넷 헤럴드경제 2017-08-29 참조).

앞표지에는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누군가의 손이 그려져 있다. 표지를 넘겨서 처음 만나는 장면은 두 쪽에 걸쳐 꽉 차게 그려져 있는 수채화 느낌의 노란 배이다. 배에는 하얀 리본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Remember 20140416' 이라는 익숙한 문구가 보인다. 시야를 가득 메우는 노란색이 주는 인상은 강렬하다. 노란색은 여러 가지 모양과 톤으로 그림책의 분위기를 이어간다. 바닷가에 서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을 기다리는 이의 우산이, 바람에 나부끼는 기다란 천리본이, 침몰해가는 배를 지켜보는 하늘의 태양이, 주인 잃은 책상들이 놓인 교실에 걸려 있는 커텐이, 교복 입은 학생의 책가방에 달린 리본이 되기도 했다가 촛불을 들고 있는 어린 아이의 머리 위로 떠가는 풍선들이 되기도 한다.

뒷부분에는 '노란리본을 달아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해요'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실려 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란 리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마지막 장은 점선을 따라 잘라서 엽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책장을 덮으면 뒤표지에 다시 한 번 노란 리본에 담긴 약속 세 가지를 강조하는 문장이 보이는 것으로 내용이 끝난다.

참사를 직접 겪은 이들과 희생자의 가족들과 그걸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5년이 지났어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아픔인 것이다. '화인'(도종환 작사, 백사 작곡)의 가사처럼 "평생 남아 있을 아픔, 죽어서도 가지고 갈 이별"인 것이다. 노란 팔찌를 손목에 다시 끼우며 기억의 약속을 되새겨본다.

노란 리본을 왜 다는지 궁금해하는 아이 앞에서 뭐라 설명할지 몰라 말문이 막힐 때 「노란 리본」은 함께 읽어보기에 좋은 그림책이다.

누가 진짜 나일까?

다비드 칼리 글, 나선희 옮김. - 책빛. 2017.
김포시 장기도서관 (아동808.9-책48모-1)
초등 고학년 이상

바쁜 현대인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당신 안의 '인간'은 안녕하신가요?

조연수
(김포시 장기도서관 사서)

표지가 똑같습니다. 표지의 앞과 뒤가 같은 사람입니다. 자세히 표지를 봅니다. 같은 모자를 쓴 남자인데 앞표지 남자는 뒤표지 남자를 흘깃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 뒤표지 남자는 힘없이 정면을 응시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가 진짜 나일까'입니다. 쌍둥이처럼 똑같은 이 신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주인공 자비에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수량을 계산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내내 일해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날 시간도, 영화관에 갈 수도, 엄마의 안부를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비에는 샤르도네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미용실 같은 곳에 자비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욕조에 맨몸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 덕분에 긴장이 풀리고, 그는 휴가를 어디 갈 지 생각하다 결국 샤르도네 사장을 힘들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욕조 밖으로 나오니 놀랍게도 자비에의 완벽한 복제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 복제인간은 자비에의 집에서 책을 읽고, 자비에는 그 날 공원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른 공장 직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자비에는 자신이 복제인간인지 집에 있는 복제인간이 진짜인지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바다로. 크레이프를 파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복제인간이 있어서 나의 업무를 대신하고, 나는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상상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시대



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비에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와 개인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등 말입니다. 바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영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제도적인 개선과 개인들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글을 쓴 다비드 칼리는 25개국에 30개의 언어로 책이 출간될 만큼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2005년 〈바오밥 상〉, 2006년 〈볼로냐라가치 스페셜 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림을 그린 클라우디아 팔마루치는 첫 번째 작품인 「La rosa」로 2011년 〈CJ 그림책 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 〈볼로냐 라가치 상〉 오페라 프리마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과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누구 손잡을까?

튀버 벨트캄프 글, 바우터르 튈프 그림,
유동익 번역. - 국민서관. 2019.
32p. : 삽화 ; 21*28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08.9 ㄱ512 v.220)
유아, 성인

**호기심과 모험심이 부족한 어린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어른**



호기심 많은 아빠 찾아요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어린이의 궁금증은 무궁무진하다. 즉석에서 먹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고도 싶지만, 어른들은 계획대로 안전하게 일정을 끝내고 싶다. 안나는 아빠에게 동물원의 원숭이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빠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야 한다며 거절한다. 마침 동물원에 가고 있는 소년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 아빠의 손을 바꿔 잡는다. 또 동물원 가는 아빠 손에서 원숭이를 보러가는 아빠 손으로 바꿔 잡는다. 마지막으로 원숭이 아빠의 손을 잡게 된다. 호기심이 많은 원숭이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지나 온 모든 아빠의 손을 거쳐 진짜 아빠와 함께 무사히 저녁식사 시간에 집에 도착한다.

「누구 손잡을까?」는 네덜란드의 어린이책 작가인 튀버 벨트캄프의 최근작으로, 2018년 네덜란드도서진흥재단(CPNB)에서 최고의 어린이책에 수여하는 '실버-펜상'을 수상했다. 작가는 이 책으로 '실버-펜상'을 총 4회 수상했다. 그림작가는 네덜란드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이자 '픽사'의 애니메이터인 바우터르 튈프로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로 캐릭터들의 발랄함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한마디로 위트가 넘치는 책이다. 모험을 떠난 주인공의 이야기와 가족 간의 단절을 일깨워주는 설정에, 중간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는 재미가 더해진다. 손을 잡아끄는 여러 손들과 아이가 바뀐 것을 안 아빠들의 동일한 포즈 등 생동감 넘치는 일러스트와 알록달록한 색감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하다.

핸드폰만 하거나 음악을 듣고 있어 손 잡은 아이가 바뀐 줄도 모르는 아빠이지만,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 원숭이가 가져간 아빠의 모자를 쓰고 동물원을 즐기는 안나와 안나의 집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아빠와 함께 하고 싶은 아이의 바람이 느껴진다.

네덜란드어로 「손(Handje)」이 원제인 이 책은 '손'이 안전한 가족과의 연결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연결된 만남과 도전을 의미한다. 안정된 틀 안에 머무르기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어린이들은 자립심과 도전정신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에게 관심 가져 줄 호기심 많은 아빠들이다. 아이들에게 눈을 떼는 순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순간, 가족의 식탁에 누가 앉아있을지 아빠는 깨달아야 한다.



눈

박웅현 글, 차승아 그림. - 비룡소. 2018.
김포시 장기도서관 (유아 808.9-비295차-64)
6세 이상 어린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모든 이들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조연수
(김포시 장기도서관 사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고인이 그림책을 쓴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책은 도끼다」의 저자, 박웅현 작가의 첫 번째 그림책 「눈」은 모두가 주인공인 다섯 친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란 토끼가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노란 토끼는 마음씨가 예뻤지만 하얀 토끼 친구들은 노란 털이라며 놀려댔습니다. 추운 겨울, 펑펑 내린 눈 때문에 토끼들은 숲 속에서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란 토끼는 친구들 몰래 먹을 것을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노란 토끼는 달님께 빌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게 길을 밝혀 달라고 말입니다. 노란 토끼는 달님의 도움으로 땅 속 홍당무를 찾아내 하나씩 동네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홍당무를 나르던 노란 토끼는 너무 지쳐 홍당무 옆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깬 노란 토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곳은 달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달나라에서 노란 토끼는 친구들이 홍당무를 맛있게 먹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어두운 밤에 달빛을 비춰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 책은 노란 토끼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눈, 달님, 홍당무, 하얀 토끼들의 이야기를 각각의 시각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던 눈은 달님의 조언을 통해 누구보다 자신만이 예쁘고, 모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해님을 부러워하던 달님은 해님보다 달님이 더 좋다고 말해 준 노란 토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던 홍당무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토끼들을 만나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얼굴이 모두 빨개졌습니다. 노란 토끼를 싫어하던 하얀 토끼들은 추운 겨울 자신들을 위해 홍당무를 나르다가 지쳐 쓰러진 노란 토끼를 보고 슬퍼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박웅현 작가는 본인의 딸이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노는 모습 사이의 간극을 보고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말이 주는 불편함으로부터 책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면, 타인들도 각자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본인만의 편협한 시각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책은 2018년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성인 모두가 함께 읽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책입니다. 노란 토끼를 비롯한 다른 주인공 친구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것은 어떨까요?

동구관찰

조원희 지음. - 엔씨문화재단. 2016.
유아부터



고맙구나, 고양이야!

유현미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사서)

이 책은 화자인 고양이가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본 열한 살 동구에 대한 이야기이다. 표지에 등장한 소년과 고양이는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하게 대치중이다. 둘은 어떤 사이일까? 마치 궁금하면 어서 책장을 넘겨보라고 권하는 듯하다.

동구는 어떤 아이일까?

다소 일방적인 고양이 시점의 관찰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란다.

'동구는 보면 볼수록 웃기게 생긴데다 잠버릇도 고약하고 식습관마저 좋지 않다. 가끔 고양이 머리에 양파망을 씌우는 것 같은 이상한 짓을 한다. 고양이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놀아주는데도 고양이가 뭐만 하려고 하면 꼭 방해를 한다. 예를 들면 고양이가 피아노를 치려고 하면 여지없이 동구가 방해하는 식이다. 그리고 고양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자꾸 말을 건다.'

예민한 독자라면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와는 살짝 다른 느낌으로 동구를 바라보게 된다. '동구는 혹시 친구가 없는 아이인가? 외로운 걸까?'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이 다시 떠오른다. 혹시 동구가 오래 자는 것도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창밖 구경을 많이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걸까? 되새김질하게 된다. 다시 책장을 넘기면 그간의 사정이 이해되는 반전이 이어진다. 고양이가 지금까지 동구에 대해 해왔던 폭로가 실은 깊은 염려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다. 때로는 타박이 예의바른 칭찬보다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품고 있을 때도 있다. 둘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함께해 온 사이답게 말을 안해도 서로의 기분을 너무 잘 안다. 고양이는 말하지 않아도 동구가 혼자 있고 싶은 건지, 사실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은 건지 잘 안다. 그래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말없이 누운 동구 곁을 지킨다. 커튼이 쳐진 어두운 창 앞에 우두커니 앉은 동구를 소리내어 부른다. 마치 정물처럼 앉아있던 동구는 고양이가 다가가자 비로소 웃는다. 고양이는 동구가 웃는 게 좋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보살펴줘야겠다고 다짐한다. 동구의 마음인양 칠흑같이 어둡던 그림책의 바탕지면이 어느새 다시 밝아졌다. 어둠이 사라지고 동구의 창 밖에 붉은 해가 떴다.

동구 곁에 고양이가 있어 참 다행이다. 깊은 슬픔에 전이된 독자들의 마음도 이제야 조금 놓인다. 약하고 작은 존재들끼리라도 서로 보듬으면 그 슬픔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겠지 위안이 된다. 작가는 "끝"이라고 이야기를 끝낸 후에도 독자들이 쉽게 책장을 덮지 못할 것을 알았는지 에필로그를 남겨두었다. 바로 휠체어를 탄 동구와 고양이가 바람을 가르는 장면이다. 애네들 잘 지내고 있구나 안심하며 마지막 책장을 넘기면 동구 손에 안긴 고양이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고맙다 고양이야. 앞으로도 동구랑 잘 지내렴 !

「동구관찰」은 조원희 작가의 전작, 「이빨사냥꾼」 이나 「콰앙」 등 '입장바꿔 생각해 보기'의 연장선에 있지만 시선이 훨씬 깊고 따뜻해졌다. 약자들을 단지 피해자이자 보호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다른 약자의 손을 잡고 곁을 지키는 주체자로 세웠다는 점이 돋보인다.

드르렁

문크 글·그림. - 북극곰. 2019.
57p. : 천연색삽화 ; 23 cm.
성남시 판교도서관 (유808.9ㅂ944 v.54)
유아

아기 자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느껴지는 엄마



엄마는 오늘도 졸립다.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얼마 전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 중에, 엄마가 아기가 가장 예쁠 때는 “잠들었을 때”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들처럼 밤에 긴 잠을 잘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지만, 그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부모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신생아는 두 시간 혹은 세 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해야 하니 엄마는 출산의 기쁨도 잠시일 뿐,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유쾌하게 표현한 책이 바로 「드르렁」입니다.

베개를 사이좋게 하나씩 든 엄마, 아빠 사이에 귀여운 아기가 앉아있는 그림이 이 책의 표지입니다. 아기가 먼저 잠이 들었는지 혼자 누워있고, 뒷장에는 엄마, 아빠가 바로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드르렁~코를 고네요. 방 안 가득 드르렁, 드르렁 소리가 가득하지만 엄마도 힘들었는지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러다 그만 아빠 코 고는 소리에 아기가 ‘움찔’ 놀랍니다. 아기의 몸짓에 엄마가 놀라 아기를 토닥여 줍니다. 멈추지 않는 아빠의 코골이에 베개도 빼 보고, 배도 문질러주고, 옆으로도 뉘어 봤지만 소음은 멈추지 않네요. 결국에 아기는 울음을 터트리고 엄마는 일어나 아이를 달래줍니다. 엄마 품에서 금세 안정을 찾은 아이, 가만히 눕혀보지만 아빠의 “드르렁” 소리는 다시 시작되네요. 엄마의 기분이 새빨간 불처럼 타올라 온 방안을 물들이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결국 엄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 과연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드르렁」의 그림을 보다 보면 간결하지만 작가의 명확한 메시지에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쉽게 동화되어 화가 치솟기도 합니다. 육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감될만한 상황들이 현실성 있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책장을 넘기다보면 ‘등’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공갈 젖꼭지를 물 정도의 어린 아기들을 위해 수면등(혹은 수유등)을 켜놓기도 하는데, 이 가족들의 방에도 작은 등이 켜져 있습니다. 세 식구가 모두 숙면을 취할 때쯤 바뀌어 있는 ‘등’의 변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빠 목에 걸린 방울과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입, 팔과 다리의 형태들은 책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육아의 고단함을 웃음으로 추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책의 캐릭터들을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읽어주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자녀와 함께 읽는다면 엄마의 사랑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왔는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드르렁」은 그림책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 주최하고 그라폴리오가 주관한 상상만발 책 그림전 수상작으로, 캐릭터 작가 문크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주로 이모티콘, 삽화, 카툰 전시 작업 등을 하며, 그의 대표 캐릭터로는 ‘문크마우스’, ‘킬러알비’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어

마르 파봉 글, 마리아 지롱 그림. - 이마주. 2018.
52p. : 삽화 ; 24cm.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100 파45)
초등저학년부터

운동화, 단짝, 재활용



남겨진 신발 한 짝이 쓸모있을까?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우리가 한 쌍으로 사용하는 발에 신는 신발과 양말, 손에 끼는 장갑, 귀에 거는 귀걸이 등은 한쪽을 잃으면 대부분 다시 사용하기 애매해지는 물건들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물건 중 신발을 소재로 한다. 빨간색 표지에 신발을 신고 있는 여자 아이가 눈에 띈다. 앞표지에는 신발의 앞쪽, 뒤표지에는 신발을 신은 소녀의 뒷모습 그림이 대조적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는 파란색 운동화이다. 타이틀 화면 뒤 첫 그림에서 클라라가 주로 등장하여 클라라가 화자라고 느끼게 하지만 이 책의 화자는 운동화이다. 클라라가 무척 좋아하고 즐겨 신었던 파란색 운동화는 어느 날 나무에 올라가다 한 짝이 찢어져 버려진다. 찢어진 운동화 한 짝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멀쩡한 운동화 한 짝은 새로운 소녀 리타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리타는 한쪽 다리를 잃은 소녀로 한쪽 발에 신겨진 운동화는 새로 양말 한 짝과 쌍을 이루며 떨어질 수 없다고 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이야기는 파란색 운동화가 한 쌍이었을 때의 클라라와 운동화가 각각 떨어져 있을 때의 리타가 나오는 이야기가 구분이 되지만 각 이야기는 반복적인 구성이다.

흰색 바탕에 인물과 사물 위주로 그려진 그림은 단순하면서 이야기를 잘 뒷받침한다. 파스텔톤의 색깔을 많이 사용하고 글과 그림의 위치를 달리하며 인물을 역동적으로 그렸다. 클라라가 신발을 신고 춤을 추는 장면과 리타가 춤을 추는 장면은 책을 펼쳤을 때 양쪽에 걸쳐 동작을 연속적으로 그렸다. 책의 첫 문장은 “우리는 하나로 태어났어요.”에서 상점 앞에 운동화를 바라보는 소녀, “이렇게요”라는 글에 거울 앞에서 새 운동화를 신고 있는 소녀를 그려서 간결한 글보다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타이틀 화면 전에 상점에 있는 파랑색 운동화가 보이고 뒷 면지 앞 그림에서는 이야기의 마무리 단계로 찢어진 운동화에 꽃이 심겨 있는 그림으로 운동화를 짜임새 있게 사용한다. 파란색 운동화 입장에서도 각각 떨어질 수 없고 한 쌍이어야 하며 한 짝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한쪽 다리를 잃은 리타에게 한 짝이라도 양말과 한 쌍을 이루는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을 뒤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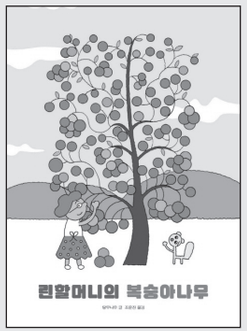
신발을 소재로 한 책으로 「노란 샌들 한 짝」도 읽어보면 좋겠다. 이 책에서는 난민촌에서 각자 샌들 한 짝을 가지고 있던 소녀들이 한 짝씩 샌들을 신고 있다가 나중에 양쪽 샌들을 함께 번갈아 신고 헤어질 때 기념으로 각각 샌들을 나눠 갖은 소녀의 우정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작가들은 스페인 출신으로 「나미타는 길을 찾고 있어요」라는 작품도 함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린 할머니의 복숭아나무

탕무니우 지음, 조윤진 옮김. - 보림. 2019.
40p. : 삽화 ; 28cm.
안성시 중앙도서관 (유823.8 탕36)
유아

나눔, 씨앗 심기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꽃이 피었어요! 린 할머니네 집 앞 복숭아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꽃잎이 지고 나면 달콤한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라는 문장이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야기는 복숭아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복숭아를 나눠 먹는 이야기이다.

린 할머니 집 앞의 복숭아나무에 꽃이 피고 복숭아 열매가 열리자 동물들이 할머니에게 복숭아를 달라고 한다. 아기 다람쥐는 복숭아를 먹고 씨를 심고, 염소는 복숭아를 먹고 똥을 싸고, 호랑이들은 복숭아를 먹고 씨를 뱉어낸다. 할머니는 찾아온 동물들 모두에게 복숭아를 나눠주고 마지막 한 개 남은 복숭아는 거북이에게 파이를 만들어 대접한다.

책 표지처럼 이 책은 복숭아 꽃 색깔인 분홍색이 주로 사용된다. 분홍색은 복숭아나무에 꽃이 필 때뿐만 아니라 린 할머니가 복숭아를 나눠줄 때 분홍색 바탕색과 분홍색으로 통일되게 그렸다. 그림의 테두리는 흰색으로 액자처럼 그림이 안에 그려져 있어 밝은 느낌을 잘 살린다. 복숭아를 먹고 싶어 혀를 내민 동물들의 표정과 먹고 난 뒤 동물들의 표정이 행복해 보인다. 동물들이 버린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고 비를 맞는 장면은 회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짧은 글에 표현되지 못한 것은 상세한 그림으로 이야기를 조화롭게 전달한다.

작가는 시간의 흐름을 "산속은 때로는 맑고, 때로는 비가 내리지요."라는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종이를 양쪽으로 펼치면 린 할머니 집 앞뿐 아니라 사방이 온통 분홍색 복숭아나무로 가득 찬 그림이 나온다. 앞에서 나온 모든 동물들이 등장하고 린 할머니의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수많은 복숭아나무로 늘어난 것 같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린 할머니의 나눠주고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 후반부에서 많은 복숭아나무들로 풍성해지는 이야기가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린 할머니가 복숭아를 나눠주어서 더 많은 복숭아나무가 생겼듯이 씨앗을 심어 황폐한 곳을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만든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도 함께 비교하며 읽으면 좋다. 국내 소개된 타이완 작가의 작품이 많지 않은데, 작가 탕무니우의 다른 작품으로 「아주 무서운 날」, 「후두둑!」이 있다. 「후두둑!」에서 이 책 속에 등장한 다양한 동물 캐릭터를 다시 만나볼 수 있다.

마들린느의 예절 수업

존 베멀먼즈 마르시아노 지음, 엄혜숙 옮김.
- 한솔수북, 2008.
48p. ; 28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808.9 ㅁ246ㅎ v.21)
5~7세 유아

우리아이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될 때



안녕하세요~, 안녕 고마워. 잘자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마들린느는 무엇일까?

제목은 「마들린느의 예절 수업」 인데 본문에서 '마들린느'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보통 마들린느는 사람 이름으로 많이 쓰이지만 이 책에서는 사람 이름으로 쓰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림으로 보아 마들린느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기숙사거나 학교 혹은 유치원 아니면 도시나 마을 이름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글이 '수녀님들과 어린 12명의 여자 아이가 프랑스 파리 담쟁이가 덩굴로 뒤덮인 오래된 기숙사에 살고 있다.'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곳의 어린 여자아이들은 좀처럼 소리치거나 울지 않으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마음이 좋으며 예의범절을 잘 아는 아이들로 나온다.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이다. 요즘은 내 아이를 너무 귀하게 여기어 공공장소나 집에서 마구 버릇없이 구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책에 나오는 어린 여자아이들은 너무나 예의를 잘 배웠다. 이렇게 예의 바르기까지는 혹시 엄격한 교육과 혹독한 체벌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숨 막히는 귀족 집안에서 지루한 가정교육을 받은 아이들만 모아 놨을까?

그림이나 내용은 매우 좋았다. 그림은 단순하고 유머러스하며 전달력이 좋고 담아야 할 내용은 모두 담은 것 같다. 너무나 쉽고 익숙해서 하지 못하는 인사에서부터 욕심부리지 않고, 잘못은 빨리 시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어린이의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한 책이다. 어린이에게 읽어주면서 어른들 역시 재학습을 해야 할 듯하다.

그린이와 글쓴이가 같다.

'마들린느' 이야기로 여러번 〈칼데콧 상〉을 받은 그림책 작가 루드비히 베멀먼즈의 손자라고 한다. 1962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뒤를 이어 마들린느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존 베멀먼즈 마르시아노는 「아기 양 딜라일라」, 「배멀먼즈의 삶과 예술」, 「미국에 간 마들린느」 등이 있다.

번역하신 엄혜숙님은 연세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을 공부하고 같은 학교에서 국문학을 배웠다. 작품으로는 「두껍아 두껍아」, 「혼자 집을 보았어요」 등이 있고, 「사랑하는 내동생」, 「아빠가 안아 줄께」, 「내겐 드래스 백 벌이 있어」 등을 번역했다.



말도 안 돼! : 존 뉴베리와 어린이 책의 탄생

미셸 마켈 글, 낸시 카펜터 그림, 허은미 역
- 산하, 2017.
40p. : 삽화 ; 28*24cm.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아808.9 산92ㅅ 58)
초등전학년

어린이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어린이 책이 탄생되기까지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어린이 그림책은 표지의 그림이 책 내용에 대한 것을 암시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 책 또한 앞 뒤 표지를 펼쳐서 보니 존 뉴베리로 추정되는 어른과 많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그림이 책의 내용을 짐작하게 한다.

여기에 결정적 정보는 부제목 "존 뉴베리와 어린이 책의 탄생"이라는 문구이다.

책 표제지에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은 독자예요'라는 구절은 마치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기대감이 생긴다. 무엇 때문에 정말 운이 좋은 독자라는 걸까? 기대를 갖고 열어본 책장의 그림은 마치 18세기 유럽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책의 배경도, 책에 나온 인물도, 갱지 느낌의 빛바랜 색감도 18세기 유럽이다.

책은 18세기 분위기, 어린이들에 대한 시대적 위상과 함께 존 뉴베리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 왜 어린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만든 어린이 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결한 문장과 독특한 그림으로 그렸다.

책의 제목 '말도 안 돼!'는 독자로 하여금 '무엇이 말이 안 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하고 궁금증의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게 만든다.

책을 읽다 보면 지금이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말이 되었던 상황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현재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더불어 만약 존 뉴베리가 어린이를 위한 책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아이들과 이야기 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뉴베리가 죽고 155년이 지나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존 뉴베리의 이름을 따서 세계 최초 어린이 책 분야의 상을 만들었다. 미국 어린이문학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작품에 수여하는 이 상이 미국이 아닌 영국인 뉴베리를 기린다는 것은 그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책 뒷면에는 존 뉴베리의 일생이 짧게 수록 되었는데 뉴베리가 어린이 책뿐 아니라 의약품까지 판매했다는 에피소드도 소개되어 서적상으로 알려진 뉴베리에 대한 새로운 면도 알 수 있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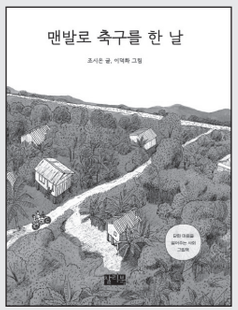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린이를 많이 사랑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떠올릴 수도 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뉴베리와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책의 원서명은 「Balderdash」(역: 허튼 소리)로 우리 글로 완곡하게 표현한 「말도 안 돼!」로 번역한 점도 재미있다.

맨발로 축구를 한 날

조시온 글, 이덕화 그림. - 찰리북. 2018.
52p. : 삽화 ; 26cm.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아813.8 조58ㅁ)
초등저학년

풍요로움을 부러워하는 친구,
봉사의 참된 의미를 알고자 하는 친구에게



특별한 축구, 특별한 만남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이 책의 저자는 그림책을 사랑하고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행복한 초등학교 교사이다.

작가가 교사이어서일까 책의 내용이 마치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쓰여져 있다

이 책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책 표지에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사회 그림책'이라는 부제가 있어서이다. '닫힌 마음이라… 아이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나? 그런데 사회 그림책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 책을 들었다.

책의 첫 장을 펼쳐보니 책에 나온 삽화가 눈길을 끈다. 검은색으로 사물을 그렸으며, 강조하는 듯한 색을 연두색 형광펜 같은 색깔로 칠해 강렬함을 주고 있다. '특이하다'는 생각에 면지에 소개된 그림 작가의 이력을 보니 2010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분이다. 이래저래 처음부터 관심이 커지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조시온 작가는 캄보디아 봇뱅초등학교를 다섯 차례 방문하면서 진정한 나눔에 대한 물음을 품고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주인공 수민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수민이는 캄보디아로 봉사를 가는 삼촌을 따라 처음 가게 되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엄마 잔소리도, 학원 수업도 없는 곳으로 가다니! 더군다나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삼촌과 외국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게 되다니! 책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수민이처럼 기쁨과 기대감으로 환호성을 질렀으리라.

5시간 25분의 비행시간과 4시간의 버스, 30분간의 불안한 보트를 타고 도착한 봇뱅초등학교. 수민이는 힘들게 온 봇뱅초등학교의 첫 모습을 보며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고 걱정이 생겼다. 수민이가 걱정을 품게 된 것은 아이들이 맨발로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는 동안 수민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캄보디아지만 그들의 생활이 풍요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봉사의 참 의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재가 될 책이다.

마지막 세장, 매 한장마다의 끝 글귀.

"맨발로 축구를 한 날", "좋아하는 친구들을 닮게 된 날", "정말로 기분 좋은 날이었어."라는 글귀만 서로 이어봐도 주제를 담뿍 보여준 느낌이 든다.

바닷가 탄광마을

조앤 슈워츠 글,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영선 옮김.
- 국민서관, 2017.
52p. : 삽화 ; 22cm.
안성시 중앙도서관 (유843.6 슈66ㅂ)
유아

탄광마을, 광부, 직업



아빠처럼 나도 광부가 되겠지!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약 100년 전 바닷가 탄광마을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하루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사이에 탄광촌의 아이들은 열 살이 되면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바다 속 아래 탄광에서 열 시간이나 일을 했다고 한다. 남자 어린이는 아버지가 일찍 바다 속 탄광으로 일하러 간 뒤, 지하에서 일하고 있을 아버지를 자꾸 생각한다. 나중에 자신도 아빠처럼 탄광에서 일할 것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된다.

표지 그림에 주인공이 햇빛이 반짝이는 바다를 보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처럼 바닷가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과 대조적으로 바다 속 아래 검정색으로 그린 그림이 탄광일의 어려움을 색으로 전달한다. 면지는 이 책의 탄광을 상징하는 검정색과 그림 속에 검정 테두리 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첫 글에 '우리 집에서는 바다가 보여요'로 시작되며 그림은 집안과 바깥 풍경인 바다를 그렸듯이 이 책은 글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주제를 그림으로 충분히 전달한다. 그림을 펼쳤을 때 바다를 타이틀 화면에서 새벽부터 오전, 오후, 해가 질 때, 밤까지 다양한 색깔로 표현한 반면 아버지가 일하는 바닷 속 탄광은 밑의 하단 일부를 제외하고 검정색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 발명 등 4차 산업혁명이 예측치 못할 변화를 가져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단순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될 시기에 100년전 광부로 살았던 선조들의 이야기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1차 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는 주인공은 책의 마무리에 자신도 마을의 다른 사람들처럼 광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광부로 살게 될 것이라는 독백이 충격을 준다. 만약 우리도 그 시대에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면 광부가 될 것이라는 결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아침 일찍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위험한 탄광에서 일했던 아버지의 삶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는가에 따라 우리 삶이 다를 것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은 어린이의 관점에서 담담하게 광부로 일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독백 속의 글과 바닷가 탄광마을과 한 가족의 일상적인 하루를 잘 표현한 그림이 우수한 책이다. 2018년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 수상, 2017년 〈보스턴 글로브 혼북 아너상〉을 수상한 책이다. 그림 작가는 「거리에 핀 꽃」으로 캐나다 총독문학상 및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그림책에 선정된 바 있다.



부모님 제대로 키우는 법 /

카타리나 그로스만-헨젤 글·그림, 윤혜정 옮김.
- 듬뿍, 2017.
김포시 장기도서관 유아853-그295부윤
5세 이상 유아

부모 육아에 흠뻑 빠질 유아부터
자녀 육아에 한창인 성인



부모 육아백서

조연수
(김포시 장기도서관 사서)

「부모님을 제대로 키우는 법」 이라니 제목만 봐도 웃음이 납니다. 육아를 바꿔 생각해보면 갑작스레 세상에 나와 살아내야 하는 어린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를 키우는 일은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잠시 책의 표지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아이를 향해 엉덩이를 내밀고 엎드린 채로 있습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내민 상태로 말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부모님을 키우는 비법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책은 부모님을 키우는 어린 아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선택 없이 그냥 태어났지만 엄마와 아빠를 아주 귀엽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의 시각은 놀랍도록 흥미롭습니다.

어린 아이는 점점 커졌고, 부모님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인공 어린 아이의 마음대로 부모님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어린 아이들의 말 “싫어”. 양 페이지 가득 개구진 표정의 어린아이를 크게 그려내고, ‘싫어’가 가득한 이 부분은 웃음이 절로 납니다. 청개구리 마냥 “싫어”를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이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어린 주인공은 부모를 키우는 데 있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책도 읽고, 부모님이 있는 다른 아이들도 만났습니다. 규칙을 세우고, 느리게 배우는 부모님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옷 입는 법, 길을 건너는 법,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법 등 열심히 교육하던 주인공은 얌전한 부모님이 싫어졌습니다. 부모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 교육에 있어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주인공의 남동생처럼 말입니다. 책의 앞표지를 넘기면 바로 나오는 주인공과 책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남동생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아는 단순히 어린 아이를 기르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기르면서 부모도, 가족도 함께 성장합니다. 육아 과정에서의 힘든 하루도, 소소히 기쁨이 넘치던 하루도 모두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 평범하나 소중한 일상을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201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글로벌 일러스트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은이 카타리나 그로스만-헨젤은 독일 베를린에서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마르타는 진짜 진짜 용감해」, 「아빠랑 나랑 비밀하나」, 「수상한 여우 씨」 등이 있습니다.

부모 육아에 관심이 많은 유아부터, 자녀 육아에 한창인 성인까지 이 책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길 기대합니다.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허은미 글, 김진화 그림. - 여유당. 2018.
삽화 ; 31cm.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른808.91 날13ㅇ-20)
전체

소리치는 엄마가 싫어질 때, 어버이날



엄마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란다

김현주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사서)

한 아이가 학교에서 우리 가족에 대한 동시 짓기를 했다. 아빠는 재미있는 얘기를 잘 해 줘서 좋고 동생은 가끔 맛있는 걸 나눠 줘서 좋고, 순덕이(고양이)는 까끌까끌한 혀로 나를 핥아줘서 좋은데 엄마는 왜 좋은지 모르겠단다. 세상 엄마들이 들으면 무지하게 섭섭하고 괘씸해지는 순간이다. 그런데 한편으론 의아하다. 도대체 이 엄마는 어떤 사람이길래 아이가 엄마는 왜 좋은지 모르겠다는 걸까.

이 집의 주요 구성원과 특징은 이렇다.

- 아빠

재밌는 농담을 잘하고 엄마가 왜 좋냐는 질문에 "튼튼해서 좋아"라고 답하는 사람이다. 결혼 전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엄마가 구해준 적이 있다. 근데 이 아빠 철이 좀 없어 보인다. 아이한테 엄마가 불곰이라는 둥 그게 어디 사람이 낼 소리냐는 둥 이상한 소리만 해댄다.

- 엄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침마다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불곰"이다. 하지만 고운 외모에 웃기도 잘 웃던 예쁜 젊은 시절이 있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으며 불곰으로 변하지만 '크아앙' 외침 속에 '피곤해'라는 말을 숨기고 있다.

- 아이

엄마가 왜 좋은지 고민하는 사춘기(?) 소녀이다. 학교에서 동시 짓기를 하다 고민에 빠져 아빠에게 물어보았으나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한다. 어느 날 외할머니가 꺼내준 사진첩에서 엄마의 아기 적, 처녀 적 사진을 보고 생각에 잠기게 되며 '엄마는 아빠를 구해주고 나를 낳아 줘서 좋다. 참 좋다'라는 동시를 완성하게 된다.

아이가 엄마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는 외할머니 댁에서 본 사진첩이다. 사진첩 속 엄마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에서 아이의 손이 인상적이다. 그림이 손의 떨림을 표현한 듯해서 아이의 심정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색감이다. 책 전체에 흐르는 색감은 초록색이다. 장면 장면에 초록색이 하나씩 나온다. 초록은 끝으로 갈수록 노란빛으로 변한다. 마치 가족 간의 화해, 불곰 같은 엄마를 이해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따뜻한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엄마들은 너무 바쁘고 역할이 너무 많다. 엄마, 아내, 며느리, 사회인, 그리고 엄마 자신. 엄마들이 불곰으로 변할 때는 엄마가 지금 피곤하지는 않은지 힘든 일은 없는지 먼저 살펴주기 바란다. 엄마도 처음부터 불곰은 아니었단다. 얘들아….

책을 다 읽고 난 후 한 가지 든 의문은 제목에 있다. 왜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일까. 아빠는 어디로 갔다는 것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해 보면 좋겠다.

이 책은 「진정한 일곱 살」(만만한 책방, 2017), 「너무너무 공주」(만만한 책방, 2018) 등을 쓴 글 작가 허은미와 그림 작가 김진화의 「백만 년 동안 절대 말 안 해」(웅진주니어, 2011)에 이은 두 번째 작업으로 2018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다.

비 오는 건 싫어

사토 와키코 글·그림, 예상열 옮김. - 한림. 2017.
초등 저학년

나가 놀기 좋아하거나 호기심 많은 어린이 모두



천둥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은주
(남양주시 사서)

천둥은 어떻게 생겼을까?

비가 온다는 것은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의 제한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공간의 제한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비가 오면 싫은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나이별로 다소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킥보드를 탈 수 없어요.' '놀이터에 갈 수 없어요.' 등 바깥활동에 대한 제한을 호소하지 않을까?

일본의 사토 와키코 그림작가의 「비 오는 건 싫어」라는 작품이 이런 어린이들의 답답한 스트레스와 비 오는 날 천둥번개의 두려움을 정겹고 코믹하게 날려준다.

호호 할머니네 강아지와 아기고양이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자 "비야 그만 좀 와라. 가끔은 밖에서 놀고 싶단 말이야."라고 말한다. 호호 할머니는 "정말이야. 나도 놀러 나가고 싶어 못 견디겠다." 라며 맞장구를 쳐주며 비를 내리게 하는 하늘의 천둥과 그럴듯한 대련을 펼친다.

호호 할머니는 난로와 벽난로에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태우기 시작했다. 난로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더 많은 것을 태우기 위해 바쁜 할머니의 행동들은 나가 놀고 싶어 안달이 난 아이들의 불타는 열망을 표현해준다. 이러한 열망을 호호 할머니가 펼쳐 보여주는 것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는 양육자를 신뢰하는 눈으로 그림책을 주시하게 된다.

강아지와 아기고양이의 열망을 무시하듯 천둥은 비를 마당에 폭포처럼 쏟더니, 이내 개울로 변하게 하고, 다시 바다로 변하게 했다. 강아지와 아기고양이는 이제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절망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 이 심정은 아래의 대화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할머니, 할머니. 마당이 온통 폭포같아요."

"아이구, 할머니, 할머니. 어떡해요. 마당이 온통 개울이 되고 말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이젠 틀렸어요. 마당이 모두 바다로 변해 버렸어요."

천둥이들이 아이들의 마당을 바다로 만들어버렸지만 그들의 씩씩하고 지혜로운 친구이자 보호자인 호호할머니는 "그래, 그러냐."라며 별 거 아니라는 듯 대답을 하고 집안의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 태웠다. 할머니의 반격은 식을 줄을 모른다.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의 연기가 하늘까지 닿았을 때 할머니는 후추가루와 고추다발을 던져 넣어 매운 연기를 피워 올린다. 이들의 소망과 전략은 하늘까지 올라가 빼곡한 구름 가운데에서 비를 내리는 천둥이들을 매운 연기로 고통스럽게 하게 된다.

"아이구, 눈이 아파! 재채기가 난다!" 며 수많은 천둥이들이 재채기를 시작하고, 함께 한 구름들도 재채기로 괴로워하다가 구름들이 조각이 나고 천둥들과 함께 흙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만다. 호호할머니의 공격이 성공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역시, 아이들의 대장 호호할머니는 백전백승의 전략가임을 그림으로 선명히 목격하며 아이들은 한없는 안전함을 선사 받는다.

드디어 하늘은 맑게 개었고, 흙탕물 안에는 천둥과 구름들이 떠 있다. 그때 할머니는 우리가 얼마나 비에 싫증났었는지 똑똑히 말해 주고 천둥들에게 구름을 수선하라고 시킨다. 밖에 나가지 못했던 서럽고 억울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시원하게 녹아지는 광경이다.

아이들의 마음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할머니=양육자'의 성공적인 전략과 양육자 또한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 놀고 싶다는 아니, 아이들보다 더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 아이와 엄마가 분리가 아닌 태에서 연결되었었던 그때와 같이 여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세상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안한 상황들을 엄마와 함께라면 언제나 안전하다는 암시를 제공받는다.

도깨비로 형상화된 천둥들은 더럽혀지고 상한 구름들을 수선하고 말리느라 분주하다. 이는 마치 아이들이 아무리 많은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들어와도 엄마가 너그럽게 씻기고 보호하는 또 다른 장면을 연상케 한다.

푸른 바다에 부딪쳐 부푸는 하얀 파도처럼, 파란하늘에 일어나는 하얀 구름들의 모습은 바다와 닮았다. 바다 속에 수많은 고기떼들의 재기발랄한 이야기들 또한 하늘 저편에 보이지 않는 천둥과 비와 구름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펼쳐주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천둥소리들과 번개들에 대한 아이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순수한 도깨비로 상징화하여 펼친 이 그림책은 아이들 속의 막연한 불안을 귀엽고 코믹스럽게 구체화시켜 불안이 아닌 하늘 속에 사는 자신들 같은 이들의 즐거운 날들에 대한 상상으로 유도한다.

사토 와키코의 다른 그림책들 「도깨비를 빨아 버린 우리 엄마」, 「달님을 빨아버린 우리 엄마」와 함께 읽어준다면 천하무적의 용사이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를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엄마'의 매력에 빠지게 할 것이다.

사진관집 상구

유애로 글·그림, 유석영 사진. - 보림, 2018.
34p. : 삽화 ; 22cm.
안성시 중앙도서관 (유813.8 유63t)
초등 저학년

남동생, 아빠에 대한 추억, 성장이야기



나의 어릴 적 이야기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종종 작가들은 자신의 성장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경우가 있다. 작가가 살아온 실제 경험 이야기는 내용이 현실감이 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함께 공감을 일으킨다. 이 책은 「갯벌이 좋아요」, 「쪽빛을 찾아서」의 그림책 작가 유애로의 실제 어렸을 적 이야기이다. 작가의 어렸을 적 성장이야기이면서 남동생 상구를 중심으로 들려주는 아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1960년대 강경의 일상과 생활을 배경으로 누나가 들려주는 남동생 상구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지금부터 오륙십년 전 이야기로 타이틀 화면에서 사진을 넣은 상자와 사진기 옆에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참 오랜만이네."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상구의 누나이다. 앞표지에는 상구의 뒷모습, 뒷 표지에는 사진을 찍고 있는 아빠가 있다. 면지에는 이 책속에 나오는 배경인 금강 옆의 강경의 지도가 있고 앞면지에는 상구, 뒷면지에는 사진기를 들고 있는 아빠가 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아빠가 상구를 찍은 사진에서 이야기는 전개된다. 상구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식, 학교 운동회 등 흑백사진 속에 있다. 흑백사진에는 다양한 인물과 배경이 등장하며, 작가는 흑백사진 밑에 짧은 설명 글이 있다.

이 책 속 사진은 작가의 아빠인 유석영(1919-1985)이 찍은 오래된 사진이다. 그는 일본에서 사진학교를 졸업하고 사진관을 직접 운영한 분이다. 책의 말미에는 유애로 작가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회상하는 글이 있다. 면지에는 상구네 사진관 뿐 아니라 이 책 속의 배경 지도를 함께 볼 수 있다. 작가는 아버지가 찍은 오래된 흑백사진과 함께 이야기에 맞는 그림으로 배경이나 인물을 추가로 그려서 독특하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사진사였던 아빠에 대한 추억과 애틋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책이다. 이와 같이 작가의 어렸을 적 성장이야기로 아빠의 직업을 소재로 쓴 이혜란 작가의 「짜장면 더 주세요!」(사계절출판사)가 있다. 작가 이혜란이 자라면서 보고 느낀 중국집 요리사인 아빠의 하는 일을 사실적이면서 생생하게 전달하며, 아빠의 일하는 손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작가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다른 그림책과 달리 오래전 흑백사진과 작가의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구성한다. 「사진관집 상구」를 통하여 어린이들은 강경을 배경으로 과거의 실제 생활이야기를 사진을 통해 접할 수 있고, 어른들에게는 어렸을 적 추억을 회상하며 어린이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책이다.

삼거리 양복점

안재선 글·그림. - 웅진주니어. 2019.
48p. ; 21cm
유808.9ㅇ546웅ㅈv.50 (성남시 구미도서관)
유아 및 초등저학년

한 가지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사람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저고리에 도포 자락이 휘날리던 시절, 시내 삼거리에 양복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상한 옷차림에 모두들 수군거렸습니다. 이 삼거리 양복점 주인 덕구씨는 양복의 매끈하고 날렵한 매무새가 좋아서 작은 양복점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찾아왔을 때 덕구씨는 정성을 다해 고르고 골라 손님께 꼭 맞는 옷을 지어 드렸습니다. 어색해하던 손님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을 때 덕구씨는 '양복 일 하길 참 잘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삼거리 양복점은 덕구씨의 셋째 아들 삼돌씨에게로 또 삼돌씨의 둘째 아들 두식씨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삼대가 바뀌는 동안 시간은 흘러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비슷비슷한 양복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은 '양복을 짓는 일은 참 보람된 일이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삼거리 양복점은 2014년과 2017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던 안재선 작가의 첫 그림책으로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나만의 장소를 생각하며 그린 책입니다. 작가는 그림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에 다양한 개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개의 얼굴과 표정을 살펴보는 것도 이 그림책만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무게를 짊어질 직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내 마음에 흡족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담아 나 스스로가 인정할 때까지 열심히 해본다면 그 일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책은 양복을 만드는 일을 삼대가 지나는 동안 모든 희로애락을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덕구씨들,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만 같은 책입니다.

서서 걷는 악어 우뚝이

레오 리오니 글·그림, 엄혜숙 옮김. - 마루벌. 2009.
40p. ; 28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08.9 ㅁ138 v. 52)
읽어 주는 4세 ~ 혼자 읽는 9세

새로운 시도, 다름



별이 이쁜 연못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독특한 레오 리오니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레오 리오니는 1910년에 태어나 1999년에 작고한 어린이책 작가이다. 네델란드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1939년 미국으로 건너가 아트디렉터로 성공하면서 1984년에 미국 그래픽아트학교 금메달을 받았다.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지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해 「새앙쥐와 태엽쥐」, 「으뜸 헤엄이」 등으로 칼테콧 상을 네 번이나 수상한 경력이 있다. 그의 그림책은 진지한 도덕적, 철학적 주제들을 단순 명쾌하게 이해시키는 짧은 이야기와 세련된 콜라주로 유명하다. 그의 아들도 어린이도서의 작가로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적에 「파랑이와 노랑이」를 읽어준 적이 있다. 그 그림책은 사람이 아니라 동그란 원의 파랑색과 동그란 원의 노랑색이 등장한다. 구르다가 교집합처럼 겹쳐지기도 하며 겹쳐진 부분은 녹색으로 변한다. 그렇게 색깔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는 좋은 책으로 기억되는데 그 책이 1959년,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로 뉴욕타임즈 〈최고 그림책 상〉을 받았다.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일러스트로 담아낼 수 있기에 독자에게 더 쉽게 다가온다.

이 책도 처음부터 남다르게 태어난 악어, 우뚝이. 자신은 서서 다닐 수 있다고 자랑했으나 누구도 동조해 주지 않아 악어들의 세계를 떠나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돌아온다.

물구나무와 꼬리로 나무에 매달리기 기술을 선보이나 반응은 매한가지다. 실망한 우뚝이는 떠나려 했으나, 다른 악어들이 우뚝이 뒤에서 따라하려고 애쓰는 것을 알게 되고 감동을 받는다.

요즘 시대는 다르다는 것을 매우 불편해 한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불편하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일 뿐! 혁신이고 혁명이며, 추앙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선구자는 늘 외롭고 힘겹다. 그러나 시대는 본 것을 따라갈 것이다. 조금 느릴 뿐!

'누가 닦아 놓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힘겹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란 시대의 물음에 선택을 해야 한 적이 많았다. 지금 편안하고 안주된 삶을 산다면 전자를 선택했을 것이고, 버겁다고 지쳤다고 어렵다고 투정하고 있다면 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길에서 힘겨워하는 분이 있다면 격려의 말을 하고 싶다. "괜찮다. 당신은 선구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책은 출판사의 고민이 드러난다. 판사항 뿐 아니라 내용요약, 분류, 대상나이, 크기 등 서지사항을 독자들이 이해하게 적어놓았다. 도서관에서는 책의 정보를 정리할 때 내용 뿐 아니라 책의 크기 등 형태사항도 데이터로 입력해 둔다. 이러한 정보는 도서관과 사서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선

이수지 지음. - 비룡소. 2017.
32p. : 천연색삽화 ; 29 cm
유808.9ㅂ966 v.246(성남시 구미도서관)
유아 ~ 초등학교 저학년

그림 그리기 시작한 어린이
상상하기 좋아하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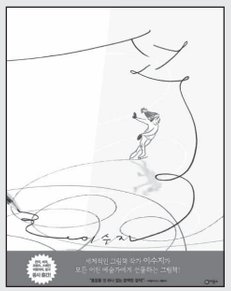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메타픽션이란 작가가 의도적으로 독자에 작자의 존재를 의식시키면서 책 속의 이야기가 허구임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독자에게 신선함을 주고 좀 더 책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수지 작가의 「선」도 이러한 메타픽션 기법이 잘 활용된 책으로, '어린 화가들에게'란 부제가 달린 글 없는 그림책이다. 첫 페이지부터 종이 틀 안에 연필과 지우개를 배치함으로써 뒤에 스케치 장면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게 하지만 뒤 이어지는 장면은 빨간 모자를 쓴 작은 소녀가 긴 선을 그리며 스케이트를 탄다. 소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선들을 그려나가며 혼자만의 스케이트 즐긴다. 소녀가 회전하다 넘어질 때쯤 갑자기 이야기 밖 스케치로 장면이 전환된다. 그리곤 무수히 많은 선과 지운 흔적이 가득한 도화지 안에서 소녀는 소년을 만나고 노는 사이 다시 소녀는 얼음 호수 안 여러 명의 친구와 스케이트를 신나게 타고 즐긴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겹겹이 소녀의 스케이트를 스케치한 도화지 위에 고즈넉한 겨울 호수 스케치가 있다. 선은 스케치와 스케이트라는 실제와 환상의 자연스러운 경계를 넘나들며 도화지에 스케치하는 것을 얼음에 선을 그리며 스케이트 타는 것으로 묘사하여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을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이수지 작가는 2016 국제 안데르센 상 최종 후보, 미국 뉴욕 타임스 〈올해의 우수 그림책〉, 브라질 아동도서협회 〈글 없는 그림책 상〉, 미국 일러스트레이터 협회 〈올해의 원화〉 금메달 등을 수상한 화려한 이력을 가진 작가로 우리에게는 「파도야 놀자」, 「그림자놀이」, 「거울 속으로」 등 특유의 그림체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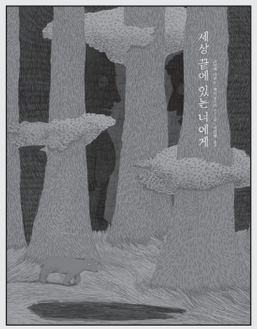
작가의 인터뷰 중에서 글자 없는 그림책을 재미있게 읽는 법에 대해, "글이 있을 때는 글이 지정한 대상만 보게 되는데 글이 없으면 뭘 봐야 할 지 지시하는 텍스트가 없으니 다 보게 되고, 맥락에서 읽어내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읽어내면서 자기만의 단서를 찾아 나가죠. 그림은 항상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독자가 작가의 의도를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고, 전체로서 그저 즐기면 돼요."라고 좋은 팁을 전한다.

이러한 팁을 상기하면서 글자 없는 책, 「선」을 읽어보면 글자 없는 그림책이 보여주는 자유로운 환상을 맘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끝에 있는 너에게

고티에 다비드, 마리 꼬드리 글·그림.
- 키다리, 2019.
유863ㄷ375ㅅ (성남시 구미도서관)
초등학교 1학년 ~ 성인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것을 잘 못 하는 사람



그리움의 아름다움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그리움이란 무엇일까? 그리움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그린 책이 「세상 끝에 있는 너에게」이다. 이 책에 나오는 곰은 사랑하는 친구, 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새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나 새가 너무 보고 싶어진 곰은 세상 반대편 끝에 있는 새를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멀고 먼 여행을 떠난다. 그 길에서 무서운 숲길을 지나 뱃사람이 던진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연기를 뿜는 뜨거운 화산을 힘들게 지나가기도 한다. 전투가 한창인 곳에서 길을 잃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갖은 모험을 통해 새를 더욱더 그리워하게 되고 그 힘으로 새에게 한 발짝씩 더 나아가 마침내 새와 다시 만나 꽉 껴안을 수 있었다.

그리움을 가득 담은 이 책은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프랑스 문화원의 출판번역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출간되었다고 한다. 작가 고티에 다비드와 마리 꼬드리는 부부이며 그림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고티에 다비드는 어린이를 위한 책들을 만들고 있으며, 기타리스트 겸 가수, 어린이를 위한 공연 기획자로도 활동하고, 마리 꼬드리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중학교 미술 선생님으로 일하다 2007년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만들고 있다. 두 작가 모두 그림을 전공해 그림 삽화들은 모두 서정적이며 아름답다. 또한 곳곳에 재미있는 요소들을 배치해 그림만으로도 보는 재미가 있다. 예를 들어 곰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의 두려움을 깜깜한 숲속 나무 그림자를 무서운 사람 모양, 무시무시한 악어 모양으로 그려서 곰의 심리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 책은 새를 그리워하며 조곤조곤 써 내려가는 편지글 형식의 글로 쓰여 곰이 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새를 그리워하는 그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내며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는 곰의 성장 또한 엿볼 수 있다.

요즘 우리에게는 곰처럼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할 기회조차 없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갖가지 SNS에서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이토록 소중하게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한다는 것은 소중하다.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쉬잇! 다 생각이 있다고

크리스 호튼 글·그림. - 비룡소, 2017.
40p. : 삽화 ; 27cm.
안성시 중앙도서관 (유843.6 호887)
유아부터

유머, 사냥



누가 새를 잡았을까?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그림책은 글에 없는 내용을 그림으로 보완하여 함께 이야기를 전개하고 완성한다. 이 책은 단순한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글과 그림의 대조와 조화로 그림책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

책 표지 그림처럼 네 명이 이야기에 등장한다. 세 명은 쉬잇! 하는 자세로 손을 입을 갖다 대고 제일 작은 사람만 따로 떨어져 두 팔을 내리고 있는 표지 그림은 인물의 개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무것도 들지 않고 따라가는 제일 작은 사람은 "안녕, 짹짹아?" 인사한다. 새를 잡으려고 채를 든 나머지 세 사람은 "쉬 쉬잇! 조용히 해."라고, "다 생각이 있"다고 매번 작은 사람을 혼내지만 나중에 진짜 새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는 반전이 있다. 마지막은 다시 다람쥐를 잡고자 세 명이 작은 사람에게 다 생각이 있다고 혼내는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의성어를 많이 사용하고 1부터 3까지의 숫자, "아이코"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글은 짧지만,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림이 뒷받침하고 있어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한다. 사람과 배경은 푸른색과 보라색 계열을 사용하였고 새와 다람쥐는 붉은색 계열로 대조적인 색깔을 사용하였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푸른색과 보라색 계열로 주로 새를 잡는 장면에 사용하였고 붉은색 계열은 중간 부분에 작은 사람이 새에게 빵을 건네는 장면에서 많은 새를 표현할 때 사용하였다. 새를 잡으러 가는 배경의 큰 그림 속에 인물을 작게 표현하거나 인물만 클로즈업해서 크게 그리는 등 인물과 배경 그림에 계속 변화를 준다. 세 사람이 새를 세 번이나 놓치는데 그림을 펼쳤을 때 "아이코"라는 글만 있지만 세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물속에 빠지는 등 그림으로 "아이코"라는 글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한다. 굵은 흰색 테두리 안에 그림을 그린 액자식 구조이다. 앞 면지는 새를, 뒷 면지는 다람쥐를 상징적으로 그렸다.

팻 헛친스의 「로지의 산책」과 같이 인물의 대조적인 행동의 이야기가 유머를 준다. 「로지의 산책」에서 닭이 계속 움직일 때마다 글에 없는 여우가 그림 속에서 계속 골탕을 먹듯이, 이 이야기에서는 작은 사람과 세 사람의 행동이 대조적이다. 결국 작은 사람이 새에게 빵가루를 주며 새를 모아들이는 이야기 구조가 유머러스 하다. 글과 그림이 조화롭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림책의 즐거움을 주는 책으로 2015년 〈에즈라 잭 키츠 상〉 수상, 2014년 〈아일랜드 문학상〉 어린이 책 부문 수상, IBBY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선정 〈장애 아동을 위한 좋은 책〉 등 여러 상을 수상한 책이다.

식물도 움직여?

레베카 E. 허쉬 글, 미아 포사다 그림, 김경연 옮김.
- 현암주니어. 2018.
38p. : 삽화 ; 24cm.
안성시 중앙도서관 (유481 허56)
유아부터

식물, 성장



걸을 수 없다고 움직일 수 없을까?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식물과 동물의 큰 차이는 자리를 이동하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 식물은 땅속에 뿌리를 박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어서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제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식물은 한자리에 그대로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식물은 동물과 다른 모양으로 움직이고 성장하고 있다.

이 책은 해바라기, 나팔꽃, 파리지옥, 튤립 등 19가지의 식물의 씨앗과 꽃 등 다양한 식물들의 예를 들며 식물은 씨앗으로 이동하고 쉬지 않고 자라고 있음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며, 줄기가 하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땅속으로 벽을 타고 자라거나 밤에 식물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특징, 바람을 타고 씨앗이 날아가거나 사람과 동물을 통해 씨앗이 이동하는 사실을 설명한다.

"식물은 발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고 날개도 없어. 하지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라는 글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물과 햇빛과 자라 날 공간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식물의 특성이 놀랍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한 책이다. 마지막 글은 "식물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라며 이 책의 제목처럼 식물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거론하며 이야기를 마친다.

흰 바탕에 종이를 오려서 식물이나 배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은 식물의 실제 모습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면지는 민들레 씨앗이 땅속에서부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다시 민들레 씨앗을 맺는 이야기로 민들레를 대표적으로 씨앗에서 다시 씨앗을 맺는 장면으로 표현하였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식물에 대해 더 알아보기"가 있어 앞에서 나온 19가지 식물들이 나온 페이지를 표시하고 각각의 특징과 상세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소개하여 이해를 돕는다. 또한 책 속에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광합성, 잠운동, 중력 등과 같은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기타 참고한 책과 웹 사이트가 소개되어 있어 추가 정보를 알 수 있다. 「식물도 움직여?」의 작가가 식물학 박사 연구를 하면서 쓴 첫 번째 그림책으로 이 책을 위해 쓰기 위해 참고한 책으로 국내에 이미 번역된 「생명을 꿈꾸는 씨앗」(웅진주니어, 2007)을 보면 씨앗과 관련된 내용에서 유사한 부분을 볼 수 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될 때까지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어느 곳에서나 자라는 식물은 물과 햇빛과 자랄 공간이 있으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식물도 움직여?"라는 질문으로 독특하게 접근한 책이다.

안녕, 우리들의 집

김한울 글·그림. - 보림출판사. 2018.
42p. ; 22.5cm
유813.8ㄱ978ㅇ (성남시 구미도서관)
전 연령층

손때 묻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오래된 기억을 지니고 있는 사람



마음을 담는다는 것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하얀 목련이 활짝 피어난 예쁜 집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많이 탄 집은 깨끗하고 파란 대문과 예쁜 꽃나무가 가득히 들어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집은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고 갈수록 벽에 금이 가고, 칠이 벗겨져 대문이 녹슬기까지 합니다. 결국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기로 합니다. '재건축 경축'이라는 플랜카드가 동네 가득 붙습니다.

책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낡고 낡아서 버림받은 집, 남겨진 집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집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가 있습니다. 개는 주인 냄새가 밴 물건들과 함께 남았습니다. 버려진 집에는 고양이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새들도 여전히 지저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포클레인이 모든 것을 부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집에서 버려진 것들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를 끝으로 예쁜 꽃나무들도 대문도 집도 마지막까지 주인을 기다리던 개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공터에는 노란 민들레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욕심내고 또 그만큼 쉽게 버리곤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버려지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또나 맞은 것처럼 재개발을 외쳐대는 사이 우리의 손때가 묻은 것들은 그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 김한울도 이렇게 사라지는 집들을 눈여겨보면서 〈자라는 집〉과 〈일구어진 땅〉이라는 전시를 열었던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첫 그림책 「안녕, 우리들의 집」을 출간했습니다.

버려진 것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펼친 이 책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유독 좋아한 것이 있던 기억이 있는 누구나 읽어도 좋습니다. 권장 연령인 7세에게는 다소 어려운 책이 될 수 있으나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의 입장이 되어 버려진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화가로 활동하는 작가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버려진 것들, 한때는 애지중지 사랑을 받았으나 지금은 팔이 덜렁거리는 곰돌이 인형에게도,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에도 자연스레 동화되게 합니다.

한 번쯤 버려지는 것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쉽게 버리고 쉽게 잊어버렸던 것들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세바스티엥 조아니에 글, 요안나 콘세이요 그림, 최성웅 번역. - 웅진주니어, 2019.
40p. : 삽화 ; 19*34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08.9 ㅇ546d v.17)
유아(4~7세), 성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린이 소외된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은 어른



함께 하는 세상에서 온 환영사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새로운 환경에 놓인 모두에게 그곳은 어색하고 어려운 공간이다. 더욱이 아빠와 엄마가 세상의 전부이며 길잡이인 어린이라면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 어린이에게 아빠와 엄마, 세상이 줄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어서 오세요」는 두려움과 어색함을 떨쳐낼 무한한 사랑과 웃음, 세상 속 사람들과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맞아. 이 세상에는
아빠, 엄마와 나,
사랑과 웃음 그리고 사람들이
이 길 위에….
함께 있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는 아빠와 엄마,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소년이 있다. 뭔가 깜빡한듯한 소년은 다시 곱씹어 보더니 '사랑'을 찾아낸다. 주인공은 '사랑'이외에도 '웃음'과 '우리가 나아갈 길',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씩 깨닫는다. 책의 제목이자 환영의 인사인 '어서 오세요'를 건네며 마지막 장을 펼친 독자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인다.

「까만 아이」로 우리 나라에 이름을 알린 세바스티엥 조아니에는 「마라부 스트링」으로 〈아동문학상〉을 받았으며, 미술과 음악, 영화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책 「어서 오세요」에서는 반복적인 운율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며, 주인공이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빨간 모자」, 「아무개 씨의 수상한 저녁」, 「천사의 구두」, 「읽어버린 영혼」 등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요안나 콘세이요 작가의 섬세한 색연필 그림이 이야기에 따뜻함을 더해준다. 특히 종이인형을 붙인 듯한 수많은 인물들이 오밀조밀 이야기를 이어가고, 빛바랜 종이와 함께 세밀하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작가가 전하고 싶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환영의 마음을 느끼게 해준다. 아빠, 엄마와 함께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물사이 숨어 있는 소년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낯선 세상 속 함께 있는 사람들의 환영은 용기와 힘을 준다. 용기와 힘은 조건 없는 사랑과 함께 나누는 웃음으로 더욱 커져간다. 이 생명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나가며 더 나은 세상, 함께 돕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 이 그림책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은 어른들도 함께 읽고 무한한 사랑과 응원을 전하길 기대해본다.

여우지만 호랑이입니다

코리 R. 테이버 글·그림, 노은정 옮김.
- 꿈꾸는달팽이. 2019.
32p. : 삽화 ; 17*25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43.6 ㅌ62ㅇ)
유아(4~7세)

자존감이 낮은 어린이



나니까 소중해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해 보고 판단하며 사회성을 기릅니다. 바른 사회성은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자신보다 못하는 친구는 도와주고, 잘하는 친구는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부러움을 넘어서 그 친구를 닮아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소망입니다.

「여우지만 호랑이입니다」에서는 몸집이 크고 날쌔고 잘 숨는 호랑이가 부러운 여우가 주인공입니다. 꾀를 낸 여우는 몸에 줄무늬를 그리고 호랑이처럼 어슬렁거리다 거북이와 토끼를 만납니다. 겉모습만으로 호랑이라고 우기는 여우 앞에서 거북이는 '부릉부릉 쌩쌩' 달리는 경주용 자동차가 되고, 토끼는 '기잉치크깅'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비가 쏟아지고 그들은 모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나타난 다람쥐는 여우를 보며 감탄하고 여우가 가진 장점들을 말해줍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호랑이와 똑같은 장점이지요.

"여우는 몸집이 크잖아!"
"여우는 날쌔잖아!"
"여우는 잘 숨잖아!"
"역시 여우가 최고야!"
"맞아. 여우가 최고지!" 거북이가 말했어요.
여우가 빙긋 웃었어요.
여우는 자기가 여우라서 기뻤어요.

이 책은 2019년 닥터 수스 상 수상작으로 색연필과 물감으로 그린 캐릭터들이 유머러스하고 귀엽게 느껴지며, 간결하고 반복적인 문장으로 어린이들이 반복해서 읽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코리 R. 테이버 작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시애틀에서 살며 그림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느리다」, 「여우와 점프 대회」, 「여우와 자전거 타기」 등 여우 시리즈를 만들고, 「어둡고 어두운 동굴」을 그렸습니다.

나의 단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장점으로 보일 수 있으며,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던 여우처럼 자존감이 낮은 어린이들이 읽고,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덥수룩한 머리라고 생각한 사자의 이야기인 「미용실에 간 사자」(브리타 테큰트럽. 2014)도 함께 읽으며 올바른 사회성과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보길 권합니다.



완두

다비드 칼리 글, 세바스티앙 무랭 그림,
이주영 옮김. - 진선아이. 2018.
유아부터 초등저학년

체구가 작아 자존감이 낮은 아이



난 작지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은주
(남양주시 사서)

완두의 당당한 걸음을 따라가 보세요!

몸집이 작은 '완두'라는 아이가 있다. 너무 작아서 인형신발을 빌려 신어야 하고, 침대는 성냥갑이고 고양이 등에 올라가서 자기도 한다. 하지만 완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수영, 레슬링은 물론 높은 곳도 척척 올라갈 수 있고, 줄타기도 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을 무척 좋아하고 화창한 날에는 숲을 탐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느 아이들처럼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한다. 한마디로 완두는 몸집만 작았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아이다.

이렇게 그림책 절반은 완두의 행복한 나날을 보여주다가 "완두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어요."라고 말하며, 완두의 축쳐진 어깨가 나온다. '학교'라는 말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완두만 몰랐지 독자들은 진즉에 눈치챘을 것이기 때문이다.

'완두, 큰일 났다! 친구들이 놀릴 텐데…'라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 찼을 것이다. 맞다, 완두는 학교에 가서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의기소침해진 완두는 자신이 너무 작은 걸 깨달은 뒤부터 마음이 더 작고 작아져서 쉬는 시간에 늘 혼자가 된다. 친구들이 작은 완두를 위해 배려하는 장면은 없다. 완두 혼자만 불편하고,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다.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하는 학교는 '완두, 이제 너의 행복은 끝장이야!'라고 말하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의 완두는 잠시 의기소침했을 뿐, 금방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내고 만다. 바로 '그림 그리기' 종일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성취하며 자신이 '작다'라는 생각을 공중분해 시킨다. 학교의 권위자가 완두를 "가엾은 완두"라며 가엾은 사람으로 정해줘도, "이렇게 작으니 나중에 무엇이 될까?"라고 나중에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정해줬지만, 행복해 보았고 또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은 완두는 '학교'라는 사회와 권위자들이 정한 행복의 잣대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는다. 완두는 자신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너무 크다'라고 바꾼 듯 여전히 작지만, 행복한 어른이 되어간다. 예쁘고 크기가 적당한 집을 짓고, 줄기타기 놀이에 적합한 토마토도 기르고 어려서 행복해 했던 자동차 운전을 해서 출근도 한다.

그림책이 끝나갈 무렵, 작가는 상기된 어조로 말을 건다.

"완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 물음에 독자는 숨이 막힐 것 같다. 완두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다급해진다. '완두가 여전히 행복하구나!', '그럼 무엇이 되었을까?', '완두는 무슨 꿈을 꾸었던 걸까?'

다급한 마음을 누르고 아주 천천히 행복한 완두를 상상해 보는 게 이 그림책의 묘미다.

완두의 행보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을 익숙함으로 받아줄 것을 권한다. 그리고 자신의 다름에 대한 불편함을 세상을 향해 분노하며 더 작아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작지만 세상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린 독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책이다.

〈바오밥 상〉, 〈볼로냐 라가치 상〉 등을 수상한 다비드 칼리가 글을 쓰고, 2015년 프랑스 〈플뢰르 드 셀 상〉을 받은 세바스티앙 무랭이 그림을 그렸다.

「완두」의 두 번째 이야기 「완두의 여행 이야기」가 출간되었다. 첫 번째 책이 완두가 꿈을 이뤄 가는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책에서는 완두가 여행을 통해 도전하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함께 읽어도 좋을 듯하다.

우리 가족 만나볼래?

율리아 귈름 글·그림, 황정혜 옮김.
- 후즈갓마이테일, 2017.
28p. : 천연색삽화 ; 26 cm.
성남시 운중도서관 (유859.3ㄱ539ㅇ)
유연한 사고를 갖고 싶은 성인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유아와 이야기하고 싶은 어른



다양한 모습의 가족에 대하여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빨간 문이 열리며 악어, 개구리가 우리 가족에 대해 소개해주는 책, 「우리 가족 만나볼래?」의 그림은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 율리아 귈름의 작품입니다. 현재 네델란드 헤이그에 거주하는 작가의 글은 네델란드어로 쓰였으며 영어로 한번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한국어로 재번역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글들은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한국 사회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이 책은 가볍지만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여러 형태의 가족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가족은 가까이 살고”에서의 뱀가족의 적절히 묘사된 모습은 웃음을 자아냅니다. 어린 유아와 함께 책을 읽고 나서 글만 다시 읽으며 그림을 상상해 본다면 작가의 메시지는 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김희경 작가의 「이상한 정상가족」(동아시아, 2018)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편협한 시각에서 보면 이상해보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가족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다룬 「이상한 정상 가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적당한 책이 바로 「우리 가족 만나볼래?」입니다.

그림책 속 그림자로 표현된 여러 가족의 모습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형태로만 가족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이 책의 매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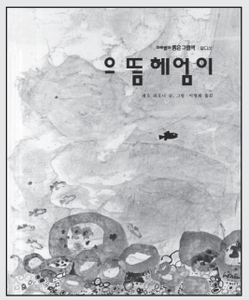
규격화되지 않는 가족의 모습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To my family: mama, papa and brother and to all families out there in all shapes, sizes and colours! Love is love.(모든 가족은 똑같은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자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책은 아이와 함께 읽으며 대화하기 좋은 책입니다. 어린 영유아들에게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할 수 있고, 초등학생 자녀와는 급변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가벼운 그림이지만 내용은 복잡한 이 책을 통해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화두인 “사랑”과 “이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으뜸 헤엄이

레오 리오니 글·그림, 이명희 옮김.
- 마루벌, 2013.
30p. ; 40cm.
성남시 중앙도서관 (빅 843 ㄹ946ㅇ)
유아~ 초등생 저학년

어려울 땐 힘을 합쳐야 해



유리 압화로 그린 명작 헤엄이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2000년대 들어 그림책의 르네상스를 맞이한 듯 다양한 소재의 훌륭한 그림책이 많이 출판되었다. 단순히 유아나 어린이가 읽는 그림책이 아니라, 예술가의 혼이 담긴 듯한 그림책부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서정적인 그림책이나 그림 작가의 화필이 독특한 그림책까지… 어린이에게는 창의력과 그림을 보는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부모들은 미술관이나 비싼 화보책을 사주지 않고도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사주는 즐거움을 가졌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그림 작가들에게는 창작의 즐거움과 그림책으로 판로를 갖고,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기회가 되어 모두에게 윈윈(Win Win)이 되는 기회가 되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는 예산을 지원하여 좋은 책으로 선별된 도서를 빅북으로 제작했는데 그 중 「으뜸 헤엄이」도 포함되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제작한 빅북(BIG BOOK)은 비매품으로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다.

이 책은 빅북으로 보면 멋진 그림을 더 크게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은 작품 표현을 다양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 기법이나, 소재, 화풍 등을 통해 밋밋한 내용에 생명력을 넣고, 긴장감을 불어 넣어 주기도 한다.

으뜸 헤엄이의 내용은 그리 호감과 감동이 있지는 않은듯 하다. 헤엄을 잘 치는 으뜸 헤엄이는 검은색 물고기로 홍학처럼 빨간 물고기들과 몰려다니다가 큰 물고기에게 무리가 모두 잡아 먹히고 바닷속을 둘러 보듯 소개하다가 홍학 물고기떼를 만나 큰 물고기처럼 변신하는 재치과 기지로 위기를 극복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림의 기법이 좀 다르다. 어떻게 한 걸까? 유리에 그림을 그리고 찍어내듯 표현했고, 바닷속 해초들은 레이스를 이용하여 찍어냈다고 한다.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과 표현이다.

이 책은 〈칼데콧 상〉을 비롯해 1969년 〈뉴욕타임즈 우수 그림책〉, 1965년 〈독일 정부 그림책〉, 1967년 〈BIB 황금사과상〉을 받았다.

칼데콧 상은 매년 여름 미국 도서관 협회 분과인 미국어린이 도서관협회에서 그해 가장 뛰어난 그림책을 쓴 사람에게 주는 문학상으로, 문학 부문에서 수상되는 뉴베리상과 함께 그림책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19세기 후반의 영국 그림책 작가 랜돌프 칼데콧의 이름을 따 제정되었으며 1939년부터 시상되었다. 다만 그림은 창작이어야 하고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백하고도 육십구일

칼 데스카, 로알 글. - 책빛. 2018.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비가 오는 날

박지원
(안성시립중앙도서관 사서)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존재한다. 부모와 자식 관계, 상사와 부하 관계, 교사와 제자 등 수많은 관계들 말이다.

크고 작은 인간관계 중 우정을 생각해 본다. 같은 우정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볼 수 있다. 동갑내기 친구, 선배와 후배, 남녀 사이, 노인과 어린아이, 주인과 애완동물, 이 모든 경우에서 우정이 생길 수 있다. 관계 중 비교적 어렵지 않은 조건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우정이라 하더라도 깊은 우정을 쌓기는 결코 쉽지 않다.

우정이란 서로를 위하고 생각해주어야 한다. 오랜 시간 곁에 있고 이야기는 많이 한다고 해서 형성되는 관계라기보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깊은 생각을 나누는 상대가 친구가 되기 쉽다. 이렇듯 친구를 만든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한번 생긴 우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서로 먼 곳에 있어 얼굴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말이다. 「이백하고도 육십구일」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인 소년은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외로워져 친구가 생각난다. 소년은 어떤 일을 해도 친구가 그립다. 친구는 도시로 떠나버렸지만 소년은 혼자 동네에 남아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백하고도 육십구일은 친구가 떠난 시간이다. 친구가 떠난 이백 하고도 육십구 일 동안 비가 내린다. 소년은 친구가 떠나기 전을 자주 떠올려보곤 한다. 언제든 소년의 집에 자유롭게 놀러 오고 학교가 끝나는 방과 후엔 학교 근처 산으로 가 둘이서 뛰어놀며 칼싸움도 했다. 또, 친구가 멋있어 보인 기억도 있다. 소년이 길거리에서 괴롭힘을 당하려고 할 때 친구는 소년을 구해주었다. 소년은 친구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우울해하고 외로워한다.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소년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책의 내용은 더없이 슬픈 내용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회상하는 친구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은 전부 가치 있는 것들 뿐이다. 친구가 가버렸지만, 흔적들은 남아있고 그곳에서 오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둘이 하던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친구의 빈자리는 소년에게 결코 작지 않으며 소년의 일상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다.

외로움이란 감정은 슬픔을 포함한다. 책에서 소년이 느끼는, 친구가 떠나고 소년이 가장 우울감을 느낄 때는 비가 온다. 배경은 전부 무채색으로 표현되었다. 반대로 소년이 과거 친구와 있는 생각하는 장면은 따듯한 색채가 많이 쓰였다.

그림에서 책이 말하는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 그림으로 상황의 시간을 알게 해준다. 또, 뻔한 이야기 같겠지만 친구가 떠난 힘든 시간을 지나 극복해나가는 이야기 속에 소년의 성장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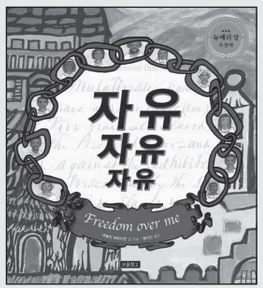
노르웨이의 올해 〈가장 아름다운 그림책〉과 〈비수엘트상〉 아동 도서 부문에 선정된 그림책으로 회색과 청색을 주조로 한 비오는 풍경은 소년의 먹먹한 외로움과 그리움을 잘 보여준다. 친구와의 이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마음에 상처를 경험한 모든 친구와 나누고픈 그림책이다.

처음에 소년은 친구를 잊지 못하고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것을 비로 표현했다면 시간이 지난 후 새롭게 이사 온 친구를 소년이 관심 있게 보는 장면에서는 분명 날이 갠 것을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소년이 예전의 친구를 쉽게 잊었다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를 사귄 소년에게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미 친구가 떠나버려 한 번의 슬픔을 겪은 적이 있고,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년은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아주 좋고, 이해력을 높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무엇보다 친구라는 존재와 인간관계에서의 만남, 헤어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 자유 자유

애슐리 브라이언 글·그림, 원지인 옮김.
- 보물창고, 2019.
김포시 장기도서관 아동308-보36사-7
초등 고학년 이상

인간의 자유와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연수
(김포시 장기도서관 사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현재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은 쇠사슬에 묶여 노예선에 몇 달간 갇힌 채 절반 이상은 죽고, 목숨을 보전한 이는 사탕수수를 재배하거나, 목화솜을 따는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 1963년 마틴 루서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 2008년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까지 참혹한 흑인 노예의 역사는 나아지고 있으나 결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은 1828년 7월 5일에 작성된 미국 페어차일즈가의 농장 감정서를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노예 11명은 소, 돼지, 목화와 함께 판매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름과 가격만 적혀 있는 것을 지은이가 인물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글을 썼습니다. 책 표지의 쇠사슬 안에 갇힌 노예들, 그 사슬 안에 쓰여진 「자유 자유 자유」라는 책의 제목은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꿈이었습니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뚜렷한 선과 화려한 색감들로 그려진 노예의 얼굴, 이름, 나이, 그리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차일즈가에서 맡은 일을 설명하고, 자신이 꿈꾸는 일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페어차일즈가에 필요한 금속 부품과 물건을 만드는 바커스는 화로에서 꺼낸 뜨거운 쇳덩이를 집게로 잡고 무거운 망치로 두드리며 생각합니다.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 존중을 향한 외침, 자유를 향한 호소를 말입니다.

긴긴 날이 지나서 법적으로 흑인 노예는 해방되었고, 흑인 대통령까지 배출해 냈지만 인종 차별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누려야 할 마땅한 자유와 존중을 기억하고, 끔찍했던 역사를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성숙한 사고와 따뜻한 배려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 인종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은이 애슐리 브라이언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강렬한 글과 그림으로 담아내며, 흑인 차별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뉴베리 상〉, 〈코레타 스콧 킹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레타 스콧 킹 상은 마틴 루서 킹의 업적을 기념하고, 세계 형제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한 그의 아내 코레타 스코 킹 부인의 용기와 의지를 기리는 상입니다.

이 책을 통해 과거와 그리고 오늘날의 인간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벽돌

조슈아 데이비드 스타인 글, 줄리아 로스먼 그림, 정진호 옮김. - 그레이트 북스. 2018.
김포시 장기도서관 아동843.6-스882자정-c.2
초등 고학년 이상

건축물을 좋아하거나 나를 찾는 위대한 여행을 해보고 싶은 초등 고학년 어린이



언젠가 위대하게 될 작은 것들을 위해

조연수
(김포시 장기도서관 사서)

책 표지가 흥미롭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멋진 건축물을 배경 삼아 붉은색 계통의 벽돌로 제목을 표현했습니다. 제목 위에는 위풍당당한 자세로 벽돌 하나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벽돌. 여기 이 작은 벽돌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주인공 작은 벽돌은 궁금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내게 맞는 자리는 어딜지, 나도 위대한 무언가가 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점점 자란 벽돌은 세상에서 자신이 자리 잡을 곳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둑에 지어진 성, 사막에 지어진 오래된 성에 도착한 벽돌은 숱한 전쟁으로 생긴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난 곳에서 교회, 모스크, 회당, 사원의 아름다움에 벽돌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곳들은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굽이진 장벽도 벽돌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잡한 도시의 아파트도, 좀 더 작은 마을에 똑같이 생긴 벽돌집도 벽돌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돌은 지나온 길을 다시 되새기며, 엄마가 말씀하셨던 "위대한 것들은 작은 벽돌에서 시작한다."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벽돌은 넓고 아름다운 길 귀퉁이에 다른 벽돌들이 여행 할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작은 벽돌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폴란드에 말보르크 성, 우즈베키스탄의 아르크 요새, 러시아의 성 바실리 대성당, 중국 북경의 만리장성, 영국 런던의 그로스베너 단지,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레빗타운 등의 건축물이 소개됩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벽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도 소중하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어린이들이 주변 도로에 깔린 벽돌들,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벽돌 등을 보며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찾는 위대한 여행길에서 여기 이 작은 벽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글을 쓴 조슈아 데이비드 스타인은 작가이자 기자입니다. 작가는 내용에 앞서 "한때 작았으나 위대한 것이 된 모든 것과 언젠가 위대하게 될 작은 것들을 위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정진호 작가는 건축을 공부하다가 그림책 작가로 현재 책 속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를 봐요」를 지었습니다. 그 밖에 「벽」, 「별과 나」, 「3초 다이빙」을 썼습니다. 그리고 「노란장화」, 「투명나무」, 「그랬구나」 등의 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2016년, 2018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두 차례 〈라가치 상〉을 수상했으며, 한국 〈안데르센상〉, 〈황금 도깨비상〉, 〈청강 문화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작은 벽돌 책을 읽은 후 정진호 작가의 책도 읽기를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그림도 보고, 그림책 속에서 나를 찾는 위대한 여행을 해보고 싶은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적당한 거리

전소영 글·그림. - 달그림. 2019.
40p. : 삽화 ; 30*18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13.8 ㅈ286ㅈ)
유아, 성인

친구와 잘 지내고 싶은 어린이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어려운 어른



나와 당신의 적정거리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나와 타인의 적정거리는 얼마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질문일 것이다. 「나를 위한 사회학」(이와모토 시게키. 2016)에서는 밀접한 관계인 경우 45cm이내, 상대방이 나의 체온과 냄새를 느낄 수 없고, 나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리이지만 손과 발로 상대방을 만지거나 잡을 수 있는 개인적인 거리는 1.2m이내, 그 외의 사회적 거리는 3.5m이내의 거리, 공적인 거리는 3.5m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단순하게 물리적 거리, 수치적 거리로 가늠하기 어려운 인간관계에서의 적정거리를 이야기하는 그림책이 있다.

「적당한 거리」는 식물을 키우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화자가 담담하게 풀어내는 그림책이다. "당신의 화분은 어쩜 그리 싱그럽나요?"라는 질문에 화분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정성스레 말해준다. 식물들도 성격이 달라서 물을 좋아하는 식물, 싫어하는 식물,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 음지를 좋아하는 식물의 특성을 알아가며 키워내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적당해서 그래. 뭐든 적당한 건 어렵지만 말이야." "그렇게 모두 다름을 알아가고 그에 맞는 손길을 주는 것. 그렇듯 너와 내가 같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일지도."

"한 발자국 물러서 보면 돌봐야 할 때와 내버려 둬야 할 때를 조금은 알게 될 거야."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는 산세베리아의 흙을 체크하듯, 햇빛을 좋아하는 율마를 발코니에 옮기는 것처럼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인 것이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적당한 거리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임을 깨닫게 해준다.

홍제천 들풀에 대한 그림책인 「연남천 풀다발」의 전소영 작가의 두 번째 그림책으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누군가의 화단을 보고 있는 듯 화분들의 특성을 알려주며, 세밀한 작가의 스케치가 이야기를 단순하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너무 좋은 친구는 자꾸 다가가고 싶기도 하고, 타인의 갑작스러운 참견으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상처받고 괴로운 일이 생기게 된다. 마음을 여는 친구의 속도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간섭을 이겨내고 싶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이 그림책을 추천한다. 친구와의 적당한 거리에 대해 더 궁금한 어린이는 「조지와 마사」 시리즈도 함께 읽어보길 권한다.

전쟁 : A Guerra

조제 조르즈 레트리아 글, 안드레 레트리아 그림, 엄혜숙 옮김. - 그림책공작소, 2019.
삽화 ; 23cm.
수원시 망포글빛도서관 (유808.91 뚝22ㄱ-20)
유아 ~ 성인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전쟁을 반대할 때



전쟁은 빠르게 퍼지는 질병처럼 일상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김현주
(수원시 바른샘도서관 사서)

스파이더맨은 뉴욕 시내를 질주하며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해주는 영웅이다. 하지만 「스파이더맨3」에서는 외계에서 온 수수께끼의 유기체인 심비오트(Symbiote)에 감염되어 어둠의 힘에 굴복한다. 결국 어둠에 맞서 싸워 이기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흑화된 블랙 슈트 스파이더맨은 어딘가 낯선 느낌이다.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하는 건 「전쟁」(그림책공작소, 2019)의 면지에 나오는 거미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한 수수께끼의 유기체가 심비오트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음침하고 속도감이 느껴지는 검은 물체가 점점 그 세력을 키워가며 빠르게 돌진하는 모습과 날아가는 까마귀가 불길함을 더해가는 가운데 "전쟁은 빠르게 퍼지는 질병처럼 일상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문구가 강렬하다.

불 꺼진 건물 꼭대기 한 곳. 노란빛이 스며나오는 창가에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불길한 물질들은 온갖 끔찍한 모습을 하고 돌진하고 사악한 모습으로 변한 전쟁은 무고한 사람들의 평온한 잠을 침범하고 모든 이야기를 사라지게 한다. 전쟁은 모든 것을 짓밟고 차갑고 그늘진 아이들을 만들어낸다. 전쟁의 혼돈 속에 한 사람의 가해자와 그에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숫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히틀러의 만행과 그에 고통 받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전쟁의 참혹함과 죽음의 고통을 먹고 자란 검은 물체는 점점 몸집을 키워가며 또 다른 증오와 야심과 악을 찾아 떠난다.

전쟁의 참혹함은 말로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타오르는 영광을 꿈꾸는 그 누군가의 야망이 계속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일까. 전쟁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사그라 들지 않기 때문일까. 이 책을 통해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은 그림에 검은색을 많이 써서 전쟁의 어두운 면을 생각하게 하고 글을 더 심오하게 만든다. 그림 작가 안드레는 처음 이 책을 글 없는 그림책으로 기획했지만 아버지 조제 조르즈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전쟁에 대한 각성과 경고를 말하게 되었다고 한다. 글과 그림을 수없이 고쳐가며 3년 만에 완성된 책이라고 하니 작가들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하게 된다. 읽고 나면 묵직한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전쟁」은 2018 〈화이트 레이븐〉, 제4회 〈나미콩쿠르〉 그랑프리에 선정되었다.

줄리의 그림자

크리스티앙 브뤼엘 글, 안 보즐렉 그림.
- 푸른책들, 2019.
109p. : 삽화 ; 25*25cm.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아8108 철92ㅇ 14)
초등전학년,

성별에 불만있는 경우
성역할에 관심있는 경우
부모가 될 어른



지금도 줄리로 키우지는 않나요?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표지가 눈길을 확 사로잡는다. 표지 속 여자아이는 하얀색, 그 아이의 그림자는 검은색, 그리고 아이의 모습 중 빨강색이 포인트 색처럼 작게 그려졌다. 하양, 까망, 빨강. 간결한 가운데 강렬함을 주는 그림이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아이의 그림자가 이상하다. 원래 형체와 그림자의 모양은 크기가 다를 뿐 모양은 같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아이의 그림자는 다르다. 여자아이 그림자가 남자 아이며, 여자아이가 하는 행동과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림자이다.

표지를 열기 전부터 공포물인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 짐짓 가벼운 이야기는 아닐거라는 생각을 한다.

글을 쓴 작가, 크리스티앙 브뤼엘과 안 보즐렉은 1975년에 이 그림책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에 출간이 되었다. 이제야 우리나라도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정서적, 시대적 배경이 무리가 없는 것일까? 44년! 너무 긴 시간이라 생각된다.

이 책을 출간한 1975년은 프랑스의 여성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막 시작하던 시기라 이 책의 내용은 기존의 어린이 책에 비해 다소 파격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 책은 2015년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다하니 프랑스 내에서도 「줄리의 그림자」는 영향력 있는 내용인 것은 확실하다.

책은 하양, 까망, 빨강의 3색을 간결한 선으로 묘사하나 내용은 평소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관념을 돌아보게 하며 성역할, 성정체성 그리고 부모라는 명분으로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짓게 했던 일들을 떠올려보게 한다.

책의 내용처럼 주인공 줄리가 선머슴처럼 행동하고 단정하지 못한 외양으로 다닐 때 나 역시 줄리 부모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고 비슷한 말을 했을 것 같다. 나도 “여자답게, 조신하게”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나도 그렇게 교육했을 것이다.

이 책은 ‘여자답게, 남자답게’란 것에 갇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줄리가 “나에게는 나다울 권리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책은 기존 관념에 갇혀 나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책은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우선 어른, 그리고 곧 부모가 될 신혼부부가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책 말미에 미술사학자이며 이 책을 번역한 박재연 씨의 책에 대한 후기의 글은 책을 읽고 난 뒤 다시 한 번 책을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지금도 제2의 줄리, 제3의 줄리로 키우는 부모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최강 청결 히어로 비누맨

우에타니 글·그림. - 아이세움. 2018.
32p. : 삽화 ; 26cm.
안성시 중앙도서관 (유833.8 우64ㅊ)
유아부터

손 씻기, 청결, 비누, 생활습관



오염군단을 물리친 비누맨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손을 잘 씻으면 감기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한다. 어린이를 위한 건강과 위생을 위해 이닦기, 손 씻기, 불량식품 멀리하기 등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한다. 손 씻기에 관한 책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책에는 요즘 인기 있는 영화 어벤져스와 같은 히어로들이 등장한다. 히어로는 바로 우리가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비누인 '비누맨'이다.

크레파스, 햄버거, 감자튀김, 초콜릿, 케이크, 진흙을 손으로 만졌을 때 손바닥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손바닥 마을을 오염단이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다. 이때 비누맨은 비상사태임을 알고 완전 무장한 뒤 손바닥 마을로 출동한다. 처음엔 비누맨이 오염단원을 물리치지만 오염단원이 거대해진 합체 때마왕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때 거품세정 기차가 지원을 오고 거품거품봇을 올라타고 비누맨은 드디어 때마왕을 물리친다. 최강 청결 히어로 비누맨이 꼬마 비누와 물로 더럽힌 손바닥 마을을 깨끗하게 되돌려 놓는다. 이 책은 마지막에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도 손이 더러워지면 비누로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요!"라고 손씻는 습관에 대해 강조한다.

만화처럼 말풍선과 글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책 내용 중간에 비누 관련 상식에 대하여 "배워볼까요?"라며 거품 세정제, 계면 활성제 등 어린이에게 어려울 수 있는 비누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 있다. 책의 말미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면 좋은 점이 참 많아요!'라는 내용으로 책 속의 이야기를 보충한다. 특이하게 앞면지에는 책 내용의 주인공들 소개, 뒷면지에는 비누 방울과 같은 보글보글 레스토랑 메뉴, 보글보글 숍 판매물품을 소개하고 뒤 표지에는 '우리의 히어로 비누맨!'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비누를 끝까지 영웅으로 만든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 중 손씻기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바이러스를 조심해!」(보물창고, 2017)가 있다. 「바이러스를 조심해!」는 보통 다른 책들처럼 바이러스가 몸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 위주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 한다. 이와 달리 「최강 청결 히어로 비누맨」은 손을 비누로 씻자는 메시지를 히어로를 통해 설명하는 점이 재미있고 독특하다. 작가는 부부로 국내에 청소년 대상으로 과학상식을 쉽게 설명한 「비커군과 친구들의 유쾌한 화학실험」, 「비커군과 실험실 친구들」, 「비커군과 교과서 친구들의 수상한 과학책」 등이 있다.

추억을 담은 지도

프란 누뇨 글, 주잔나 첼레이 그림, 김지애 옮김.
- 씨드북, 2018.
김포시 장기도서관 아808.9-씨27시-70
초등 저학년

특별하지는 않지만 일상의 잔잔한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소소한 일상의 기쁨

조연수
(김포시 장기도서관 사서)

주인공 '조이'는 전쟁으로 인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 전날 조이는 식탁에 지도를 펼쳐 놓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장소를 찾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집,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좋았던 학교, 보물 창고 같았던 서점과 도서관, 몇 시간이고 즐겁게 놀던 시내에 있는 공원, 거대한 화면이 마법을 부리던 영화관, 오리 가족과 물고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 줬던 강.

고향을 떠나는 조이가 지도의 점을 연결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도 위에 조이의 이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조이는 어딜 가든 이곳에서 보낸 행복한 순간들이 함께 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장소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는 장소들입니다. 조이는 전쟁으로 인해 이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장소들과 이별합니다. 하지만 조이의 지도는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조이처럼 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은 종종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이별이라는 무게에 파묻혀 슬퍼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도 조이처럼 희망을 가지고 더욱 단단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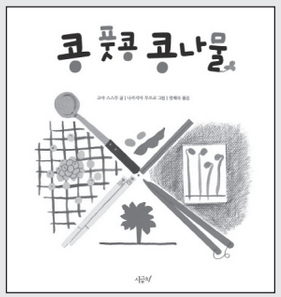
소소한 일상을 까만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게 글로 써낸 작가 프란 누뇨는 스페인 빌바오에서 태어났고, 어린이 책을 쓰며 출판사와 서점을 운영합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책을 추천해 주는 세비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5년간 출연했으며, 2017 뉴욕 〈빅북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뉴욕 빅북 상은 매해 아동, 청소년, 성인, 픽션, 논픽션 등 100여 개 이상의 카테고리별로 참여한 책 가운데 영어로 쓰인 우수한 도서를 뽑아 작가들과 출판사들에 주는 상입니다. 우승자들과 우승 후보자들에게는 미디어와 업계에 알려질 기회를 제공하며 「추억을 담은 지도」(영문판)는 2017년 〈모든 연령 대상의 그림책 부문〉 우승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수채화로 이야기를 더욱 풍요롭게 채워준 주잔나 첼레이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바르셀로나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삽화와 예술 사진과 판화를 공부했습니다. 「나의 상상 속에서는」에서 그린 그림으로 2013 문빔 아동도서상 〈최고의 삽화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콩 풋콩 콩나물

고야 스스무 글, 나카지마 무쓰코 그림,
엄혜숙 옮김. - 시금치. 2015.
23p. : 삽화 ; 32cm.
안성시 중앙도서관 (유833.8 고63ㅋ)
유아



콩이 같은 듯 다른 듯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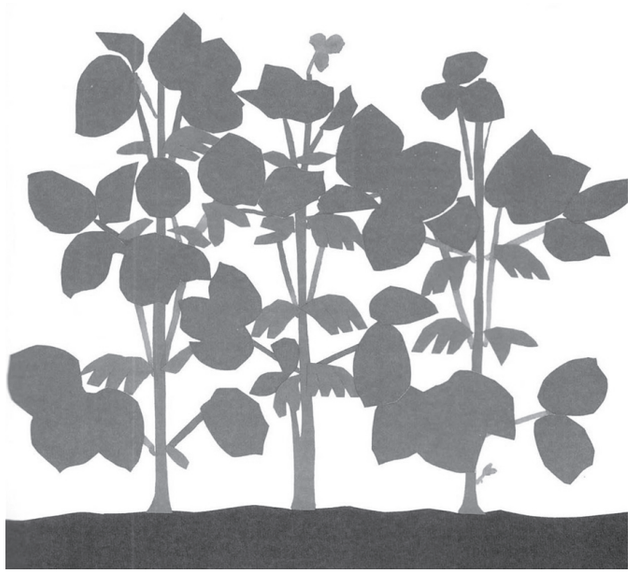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콩은 쉽게 먹을 수 있는 곡식 중 하나이다. 콩은 쥐눈이콩, 작두콩, 완두콩, 팥, 메주콩 등 다양하다. 「다 콩이야」 책에서 보면 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길러 먹었고 고구려 때부터 간장을 담가 먹었다고 한다. 이 책은 누르스름한 색의 콩을 소재로 한다.

옆집 할아버지께 콩 10알씩 받는 먹보 삼형제는 콩을 심어서 더 많은 콩을 가을에 수확한다. 다음 해에는 콩을 세 꾸러미로 똑같이 나누어 콩을 심기로 한다. 콩을 심기 위해 물에 담가 놓고 깜빡 잊어 땅에 못심은 콩은 콩나물로 자라버려서 '채소볶음'과 '콩나물 라면'으로 해 먹는다. 다음은 콩이 아직 초록색일 때 콩을 뽑아 풋콩으로 삶아 먹는다. 이제 다 자란 콩은 콩자반으로 먹는다.

같은 콩이지만 콩나물로 키워보고, 풋콩으로 삶아먹고, 콩자반 요리를 하는데, 먹을 때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구나" 하는 반복적인 단어가 나온다. 이 책은 씨앗 콩이 자라 열매 맺는 과정뿐 아니라 같은 콩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다양하며 이름도 다르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같은 콩인데도 모양이 다르면 이름도 다르구나. 어두운 물통에서 자란 것은 콩나물!", "꼬투리가 아직 초록빛일 때, 꼬투리째 삶아 먹는 것은 풋콩!", "다 익은 꼬투리에서 나오는 것은 콩!"이라며 뒷 이야기는 앞의 내용을 반복하며 마무리한다.

이 책은 콩과 콩으로 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 접근하는 방식이 독특한 책이다. 같은 콩이지만 콩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콩을 먹거리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다. 콩이 자라는 과정도 함께 설명한다. 콩을 심고 먹는 반복적인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다. 책 표지에 수저, 젓가락으로 이 책에 나온 콩, 풋콩, 콩나물, 콩풀 그림은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다양한 시각으로 콩에 접근한 것과 같이 민들레를 소재로 한 책으로 「민들레는 민들레」가 있다. 보통 민들레는 노란 꽃이 피었을 때 민들레라고 인식되는 데 이 책은 민들레가 꽃이 피기 전 싹이 났을 때, 꽃이 지었을 때, 꽃씨가 날아갈 때도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반복적인 글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끈다는 점에서 「콩 풋콩 콩나물」과 유사하다.



콩고에서 온 편지

박준형, 홍지민 글, 고현영, 이기호, 이다현 그림.
- 달라이트리, 2019.
15p. ; 28 cm
수원시 희망샘도서관(539.9-박76ㅋ)
유아~성인

환경문제, 동물보호



환경을 위한 선물

김현진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퇴근길, 집 현관문을 열기까지 30초를 남기는 구간에선 항상 설렘이 가득하다. '오늘은 어떤 택배가 기다리고 있을까'하는 기대감이다. 이 책도 그런 책이다. 표지라고 해야 될지 포장용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감히 책이라고 불러도 될지도 망설여지는 '상자'다. 일단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달려있으니 책이라 부르기로 했다.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형태인지 고민하며 상자를 열면, 모험 영화에서 나올법한 편지가 있다. 편지는 병풍 그림책의 형태로 총 세 장이다. 세 장의 편지는 발신 국가가 다르다. 몰디브, 하와이, 그리고 콩고에서 온 편지다. 각국의 아이들이 보낸 편지는 각자의 근황을 담고 있다. 무엇을 보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표현한다.

"몰디브는 곧 인어들이 살게 될 거래. 여기서 우리 대신 물고기와 거북이들이 살게 될 거야. 몰디브는 인어와 물고기들에게 맡기고 바다 건너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 하루라도 빨리 너와도 도시들을 구경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몰디브에서 온 편지)

그림책이 담긴 상자가 주는 설렘과는 대조적인 이야기다. 아이들이 써 내려간 편지도 각자의 설렘을 안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파괴되는 환경을 암시한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시선이 마음을 세게 후빌 때가 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때가 덜 묻어서 다행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생활터전은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재밌고 신기한 변화일 뿐이다. '몰디브에서 온 편지'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초들은 백화현상(탄산칼슘이 녹아 하얗게 보이는 현상)을 겪는다. 하얗게 부서진 산호는 따뜻한 나라에선 한 번도 보지 못한 하얀 눈송이가 된다. '하와이에서 온 편지'에서 바다에 밀려온 쓰레기는 생전 처음 만나는 신비한 장난감이 된다. 아이들의 즐거우며 담담한 말투는 상황을 더욱 암담하게 보여준다.

3장의 편지와 함께 '세계 환경 지도'가 동봉되어있다. 이 지도에는 편지에서 나온 내용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가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표현되어있다. 앙증맞은 그림과는 대조되게 동물들은 슬프고 화가 찬 표정을 짓고 있다.

누군가의 생활 터전이 위협받는다는 말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멀게 느껴지곤 한다.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활 속에 작은 노력을 실천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는 작아 보인다. '괜히 나만 사서 고생하나…', '남들은 일회용품 편하게 쓰는데…'하며 작은 행동이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 작은 실천에 지쳐간다면 이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길 바란다. 책의 표지는 콩기름으로 인쇄되었다. 콩기름 잉크는 인쇄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를 법하다. 마치 작은 노력이라도 실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작가의 응원 메시지처럼 보인다.

크게 작게 소곤소곤

로마나 로맨션, 안드리 레시브 지음, 김지혜 옮김.
- 길벗어린이, 2018.
김포시 장기도서관 아동892.89-로33크-김
6세 이상 어린이~성인

소리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눈으로 보는 소리의 모든 것

조연수
(김포시 장기도서관 사서)

책에서 소리와 만날 수 있을까요?

「크게 작게 소곤소곤」 책에서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소리를 글과 그림으로 세련되게 풀어낸 책입니다. 앞표지를 살펴보면 노란 배경에 큰 토끼 귀와 나팔 그림이 아주 감각적입니다. 책 뒤의 표지에 바코드도 흔한 바코드가 아닙니다. 오디오 스피커 이미지로 재치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고요했던 세상을 시작으로 음악, 악기, 목소리, 몸의 소리, 집의 소리, 소음, 자연의 소리, 동물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녹음, 언어, 고요함 등의 다양한 소리 관련 내용을 시각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소리에 관하여 과학, 자연, 음악, 인체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특히 귀의 구조, 악기, 목소리의 종류, 데시벨에 따른 소리, 소리를 다루는 사람, 각종 언어, 수화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 그래픽(information graphics)의 줄임말이며 정보,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각인효과가 커서 어린이들이 읽어도 양질의 정보를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책이지만 그림마다 현대 미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표지부터 그림책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강렬한 색감과 예술적 감각, 철학적인 글쓴이의 생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책을 지은 로마나 로맨션, 안드리 레시브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리보프 국립 예술학교를 졸업한 후 '스튜디오 아그라프카'를 설립해 책을 내는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작게 소곤소곤」, 「나는 본다」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인 볼로냐 〈라가치 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BIB 〈황금패 상〉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BIB는 격년제로 열리는 국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으로 라가치상, 안데르센상과 함께 세계 3대 그림책 공모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세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에게 추천합니다. 눈으로 보는 소리의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책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읽어내시길 기대합니다.

파랑 오리

릴리아 지음. - 킨더랜드. 2018.
40p. : 천연색삽화 ; 20 x 25 cm
성남시 운중도서관 (유808.9ㅍ94)
아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부모

조부모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모들



나는 엄마의 아기, 엄마는 나의 아기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파랑오리」의 책 표지에는 파란 연못에 엄마오리 배 위에 아기 악어가 눈을 감고 둥둥 떠 있습니다. 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독자로 하여금 마치 물결 위에 함께 누워있는 듯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어느 날 파랑오리는 아기 악어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간 곳에서 악어를 만납니다. 악어를 포근히 안아주자 잠이 들어 버렸고, 아기 악어의 엄마를 찾을 수 없었던 오리는 그날부터 악어의 엄마가 되어 줍니다. 파랑오리는 늘 아기를 지켜주고, 목욕을 시키고, 수영하는 방법까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며 스스로 "행복한 엄마"임을 깨닫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아기 악어는 발이 큰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늘 엄마가 아이에게 선물하던 예쁜 파란 꽃도 어느 덧 엄마를 위해 선물하게 됩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시간이 더 흘러가고 엄마가 되는 악어의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들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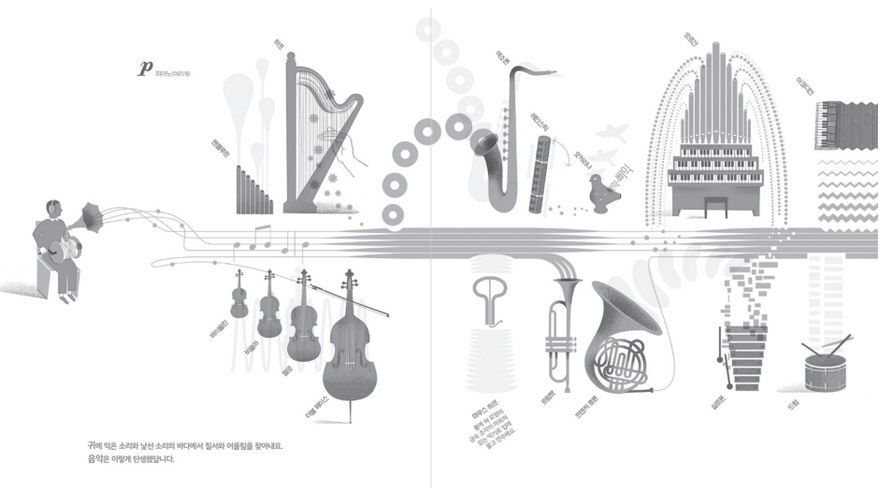
마음 따뜻한 오리와 악어의 이야기에는 유아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가는 너무 직접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읽는 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이 더 잔잔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2017년 창작그림책 콜라보레이션 수상작 「파랑오리」는 아르헨티나 출신 릴리아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식의 성장과 부모의 마음을 담은 이 책은 남녀노소가 읽기에 적합하며, 읽는 이에 따라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영유아의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특히 파란색, 엷은 회색으로 표현된 오리와 악어 그리고 꽃 그림에 표현된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악어가 오리를 품에 안고 잠을 청하는 장면에서 나타난 자녀의 마음을 그림 속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과 함께 영유아에게 부모의 사랑에 대해 알려주는 따뜻한 그림책에는 재즈 앨버로우의 「안아 줘!」(웅진닷컴 출판사, 2000)를 추천합니다. 아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여러 동물들의 그림과 더불어 작가의 메시지가 재치 있고 내용은 단순하게 표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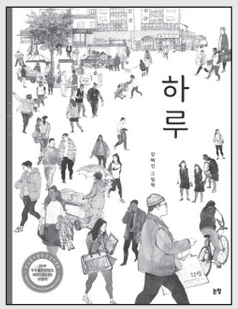
「안아 줘!」를 신나게 읽고, 차분히 「파랑오리」를 아이에게 소개해주면 좋습니다. 절제되었지만 마냥 무겁지만은 않게 그려낸 파란 오리의 사랑을 통해 깊은 이해와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강혜진 글·그림. - 논장. 2018.
44p. : 삽화 ; 21*28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08.9 ㄱ571ㄴ 50)
유아, 성인

하루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 유아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싶은 성인



매일, 일상의 힘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주인공이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치매로 삶의 기억이 지워지고 있는 주인공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으며, 별거 아닌 하루도 살 가치가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담담히 말한다. 그녀가 드라마의 말미에 들려주는 이 독백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하루하루는 고난이자 번뇌일 것이다. 더욱이 불안한 미래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매일 하루의 누적은 버거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담히 살아내는 힘은 개인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듯하다.

그림책 「하루」는 화가인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배낭을 메고 계단을 오르는 출근길의 면지로 시작되는 이 책은, 작가가 작업실로 향하는 하루와 매일의 작업을 이야기한다. 천천히 그리기도, 빨리 그리기도, 밤낮없이 그리다가도 막막한 순간들이 다가온다. 그러면, 마음을 재충전하고 돌아와 그린 그림들이 한 장, 두 장 쌓이고, 그 순간이 쌓여 한 권의 이야기와 책이 되었다.

"새 하루가 시작되면 다시 오늘을 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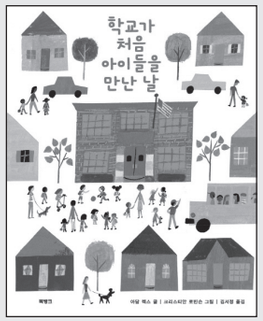
수많은 스케치와 채색, 메모들은 매순간을 열심히 살아간 작가의 흔적이자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변의 사람과 거리, 그 날의 기분들을 그렸다는 작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몫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두의 하루가 반짝이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작가의 드로잉이 눈에 띄는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8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선정작이다. 강혜진 작가의 첫 그림책인 「하루」는 수많은 스케치와 메모에서 작가의 성실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림 속 인물들은 개인의 순간이 느껴지도록 섬세하고 개성이 넘쳐 그림 속 거리에 함께 있는 듯 느껴진다.

막막한 매일을 보내는 이들에게 당신만으로도 충분하며, 자신 앞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견딜 수 있다는 응원과 함께 선물하고 싶은 책이다. 매일의 성실과 정직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마다 멋진 하루」(신시아 라일런트, 2012)와 개인의 일상을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매일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나는 지하철입니다」(김효은, 2016)를 함께 읽어보길 추천한다.

학교가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

아담 렉스 글, 크리스티안 로빈슨 그림,
김서정 옮김. - 북뱅크. 2019.
57p. : 천연색삽화 ; 32 cm.
성남시 판교도서관(유843.6ㄹ448ㅎ)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와 부모

낯선 상황이 걱정인 아이에게 읽어주면 좋은 책



모든 상황이 낯선 "처음"이라는 말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누구에게나 "처음"인 상황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고, 때로는 어렵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이러한 경험을 종종 겪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적응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면 주눅이 들 수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라면 어떨까요? 특히 "학교"라는 곳은 정해진 규칙대로 생활해야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지만 "공부"도 해야 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띈 공간입니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다니던 7살 어린이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옷과 물건들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초등학교' 입학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님도 수많은 정보들과 선택의 기로에서 서 있게 됩니다.

아담 렉스의 「학교가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은 사람이 아닌 학교 건물의 입장에서 '처음' 겪게 되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건물도 떨리고 설렐까요? 책은 학교가 처음 지어지는 공사 현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넓은 들판에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 마침내 학교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프레드릭 더글라스 초등학교"라는 멋진 이름의 표지판도 걸립니다. 학교를 청소해주는 재니터 아저씨와 둘만 있는 시간이 행복하기만 한데 이제 곧 온갖 아이들이 온다는 소식에 학교는 그만 움찔합니다. 더욱이 학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지요.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냄새가 난다는 둥, 등교가 싫어 한숨을 쉰다는 둥 학교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 나쁜 일들도 생기는데 조그만 여자아이는 엄마가 바짝 안아 들어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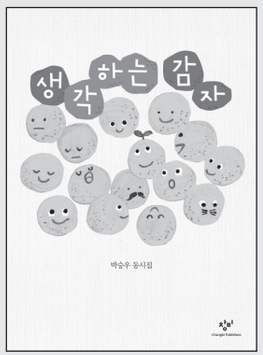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올해 소개된 이 책은 워싱턴 포스트, 퍼블리셔스 위클리, 커커스 리뷰가 선정한 2016년 베스트 그림책으로 뽑혔습니다. 배경이 미국인만큼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어울려 생활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울타리 그림에서 휠체어를 탄 아이의 모습, 친구와 인사하는 장면은 다른 그림책에서도 표현되고 현실에서도 일상화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가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와 부모가 책 속 여자아이의 표정 변화와 함께 학교의 얼굴이 그려진 모습을 비교하며 읽는다면 좀 더 재미있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감자

박승우 지음. - 창비. 2014.
동시집
초등 전학년

언어의 유희가 시작된 초등 전학년



감자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이은주
(남양주시 사서)

「생각하는 감자」는 시를 쓰는 것이 산토끼를 잡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박승우의 동시집이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좋아할 토끼, 재미도 있고 생각도 깊은 토끼를 찾아 세상 안팎을 다니는 시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한다.

염소, 개구리, 배추벌레, 고라니, 방아깨비, 다람쥐, 달팽이, 농게, 나비, 소금쟁이, 돼지, 북극곰, 소, 도둑고양이, 쇠똥구리, 청설모, 소쩍새, 민달팽이, 매미, 민지, 찬우, 창일이, 고은이, 보은이, 명섭이 그리고 생각하는 감자까지 두루두루 등장하는 총 58편의 동시가 실렸다.

제목: 염소1

까만 염소가/ 풀을 잔뜩 먹고는/ 나무 아래 누워서/ 곰곰이/ 되새김질해요./ 하는 일도 없이/ 먹기만 해도 될까?/ 수염까지 났는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한 번씩/ 고개를 저으며/ 되새김질해요./'

첫 장부터 시인은 본인이 염소가 된 것처럼 염소의 마음을 이야기 해주는데, 애 늙은이 같은 염소의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오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말뚝에 매여 있지만 풀 먹고 똥만 누는 염소가 아니라, 철학도 하고(염소3, 4), 달나라도 가고(염소5), 염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당당한 이유도 밝히더니(염소8) 급기야 하늘나라에 염소자리가 있어서 죽어서까지도 걱정 하나 없는 자존감 높고(염소9) 정체성 확실한 염소가 소개되었다.

건강한 시인의 낙천적이고 해학적인 시는 염소뿐만 아니라 감자가 나오는 마지막 동시까지 모든 사물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대변하기도 하는 물활론적인 관점의 대화가 고차원이 된 아이들에게 행복감과 웃음을 주는 시들로 가득하다. 전혀 어렵지도 않고 재미나기만 한 동시집이다.

제목: 방아깨비

요즘/ 맨날 놀고 있어요./ 방아찧을 일이 있어야지요./ 누가/ 일자리 좀 구해 주세요./ 다리는/ 무지 튼튼하답니다.

걱정근심 없는 아이처럼 경쾌하게 읽어도 되고, 방아깨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읽어도 좋다. 시 한편 한편을 마주할 때마다 사물을 바라보고 말은 건네는 작가의 대화의 기술은 한계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사물에 대한 생각과 말 건네기의 무한함을 마음껏 모방할 수 있게 하는 효력이 있다. 사물의 감정과 생각에 동화되게 하는 오묘한 기술이 있는 동시집이다.

제목: 생각하는 감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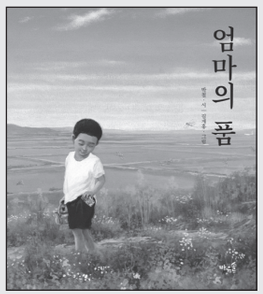
감자가 무슨 생각이 있냐고?/ 그럼 생각도 없이/ 때가 되면 싹 틔우고/ 때가 되면 꽃 피우나/ 생각도 없이/씨감자는 썩으면서/ 아기감자 키우나/ 생각도 없이/ 다시 싹 틔우라고/ 씨눈을 만들어 놓아/ 감자도 생각이 많답니다.

오감을 만져주는 다양한 생각놀이를 실컷 경험케하는 「생각하는 감자」는 창비의 동시집 시리즈 중 33번째 시집이다.

엄마의 품

박철 시, 김재홍 그림. - 바우솔, 2015.
36p. ; 27cm.
성남시 중앙도서관(811.8 ㅂ538ㅇ)
초등 저학년

엄마의 품이 그리울 때



동화 같은 동시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In Mom's Arms

It was during the summer rainds.
장마였다.
I had just started primary school.
초등학교 1학년 무렵
Between the showers tne sun shone
장마철 사이사이 햇살이 비치면
and then Mon would go out to weed the rice fields.
엄마는 논으로 파사리를 나가셨다.
With the rain, the weeds grew tall…
빗속에 잡초들 역시 쑥쑥 키를 세웠으니까…

「엄마의 품」이란 동시가 동화 같다. 그러고 보니 반대로 동화들이 동시 같기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디어의 전환이다. 좀 특이하고 신선한 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서두에서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썼듯이,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하여 수록을 하였다. 여태껏 우리가 보던 책들은 영어로 된 책들을 번역하여 영어권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눈으로 보던 것을 배우던 때에서 이제 한글로 쓴 동시를 영어로 번역하여 영어권 사람들이 우리의 눈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장치를 갖게 된 것이다. 의존적 관점에서 주체적 관점으로 어필을 하게 된 것이다.

책의 내용은 어린시절 학교가 끝나고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에 엄마가 논에 일하러 가는 길에서 만난 비를 소재로 한 시다. 엄마의 소중함과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서정적이면서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이 동시를 회상하듯 쓴 박철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창비1987』에 「김포 1」 등 15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고, 1997년 『현대문학』에 단편 「조국에 드리는 탑」이 추천되어 소설가로도 활동 중이다. 2010년 〈백석문학상〉, 2006년 〈단국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작가회의 시분과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시를 동화같이 표현하기에는 그림을 그리신 김재홍 선생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인간과 자연을 주제로 주로 작업을 한다.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는 「동강의 아이들」, 「숲 속에서」, 「로드킬-우리 길이 없어졌어요」가 있고, 그린 그림책으로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영이의 비닐우산」, 「아가 마중」 등 다수의 작품이 있는데 대부분이 서정적이고 아름답다. 「동강의 아이들」로 〈에스파스앙팡상〉, 「고양이 학교」로 〈앵코륍티블상〉, 「영이의 비닐우산」으로 〈BIB어린이심사원상〉을 수상한 실력가이다.

번역을 하신 안선재는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대학을 나오고, 1985년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현재는 동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1994년에 우리나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문학상 번역부문 대상, 대산문학상 번역상, 한국펜클럽 번역상을 수상했고, 2008년에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우리문학을 30권 이상 영문 번역을 하여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준 분이다.



3월이 방학인 학교	송승주	책읽는곰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DMZ 파라다이스	송준식	푸르름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고양이 펠리체의 사뿐사뿐 세계여행	조반나 조볼리	찰리북	**엄정란**	시흥시중앙도서관
곤니치와, 일본	조피아 파비야노프스카-미칙	풀빛	**이연수**	수원시대추골도서관
그래서 슬펐어?	고정욱	겨북이북스	**이연수**	수원시대추골도서관
꼬마 시장과 원자력 발전소	고수산나	꿈터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나는 소심해요	엘로디 페로탱	이마주	**이은주**	남양주시
나는 피구왕이 될 거야	정진	알라딘북스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나랑 도서관 탐험 할래?	나탈리 다르장	라임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나비가 된 소녀들	정란희	현암주니어	**엄정란**	시흥시중앙도서관
노란 샌들 한 짝	캐런 린 윌리엄스, 카드라 모하메들	맑은가람	**유향숙**	성남시중앙도서관
또 다른 연못	바이 파이글	밝은미래	**유향숙**	성남시중앙도서관
똥전쟁	오미경	시공주니어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마음이 그랬어	박진아	노란돼지	**임지혜**	성남시서현도서관
모모	미하엘 엔데	비룡소	**조연수**	김포시장기도서관
발레하는 호랑이	파비 산티아고	재능교육	**이연순**	반달어린이도서관
보리바다	김미영	고래뱃속	**이연순**	반달어린이도서관
빤쓰왕과 공포의 장난감	앤디라일리	파랑새	**이은주**	남양주시
빨간 벽	브리타 테켄트럽	봄봄출판사	**전진희**	안산시부곡도서관
빨간볼	얀 더 킨더르	내인생의책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소금차 운전사	올라도 위크스	단추	**김보라**	화성시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손으로 보는 아이, 카밀	토마시 마우코프스키	소원나무	**이은주**	남양주시
쉬! 나는 섬이야	마크 얀센	주니어김영사	**엄정란**	시흥시중앙도서관
스즈짱의 뇌	다케야마 미나코	봄나무	**엄정란**	시흥시중앙도서관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세라 저코비	미디어창비	**전진희**	안산시부곡도서관
아름다운 것은 자꾸 생각나	신현이	문학동네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안녕, 우주	에린 엔트라다 켈리	밝은미래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올레, 스페인	모니카 비엔-쾨니히스만	풀빛	**이연수**	수원시대추골도서관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	김을호	크레용하우스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잃어버린 책	서지연	웅진주니어	**김현주**	수원시바른샘어린이도서관
자유 자유 자유	애슐리 브라이언	보물창고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장갑	로마나 로마니신, 안드리 레시프	책빛	**이은주**	남양주시
조선 엿장사 큰노미	최주혜	키즈엠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지하차도 건너기	하모	우주나무	**이은주**	남양주시
초코가루를 사러 가는 길에	박지연	재능교육	**엄정란**	시흥시중앙도서관
평화를 보는 눈	정주진	개마고원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하늘을 울리는 바이올린	송재찬	밝은미래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호랑이가 책을 읽어준다며	존 버닝햄	창비	**이연순**	수원반달어린이도서관
호텔 파라다이스	소윤경	문학동네어린이	**전진희**	안산시부곡도서관

3월이 방학인 학교

송승주 저. - 책읽는곰. 2019.
63p. :천연색삽화 ; 22 cm
안성시 중앙도서관(아813.8송57)
초등학생 이상



마법이 일어났어요!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처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첫사랑, 첫 여행, 첫 학교… 우리는 모두 '처음' 이라는 단어의 신비한 마법을 잘 알고 있다. 처음은 언제나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설레고 잘 모르는 만큼 떨리고 또, 알아가기 전인 만큼 두렵기도 하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처음'이라는 단어는 비단 큰 것 뿐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물론 '첫' 이라는 접미사가 붙지는 않지만 새 학년, 새 학기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 동화집에서도 이렇게 생소하고 간질간질한 마음을 주제로 잡았다. 이 동화집은 총 3개의 이야기로 나뉘어 있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주제가 같다. 첫 이야기인 「도깨비, 아니 도계빈 선생님」 이야기에서는 방구진이라는 아이의 시점에서 새 담임선생님을 바라본 이야기이다. 자신이 도깨비라고 주장하는 담임선생님과의 학교생활은 어떨까?

두 번째 이야기인 「알쏭달쏭 마법 세탁소」에서는 새학년 첫 날, 좋지 않은 시작을 하게 된 민지의 이야기이다. 여러 일로 첫 날 운수가 나빴던 민지는 마법세탁소에서 구겨진 마음을 펴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끌리듯 방문한다.

마지막 이야기인 「3월이 방학인 학교」는 새학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던 아이들이 마법처럼 마치 선생님을 만나고 3월이 방학인 학교로 전학가기로 하는 이야기이다.

이 동화집의 가장 큰 특징은 세 이야기 모두 마법과도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첫 이야기에서는 도깨비 도계빈 선생님이 등장하여 마법을 보여주고, 두번째 이야기에서는 마법 세탁소에서 얼룩진 마음을 새하얗게 만들어주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마치 선생님이 마술처럼 등장하고 또 사라진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이 이야기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갖가지 그려져 있는 삽화들은 이 환상적인 이야기에 익살스러움과 신비로움을 더해준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 이야기들과 그림을 함께 보노라면 꼭 독자도 이 학교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무엇보다도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이야기를 주제로 정하여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집중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 고민을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그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내어 어린 독자층이 읽는 내내 흥미롭게 만들었다. 덧붙이자면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세 번째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소소한 재미를 안겨준다. 나는 이 책을 이 책의 주인공들과 또래인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나가고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비단 이 이야기들이 동화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DMZ 파라다이스

송준식 글. - 푸르름. 2018.
156p. : 천연색삽화 ; 23 cm
안성시 중앙도서관(아813.8송76)
초등학생 이상



통일, 그리고 비무장지대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작년과 올해 초반까지는 온풍이 불던 남북관계에 최근 있었던 일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정세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국에 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각자의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분단으로 인해 생긴 비무장 지대, DMZ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 비무장 지대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로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비무장 지대는 주로 적대국간의 무력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설정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6.25 전쟁 이후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비무장 지대에 사람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동물과 식물의 천국이 되었으며, 멸종 위기종과 같은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자란다고 알려져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비무장 지대에서 사는 동물들을 다룬 동화이다. 비무장 지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통일이 되면 자신들의 낙원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반대하는 동물들과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인간들의 대립,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 등등 이야기의 큰 흐름과 그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가 잘 어우러진 동화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다. 통일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있는 동물들의 처우에 대한 메시지 말이다. 사실, 통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비무장지대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어린 세대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다.

인상 깊은 부분은 어린 동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장면이었는데, 늙은 동물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와 개선점 그리고 인간들과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어린 동물들이 협상을 하기 위해 떠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이 행동하는 정신에 대해서 공감하며 그런 점을 배웠으면 했다.

통일이니, 비무장 지대니 미사일이니 하는 무거운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단어의 빈도를 줄이고 아이들이 읽기에 어렵지 않도록 작성하였으며, 쉽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묘사와 서술보다는 대화의 빈도를 대폭 늘렸다. 또, 문학적인 묘사보다는 어린이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이나 신세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여 읽으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으며 통일과 비무장 지대에 대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고양이 펠리체의 사뿐사뿐 세계여행

조반나 조볼리 글. - 찰리북. 2019.
62p. : 삽화 ; 32cm.
시흥시 중앙도서관(아883 조45ㄱ)
초등 저학년

칭찬받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권함



행복한 칭찬 세계 여행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

이 책은 도시에 사는 고양이 '펠리체'가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친척들을 찾아 세계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펠리체는 호랑이 가족을 만나러 황금빛 사원이 있는 인도로, 눈표범 이모들을 만나러 기다란 강이 흐르는 중국으로, 스라소니 삼촌을 만나러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 나라 러시아로 간다. 또한 사촌 퓨마를 만나러 깊고 험한 골짜기와 너른 벌판이 있는 미국으로, 검은 표범을 만나러 빼곡한 숲으로 덮인 브라질로, 마지막으로 사자 가족을 만나러 검붉은 화산이 있는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다.

펠리체는 친척들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퓨마와 만난 뒤 사는 곳만 다를 뿐 퓨마와 자신이 사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검은 표범을 만난 뒤 높은 데에서 움직이거나 살금살금 다니는 것은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생각은 자만임을 깨닫게 된다.

펠리체는 친척을 만날 때마다 친척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점을 칭찬해 준다. 호랑이 가족한테는 용맹스러운 턱과 부리부리한 눈동자가 근사하다고 칭찬해 주고, 눈표범 이모들에게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다는 말을 해준다. 스라소니 삼촌에게는 귀와 털이 멋지다고 칭찬해 주고, 검은 표범에게는 밤의 한가운데를 누비는 여왕같이 신비롭다고 칭찬한다. 펠리체의 칭찬을 들은 친척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누구보다도 기뻐한다. 기뻐하는 친척들을 바라보는 펠리체도 누구보다 행복해한다.

"아무리 찾아도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기억해요. 고양이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홀로 조용히 집을 나서요. 세상을 여행하는 모든 고양이가 그렇듯이 어둠 속에서 살그머니 문을 열고 여행을 떠나지요.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즐겁게 세계 여행 중인 고양이를 기다려 주세요."

펠리체의 여행 이야기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마치 자신이 세계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 것이다. 평소 키우던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친척들을 만나러 세계여행 중일 거라는 가정에는 숨바꼭질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습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 고양이의 평소 행동을 관찰한 뒤 거기에 상상력을 더해 글로 표현한 것이다. 독자들은 이 내용을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다. 촘촘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설계된 글과 그림, 마치 서양 민화 작품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 것이다. 또한 원색적이고 강렬한 색채감이 세련되게 전개되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기 쉽게 구성 되어 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펠리체는 이탈리아어로 '행복한'이라는 뜻으로, 펠리체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친척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자 저절로 펠리체에게도 행복이 찾아온 것이다. 여기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별 것 아닌 작은 행동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칭찬 받고 싶어하는 아이와 부모가 이 책을 읽는다면 잠시나마 여행의 행복도 느끼면서 남을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이 이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에게 칭찬 한마디 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 눈높이를 맞춰주면 펠리체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행복해 할 것이다.

곤니치와, 일본

조피아 파비야노프스카 - 미칙 글,
요안나 그로호츠카 그림, 이지원 옮김.
- 풀빛, 2018.
155p. : 삽화 ; 24cm.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아909 책67ㅍ 1)
초등전학년

일본을 가기 전에 읽으면 좋을 책



사요나라, 일본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풀빛출판사의 〈책으로 여행하는 아이〉, 시리즈 1편이다. 1편 「곤니치와, 일본」, 2편 「맘마미아, 이탈리아」, 3편 「올레, 스페인」 등 시리즈로 출간된 책이다.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3편 올레, 스페인을 재미있게 읽고 나니 1편인 일본이 궁금해졌다. 일본을 세 번 다녀왔기에 나름 일본을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읽는 내내 '이 책을 읽고서 일본을 다녀왔다면 뭐든 아는 만큼 보여지는 것이니 이해의 폭이 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우리나라와 거리상 제일 가까운 이웃인 일본. 그러나 거리만 가깝지 역사적으로는 회한이 많아 감정적으로는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는 나라이다.

그 동안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아서일까? 일본은 과거 우리에게 피해만 주고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을 잔인하게 죽인 못된 나라라고만 여겨 일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니 그만큼 사전 지식도 없었다. 그러나 몇 번의 일본을 다녀온 뒤 조금씩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졌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들은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이다. 어떤 것이 일본을 앞서게 하는 것인지 그들의 강점을 알아야 한다.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일본을 객관적으로 느끼고 집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조피아 파미야노프스카-미칙은 일본어 문학을 전공하고 문화 전문 기자로 활동하며 《파니》, 《엘르》,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 등에 칼럼을 기고하였는데, 이 책은 작가가 쓴 첫 번째 어린이 책이다.

책은 일본의 지도에 중요한 지명과 지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 나라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책의 차례는 책 앞면에 배열하지 않고 뒤에 배열하여 마치 사전의 색인(index)부분을 연상시켰다. 이 책은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된다. 목차에 나온 제목 보고 끌리는 부분부터 펼쳐서 읽다 보면 또 다른 끌리는 제목이 보여 결국 다 읽게 된다.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므로 읽는 데 부담이 없다.

책에 소개된 내용은 34개의 분야로, 그 내용은 나라를 대표한 언어, 요리, 역사 축제, 음식, 인형, 옷 등 그리고 일본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일장기, 벚꽃, 다다미, 다도, 기모노 등을 간략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내용은 어린이뿐 아니라 일반인이 읽어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특히 헬로 키티와 손 흔드는 고양이 인형 마네키 네코가 같은 의미의 인형이었다는 내용이나 도라에몽, 토로로, 닌자 등에 관한 몰랐던 내용을 읽을 때는 나도 모르게 아! 라는 말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도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다양한 내용이 많기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읽으면 좋을 듯하다. 그러나 일본 여행 가기 전 구체적인 관광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일본 문화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추천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일본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일반인을 위한 책을 한 권 추천하자면 세그루 출판사의 「지금은 일본을 읽을 시간」(부제 : 교사들이 제안하는 일본 바로 알기)이다. 함께 읽는다면 최근의 일본 문화와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서명인 「곤니치와, 일본」을 번역하면 낮에 만날 때 하는 인사 '안녕? 일본'이다. 이 책을 다 읽고나니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인 '사요나라 일본'(안녕! 일본)이라고 하고 싶다.

그래서 슬펐어?

고정욱 글, 송헤선 그림. - 거북이 북스. 2018.
109p. : 삽화 ; 24cm.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아998.6 오94ㅂ)
초등고학년

장애우에 대한 차별 상황일 때



장애를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10년전 오스트리아에 여행 갔을 때 일이다. 평일 낮인데 시내에 장애인들이 참 많이 다녀 나도 모르게 "이 나라는 장애인들이 많은가 봐"라고 말하였는데 함께 한 여행 가이드가 "그게 아니라 한국은 장애인들이 시내를 다니기에 불편하여 나오지를 않지만, 오스트리아는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가 정비되어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라고 말해주셨다. 그 말에 '선진국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시설뿐 아니라 의식이 앞서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것인가?'그 후 여행 내내 둘러본 유럽의 버스나 지하철, 보행자용 도로 등은 모두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사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불과 10년 전 만 해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에게 친절한 도시는 아니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지만 장애우에 대한 시선이 아직도 관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만든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겠지만 오히려 장애우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특별함을 주는 게 아닐까 싶다. 장애인을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그런 느낌이 든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데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관대하지 못한 시선에 대한 내용을 다룬 이 책은 고정욱 작가와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한 동화라 더욱 사실감 있게 느껴졌다. 고정욱 작가는 장애를 가진 작가로서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등 주로 장애에 대한 소재를 쓴 동화작가이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장애란 평범하지는 않지만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편견에 장애우인 작가와 비장애우 작가의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고 생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빠가 장애인이지만 평범하다고 생각하던 준이가 친구인 가람이로부터 장애인 아빠를 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받았을 상처는 장애를 가진 아빠와 준이엄마에게 더 큰 부메랑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장애에 대해 폄하한 준이 친구 가람이를 무조건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지도해주는 모습은 다소 상투적이고 교훈적으로 비출 수도 있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라 보인다.

"장애인이 노력한다고 장애를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보자"라는 준이 엄마의 말은 신체의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바라보는 마음과 시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 후천적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은 장애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다고 한다.

이 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동화로 추천하고 싶다.

꼬마 시장과 원자력 발전소

고수산나 글. - 꿈터. 2018.
127p. : 천연색삽화 ; 23 cm
안성시 중앙도서관(아813.8고56ㄲ)
초등 저학년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보통 시사에 무심한 사람들이더라도 원자력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부터 비교적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 원자력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은 워낙 잘 알려진 일들이기 때문에 들어보지 않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일은 이제 우리 사회의 단골 토론 주제가 되었다. 그 위치나 그 위험성에 대한 재고, 그리고 유용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의견과 생각이 다른 만큼 서로 입장이 다를 텐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행복시'에서는 나이가 두 자릿수 넘어가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비뽑기를 해 빨간 공이 나온 사람이 시장이 된다. 주인공 리아는 올해 열한 살로 역대 최연소 시장이 된 아이이다. 꼬마 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리아는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청렴하게 행복시를 잘 이끌어나가는데, 옆 도시인 기쁨시를 통해서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원자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시장 리아는 원자력의 유용성에 관해 알게 되고, 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와 위험성에 대해 서서히 알게 되면서 리아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을 반대하게 된다.

예상 독자를 어린이로 설정한 만큼 어린이의 시선에서 원자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와 원자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원자력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등을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었다.

전반적인 내용 측면에서도 원자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원자력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특히 리아와 그 친구들이 기쁨시의 원자력 발전소에 잠입하는 부분은 아이들도 자신이 함께 잠입하는 것처럼 설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익살스러운 그림체로 삽화를 중간중간 넣어 아이들이 볼 때 더 즐거울 것이다. 어린이들이 부분 부분 그려져 있는 삽화를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상상하며 읽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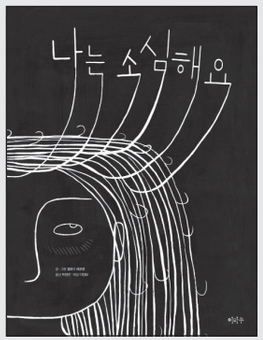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더 알아볼까요?' 코너이다. 방사능과 원자력에 관해서 아이들이 잘 모를만한 지식들을 알려주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이 책을 읽는다면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능에 관한 웬만한 토론 쟁점에 대해서는 대강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원자력에 관한 사건, 사고와 원자력에 관한 논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만큼 미래 세대도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논쟁이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현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원자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소심해요

엘로디 페로탱 글·그림, 박정연 옮김.
- 이마주, 2019
초등 전학년

소심하고 부끄럼 많다고 생각하는 모든 어린이



소심함을 신중함으로

이은주
(남양주시 사서)

소심하시다구요!
그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똑바로 말해 봐! 뭐라고?"
"분명하게 다시 말해! 더 크게 말하라고!"
"부끄러워요. 남들은 쉬운 일이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책장을 두어 장 넘기면 전 지면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커다란 손가락이 아이에게 다그친다. 부끄럼 많은 아이의 마음은 뾰족뾰족한 산이 가득 찬 것처럼 불편하고 침울하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똑바로, 분명하게, 크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다고 외치지만 정작 아이는 이미 불편해진 마음으로 자꾸만 더 숨고만 싶다. 작가는 아이의 그런 심정을 반쪽 얼굴, 쳐진 어깨, 쳐진 앞머리로 표현하고 있다.

아이가 소심한 성격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서슴없이 잘 어울리고 싶은데 소심함은 아이를 따라다니며 불편하게 한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소심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말이다.

아이가 불편하기 짝이 없는 소심함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노래를 불러보지만 금방 부끄러워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해보려 했지만 그 사람이 귀찮을까봐 질문도 하지 못해서 실패한다.

아이는 점점 주눅이 들어간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소심하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 스스로 '나는 소심해'라고 확정 짓고 움츠리고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아, 소심한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이도 독자도 다 함께 걱정으로 가득할 때, 누군가 말해 준다. '소심함은 병이 아니라고. 소심함은 큰소리나 커다란 몸짓으로 반응하지는 않지만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어서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심한 사람과도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이 말에 아이는 자신의 '소심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로 한다. 부끄러워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소심했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고 좋아해 주기 시작한다. 사람들을 대할 때 생겼던 불편한 '소심함'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특별한 관점이 된다. 자신은 '소심한' 게 아니라 '신중한' 거라고.

이 책은 이마주출판사의 〈철학하는 아이 시리즈〉 중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편이다. 유난히 부끄럼 많은 아이들의 생각을 돕는 책으로 소심함을 '신중함'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돕고,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의 아름다운 어울림을 생각하게 돕는다.

'기질은 극복하는 게 아니며 내향적인 기질의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과 편안한 환경이 주어지고 수많은 경험이 쌓이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생각도,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한국아동심리코칭센터 소장의 덧붙인 말이 아이의 안전한 성장을 돕기에 충분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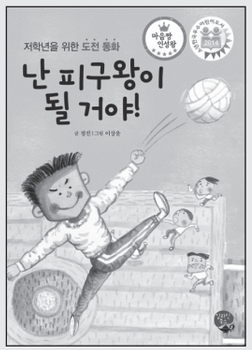
아이의 쳐진 앞머리가 하늘로 올려가고, 슬퍼보였던 표정이 밝아지고, 그림의 컬러가 바뀌고, 소심했던 아이가 신중한 아이로 변화하는 과정의 그림의 차이를 찾는 재미도 특별한 책이다.

비슷한 주제의 책 「빨간얼굴 질루와 부끄럼쟁이 물고기」(질 티보 글·그림, 이정주 옮김. 어린이작가정신), 「얼굴 빨개지는 아이」(장 자끄 상뻬 저, 김호영 역. 열린책들)와 함께 읽으면 더 재미있을 것이다.

난 피구왕이 될 거야

정진 글, 이상윤 그림 - 알라딘북스. 2018.
80p. : 삽화 ; 24cm.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아813.8 정78ㄴ)
초등저학년

욱하는 친구를 위한 책



가장 힘든 건 나를 이기는 것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체육 꿈나무를 목적으로 꿈꾸는 어린이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표지 그림도 남자아이가 피구공을 힘차게 날리고 있다.

주인공 재승이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남자아이다. 체육, 특히 피구를 아주 좋아하고 화나면 참지 못하고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아이다. 재승이의 이런 욱하는 성격을 빗대어 주변 친구들은 앵그리 버드라는 별명을 붙여 부른다. 아이들은 재승이의 이런 모습이 재미있어 약을 올리고 화가 나게 만든다.

늘 '앵그리 버드'라 불리는 재승이에게 담임 선생님은 쉽지 않은 제안을 한다.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모범적이거나 착한 행동을 하면 도깨비 카드를 상으로 주고 반대로 나쁜 행동을 하면 도깨비 카드를 회수하는 게임을 한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구는 도깨비 카드가 있는 친구만 할 수 있다는 규칙을 정한다.

재승이는 도깨비 카드를 받아도 욱하는 성격으로 번번히 다시 뺏겨 피구 게임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화가 나거나 성질을 참으면 빨갛게 얼굴이 변하는 앵그리 버드란 별명이 너무 싫고, 그 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아보려고 해도 번번히 실패다. 실패가 더 속상한 것은 너무도 좋아하는 피구시합을 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할까. 또한 그런 자기 자신의 나쁜 점을 고치리라 마음을 먹고 학교를 오지만 결국 극복하지 못했을 때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과연 재승이는 자기 자신의 나쁜 점을 극복하고 피구왕이 될 수 있을까? 이 점을 생각하고 책을 읽다보니 어느 순간 재승이가 남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내 주변에도 앵그리버드가 많이 있고 나 또한 가끔 욱하는 성격으로 앵그리버드가 되어 후회한 적도 있으니까… 그런데 재승이는 고치려고 계속 노력하고 도전하는데 난 과연 그랬을까?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다. 결심한 마음이 삼일을 못 간다는 이 말은 마음먹은 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실현시키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런데 재승이는 매일 매일 실패를 하고 피구시합에 못나가 화가 나지만 매일 매일 다짐하고 도전한다. 내가 부모라면 재승이의 노력을 칭찬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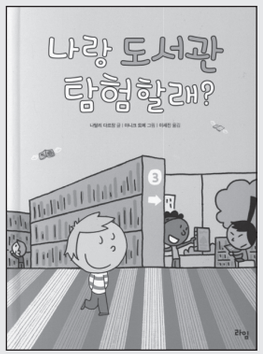
작가가 머리말에 아이슈타인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실패함에도 도전하는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을 아이가 읽고 나서 만약 내가 앵그리버드 재승이라면 어땠을까? 라고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나랑 도서관 탐험할래?

나탈리 다르장 글. 야니크 토메 그림, 이세진 옮김.
- 라임, 2019.
43p. : 천연색삽화 ; 24 cm
안성시 중앙도서관(아863다297ㄴ)

책을 싫어하는 어린이



책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우리들은 언제 책을 처음 접했을까? 3살? 5살? 10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나이가 들면서 책을 접하는 빈도수는 자연스럽게 늘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책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다른 장난감들에 비하면 지루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책을 좋아하게 되는 방법은 뭘까? 끊임없이 책을 접하고, 읽으며 자신에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책을 찾고, 또 반복하다 보면 책을 읽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처음부터 어렵고 두꺼운 책을 읽을 수는 없다. 책을 친숙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법은 짧고 가벼운 책들부터 많이 접하는 것이다. 책이 싫어 멀리하기만 하는 아이 톰은 어떻게 작가의 꿈을 가지게 되었을까? 「나랑 도서관 탐험할래?」를 읽어보자.

톰은 책을 아주 싫어한다. 톰의 누나인 마틸드와는 정반대로 말이다. 이모와 누나, 그리고 부모님의 설득과 꾸짖음에도 톰은 책을 읽을 마음이 들지 않는다. 부모님의 독서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는 톰의 마음에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러던 어느날, 마틸드는 톰에게 책을 계속 읽지 않는다면 중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톰은 정말 자신이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성공한 어른이 될 수 없을까봐 걱정한다. 톰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은 뤼카의 누나인 중학생 마르졸렌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한다. 그러자 마르졸렌은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으로 향한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이 관심있는 구역으로 흩어지지만, 도서관에 와 본 적이 없는 톰은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른다. 하지만 돌아다니다 보니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나름 재미있고, 사서 선생님이 추천해 준 책도 읽기로 마음 먹는다. 그러나 사서 선생님이 추천 해 준 책은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책이었고, 톰은 읽을 수 없어 실망했다. 하지만 마르졸렌의 아이디어로 책의 이야기를 톰이 직접 지어보게 되면서 톰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작가가 되기로 마음 먹는다. 톰이 책을 즐겁다고 느끼게 된 이 이야기는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내가 이 책이 다른 책보다 짧게 느껴져 좋다고 생각한 부분은 책에 관심이 없고, 친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톰처럼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아이들은 처음부터 책에 관심가지기는 어렵다. 자신과 비슷한 다른 아이의 경우를 알려주고, 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는다면 금방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책의 유익함을 알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접하여 자기 주변에 책이 있는 것에 익숙하게 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기에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더욱 더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나비가 된 소녀들

정란희 글. - 현암주니어. 2017.
162p. : 삽화 ; 22cm.
시흥시 중앙도서관(아813.8 정292ㄴ)
초등 고학년

다문화 친구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



소녀야!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으렴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

3월은 우리에게 8월 15일인 광복절과 같이 뜻깊은 달이다. 3.1운동이 일어났으니 호국의 달이기도 하다. 특히 3.1 운동 때 고작 17살 여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을 하다 징역 7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순국하였다. 유관순 열사에게 가해진 고문은 그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성고문까지 불사하였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어른도 감내하기 힘든 고문을 견뎌내었는지 놀라우면서도 측은하기까지 하다.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유관순 여사 얘기를 꺼낸 것은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의 가엾은 소녀들이 수없이 희생됨을 추모하고 싶어서다. 나라가 전쟁 중이거나 식민지 시대 때는 특히나 어린이와 여자들이 기아 및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나비가 된 소녀들」은 필리핀 엄마를 둔 다문화 가정의 다연이가 1인칭 관점에서 쓴 이야기로, 다연이의 학교생활 및 가족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연이의 엄마는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오고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여성이고 큰 회사 연구원인데 늘상 바쁘다. 왜냐하면 결혼이주여성센터 필리핀 공동체에서 무료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연이 엄마에게는 '넬마'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넬마'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건 일본군의 성노예였던 '위안부'…

지금껏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면서 과거의 그들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인정하라고 스무 명도 채 남지 않은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은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성노예로 끌려간 그들이 치러야 했던 전쟁은 병사들이 겪은 전쟁보다 더욱 끔찍하고 참혹했을 것이다. 먼 나라에서 그들은 육체와 정신을 유린당하는 이중의 참혹함을 겪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녀들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자신들이 겪은 끔찍한 아픔을 오히려 숨겨야 했던 소녀들, 오래 전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녀들이다.

필리핀 '넬마' 할머니를 비롯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 나아가 중국, 대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희생된 그분들께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

"난 할머니들의 잃어버린 소녀를 찾아 줄 거예요.
커다란 아픔을 딛고 밝은 세상으로 돌아와 환하게 웃을 수 있게 해 줄 거예요!'

나연이의 소망처럼 이제는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진실을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나서주길 촉구한다. 후손들이 선조들이 해 왔던 과오를 답습하지 않도록 인류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문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사라지길 바란다.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등학교 고학년이 읽기에 적절하며 다문화 친구가 있는 학생에게 권하고 싶다.

노란 샌들 한 짝

캐런 린 윌리엄스, 카드라 모하메들 지음, 둑 체이카 그림, 이현정 옮김 - 맑은 가람. 2007.
36p. ; 24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아 808.9 ㅍ43 1)
초등생 1~6학년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발은 네 개, 샌들은 두 개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작가 '카드라'는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도시인 페샤와르 난민촌에서 여러 해를 보냈답니다. 그곳의 경험으로 아직도 모든 난민촌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각색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힘 없고 약하디 약한 소녀들의 우정이야기입니다. 2007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나 기아,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이 이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쟁과 부분적 전쟁은 왜 아직 끝나지 않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정치적 혼란과 분쟁으로 수없이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난민의 대다수는 어린이들이지요. 그 중에서도 여자아이들이 제일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 남자아이들의 교육으로 여자아이들의 교육은 양보하고 뒤처져야 했으며, 가사 일을 도와야 하는 것으로 종종 내몰렸었습니다. 그런 희생과 강요, 빈곤과 고통이 있는 난민촌에서 소녀들의 우정으로 따뜻하고 사람다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리나는 구호 트럭으로 부리나케 가봅니다. 모두 가져가고, 바닥에 노란 샌들 한 짝이 떨어져 있습니다. 리나가 신어보니 10살 소녀가 신기에 딱 맞는 신발이었습니다. 한쪽은 맨발로, 다른 한쪽 발은 주은 노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리나보다 더 마르고 까만 아이가 샌들의 나머지 한 짝을 신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앗살람 알라이쿰"(당신에게 평화가 함께 하길 빕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 소녀는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날 냇가에서 다시 그 소녀를 보았는데, 그 소녀는 신발을 벗어 리나에게 주면서,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한 짝만 신고 다니는 것은 바보 같대"

그리고는 리나에게 샌들을 놓고 갑니다. 그때 리나가 "신발을 나눠 신으면 되잖아. 오늘은 네가 먼저 신어! 다음날은 내가 신을께"

그제서야 페로자라는 소녀는 빙긋 웃으며 마음을 나눕니다.

"발은 넷, 샌들은 둘이네"

그렇게 둘은 친하게 되었습니다.

리나는 전쟁 통에 아버지와 언니를 잃고 엄마와 동생 둘과 함께 난민촌에 왔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꿈꾸고 있습니다. 페로자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죽고 할머니와 난민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리나의 가족은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페로자와 할머니도 배웅을 나왔습니다.

리나의 어머니가 삯바느질로 미국에 갈 때 신을 가죽신발을 사주셔서 리아에겐 더 이상 노란 샌들이 필요없었습니다. 페로자에게 샌들을 주고 떠나려고 했는데, 페로자는 노란 샌들을 둘로 나눠어 하나씩 간직하자고 제의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보하고 서로 마음을 나눴던 소녀들은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우정만큼은 잊지 않기 위해 귀하디 귀한 신발을 나눠 서로를 기억하기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의 어린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귀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던 시절. 그때의 소중한 것은 지금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가슴을 뛰게 하고 살만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신 작가님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움으로 얼룩진 일생 생활 속에서도 강인하고 용기 있으며 희망을 잃지 않는 난민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이런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민촌 어린이들도 꿋꿋하게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듯이 그 용기에 힘입어 우리도 잘 견디고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 봅니다.

또 다른 연못

바이 파이글, 티 부이 그림, 이상희 옮김.
- 밝은미래. 2018.
30p. ; 30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08.9 ㅂ626 v. 36)
유아 6세

내 나라가 고마울 때



별이 이쁜 연못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2018년 칼데콧 아너상을 수상한 「또 다른 연못」(A Different pond)

우리는 안다. 이제 더이상 그림책은 유아들만 보는 책이 아니다. 어른이 함께 보고, 어른도 위로받을 수 있는 책이 유아 그림책 범주에 가득 있다. 혹자는 그림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혹자는 내용으로 아니면, 문체 속 어떤 그리움 정서가 깨끗해지고 따뜻해지는 수도 있다. 그림이 있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힐링의 순간이다.

작가는 1975년 6살 때 전쟁을 피해 베트남을 떠나 미국생활을 시작했다.

부모님들은 팍팍한 미국 생활 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별이 하늘에 무수히 총총히 아름답게 빛나는 책 표지 그림이 예뻐서 읽게 되었다.

행복한 책읽기와 그림을 감상했다고 생각했는데, 2018년 칼데콧 아너상까지 받았다고 하니 좋은 책을 선택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

겨우 선택하기만 했지, 책이 나오기까지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었지만, 서평을 써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유아에게 읽어줄 어른들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해 본다.

이 책에 등장하는 몽골아저씨의 얼굴을 동그랗고 옆으로 넓게 그린 것을 보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동북계 아시아인의 특색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다. 글을 쓰는 작가는 어간의 의미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는 피사체의 미세한 차이를 매우 잘 표현해야 한다. 그러기에 이책은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고 본다.

낚시를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밤 낚시를 가던 것을 담담히 회상하며 어린시절의 찰라같은 순간을 서사적인 그림으로 묘사하여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이민의 역사가 빠른 미국의 1070년대를 그렸지만, 21세기인 지금도 동남아시아 및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민이 늘고 있다.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배척하고 멸시하는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형제와 자매, 자녀들로 바라보고, 포용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한 작은 방법으로 이런 동화나 각종 자료와 교육을 통해 이민자들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똥전쟁

오미경 글. - 시공주니어, 2018.
95p. : 천연색삽화 ;24 cm
안성시 중앙도서관(아813.8오38똥)
초등학생이상



똥이 어때서!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똥.

똥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거부감 들고 꺼려지는 존재로 다가온다. 더럽고 냄새가 나 비위생적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입에는 별로 담고 싶지 않은 말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똥'을 좋지 않게 바라본다는 것은 사용하는 단어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개똥 같아', '똥 씹은 얼굴' 등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똥을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을까? 인간의 배변활동에 있어서 똥은 당연한 것인데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 「똥 전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동해네 할아버지는 시골집 공사로 동해네 집에 올라와 묵고 계신다. 할아버지가 가져 오신 큰 상자가 당연히 동해의 생일 선물인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똥을 모아가기 위한 왕겨들이었다. 가족들은 당연히 똥을 모으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완고한 의견에 어쩔 수 없이 똥을 모으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도 비위생적이고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끝끝내 반대해도 할아버지가 기를 쓰고 똥을 모으려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시골 밭에 있는 땅에 똥처럼 좋은 천연 비료가 없기 때문이다. 「똥 전쟁」은 이렇게 시작된다. 처음에는 냄새 지독하고 더러운 똥을 집에다 모으는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동해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갔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할아버지의 땅을 위한 마음에 생각이 바뀌어갔다.

동해 또한 처음엔 부끄럽고 친구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이 사실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점차 생각이 바뀌고 당당하게 이웃집에도 부탁할 수 있게 되었다. 똥은 우리 피부가 아토피 때문에 힘든 것처럼 독한 비료와 인공 거름들 때문에 아토피에 걸린 것 마냥 힘든 것을 도와준다고 한다. 과연 우리가 이런 똥을 나쁘게만 보는 게 맞는 것일까?

아파트와 빌딩 등 높은 건물들로 변해버린 우리의 주변들.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당연해진 지금, 우리는 예전 주변에서 쉽게 보던 밭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어릴 적 부모님을 도와 텃밭을 가꾸던 기억은 너무 오래전 이야기같이 느껴진다. 그러던 우리에게 밭을 가꾸고 그 땅을 건강하게 해주는 똥은 이름부터 웃음이 나오고 친숙하지만 더러운 느낌이 든다. 하지만 똥은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싫어한다고 해서 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책 속 동해의 할아버지처럼 소중하게 볼 수는 없어도 우리에게 도움 되는 똥의 안 좋은 점만 보지는 말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별명이 황금똥이 되어버린 동해가 한 말이다.

"황금똥! 똥바다 딱지는 뗐지만, 똥 자는 그대로니 말이다. 뭐, 아무래도 괜찮다. 똥이 어때서?"

똥이 어때서!

마음이 그랬어

박진아 글·그림. - 노란돼지, 2018.
28p. : 천연색삽화 ; 27cm.
성남시 분당도서관 (유813.808ㄴ65v.42)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와 다툰 후 읽는 책
누가 먼저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할 때 읽는 책



갈팡질팡 알 수 없는 나의 마음

임지혜
(성남시 서현도서관 사서)

"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전거도 지나가고 가로등에 불도 들어왔는데, 나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왼쪽 길과 오른쪽 길 중간에 서 있는 나, 난감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책 표지에 나타난 그림과 같이 「마음이 그랬어」는 어느 날 단짝 친구와 싸운 뒤 화해하지 못하고 속상해하는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툼이 있던 시간은 낮이었는데 저녁까지 고민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책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준이와 친하게 실뜨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툽니다. 그 순간 끊어진 실타래를 한 손에 꾹 쥔 내 손처럼 기분이 나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네를 타도 시소를 타도 재미없고 자꾸 그 친구 얼굴만 생각납니다. 이상하게도 미워했던 마음은 변해서 구름을 봐도 친구 얼굴만 생각나게 합니다. 언뜻 멀리 지나가는 친구를 보았지만 아는 척할지, 말지 마음은 계속 갈팡질팡 요동칩니다.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에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도 해봅니다. 먼저 사과를 해야 할까… 그러지 말까… 나뭇가지를 흔드는 거센 바람이 나를 지나가는데 내 안의 생각이 너무 많아 내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이가 먼저 사과하는 편지를 내게 전해줘서 속상한 마음이 한 순간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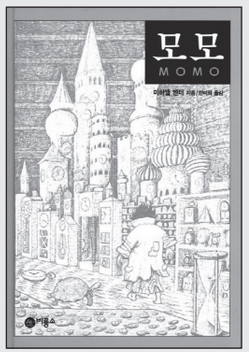
누구나 타인과 갈등을 겪는 순간이 옵니다. 가끔 어른들도 기분이 가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은 이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2011)가 여러 상황들을 나열하여 어린이들에게 쉽게 감정 표현에 대해 알려줍니다. "기분이 어때?"로 시작되는 이 책은 소심한 아기 고릴라에게 다정한 말투로 특정 상황에서 느껴지는 기분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합니다. 생각을 분출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마음이 그랬어」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어린 아이들이 한번은 겪었을만한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른들도 과거의 기억 속, 비슷한 상황을 생각해내며 생동감 있게 읽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친구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지 궁금증을 유발하며 결말도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 풀어내 아이들이 책을 끝까지 흥미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교우관계로 힘들어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들이 읽는다면 친구와 화해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 해도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따뜻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가 박진아는 대학에서 순수 미술과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졸업 후에는 자신의 그림에 이야기를 덧붙여 쓰고 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엄마이자 어린이와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작가의 글들은 따뜻한 시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누가 보냈지?」가 있고, 그린 책으로는 「첫사랑 진행 중」, 「필리핀에서 온 리처드」, 「이럴 땐 어떻게?」 등이 있습니다.

모모

미하엘 엔데 지음, 한미희 옮김. - 비룡소. 2018.
김포시 장기도서관 특화853-엔24모-한
청소년 이상

시간이 부족한 모든 이들



시간 있으세요?

조연수
(김포시 장기도서관 사서)

6시 기상 후 샤워하고 바로 출근 준비, 1시간의 버스 출근, 회사에서의 하루는 저녁 7시 혹은 그 이상의 야근 후 쫓기듯 귀가, 다시 씻고 집에 가면 무엇을 해야지 했던 다짐도 잊은 채 잠이 듭니다. 이것은 저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시간 있으세요?

모모 이야기와 만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신비로운 동화 속 모모에게서 왜 이런 의문이 생겼을까요?

모모에게는 베포, 기기 등 어른 친구뿐 아니라 어린이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원형극장에서 모모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놀이도 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모의 친구들은 회색 신사들을 만난 후 이전의 다정한 이웃의 정을 잊고 점차 차가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돈만 벌거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시간을 아끼면서 말입니다. 특히 어린이 친구들은 더이상 원형극장에서 놀지 않고 탁아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모는 호라 박사님과 카시오페이아라는 거북이의 도움으로 시간을 훔치는 회색 신사들을 몰아내어 사람들이 이전처럼 따뜻한 일상을 누리는 삶을 찾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북적북적 시끄러웠던 동네 골목들, 이웃의 말소리가 가득한 거리, 계절을 느끼게 해주었던 담벼락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한국 사회, 경쟁적인 입시체제, 치열한 자본주의 뒤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의 목적과 길만을 찾느라 보지 못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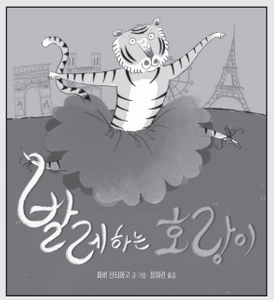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호라 박사나 카시오페이아 같은 친구가 도와주거나, 동화 속 이야기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바쁜 일상에서 현재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미하엘 엔데 작가는 초현실주의 화가인 에드가 엔데와 역시 화가인 루이제 바르톨로메의 외아들로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970년에 「모모」를 출간해 독일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엔데는 소설에서 인간을 비롯한 자연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현대 사회의 허점을 비판하고, 우리들의 소중한 삶과 신비로운 또 다른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한 이들에게 권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어디서 찾는지 안내해 줄 모모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발레하는 호랑이

파비 산티아고 글, 그림. - 재능교육. 2016.
30p. ; 28cm
반달어린이도서관 U843산888ㅂ
유아 및 초등 저학년

꿈을 이루는 싶은 사람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정이 미치는 영향이 궁금한 경우



꿈이 생겼어요.

이연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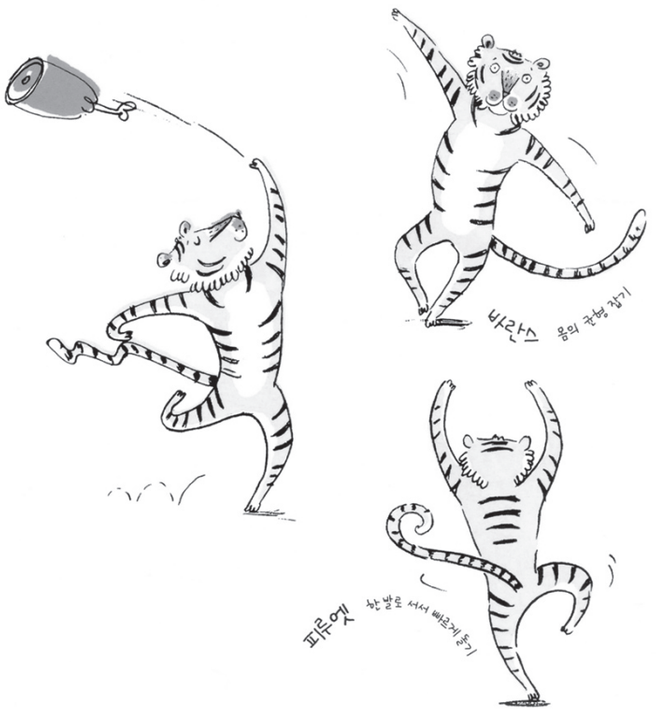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 호랑이의 꿈과 우정 이야기'

작가 파비 산티아고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나 영국 캠브리지 예술대학 어린이 그림책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평소 야외활동, 자전거, 춤추기를 좋아하며 이 모든 것들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국 일러스트레이터 협회의 어린이 책 부문 최종후보 명단에 올랐고, 2013년에는 맥밀란 상 일러스트레이션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런던에 살면서 그림책을 쓰고 있습니다. 동그란 눈과 동그란 까만 눈동자의 위치로 감정과 이야기를 이끄는 화법이 돋보입니다.

파리에 사는 호랑이 맥스는 발레 무용수가 되어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꿈이었어요. 파리의 온 시내를 누비며 발레 동작을 연습하다 마침내 에펠탑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한발로 버티며 신들린 발레를 해도 보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하며 울었어요. 그 때 맥스에게 꼬마 발레리나 셀레스트가 다가왔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호랑이의 열정을 알아채고 호랑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함께 발레연습을 했어요. 마침내 멋진 무대에 서서 꿈을 이루려는 그때, 사람들은 호랑이를 보고 놀라 달아났어요. 텅 빈 객석, 정적이 감도는 무대. 그 순간 맥스와 셀레스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책은 자신에게 잘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래서 꿈이 생겼다면 다른 사람의 칭찬과 박수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셀레스트처럼 용기를 주고 함께 하는 친구가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빨간색 튀튀를 입고 우아한 몸놀림으로 자신의 발레에 깊이 빠져 있는 호랑이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모습이 이런 것일까 또 한 번 상상하게 됩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의 기쁨과 힘겨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우정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보리바다

김미영 글, 그림. - 고래뱃속. 2018.
40p. ; 29cm
반달어린이도서관 U813.8 김38ㅂ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유년시절 자연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그 속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경우



초록빛 엄마의 품

이연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책 표지에는 넓은 보리밭의 초록 빛깔이 청량감을 더해주는 가운데 단발머리를 한 분홍저고리와 검정 치마의 여자아이가 보리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피리를 부느라 둥글게 부풀어 오른 오른 뺨과 붉게 상기된 볼의 모습이 꿈을 꾸듯 아련함을 안겨줍니다.

김미영 작가는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한국 일러스트레이션학교에서 그림책 공부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보리밭의 초록빛을 잊지 못해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분이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리밭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술래가 되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를 말하고 친구들을 찾아 나서지만 아이들은 분이를 골려주려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홀로 보리밭을 헤매던 분이는 보리피리를 불며 눈을 감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보리밭은 푸른 고래들이 춤추는 바다로 변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린 분이는 고래들과 신나게 놉니다. 마침내 고래가 함께 가자고 하여 떠나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 분이를 부릅니다.

동네 넓은 보리밭에서 놀던 분이가 성장하여 현재의 노년에 이른 것을 보리바다라는 상상의 공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작가는 보리밭이 유년시절 자신을 품어주었던 엄마의 품 같은 공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 품어주고 사랑해 준 손길이 있기에 위험과 맞닿아 있는 모험의 순간



또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분이가 성장하면서 보리바다에서 새로운 모험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지만 곁에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끝에서 자신의 분신인 딸의 따듯한 목소리를 듣고 방향을 돌리는 것을 볼 때는 엄마와 딸의 끈끈하고 가슴 촉촉해지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작가의 전작 「아빠나무」를 통해서는 아빠의 사랑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유년시절 자연에 대한 기억이 있거나 그 속에서 느꼈던 누군가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빤쓰왕과 공포의 장난감

앤디라일리 글·그림, 보탬 옮김. - 파랑새. 2018.
초등 전학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 모두



적과 협력하여 승리하기

이은주
(남양주시 사서)

상상할 시간이 없었다면 이 책을 보라!

평범하지 않은 소년 빤쓰왕이 나온다. 비밀스럽고 멋진 궁궐, 용맹스러운 근위병들, 그리고 최고로 반짝거리는 왕관까지 가진 멋진 빤쓰왕이다. 이 빤쓰왕과 사악한 황제 너비슨과의 좌충우돌하는 이야기가 쉴새 없이 호기심을 부추기며 전개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재밌는 책을 쓰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것이다. 어찌나 재미있는지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슈퍼에서 사과를 고를 때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읽었다. 피식거리기도 하고 소리 내어 웃기도 하고, 심지어 주인공에게 말을 걸기도 하면서 말이다. 먼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시작했지만 마치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가깝고 현실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는 어느새 빤스왕 편에 서 있게 된다.

빤스왕이 다스리는 에드윈 왕국을 집어삼키려는 너비스니아의 너비슨 황제의 기막힌 전술은 너비슨의 엄마 베로니카 황제의 집에서 훔쳐온 마법인형이 승리를 이끌어 줄뻔 하였다. 사악하기로 소문난 너비슨 황제는 에드윈 왕국을 삼키기 위해 착한 황제가 된 것처럼 거짓말을 시작한다. 단 하루도 착하게 살 수 없는 황제가 한 달이 넘게 착한 흉내를 내면서 작전을 펼쳐간다. 자신을 닮은 마법인형 수천 개를 만들어 에드윈 왕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인형들은 보름달이 뜨는 어느 날 모두 진짜 살아난다. 수천 개의 너비슨 황제인형들이 에드윈 왕국을 점령하고 왕좌에 앉는다. 너비슨 황제는 이렇게 빤스왕을 속였지만, 너비슨 황제 역시 인형들에게 점령당하고 만다. 너비슨 황제 모양의 인형들이 너비슨에게 복종하기는커녕 인형들의 나라가 되어 너비슨마저 인형들에게 감금되고 만다.

너비슨과 에드윈은 공통의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이제는 원수가 아닌 대동단결된 한 팀이 되어 인형들을 물리칠 작전을 짜게 된다. 이들이 다시 각자의 나라를 찾는 과정이 해학스럽고 기상천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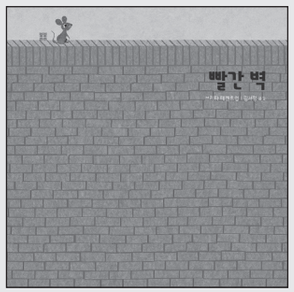
오랜만에 동화책을 보면서 마음껏 신나봤다. 마치 신나는 게임의 승자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지는 책이기도 하다. 등장인물의 캐릭터들이 열심히 어른들을 흉내내지만 마냥 어린이스럽고 순수한 양심이 살아있다. 권선징악과 우정, 놀이, 장난감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팔팔 살아있는 책이다. 그 무엇보다도 세상 최고의 어린이다움이 있어서 재미있는 동화책이다. 마치 눈만 뜨면 엎치락뒤치락 다투는 형제, 무작정 형의 편만 드는 엄마가 주인공인 듯한 누가봐도 낯설지 않는 이야기가 신나게 펼쳐진다.

영국의 만화가 앤디 라일리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쉬지 않게 하는 글과 그림은 독자의 자랑이 될 것 같다. 앤디 라일리의 「빤쓰왕과 사악한 황제」와 「빤쓰왕과 크롱의 괴물」도 같이 보기를 권한다. 그의 재치에 반하게 될 것이다.

빨간 벽

브리타 테켄트럽 지음, 김서정 옮김.
- 봄봄출판사. 2018.
40p. : 삽화 ; 24cm.
안산시 부곡도서관 (유아853 테87ㅂㄱ)
유아 및 아동, 어른까지.

두려움을 느껴 막막할 때
힘든 일을 극복하고 싶을 때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전진희
(안산시 부곡도서관 사서)

"빨간 벽은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책의 앞표지, 빨간 벽 위에 꼬마 생쥐가 서 있다. 꼬마 생쥐는 벽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뒷표지엔 사자와 곰, 고양이와 여우가 벽 안쪽에 있다. 그들이 사는 곳엔 빨간 벽이 있다. 벽의 높음과 견고함을 표현하듯, 책 표지는 딱딱한 종이로, 5분의 4 이상이 빨간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살짝 보이는 벽 너머는 회색빛이다.

이 벽은 언제나 있었다. 벽은 높아서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다른 동물들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관심도 없었지만 꼬마 생쥐는 달랐다. 호기심 많은 꼬마 생쥐는 벽 너머를 궁금해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벽 안으로 파랑새가 날아든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가 두려움과 극복에 관한 한 편의 비유이다. 빨간 벽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벽이다. 이 벽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난관일 수도 있고, 사회가 만들어 낸 관습일 수도 있으며,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일 수 있다. 그 무엇이든 간에, 누가 왜 만든 것이건 간에 벽은 삶의 한계이다.

삶의 한계 안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겁 많은 고양이, 늙은 곰, 여우, 으르렁 소리를 잃은 사자로 표현된다. 그들은 벽은 우리를 지켜준다고, 오래 전부터 있었던 내 삶의 일부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하다고, 그 뒤는 커다랗고 시커먼 없음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 동물들은 여러 의견을 가진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삶의 한계를 오히려 안전을 위한 장치로 여기면서 겁을 먹고 있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다가,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그 한계로 자신을 가둬 두었다는 것조차도 잊은 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간다. 겁이 없는 꼬마 생쥐가 나타나면 이야기 속 동물들처럼 핀잔을 주거나 포기하라고 한다. 왜 그런지 의문을 가지고 살면 힘들다고. 그러나 예전엔 견고하게 보였던 삶의 한계는 지금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성격,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살아간다. 우리 사회의 벽은 하나 둘씩 사라졌고, 적어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세상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꼬마 생쥐 같은 용감한 사람이다. 벽 너머에 무엇이 있을 지 아무도 모르더라도.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한계조차도 없앨 수 있는 사람.

책의 속표지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벽 없는 세상을 위해'라고 적혀 있다. 이 동화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다. 이 동화를 읽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책이다.

빨간볼

얀 더 킨더르 글·그림, 정신재 옮김.
- 내인생의 책, 2014.
30p. ; 27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08.9 ㄴ56ㄴ V.50)
6~9세 유아 및 어린이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시작된 왕따 이야기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빨간 볼'이란 제목을 보고 '성'에 관련한 책인가보다 했다. 자세히 앞 뒤를 살펴보니 '왕따'에 관한 책이었다. 첫 소절을 읽을 때 약간 의아한 점이 있었다.

"볼이 빨개질 수도 있죠.
별일 아니잖아요.
친구들은 튀르 볼이 빨개진 줄 몰랐어요.
나만 빼고요.
"너 볼이 빨개!"
내가 튀르 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잠시 생각했다.

보통 왕따를 시키는 사람은 1인칭이 아니고 2인칭이거나 3인칭인데 '나'로 시작하다니 좀 색다르다. 어떻게 전개를 할지 궁금해졌다. 책을 다 읽고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동책은 읽을 때 마다 감탄과 경이감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페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내용에 기승전결이 있고, 교훈이 있고, 이해가 쉬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동도서의 매력이라면 매력일 것이다. 인간의 기본성과 보편타당한 주제가 이렇게 많고 다양하며 우리가 배우고 다루어야 할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왕따가 되는 친구는 따로 있을까?

따돌림을 시키는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생각해 보면 타인의 무관심과 두려움. 그리고 모두에게 있을 법한 자만심과 이기심에서 비롯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왕따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죄책감이 둔한 사람이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아플 수 있다는 공감능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 덜 성숙한 어린이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성장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기에 용서가 되고, 반성하여, 수정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이후에 발생되는 왕따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재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왕따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사회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우리네 인생 단계의 초기에 발생 된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를 해결해 줄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용감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중간에 선생님이 "혹시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 있나요?" 재차 묻는다. "친구를 괴롭히는 걸 본 사람 없나요?"

이때 주인공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용기를 내어 손을 들어 본다. 하지만 내면에서의 갈등은 엄청났을 것이다.

삶의 기적은 내가 용기를 낼 때, 따르는 것일까! 친구들도 하나, 둘 손을 들어 동참했다. 더 감동인 것은 왕따를 계속 시키던 친구가 뉘우치지 못하고 도와주려는 친구들까지 겁을 줄 때, 오히려 친구들이 불의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다. 나의 어쭙잖은 지론 중에 '단순함은 매우 잘 아는 것이다.'를 생각나게 한다. 짧은 내용 속에서 감동과 이해와 교훈을 경험하는 유아동화의 매력에 독자들도 빠져보기 바란다.

이 책의 저자는 벨기에 분으로 그림과 글을 모두 하는 다재다능한 작가분이다. 현재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학교와 도서관에서 강의를 한다. 번역을 하신 정신재 작가님은 네덜란드어를 전공했다.

소금차 운전사

올란도 위크스 저, 홍한결 옮김. - 단추. 2019.
77p. ; 27 cm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아 843 위877ㅅ)
초등~고학년부터 성인



소금차를 몰던 사람의 이야기

김보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사서)

눈이 내린 길에 소금을 뿌리면 그 부분은 어는점이 낮아져서 눈길이 차가운 얼음으로 덮이는 것이 지연된다. 그래서 겨울이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소금을 뿌려주는 차가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은 그 차를 몰던 사람의 이야기이다.

소금차 운전사는 꽤 오랫동안 소금차를 몰았다. 장소는 영국 남부 2116번 지선도로가 지나가는 플럼스턴 지방으로 보인다. 겨울엔 당연히 소금차로 운행하지만, 눈이 오지 않는 여름 동안은 아이스크림차였다. 시내 중심가에 크리스마스 불빛이 밝혀지면 차에 소금을 채운다. 체셔 바다 밑 오래된 소금층에서 캐낸 좋은 소금이다. 그것을 최적의 속도로 도로 위에 뿌리는 것이 겨울의 일이다. 소금을 뿌릴 때 차는 천천히 전진한다. 속도가 느려 보일 수는 있지만, 그에겐 일을 제대로 하기에 최적의 속도다. 여름엔 아이스크림을 팔았다. 차 지붕에 달린 아이스크림 모형 광고 두 개가 표식이다. 또, '모차르트의 응접실' 같은 클래식에서부터 '미스터 소프티' 같은 팝송까지 웬만한 음악은 다 갖춰져 있다. 노래와 아이스크림 광고 등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늘 켜져 있다. 대단한 장사는 아니지만, 아이스크림도 곧잘 팔리곤 했다. 그러나 늘 켜져 있던 그것들은 이제 곧 꺼질 예정이다.

시에서 더이상 '귀하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운전사가 맞는 이별의 시간들이 그려진다. 소금차를 몬 햇수보다 짧은 글자 수로 써진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그는 마지막 업무를 준비하며 지난 시간들을 아름답게 회상한다. 일의 보람을 느꼈던 기억, 아내와 함께 했던 혹은 먼저 떠나 보낸 일, 같이 나이 들어가는 마을의 모습. 주변의 사람과 환경이 사라져가고 변해가는 것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매우 서정적으로 그려진다.

크리스마스 날, 운전사는 마지막 운행을 준비한다. 혼자 저녁을 먹고 채비를 마치고 25호를 나서 평소와 같이 천천히 도로로 나아간다.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다. '한밤의 세상은 볼 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떨어지면서 모양과 크기가 계속 바뀌며 제가 닿을 자리에 놓이는 눈처럼 그도 어딘가에 다시 놓일 것 같다. 그는 소금을 뿌리며 나아가는 오래된 차와 함께, 눈이 내려앉는 것처럼 포근하게 전진한다. 작가는 소금차 운전사를 통해 독자에게 사라져가는 것, 소멸해 가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내어준다.

그림의 서사가 시적이다. 색연필로 그은 선들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정취가 있다. 여백이 많은 흰 배경이 색연필화와 수채화를 돋보이게 만든다. 차분하고 정적이며 푸른 느낌의 그림들이 사라짐, 쓸쓸함 같은 느낌을 부각시켜 주며 내용과 잘 어울린다. 영상미가 아름다운 한 편의 단편 영화 같기도 하다.

작가 올란도 위크스(Orlando Weeks)는 영국의 유명한 인디 밴드 '매커비스(Maccabees)'의 리드보컬이었다. 일러스트를 전공했던 그는 이번 책의 글과 그림을 직접 작업했다. 14년간 해오던 밴드 해체 후 고별 공연을 준비하며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책의 내용과 작가의 상황을 연결시켜 생각하게 된다. 책을 읽으며 함께 들으면 좋을 사운드트랙도 공개했다. 삽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과 음악이 매력적이다.

손으로 보는 아이, 카밀

토마시 마우코프스키 글, 요안나 루시넥 그림,
최성은 옮김. - 소원나무. 2018.
초등 전학년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전 세계의 가족, 친구, 이웃들.
가족, 사랑, 배려, 소통, 기회, 장애를 알고 싶은 누구나



특별히 보는 방법

이은주
(남양주시 사서)

"손가락으로 보고 싶다면 카밀을 만나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본다. 그런데 카밀은 손가락으로 본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카밀을 가엾게 볼 필요는 없다. 카밀에게는 눈 대신 손가락이 있으니까. 카밀은 가엾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니까. 이 책에서 카밀을 만나보면 '세상에 장애인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장애인이란 살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신나게 살아가는 카밀 같은 친구에게는 쓸데없는 말이다.

누구나 태어나면 자라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게 된다.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잘하고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이 각 사람에게 정해준 선물이다. 만약 내가 태어나면서 받은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만 한다면 삶으로의 신나는 여행은 시작되지 못한다.

카밀은 선천성 시각장애로 태어났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카밀이 살아가는 세상은 눈이 안 보이는 카밀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보이는 사람들 위주로 모든 것이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카밀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늘 일어난다. 그 상황들은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다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카밀은 손가락을 통해 보는 것 외에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소년이다. 호기심 많고, 누나와 티격태격 싸우고,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해서 새로운 놀이를 찾는 유쾌한 소년이다.

이 책은 눈으로 보지 않고 귀와 손으로 보는 카밀의 유쾌한 일상을 담고 있다. 카밀과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이들을 통해 눈으로 보는 사람과 손가락으로 보는 사람이 서로 지켜야 하는 매너를 알려 주고 있다. 특히, 카밀의 고모 헬렌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카밀을 가엾게 보는 것은 매너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책이다. 손가락으로 보는 사람들의 수가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 적다는 것 말고는 우리는 똑같이 지구의 주인들이니까, 지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배려, 사랑, 소통, 기회, 가족에 대해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책이다.

누군가가 가엾다는 것은? 위로받아야 할 누군가가 위로 받지 못할 때에나 사용되는 감정이다. 그러니 카밀처럼 솔직하고, 유쾌하고 새로운 놀이를 찾는 아이에게는 사람들의 동정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책이다. 사실, 평범한 친구들은 카밀의 뛰어난 청력과 손가락 촉각의 특별함을 부러워해야 할 수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잊고 있다. 카밀은 태어날 때부터 눈으로 본 적이 없기에 눈의 사용법을 갈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 주변에서 카밀을 만나거든 가엾게 여기지 말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 물론, 카밀이 원할 때 말이다. 그리고 카밀 자신도 태어날 때 주어지지 않은 시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해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에 카밀의 손가락은 볼 수 있고, 특별한 청력으로 그들의 눈과 귀를 도울 날이 있을 테니까.

글을 쓴 토마시 마우코프스키는 교육학을 전공한 폴란드의 어린이책 작가이다.

쉿! 나는 섬이야

마크 얀센 글·그림. - 주니어 김영사, 2018.
24p. : 삽화 ; 33cm.
시흥시 중앙도서관(유859.3 얀54ㅅ c.2)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동물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책
아이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줌



거북이 등이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었어요!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

만약 우리 가족이 바다위에서 조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은 그런 상상력에서 출발했을 법한 이야기로, 아빠와 딸이 바다에서 풍파를 만나 배가 가라앉으면서 조난을 당해 바다 위를 표류하다 우연히 바다 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을 발견해 그 섬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 설마 그 섬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북이의 등'이라고 하면 작가의 상상력이 얼마나 기발한지 새삼 놀라울 것이다. 거북이 입장에서는 바다 위에 쉬고 있던 때, 등 위에 한 남자와 여자아이, 그리고 개까지 올라 와 잠을 자고 떠날 생각을 안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그러나 거북은 그들을 위해 가만히 있기로 한다.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꿋꿋이 꼼짝 않고 말이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양한 색채와 아기자기한 그림들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특히 거북이의 표정, 바닷 속 물고기 생김새들이 흥미롭고 계절의 변화가 바닷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야기로 의미를 전달하는 동화책이라기보다는, 따스한 그림으로 의미를 전달하는데 비중을 높였으므로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이 읽기에 적합한 동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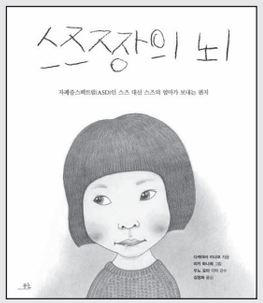
네덜란드 작가인 '마크 얀센'의 작품으로, 1997년 출판사 Lemniscaat에서 그의 첫 번째 어린이 책을 출간한 이후, 2018년까지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출판사들과 일하며 450권에 이르는 어린이 책과 그림책을 작업하였다. 첫 작품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Nothing happened)」는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으며, 이후 「공룡은 없어(Dino's don't exist)」와 「쉿! 나는 섬이야(Island)」를 출간하였다. 언급된 책과 같이 「쉿! 나는 섬이야」라는 도서는 동물의 특징을 잘 잡아 커다랗고 시원하게 표현하였으며, 바다 생물 하나하나 생동감을 살리고 다채로운 색채로 표현하였다. 동화책을 보다 보면 동물이 살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 정도이다. 또한 사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뛰어난 상상력이 이 책의 특별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아이에게 이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과 내 자신이 좀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였기에 자신 있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또한 인간과 동물이 서로를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공생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므로 아이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스즈짱의 뇌

다케야마 미나코 글. - 봄나무. 2019.
36p. : 삽화 ; 29cm.
시흥시 장곡도서관(아833.8 다874ㅅ)
초등 저학년

장애가 있는 친구들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고
나와 다름을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음



우리와 다른 친구가 궁금해요!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

자폐증(Autism)은 의학정보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일어나지 않는 아동기 증후군으로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 같은 상태'라고 하여 이름 붙여진 발달 장애이다. 자폐증은 사회적 교류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언어발달지연, 행동상의 문제, 현저하게 저하된 활동 및 관심 등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발달된 재능으로, 특유의 천재성을 보이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자폐증, 최근에 '자폐증 스텍트럼(ASD:Autism Spectrum Disorder)'이라고 불리는 주인공 '스즈'의 이야기를 스즈의 엄마가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책 표지는 양장본 형태이고 파스텔톤의 그림이 이야기의 특징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저, 스즈 아줌마. 스즈는 백합반(7세반)인데 왜 신발을 혼자서 못 신어요? 왜 말을 못해요?" 어린이집 친구들의 의문에 스즈의 엄마가 손 편지로 대답하며 아이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자폐증의 여러 증상들과 스즈가 나타내는 행동들을 표정이 살아있는 그림으로 표현하였는데, 장애가 있는 친구와 일반 친구들과의 스스럼 없는 행동들, 오히려 장벽이 없는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스즈는 7세인 지극히 평범한 친구들이 하는 행동, 예를 들면 말을 하고 숟가락질 하는 것조차 잘 하지 못 한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째려보고 혹은 물어뜯기로 하는데, 이 모든 행동이 스즈의 뇌가 친구들의 뇌와 다르기 때문이다. 뇌는 신체의 여러 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중요한 곳인데, 스즈의 뇌는 한가운데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다르게 작동해서 '삐이삣, 삐이이이야'하고 다른 명령을 내릴 때가 있다.

스즈의 친구들은 스즈의 이런 행동들을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지만, 나와 다른 친구라고 생각한다. 세발자전거를 태워주고 우물쭈물해도 참고 기다려주고, 할퀴어도 참고 사이좋게 지내는 등 아이들은 스즈를 배려하며 존중해준다. 아이들은 '스펀지'로 비유할 만큼, 어른처럼 복잡스럽지 않고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흡수한다. 어른이라면 묻기 어려운 장애 문제, 스즈가 왜 자기와 다른지 궁금해 하고 스즈에 대해 알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로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에 스즈의 증상과 스즈를 대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고도 편안하게 손 편지로 대답을 하니 자폐증이 무거운 주제로 다가오지 않고 조금은 가볍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가 이 책을 읽는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 교류 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 인성교육에 추천하고 싶은 그림책이다. 부록으로 자폐증의 주요 특징들도 실려 있어 정보전달력도 우수하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아이들이 장애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 장애를 보듬어주는 가슴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란다.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세라 저코비 지음. - 미디어창비. 2018.
40p. ; 24cm.
안산시 부곡도서관 (유아843 저87ㅅㄱ)
어린이

시간에 대해 배울 때



여기에 있는 시간

전진희
(안산시 부곡도서관 사서)

"잡을 수 없어. 과자랑 바꿀 수도 없어."

아이가 묻는다. "시간이 뭐예요?"

질문을 받는 어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이 책은 단 40페이지만에 시간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느끼는 데 도움을 준다.

떠오르는 걸까, 지는 걸까? 붉은 햇빛으로 물든 형형색색의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두 아이. 그 표지를 넘어서면 밤을 만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달이 가득한 까만 하늘. 그 다음 장, 밤하늘 아래를 시간이라고 적은 트럭이 지나가고 있다. 또 다음으로 가면 하늘은 떠오르는 해로 붉게 물들었다. 한 남자만이 하품을 하며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다. 그 위에 커다랗게 적힌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렇게 동화는 겉표지에서부터 시간의 흐름을 담았다.

동화는 이른 새벽,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는 가족들과 함께 어딘가로 여행을 떠난다. 그 여정에 맞게 시간의 여러 가지 특성이 묘사된다. "닿을 수도 있어", "크지도 작지도 않아", "늦으면 특히 정확해져" 이 문장들 속엔 시간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보일"수 있다는 문장처럼, 시간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문장 속과 책 속은 시간으로 가득하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기차를 기다리고 타면서, 차를 타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면서, 다 함께 놀면서, 깜깜한 밤을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는 온통 시간을 느낀다. 시간은 "잡으려고 할수록 더 잘 숨어"서 아이는 "더 오래 머무를 수는 없나요?"라고 묻곤 한다. 그러나 시간은 "잡을 수"도, "과자랑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그저 얻은 만큼 가질 뿐"이기에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시간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개념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는 힘들다. 시간을 이해하려면 흐름과 그에 따른 변화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누적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동화는 밤에서부터 밤으로, 집에서부터 집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환까지를 보여준다.

덕분에 이 책을,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정확하게 시간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시간을 느낄 수 있다. 이미 시간을 알고 있는 어른들도, 시간에 대해 아직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도 읽으면 좋을 책이다. 전자라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특성들에 공감하게 되고, 후자라면 시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에 대해 이렇게 잘 표현해낸 책이 있을까? 이보다 더 와닿을 수 있을까? 뚜렷한 선이 없지만 색색으로 구분되어 연속되어 있는 그림체조차도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 동화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 다시 달이 나온다. 차오르고 저물어가는 달이. 책 자체의 구성도 이야기의 구성도 시간에 충실한 책이다.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질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대답하는 듯이.

아름다운 것은 자꾸 생각나

신현이 글. - 문학동네. 2018.
117p. : 천연색삽화 ; 23 cm
안성시 중앙도서관(아813.8신94아ㄹ)
초등학생 이상



내가 말하는 아름다움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아름답다는 건 뭘까? 사전에서는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고 정의 내린다.

하지만 나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우리의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것을 볼 때면 무언가 갑자기 마음에 돌이라도 달린 듯 무게가 생긴다. 즉, 심장이 저 발끝까지 추락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쁘다, 멋지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다. 아름다움은 마음에 자리 매겨서 그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름답다는 단어의 정의는 사람의 수만큼 많을 것이다.

이 책은 아름답다는 단어를 책의 제목처럼 자꾸 생각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홍자 선생님이 옛 제자에게 커다란 잉어를 받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홍자 선생님은 이 잉어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홍자 선생님은 마음을 빼앗기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

홍자 선생님이 학교의 임시 교사로 들어가 아이들과 만났을 때, 나영이라는 아이와 만나게 된다. 받아쓰기를 하던 도중 잉어가 아름답다는 선생님의 말에 선생님께 잉어를 보러가고 싶다고 말했고 친구인 보경이와 나영이는 같이 선생님의 집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름답다는 단어의 각자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이야기에서 '아름다운 것'이 중요 소재로 다루어지는데, 그런 만큼 이 책은 아름답다. 비단 어느 한 군데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책 자체가 아름답다. 책에 그려진 삽화와 표지도 이 이야기와 아주 잘 어울리며 이 책 특유의 느낌을 증폭시켜준다. 또 작가가 아이들이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말에 기쁨을 받았고 그 기쁨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책을 썼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동기마저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책의 묘사와 아이들이 말하는 언어이다. '아름다운 것은 꿈에 나오는 것'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으랴. 작가는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마음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해내고, 그 언어로 된 이야기를 읽고 있는 내 마음은 간질간질해진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나영이와 보경이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엄마가 갈등을 겪는데,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도 참 좋았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영이가 잉어 꿈을 꾸면서 엄마와 꼭 껴안는데, 나까지 포근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며 부모님과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었으면 한다. 또,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요즘 SNS나 인터넷에서 노출되는 자극적인 문화가 아니라 이런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의 문화를 누리며 동심을 지켜나갔으면 한다.

안녕, 우주

에린 엔트라다 켈리 글. - 밝은미래. 2018.
319p.
성남시 구미도서관 (아843.6ㅋ434ㅇ)
초등 중학년 이상

친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어린이
나만 다르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외로운 너에게 건네는 인사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운명이란 있는 걸까? 「안녕, 우주」는 운명인지 우연인지 모를 사건을 계기로 세 명의 아이들이 친구가 되는 이야기이다. 버질 셀리나스는 본인이 아주 싫어하는 별명인 '거북이'로 불리고 있는 소심한 아이이다. 버질은 처음으로 간절히 발렌시아와 친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점성술사 카오리에게 상담한다.

카오리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아이이다. 카오리는 자신에게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고 점성술에 대해 연구하며 점성술사라는 명함을 마트 게시판에 붙이는 아이다. 카오리는 어느 날 버질 이후 처음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받는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발렌시아이다.

발렌시아는 귀로 보는 친구이다. 발렌시아는 밤마다 악몽을 꾸는 바람에 통 잠을 못 자고 있다. 발렌시아는 매번 꾸는 악몽에 대해 상담받기 위해 마트 게시판에 있던 명함의 연락처로 점성술사에게 문자를 보낸다. 각자의 사정이 있던 아이들은 버질이 우물에 갇히게 되고 사라진 버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친구가 된다.

「안녕, 우주」는 2018년 뉴베리 대상 수상작이다. 작가는 필리핀 어머니와 미국인 선원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작가는 생김새가 달라 학교에서 혼자가 되어야 했고,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작가는 책을 통해 현실에서 탈출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뉴베리 상 대상 수상 소감에서 작가로서의 가장 큰 소망은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책을 읽기 전보다 덜 외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녕, 우주」도 외로움으로 가득 찬 소년과 소녀가 등장한다. 그러나 작가의 소망처럼 아이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친구가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내며 성장한다.

주위를 돌아보면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 버질은 '거북이'라는 별명이 싫으면서도 표현을 하지 않는 소심한 친구고, 카오리는 자신이 전생을 기억하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으며 홀로 점성술을 연구하는 친구이다. 또한 발렌시아는 자립심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자신만만하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친구가 없다. 하지만 운명이 가져다준 우연으로 혹은 '안녕'이라는 한 번의 인사로 그들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운명이 가져다준 선물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버질이 발렌시아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발렌시아가 악몽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카오리를 찾아갔듯이 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 누군가에게 먼저 '안녕'이라고 인사해야 하듯이 지금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한 발짝 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친구를 만드는데, 학교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 사춘기를 시작한 친구들에게 추천한다.

올레, 스페인

모니카 비엔-쾨니히스만 글, 마리아 멕 그림,
이지원 옮김. - 풀빛. 2018.
165p. : 삽화 ; 24cm.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아909 책67ㅍ 3)
초등전학년

스페인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소소한 스페인 잡학사전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풀빛출판사의 〈책으로 여행하는 아이〉 시리즈 3편이다. 〈책으로 여행하는 아이〉 시리즈는 1편 곤니치와, 일본, 2편 맘마미아, 이탈리아 이후로 출간된 책이다. 이 책을 읽은 후 아직 못 읽은 1편과 2편이 많이 궁금해졌다. 이 책은 면지와 표지를 펼치는 순간 책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한다. 면지와 표지만으로도 태양의 나라 스페인 이미지를 다 보여준 것 같다. 또한 표지 제목 아래 부제 '호기심 많은 아이를 위한 문화여행' 이란 글귀를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었다. '호기심 많은 아이와 어른을 위한 문화여행'으로….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보도된 뉴스 중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시민들이 더이상 관광을 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세계 관광객이 방문하기에 그런 말까지 하는지… 관광객으로 인해 물가도 오르고 시민들이 살기에 오죽 불편했으면 그랬을까? 싶어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이탈리아만큼 스페인도 관광객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 예능 방송에 스페인이 자주 나오면서 여행상품으로도 다양하게 소개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페인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한 듯 이 책의 출판이 반갑다. 특히 어린이들이 눈높이로 맞춘 것이기에 더욱 반갑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큰 것, 그리고 몰랐던 소소하지만 작은 것들을 짧지만 재미있게 풀어놨다. 이 책의 작가는 스페인사람이 아니다. 작가 모니카 비엔-쾨니히스만은 폴란드인으로, 스페인에서 살면서 스페인에 매료되어 이 책을 썼으며 지금도 스페인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책의 원제목은 폴란드어 「Ole! : Hiszpania dla dociekliwych」이다. 스페인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외국인이 책을 만들었을까? 책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 스페인의 지도에 중요한 지명과 지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 나라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 정보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책의 차례도 의례적으로 책 앞면에 배열하지 않고 뒤에 배열한 점은 마치 사전의 색인(index) 부분을 연상시켰다. 책에 소개된 내용은 36개의 분야로, 그 내용은 스페인의 언어부터, 요리, 역사 축제, 음식, 인물, 미술, 축구, 건축, 도시, 춤, 전통, 지리 등 스페인 모든 부분을 다루었다.

다소 많은 내용을, 독자가 읽기에 부담되지 않도록 줄 간격과 그림을 적절히 배열하였으며,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글자색과 글자 크기 등을 다르게 하여 같은 페이지 내에 배열한 점은 산만하게 보이지 않고 그 부분만으로도 또 다른 정보를 알 수 있어 잡학사전을 보는 듯한 느낌도 갖게 하였다.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다양한 내용이 많기에 일회성으로 한 번에 쭈욱 읽기보다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읽으면 좋을 듯하다. 스페인 여행 가기 전 관광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스페인 문화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추천하고 싶다.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

김을호 글. - 크레용하우스. 2019.
36p. : 천연색삽화 ; 24 × 25 cm
안성시 중앙도서관(아813.8김67우)

삶의 지혜가 필요한 누구나



인생은 누구나 초보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첫사랑, 첫 여행, 첫 직장… '처음'이라는 단어는 신기하게도 늘 우리에게 설레는 감정을 안겨준다. 가슴이 떨리고, 또 벅찬 그런 기분. 비록 이제는 많은 날들을 살아왔기에 '처음'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사람에게도, 여태껏 늘 '처음'인 것이 있다면 바로 인생 아닐까?

누구나 지금 사는 이 인생이 그들 자신에게 처음이다. 따라서 잘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초보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것만 같았던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인생은 그런 것일 것이다. 우리도 인생이 처음이지만 부모님들 또한 인생이, 그리고 자식 키우는 것이 처음이라 서투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책은 일깨워주고 있다.

이 책은 예찬이 어머님이 화자가 되어 예찬이에게 이야기 해주듯 진행된다. 예찬이가 태어나기도 전, 부모님이 만난 이야기부터 그들이 예찬이를 낳고, 예찬이가 걸음마를 떼고, 이후 사춘기를 거쳐 어른이 된 이야기까지 예찬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예찬이 어머님의 진솔한 심정이 잘 드러나있다.

특히 가장 뜻깊었던 장면은 예찬이가 어른이 되고, 어머님께서 예찬이에게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다. '인생은 여행이며, 어떤 여행자가 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정해야 한다. 또, 실수해도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류의 조언은 사실 주위에서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왔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 울리는 것은 우리가 모두 누군가의 예찬이이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었을 때 대개 가족이라고 대답하지만, 과연 실생활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우리는 모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잊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책은 그것을 잘 일깨워주고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내용과 포근한 그림체가 어우러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가족이 생각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어린 아이들과 그 부모님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어린 아이들이 이 책으로 하여금 많은 교훈을 배웠으면 한다. 물론,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책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한 여운이나 감상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부모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다. 아이가 처음 배우는 수학이 어렵고, 처음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든 것처럼 부모님도 처음 키우는 아이에 대해서 서투를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부모님 또한 예찬이 어머님처럼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아이를 위한 마음이야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테지만, 우리는 서로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 우리 모두 책에 나온 이들처럼 서로의 부모라서, 자식이라서 행복하다고 말해주면 어떨까? 우리는 모두 처음이니까.

잃어버린 책

서지연 글, 제딧 그림. - 웅진주니어. 2019.
143p. : 삽화 ; 22cm.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813.8 서78ㅇ)
초등 고~성인

책의 소중함을 알려 줄 때
독서의 달
모험을 좋아하는 어린이에게 추천



어릴 적 나의 책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김현주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사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에 책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귀중품이었다. 인쇄술의 발명 이후 대중화된 책을 통해 지식을 쌓고 생각을 기른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시민혁명을 일으켰다. 전자기기가 발명되고 디지털 시대가 오자 책은 위기를 맞았고 그런 책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생겼다.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나쓰카와 소스케, 아르테, 2018), 「죽음」(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2019)과 같이 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들도 나왔다. 제11회 웅진주니어 문학상 수상작인 「잃어버린 책」(서지연, 웅진주니어, 2019)도 잊혀진 책과 자유롭고 싶은 어린이 이야기다.

미용실 집 딸 용미는 요즘 아이들과 달리 학원에 다니지 않고 책을 좋아한다. 용미 친구 한나는 학원투어를 다니고 엄마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아이다. 가출을 결심한 용미를 처음에 말리던 한나는 충동적으로 가출에 동참하게 된다. 버스에서 잃어버린 책을 찾으러 분실책 보관소에 가게 된 용미와 한나는 주인에게 버려져 재로 변할 위기에 처한 책 주인공들을 만나게 된다. 책 속 주인공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책의 마녀를 만나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두 친구의 모험이 시작된다.

책에 등장하는 '책의 마녀'는 책 표지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책의 마녀의 마법에 빠지면 도서관과 서점을 넘나들며 책을 고르고, 사 모으고, 끊임없이 읽으면서 책에 빠져들게 된다. 이 책에서 분실책 보관소는 환상의 세계로 가는 출입구 역할을 한다. 그 세계에서 용미와 한나는 빗자루 대신 첼로를 타고 날아다닌다. 거인(트롤)과 바바야가(마귀할멈)를 만나 위기에 처하지만 글자를 이용하여 극복한다. 책의 편에 서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현실로 돌아온 두 친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는 성장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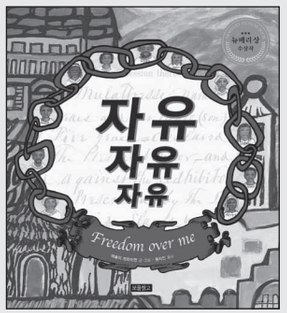
작가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는 용미를 통해서 책의 위기와 독서를 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또한 한나를 통해서 엄마가 만든 시간표대로 생활하느라 힘든 우리 아이들을 대변한다. 「잃어버린 책」의 장점은 등장인물을 통해 「클로디아의 비밀」, 「샬롯의 거미줄」, 「사자와 마녀와 옷장」,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꼬마마녀」 등 어린이책의 명작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보다 더 재미있는 '책 읽는 즐거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화 「토이 스토리」의 '앤디'가 내 어린 시절을 함께 한 '우디'에게 느꼈던 감정을 책 친구에게서 찾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자유 자유 자유

애슐리 브라이언 글. - 보물창고. 2019.
48p. : 천연색삽화 ; 29 cm
안성시 중앙도서관(아841브292ㅈ)

불평불만이 많은 어린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우리는 인종 차별에 대해 얼마나 실감하고 살아가는가? 사실상 일상 속에서 성차별도 아닌 인종차별을 느끼는 경험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완연히 사라졌다고 보는 시선도 더러 존재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며 남들과 다르게 대우한다.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 자유 자유」, 이 책에서는 흑인 노예의 실상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밝히고 있다.

흑인 노예 11명을 가지고 있는 페어차일드 가의 주인 카도 페어차일드 씨가 죽었다. 메리 페어차일드 부인은 남편 없이 노예들을 관리하는 것에서 두려움을 느껴 흑인 노예들을 전부 팔고 떠날 계획을 세운다. 11명의 노예는 이 상황에 대해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책에서는 이 노예들을 한 명씩 소개해준다. 각 노예의 가격, 백인들이 지은 이름, 나이. 이런 간략한 소개가 있고 옆 장에는 그 노예가 페어차일드 저택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적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보통 그 노예의 원래의 삶과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나와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멈칫한 점은 노예에 대해 백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가격과 이름, 그리고 나이 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책 내에서도 계속 언급되듯 노예를 가진 주인들은 노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지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자신들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고 도피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또, 백인들이 지어준 노예들의 이름에는 뜻이 나와 있지 않았다. 각 사람들의 원래 삶과 본래 이름이 나올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소개되지만 백인들이 부르는 노예의 이름에는 뜻이 없다.

각 인물들이 꿈꾸는 삶은 아마 백인 주인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삶일 것이다. 각자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싶으며,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 원래의 삶이었으면 행복하고 평범하게 살아갈 이들인데도 말이다. 내가 통탄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인간을 사고판다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각 노예의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페어차일드 가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고 그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팔리는 값은 암말 1마리와 비슷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보다도 사람을 대우하는 태도가 아니다. 정말 그들에게 노예란 물건,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다.

각 인물들은 모두 꿈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자유를 추구한다. 풀려날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으로 혹사시키며 꿈을 짓밟는 것은 누구의 권리인가? 애초에 이것을 권리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책은 억울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기에 결코 가벼운 이야기일 수 없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아이들이 이 책을 접하고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갑

로마나 로마니신, 안드리 레시프 글·그림,
황연재 옮김. - 책빛. 2019.
유아부터 초등저학년

동생이 태어난 언니, 오빠, 형, 누나



복작복작 행복한 장갑 아파트

이은주
(남양주시 사서)

장갑은 아이의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는 엄마의 품이다!

우크라이나 민화가 그림책이 된 '장갑'은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동갑내기 로마나 로마니신과 안드리 레시프의 작품이다. 우크라이나의 익숙한 동화를 다양한 미술 기법과 장르를 결합한 새로운 디자인의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선명한 색채와 단순하고 감각적인 디자인, 다양한 미술 기법과 그림과 글자의 조화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콜라주 기법으로 실제 장갑을 사용하고, 종이를 오려내 작가의 털 스웨터로 표현한 동물들은 따뜻하고 생동감이 넘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그림책으로 책 속에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장갑 아파트 안내도가 들어 있다.

동일한 제목과 이야기로 러시아의 에우게니 M. 라쵸프의 작품을 이미 1994년 한림출판사가 출간된 적이 있으며, 이번 책은 동일 내용에 현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감각을 덧입혀 탄생시킨 '새 장갑'이다. 달라진 점이라면, 기존 그림책의 벙어리장갑의 내부가 원룸이었다면, 새롭게 출간된 줄무늬 손가락장갑의 내부는 아파트형 거처이다. 그리고 등장인물인 할아버지를 뒤따르는 강아지가 새롭게 등장했다.

그림책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할아버지와 강아지가 등장해서 장갑을 떨어뜨리고 간다. (어쩌다 떨어뜨렸는지, 무엇 때문에 이곳을 지나갔는지에 대한 상상을 나누기에 좋다.) 그 장갑을 처음으로 발견한 생쥐는 '내가 살기에 딱 맞는 곳이로군!' 이라며 주저 없이 새로운 거처로 삼는다. 그 뒤로, 개구리, 토끼, 여우, 늑대가 차례로 들어온다. 다섯 종류의 동물들이 주저 없이 장갑 속을 거처로 삼는다.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고, 거절하지 않는다. (둘, 셋, 넷, 다섯, 동물이 한 마리씩 증가될 때마다 아이들은 신나게 또는 장갑 속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될 듯하다.)

여섯 번째 멧돼지가 등장할 때, 장갑 안의 동물들은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미 꽉 차서 네가 들어올 곳이 없는걸?" 그러자 멧돼지는 "걱정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말하며 정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인 일곱 번째 곰이 장갑집 앞에 나타나 "모두 여기 있구나! 나도 들어가게 해줘."라고 말할 때 역시나 안에 있던 동물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이미 꽉 차서 들어올 곳이 없다는 걱정. 하지만 곰 역시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말하고 들어간다고 한다. 이때 이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버린 친구들은 "문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될 거야."라고 도움을 준다. 이 말 속에는 곰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함축되어 있다. 장갑이 터질듯하고 옴짝달짝 할 수 없어 보여도 그 누구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거절하지 않는다.

장갑은 우연히 발견한 동물들의 거처로 보인다. 하지만 이 그림책을 엄마 품 속에서 대하고 있을 아이들은 그들의 최초의 거처인 엄마의 품을 연상하기에 딱 좋다. 그래서 이 그림책이 주는 것은, 누구나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거절당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안도감'이다. 아이들의 심성은 발달단계에 따라 이 7가지 각기 다른 동물들이 갖는 이미지처럼 귀엽기도 하고, 사납기도 하고, 천방지축일 때도 있고 욕심으로 부풀려지고 과장되어 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엄마의 품은 그런 아이들의 모든 성품을 언제나 수용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밀감의 장소이다. 아동들이 그림책을 넘기면서 멧돼지와 곰이 나타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간에 대한 걱정으로 멈칫하지만 그것조차 엄마는 "괜찮아, 들어와, 엄마가 도와줄게."라는 공감의 목소리를 던진다. 그러므로 장갑은 언제나 마음 놓고 수용 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엄마의 품과 같다. 수용의 반복은 일곱 번이나 계속된다. 우리에게 '7'이라는 수는 휴식과 행운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이런 장갑을 만나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운이며 무한한 휴식을 얻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수용해 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를 만난 최고의 행운아가 된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은 장갑 안에서 일제히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일곱 마리 동물들의 발자국들이다. 이 발자국들은 장갑 안에서의 아름다운 체험을 한 아이들이 모두 더 넓은 사회로 나가는 건강한 성장을 보는 듯하다. 동물들의 종류는 다 다르나 서로가 하나였고, 하나의 안도를 느꼈고, 그리고 이제 같은 놀이터를 향해 간 듯하다.

이 책이 어른들에게 주는 덤은, 같이 산다는 것은 물리적 공간보다 마음의 공간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각자 네모나고 뾰족한 집을 짓고 살지만 우리의 통찰력은 동그란 지구 속에서 결국 하나인 우리 인류 전체의 삶의 형태를 그려내게 한다. 아이와 함께 읽을 때 양보와 배려, 각자 동물들의 마음 등 많은 얘깃거리를 만들 수 있고, 책의 한 페이지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은 작가의 쓸모 있는 창의력이 갈피마다 수북한 책이다.

조선 엿장사 큰노미

최주혜 글. - 키즈엠. 2018.
101p. : 천연색삽화 ; 22 cm
안성시 중앙도서관(아813.8최76ㅈ)
초등학생저학년

역사에 관심있는 누구나



금난전권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과장 조금 보태 돈으로는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고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이다. 21세기 기술에 힘입어 인터넷으로도 식자재, 가구 등 살 수 없는 것이 없고 배달시킨 물건들은 약 하루만에 배송된다. 쇼핑의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숙종 32년에 들어서 세금을 부담하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이 서울 도성 안과 성저십리(도성 아래 10리까지) 이내의 지역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 특권을 지킬 수 있도록 조정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상업상의 특권인 금난전권이 생겼다.

금난전권이 생긴 이후로 물건을 팔 권리를 인정받은 시전 상인들이 일종의 독점권을 얻어 상품의 가격을 제 마음대로 올리고, 온갖 횡포를 부렸다.

이 책은 조선 후기, 백성들을 핍박했던 금난전권을 주제로 한 이야기이다. 주인공인 큰노미는 일찍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누나, 세 가족이 살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불쌍한 아이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생계수단이 없어진 누나와 큰노미는 배추 장사를 시작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려 하는데, 시전 상인의 횡포로 여러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되고 그 일로 누나는 몸져눕게 된다.

그러던 중 한 선비의 갓을 훔친 아이에게서 다시 갓을 가져와 선비에게 주는 선행을 한 큰노미에게 감동한 선비는 큰노미가 시전 상인에게 걸리지 않는 엿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밑천을 마련해준다.

사실 시전으로 인해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곤지의 사정을 알게 된 큰노미는 그 이후로 곤지와 친구가 된다. 이후 엿장사를 하던 큰노미는 누나가 시전 상인에게 고발당해 끌려가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마침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간 큰노미는 임금님께 시전을 없애달라고 간청하고 임금님은 그날로부터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뒤로 백성들은 횡포와 두려움에 떨 필요 없이 장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금난전권이라는 어려운 역사 속의 단어를 이야기를 통해 쉽게 풀어내었고 그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마치 옛날 이야기 듣듯이 쉽게 접하고 또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책에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책장을 넘길 수 있도록 큼지막하고 익살스러운 그림이 그려져 있어 책 속의 이야기에 더욱 흠뻑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조금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지하차도 건너기

하모 글, 한아름 그림. - 우주나무. 2019.
초등 저학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 모두



비밀이 생긴 지하차도

이은주
(남양주시 사서)

비밀통로에는 비밀이 있다

요즘 아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전에는 가족들, 특히 부모나 형제들과 함께 있던 시간들을 지금은 대부분 혼자 있게 됐다. 부모의 맞벌이거나 외동인 아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하모의 「지하차도 건너기」는 '민애린'이라는 여자아이가 주인공이다. 요즘 흔하게 있는 혼자 있는 아이의 상징인듯 이 아이의 이름은 31쪽에나 가서야 한 번 불리운다. 혼자 밥 먹고, 혼자 학교 가고, 혼자 상상하는 것의 연결인지라 이 아이의 이름이 불릴 일이 거의 없다. 31쪽에 가서 한 번 나온 이름도 동물원 현장학습 가는 차에 늦게 올라탔기 때문에 핀잔 받기 위해 불렸을 뿐이다.

이야기의 흐름은 애린이의 등굣길부터 하굣길까지 어느 하루의 동선을 따라간다. 외롭고, 특별할 것 없는 등굣길을 시작으로 한다. 특별할 것 없는 아이라는 게 참 마음에 걸린다. 이 세상 어디에나 흔하게 있는 혼자 있는 아이! 그러나 혼자 있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티내지 않는 아이! 들어줄 이가 없어서 티낼 수도 없는 아이!

「지하차도 건너기」는 늘 혼자 있다시피 하는 애린이가 무서운 지하차도 건너기를 성공함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특별함을 인정하게 되는 책이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꼭 한번은 자신과 정면승부를 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 작가는 이 지점을 애린이에게 '지하차도'라는 곳으로 정해준 것 같다. 애린이가 지하차도를 '비밀통로'로 정했으니 말이다.

수많은 별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별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수많은 별들 중의 특별한 별이라 여긴다면 정말 별다운 별이 될테니까 말이다. 작가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이 같다.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인가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정체성을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게 하는 과정을 아이답게 그려줬다. 비밀통로에서 애린이만의 소중한 비밀을 갖게 해 주었으니 말이다.

애린이가 지하차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상상인 듯, 현실인 듯한 인물들을 만나게 해주면서 작가는 애린이 마음속의 두려움들과 기대하는 것들을 마음껏 드러나게 한다. 특별히 여러 가지 괴물의 등장은 애린이 마음속의 두려운 것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동물이 혼자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웠을 마음의 무게를 아이들 시선으로 잔인하지 않고 흥미롭게 펼쳐주었다. 또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위험하고 따분한 세상을 향해 문을 닫는 연습이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세상을 열어볼 역동을 선사한다.

동물 얼굴에 사람의 몸을 가진 세 가족의 식탁에서 애린이는 100년 만에 찾아온 손님이 되어 식사를 한다. 그 집이 10년 만에 먹는 호박죽을 먹는 날에 찾아간 애린이는 따듯하고 포근한 대접을 받고 이야기의 종결로 몰아간다. 핵가족 시대의 정적인 모습과, 여러 식구들과 단란한 식탁을 원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함께 보여준다. 작품 초반에 애린이 혼자 차가운 김밥을 먹던 식탁과 대조적으로 말이다.

읽는 내내 참 재미있고 동화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과 환타지를 억지스럽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든다.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잔인함이나 협박 없이도 새로운 곳을 조심스럽게, 포기 없이 탐험할 생각을 주는 동화다.

전 세계의 애린들이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 한 명, 한 명 특별한 애린이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될테니 말이다.

초코가루를 사러 가는 길에

박지연 글. - JEI재능교육. 2018.
44p. : 삽화 ; 32cm.
시흥시 중앙도서관(유813.8 박78ㅊ)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작은 관심과 행동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음



곰의 초코가루는 사랑이에요!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

초코차는 아이들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일 것이다. 책의 표지부터 인상 좋은 곰이 초코차를 마시는 모습인데, 어린아이가 좋아할 만한 다정한 그림이다. 지그시 눈을 감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차를 손에 든 곰, 참으로 포근해 보인다. 달콤한 초코차만큼 어느 누구라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림책이다. 흔히 곰은 무뚝뚝하고 무서운 동물로 보여지지만, 여기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다가가 주변인에 관심을 보이는 곰을 통해 작은 관심과 행동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곰은 무엇이든 안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의자를 감싸 안고, 딱딱한 수저와 나무를 껴안기도 한다. 주변의 가까운 사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려 한다. 그리고 곰이 좋아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곰의 마음만큼이나 따뜻한 초코차이다.

어느 날 집에 초코차가 떨어져 곰은 초코가루를 사러 집을 나선다. 하얀 눈으로 덮인 숲속 길을 나선 곰. 하지만 가는 길에 무언가 사정이 있는 듯한 이웃들을 마주치는데… 자기 일은 잠시 미루고 곰은 울고 있는 여우, 잔뜩 화가 난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돼지, 눈길 속 남의 물건을 빼앗으려는 토끼들을 지나치지 못한다.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가 끝나면 포근히 감싸 안아주었다. 이 같은 모습에 다른 동물들은 어색해하고 어리둥절하였지만 이내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속 경계가 눈 녹듯 사라져 갔다.

밝고 부드러운 갈색의 귀여운 곰이 동화책을 꽉 채우며, 동물 친구들을 포근히 안아주는 장면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감싸 안는 모습과 같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사람처럼 말은 못 하지만 곰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며 다정하게 '괜찮아', '사랑해'라고 진심어린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겉모습만 보면 무섭고 거칠 것 같은 곰. 이런 생각들을 뒤로 하고 곰은 주변 동물들에게 거창하고 꾸밈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다가갔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주면서 이야기에 경청하는 모습은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도서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유아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책을 읽어주면서 자연스레 아이와 함께 포옹도 나누면, 부모의 사랑도 충분히 느끼면서 친구나 주변사물들에게 따뜻한 말과 작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람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말랑말랑한 감수성이 살아있는 좋은 그림책이다.



평화를 보는 눈

정주진 글. - 개마고원. 2015.
247p. : 삽화 ; 21 cm
안성시 중앙도서관(334정76)
청소년 이상 누구나



가장 중요한 가치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세계는 지금 평화로운가? 분명 1,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냉전 시대는 종식되었다. 세계는 확실히 이전보다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평화의 가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가치들보다는 뒤쳐질까?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는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전쟁, 아직까지도 일어나는 크고 작은 내전들, 높은 비율의 강력 범죄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평화는 아직까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전에서는 평화를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내린다. 하지만 과연 분쟁이 없는 것만이 평화일까? 노르웨이의 저명한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은 자신의 저서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에서 폭력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소극적 평화' 뿐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자인 정주진 평화학 박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빈곤, 정의, 기후변화와 전쟁 등 다양한 주제와 사례들을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또, 이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에 평화를 일구어낼 방법들을 제시한다.

그의 저서 「평화를 보는 눈」에서는 전체적으로 평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평화로운 세상으로의 도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4장 평화는 정의를 외면하는가'에서 9.11 테러와 알카에다 테러 집단,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이 세 역사적 사건을 묶어 정의의 실현이란 무엇이며 정의를 평화로운 수단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개인적으로 정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왔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평화와 정의라는 가치는 어떤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립해야 그 가치들이 훨씬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미국의 원자폭탄과 일제 때 일본군들의 잔인한 행동들을 사례로 정의가 잘못 적용될 경우 과거의 일은 덮고 현재의 희생에만 중점을 둘 수 있음을 일깨웠다. 과거와 현재의 관계와 정의를 함께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평화에 관한 책이지만 비단 평화에 대해서만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천할만하다.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평화와 빈곤, 정의, 환경 등 여러 가치와 함께 다룬다.

이들과 함께 평화를 다루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평화의 시각으로 풀어낸다. 특히 독특한 점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평화적 관점에서 언급한다는 것이다. 언뜻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주제를 기후변화가 가지고 오는 빈곤, 테러, 국가 간 분쟁들을 이용해 이야기했다.

평화보다 우선시되는 가치가 있다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 물론 책에서 이야기하듯 평화를 강요하는 것 또한 문화적 폭력이며 이 행위 자체도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추천이 그들에게 평화라는 가치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라는 강요가 아니라 모든 가치와 평화가 공존해야 함을 알리는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느껴졌으면 한다.

하늘을 울리는 바이올린

송재찬 글, 박세영 그림. - 밝은 미래. 2016.
146p. : 삽화 ; 24cm.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아808.9 아68ㅂ 27)
초등전학년

음악을 좋아하고 관심있는 사람들



마스터메이커를 알고 계시나요?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바이올린의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한 대에 몇 십, 몇 백억 원을 주어도 구하기 어려운 악기라고 한다. 바이올리니스트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악기지만 특별한 누군가만 선택할 수 있는 명품이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명품이 된 것은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른 바이올린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바리가 평생을 걸쳐 만든 대단한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대해서는 이름이라도 알고 있지만,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바리만큼 평생을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헌신한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나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고 더불어 마스터메이커라고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등을 만드는 제작자에 대한 상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작가의 말을 빌려 이 책을 말하자면 '끝까지 한국인으로 살기를 고집한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 진창현에 대한 이야기이다.

진창현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며, 가난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기가 힘들기에 자신의 꿈인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이복형이 있는 일본으로 건너간다. 가진 것 없는 진창현이 오직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일념하에 갖은 고생을 다해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지만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다. 졸업해도 직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하였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잠깐 배운 바이올린의 선율을 잊지 못하던 차에 한 대학교에서 바이올린 제작에 대한 강연을 듣고 바이올린 제작을 직접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배울 곳을 찾아다니게 된다. 그 과정은 굴욕감과 서글픔의 연속이다. 연고도 없는 곳에서, 가진 것도 없는 한국인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무수히 거절당하고 멸시당하면서도 오롯이 바이올린 제작과 관련된 곳이라면 일본의 그 어느 곳도 마다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읽다보면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열정과 집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아마도 서글픔 속에서 오기가 생길 것이다.

'노오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란 말을 하면 요즘말로 꼰대라고 한다. 힘든 일, 위험한 일,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 선뜻 일하려고 하지 않는 나를 비롯한 요즘 사람들에게 진창현의 집념과 열정이야말로 노력 그 자체이니, "정말 노오력은 배신하지 않으니 꼭 읽어보라"고 권유한다면 정말 꼰대라고 생각할까?

그의 의지와 열정은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귀화를 하면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음에도 끝까지 한국인으로 남은 그를 보며 대한민국, 국가, 민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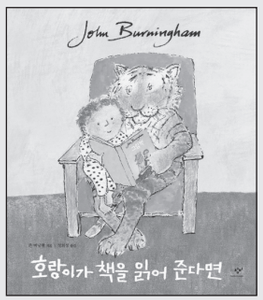
작가는 진창현의 일생을 쓰기 위해 어떤 참고자료를 썼는지 책을 읽기 전 기술했고, 뒷장에는 〈그 뒷이야기〉를 마련하여 진창현 씨와 관련된 사진과 이야기로 독자의 궁금증을 일말 해소시켜주었다. 실제로 책을 읽고서 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시간도 많아진다.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예술을 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악기 제작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도 권하고 싶다.

책을 읽고서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바리에 관한 책도 읽고 비교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호랑이가 책을 읽어준다면

존 버닝햄 지음, 정희성 옮김. -창비. 2018.
40p. ; 23 cm
반달어린이도서관 U843 버198ㅎ
유아

아이들의 상상의 세계란 무엇인가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
책과 함께 상상의 세계를 탐험해 보고 싶은 유아



상상해 봐~

이연순
(수원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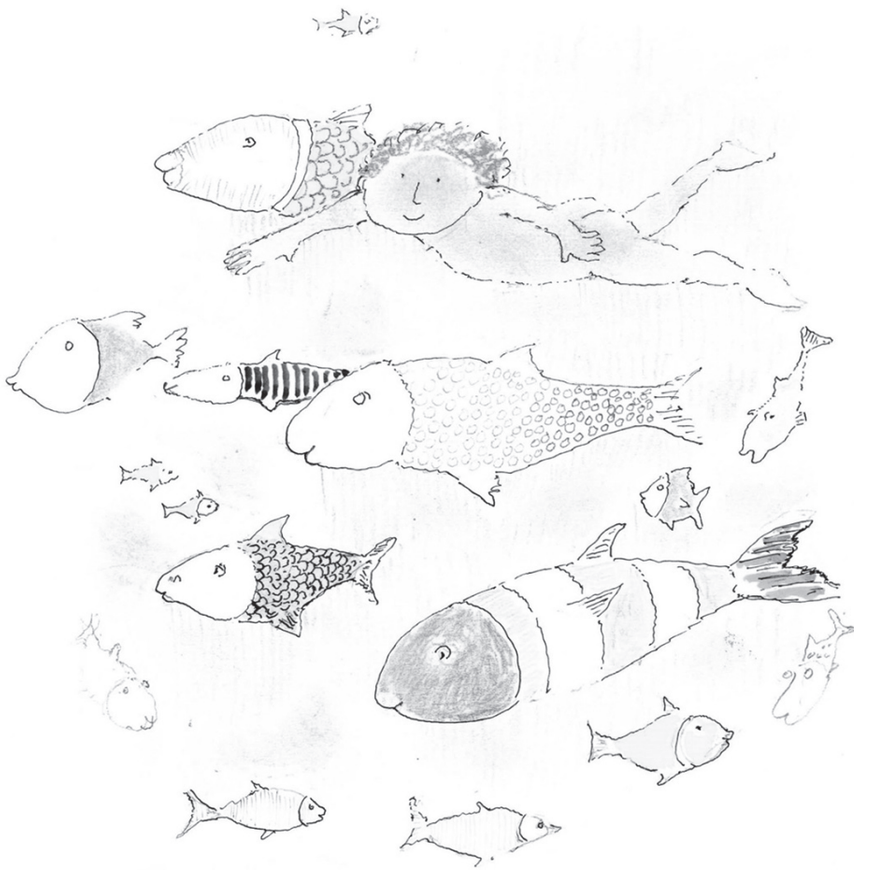
엉뚱한 상상 그리고 유쾌하고 발랄한 질문들.

「지각대장 존」,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등에서 보았던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의 파스텔 톤 그림들이 정겹고 익숙합니다. 작가 존 버닝햄은 1936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올해(2019) 1월 4일에 작고하셨습니다. 두 번의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쿠르트 마슐러상, 뉴욕타임스 최우수 그림책상, 독일 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입니다. 이 책의 원작은 “More would you rather”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을 수 있는 일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을 나열했습니다. 주로 아이 주변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등장시켰는데, 그림을 편안하고 재미있게 표현해 놓아 읽는 동안 공감을 하게 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엄마 아빠도 나라면 어떤 대답을 할까 생각하며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아끼는 꽃병을 깨트린 게 걱정돼?”, “아빠 차에 상처를 낸 게 걱정돼?”, “아니면 카펫에 페인트를 엎지른 게 걱정돼?” 처럼 아이가 하는 질문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호랑이가 책을 읽어주는 게 좋아?”, “마법사가 노래를 불러 주는 게 더 좋아?”와 같은 질문은 ‘이건 뭐지’ 하면서 애써 인과관계를 헤아려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생각이란 논리 없이 왔다 갔다 하며 뭐든 가능하지 않던가요? 다소 엉뚱하지만 아이 눈높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아하 그렇구나’ 하며 무릎을 치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질문에 서로 답하며 책을 읽으면 내 아이일까 싶을 정도의 기발한 답을 듣는 재미를 맛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의 세계가 무엇인지 경험해야 할 어린이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을 맛보고 싶은 사람 누구나에게 추천합니다.



호텔 파라다이스

소윤경 지음. - 문학동네어린이, 2018.
64p. ; 25cm.
안산시 부곡도서관 (813.8 소66g)
낙원에 대해 생각해 볼 어린이와 어른들

낙원이 필요할 때
낙원이 무엇일지 궁금할 때



낙원의 이면

전진희
(안산시 부곡도서관 사서)

"날 기억해주렴."

'여행은 연필 끝처럼 뾰족하고 반짝이는 순간이야.'라는 첫 문장처럼, 표지의 '호텔 파라다이스'라는 제목은 보는 각도에 따라 분홍과 보라로 반짝인다. 마치 성처럼 보이는 분홍 건물 앞에는 수영장의 푸른 물이 찰랑거리며, 그 근처로는 꽃과 나무들이 가득하다. 휴양객들은 혼자 혹은 여럿이서 각자의 방법으로 이 낙원을 즐긴다.

너무 좋아서 한눈을 팔기도 어려울 듯한 이곳에서, 수영장의 사다리를 오르던 한 아이만이 고개를 돌려 파라다이스 밖, 그러니까 독자가 있는 이 너머를 바라본다. 수경을 써서 그 눈빛은 보이지 않으나, 그리 신나거나 느긋한 표정은 아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이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시작한 아이는 모든 광경을 눈에 담아둔다. 거대한 비행기, 비행기 바깥으로 보이는 하늘, 으리으리한 호텔의 내부, 방 밖으로 보이는 이국적 풍경, 춤을 추는 무용수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그러다 파라다이스 외부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낙원의 밖인 높은 철창으로 된 문 너머에서 경호원에게 물을 구한다. 하지만 경호원은 손을 들어 거절한다. 바로 보이는 호텔 안 분수대에서는 물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아이는 그 분수대에서 담은 물을 그들에게 건넨다.

그들이 아이에게 준 것은 투명한 구슬 하나. 그 구슬을 들여다보던 아이는 또다른 파라다이스로, 누군가의 '나의 낙원'으로 초대 된다. 나무와 꽃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온갖 동물들과 사람들이 어울려 노는 오아시스. 누군가 물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누구나 물을 마실 수 있고 헤엄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즐겁게 어울려 놀던 아이는 뒤늦게 깨닫는다. 아이의 앞에 나타난 기계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부수고 없애고, 그로 인해 죽어가는 동식물들을 보고. 이곳이 자신이 있던 그 '호텔 파라다이스'의 과거였다는 것을. 낙원 속 이 아이의 여행은 어떻게 끝이 날까? 낙원은 누구의, 누구를 위한 낙원일까?

이 책은 반짝이는 문장으로 설렘과 기쁨을 잘 담아낸다. 여러 가지 색감으로 만들어낸 '호텔 파라다이스'의 풍경 또한 아름답다. 마치 독자도 좋은 휴양지에서 재미있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이 책의 가치는 이 낙원이 진짜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 빛난다.

물론 책 속 호텔은 파라다이스가 맞긴 하다. 그러나 이 파라다이스는 어느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만 낙원이다. 누군가는 남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려야 하고 마사지를 해야 하고 춤을 춰야 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고 경비를 해주는 이곳이 과연 '모두'의 낙원일까? 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관광객, 손님이 아닌 그들에겐 일터일 뿐이다.

이 낙원을 진정으로 즐기려면 비행기 등의 교통비와 호텔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돈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은 낙원의 물 한방울조차 맛볼 수 없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은 높은 철창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 그저, 그 안에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만의 낙원이 '호텔 파라다이스'다.

이 '호텔 파라다이스'라는 한정적인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있던 오아시스의 모든 존재를 내쫓고 자르고 부수고 죽였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물을 주었던 오아시스는 외부인의 의사에 따라 희미한 흔적만이 남았다. 이렇게 '나의 낙원'은 너만의 낙원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은 실제로 무수히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다.

'호텔 파라다이스'에서 즐겁게 지내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의 기쁨과 설렘은 죄가 아니다. 무언가를 지불해서 얻은 합당한 대가다. 우리는 그저 모르거나 잊었을 뿐이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니까.

내가 찾아온 낙원이 남에게서 뺏은 낙원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알아서 당장 무엇이 해결되는 일도 없다. 그런 마법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으니 잊어버리지는 말아달라고 이 책은 말한다. 기억해달라고.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바뀌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기엔 이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미 너무나 많은 낙원이, 자연이 사유화되어 스러졌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시도들보다 전자가 훨씬 더 많기에. 그러나 표지의 낙원 밖을 바라보게 된 아이처럼 알게 되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낙원의 사유화가 조금은 더뎌 질 수도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순 없더라도 조금은 제자리에 남길 수 있지 않을까.



(다 같이 돌자) 미래 직업 한 바퀴	박주혜	김영사	**임지혜**	성남시서편도서관
3.1 운동 일기	김영숙	풀빛	**공정자**	안성시중앙도서관
나는 본다	로마나 로맨션, 안드리 레시브	길벗어린이	**공정자**	안성시중앙도서관
난민이야기	섀들리히 수잔	니케주니어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내가 타는 차	이안	아르볼(지학사)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까요?	이주영	현북스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딜쿠샤의 추억	김세미, 이미진	찰리북	**신선원**	수원시희망샘도서관
땅 위 땅 속	추쩡쭝	현암주니어	**이연순**	반달어린이도서관
박물관장 최순우	오현미	사계절	**이연수**	수원시대추골도서관
비교할수록 쉬워지는 단위	클라이브 기퍼트	부즈펌어린이	**공정자**	안성시중앙도서관
세상에 도전한 위대한 여성들	브래드 쇼, 조지아 암슨	시공사	**박지원**	안성시중앙도서관
시애틀 추장 연설문	정명림	현북스	**이은주**	남양주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김지현	그레이트북스	**유향숙**	성남시중앙도서관
안녕, 나의 등대	소피 블랙올	비룡소	**양유진**	수원시광교푸른숲도서관
지붕이 들려주는 건축이야기	남궁당	현암사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다 같이 돌자)
미래 직업 한 바퀴

박주혜 글. - 김영사. 2018.
64p. : 천연색삽화 ; 26cm.
성남시 분당도서관 (아321.55ㅂ512ㄷ)
초등학생

키자니아가 과연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는 부모님
교과 연계도서에 열광하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독서 흥미 유발을 위해 책을 권할 때
알지 못하는 미래 직업들에 대해 궁금한 어린이



엄마가 예상 못한 미래의 직업들

임지혜
(성남시 서현도서관 사서)

주인공 환이가 하루 동안 만나는 미래의 직업들에 대해 나열된 「(다 같이 돌자) 미래 직업 한바퀴」는 16개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약제농업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로봇 기술자, 홀로그래피 전문가, 우주여행 가이드, 무인 자동차 정비사, 날씨 조절 관리자, 날씨 변경 감시 경찰, 종 복원 전문가, 3D 도면 설계자, 나노 섬유 디자이너, 식품 융합 기술자, 택배 드론 관리자, 나노 의학 전문의, 에너지 관리 공무원, 세계 윤리 관리자에 대해 어린 아이의 일상을 따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후기를 통해 자신이 어렸을 때 만났던 트램펄린과 군고구마, 사진관 등에 대한 추억을 언급하며 어렸을 때와는 달라진 현재를 이야기해줍니다. 덧붙여 10년 전에 등장한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대해 얘기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직업들이 나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미래를 대비하고 적응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합니다. 현재의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을 바탕으로 재창조될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만나게 될 미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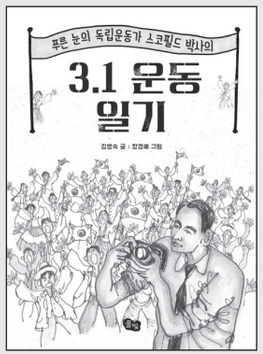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책을 읽다 보면 생소한 직업이 나열되어 거부감이 들 수 있을까 염려되지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용어가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통은 부모님 세대부터 자주 보던 그 제품이 연상되어 그린이의 연배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이경석 선생님의 작품이며 대표작으로는 「개화 소년 나가신다」, 「트랙터 삼촌 리어카 타고 어디가요?」, 「난 노란 옷이 좋아」, 「한글 탐정 기필코」, 「어린이들의 한국사」 등에 그림과 만화를 그렸습니다. 글을 쓴 박주혜 선생님은 201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분에 「승리초등학교 5학년 2반 이기자 여사님」이 당선되면서 작가 생활을 시작했고 그 뒤 「변신돼지」로 제6회 비룡소 문학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오늘은 최고의 날」, 「앗! 이런 발명가 와! 저런 발명품」, 「아낄수록 밝아지는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림을 보면 미래의 어느 시점인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부엌과 거실은 현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칼과 도마를 써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한 후 정리된 접시들의 모습과 싱크대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실의 텔레비전 아래에 책이 비치된 정경은 마치 2019년 우리 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에 중점을 두고 책이 서술되어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미래 모습까지는 모두 담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러나 엄마도 아이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미리 만나고 언급된 직업들에 대해 생각해보며 앞으로 선택하게 될 미래의 직업들에 대해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스코필드 박사의) 3.1 운동 일기

김영숙 글, 장경혜 그림. - 풀빛, 2019.
164p. : 삽화 ; 15cm.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911.065 김64ㅅ)
초등 고학년

스코필드 박사, 전기, 3.1운동, 독립운동



스코필드 박사에게서 듣는 3.1운동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2019년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스코필드 박사가 한국에서 겪었던 생생한 3.1운동에 대한 기록으로 1916년 8월부터 1920년 4월까지 그가 남긴 행적과 역사적인 사건을 김영숙 작가가 일기 형태로 재구성한 책이다. 3.1운동을 소개하는 다른 책과 달리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3.1운동에 대해 직접 사진을 찍어 기록하고 전 세계에 알렸던 외국인의 관점에서 3.1운동의 전, 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한 책이다.

스코필드 박사(Frank Wiliam Schofield, 한국 이름 석호필. 1889-1970)는 캐나다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 후 1958년부터 한국에 돌아와 살았으며, 그는 외국인으로서 현충원에 안치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에서 일어났던 당시 3.1운동 만세 시위현장과 1919년 4월에 제암리 학살사건 현장을 찾아가 사진으로 남겼고 지속적으로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렸다. 지금까지 남겨진 3.1운동에 대한 주요 사진과 그 당시의 기록이 스코필드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스코필드 박사는 만세운동에 참가한 우리나라 사람을 도왔는데 책을 읽다 보면 스코필드 박사가 만났던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많은 독립운동가가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유관순, 손병희, 어윤희 등의 인물이 나오며 그들의 사진과 인물을 소개하는 짧은 설명이 있다. 3.1운동 당시의 우리나라 배경 및 만세운동, 제암리 학살 사진과 장경혜 그림작가의 삽화가 3.1운동과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일본에 대항한 불굴의 의지를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 '한눈에 보는 3.1 만세 운동'에는 2.8 독립선언문, 민족대표 33인, 스코필드 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스코필드 박사처럼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렸고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앨버트 가족을 다룬 「딜쿠샤의 추억」이 있다. 1919년 2월 28일, 거사 전날에 기자 앨버트 테일러의 부인이 아들을 출산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독립선언서를 숨겼던 이야기가 「3.1운동 일기」를 읽다 보면 동시대를 살며 우리나라의 3.1운동을 알렸던 두 외국인을 만날 수 있다.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운동가를 돕고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렸던 스코필드의 삶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자신을 희생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뜻깊게 다가온다.

나는 본다

로마나 로맨션·안드리 레시브 지음, 김지혜 옮김.
- 길벗어린이, 2018.
64p. : 삽화 ; 28cm.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511 로33)
초등 저학년 이상

시각, 본다, 보는 것에 대한 다양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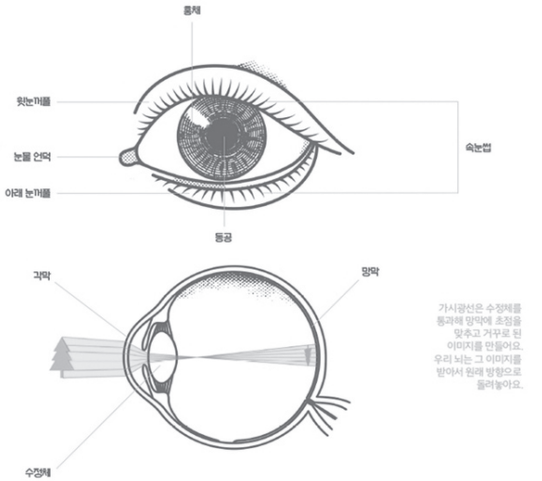
'본다'에 대한 다양한 접근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사람에겐 감각이 있어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사물을 인지하고 받아들인다. 이 책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등 다섯 가지 감각 중 시각을 소개한 책이다. 시각은 본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통 생각하는데 이 책은 "본다"를 다양하고 폭넓은 각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첫 문장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깜깜했어요.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지요."로 시작하며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시작한다. 이후에 본다는 것에 대하여 시각 형성, 눈 색깔, 눈의 구조, 색채, 기호로 전달하는 싸인,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안경, 현미경, 망원경도 소개한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착시 현상, 동물의 눈과 사람의 눈의 차이, 시각장애인을 돕는 점자, 오래된 기록을 볼 수 있는 사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예술 등 다방면의 소재로 설명한다. "나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마치 처음인 것처럼 세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끝없이 꿈을 꾸지요. 그리고 꿈을 봐요." 라며 실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의미의 본다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글은 보통 맨 밑줄에 간결하며, 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그림으로 설명한다. 이 책에서 사용한 주요색은 형광색 계열의 주황색과 파랑색이며, 안경을 쓴 여자 아이가 자주 등장한다. 앞 면지를 보면 눈을 감고 뜨고 있는 그림, 뒷 면지에는 "볼 만한 것들"에 대한 정보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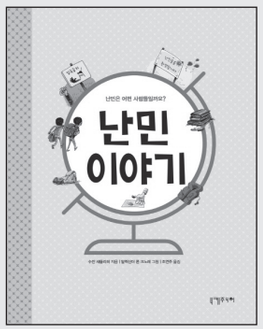


께 제공한다. 두 작가가 함께 쓴 「나는 본다」는 시각, 「크고 작게 소곤소곤」은 청각을 소개한 책과 셋트로 2018년에 〈볼로냐 라가치 상〉과 〈BIB 황금패 상〉을 수상하였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본다는 설명에 곁들어 추가적으로 읽어보면 좋은 책들이 있다. 안경이 필요한 아이를 주제로 한 「바보 야쿠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미생물을 소개한 「아주 작은 친구들」, 사람과 다르게 보는 동물들의 눈을 자세히 소개한 「동물들은 어떻게 세상을 볼까요?」, 시각 장애인들의 보조 도구인 흰 지팡이를 소재로 한 「흰 지팡이의 여행」, 안내견이 화자가 되어 들려주는 「롤라와 나」, 시각 장애인이 느끼는 감정을 다룬 「보이지 않는다면」, 시각장애인 피아노 조율사가 등장하는 「투명 인간」, 시각장애인이 글을 읽을 때 사용하는 점자를 제작한 루이 브라이를 소개한 「여섯 개의 점」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난민 이야기

섀들리히 수잔 글, 알렉산더 폰 크노레 그림,
조연주 옮김. - 니케주니어, 2019.
53p. : 천연색삽화 ; 25 cm
안성시 중앙도서관(아331섀27)
초등학생이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만약 당신이 전쟁이나 국가의 부당한 억압으로 인해 자신의 집과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면 어떨까? 여정을 떠나는 과정에서 돈이 아주 많이 들고 가족과 자신의 안전마저 보장받을 수 없다면? 이러한 상황을 현재 겪고 있는 것이 난민들이다.

난민에 관한 논쟁은 이제 우리 사회에 익숙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난민을 수용할 것이냐, 수용하지 말아야 하느냐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난민 문제는 이제는 토론에서 흔한 주제가 되었다.

이 책은 어린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난민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알려주고 있다.

난민이 무엇인지에서부터 난민의 현 실정과 그들이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수록해두었다.

또 난민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는 이유와 그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등 난민 문제에 관련한 이야기를 상세히 적어두었다.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텔레비전이나 주위 어른들로부터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난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난민의 경험을 자세하게 수록하여 난민이 어떤 심정으로 생활하였는지 잘 느끼게 해주며 속속이 삽입된 삽화들이 이야기에 생동감을 부여해준다. 특히 난민 로냐와 아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독일로 오게 되었는지를 표시한 지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힘겹게 이동해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인상 깊은 점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실천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방인인 만큼 난민을 잘 대해주자는 말에서 이가 잘 드러났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난민 수용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찬반이 분분한 주제인 만큼 추후에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난민 수용에 왜 반대하는지도 알아보았으면 한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난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제이다.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아이들도 난민 문제와 같은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고, 이 책이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무거운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주제를 어렵고 무겁지 않게 다루어 아이들이 읽기에 좋다. 또, 두께가 크지 않고 글자 수도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책을 읽기 꺼리는 아이들도 읽기를 시도해 볼만한 책이다. 사회적인 문제를 그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어려운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않고 어린이들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넓혀 나가 차후에 생각하는 어른으로 성장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가 타는 차

이안 글, 박재현 그림, 초등교사모임 감수.
- 아르볼(지학사). 2019.
115p. : 삽화 ; 25 cm
안성시 중앙도서관(아300이62)
초등학생이상



흥미로운 교통수단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학교나 회사, 혹은 그 외 다른 곳을 이동할 때 무엇을 활용하는가? 그 대답은 각기 제각각이겠지만 우리는 외출할 때 보통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출퇴근, 통학을 할 때에도 거의 항상 활용하므로 적어도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셈이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처럼 사람과 물자를 쉽게 옮기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 책은 항상 타고 다니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던 교통수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교통수단 행사장에 간 명진이가 퍼레이드 행렬을 구경하던 중에 가마를 타고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오게 된 예진 아씨를 만난다. 갑작스럽게 과거에서 현대로 시간 이동을 하게 된 예진 아씨는 당황스러운 와중에 구경하는 명진이를 따라서 함께 교통수단 행사장을 둘러보고 둘은 함께 교통수단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먹거리를 먹던 도중 퍼레이드 행렬로 돌아가면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예진 아씨는 다시 탔던 가마로 올라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린이들이 읽기에 재미있다는 것이다.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보통 흥미를 가지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 책에선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법한 명진이와 시간을 여행하게 된 예진 아씨의 이야기를 통해 술술 읽히도록 했다. 특히 이 점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은 귀엽고 생기있는 그림체로 그려진 삽화와 만화이다.

지식은 삽화와 줄글로 정리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은 만화로 전달했는데, 중간중간에 만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책은 지식 전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훌륭하다. 교통수단 각각의 개념을 꼼꼼히 적어두었을 뿐 아니라 교통수단이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가져다주는지, 그 발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아이들이 읽기 쉽게 적어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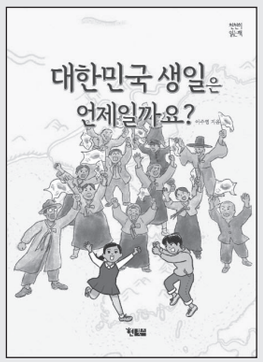
각각의 장마다 맨 뒤에 수록된 〈한눈에 쏙!〉 부분과 〈한걸음 더!〉 부분이 이런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한눈에 쏙!〉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총정리 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복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얻은 지식을 잊지 않도록 도와준다.

〈한걸음 더!〉 부분은 교통수단과 관련된 조금 더 심도있는 지식을 넣었다. 우리나라 자동차 1호, 나라별 이색 교통수단과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사상식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폭을 확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늘상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하고, 더욱 나아가 교통수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까요?

이주영 글. - 현북스. 2019.
138p. : 삽화 ; 21 cm
안성시 중앙도서관(아911.060|76ㄷ)
초등학생이상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까요?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을까? 2015년에 국정 교과서와 대한민국 기념일에 대해서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논란이 컸던 기억이 있다. 현재 역사 교과서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가르치는데, 당시 정부는 국정 교과서를 만들 것이며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라고 할 것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인지를 두고 싸워왔다. 그리고 이 책은 현 10호 헌법, 제헌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을 근거로 들어 1919년 3월 1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제목은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까요?'로, 물론 대한민국 건국일 이슈를 다루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두었는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 이슈, 일제강점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독립운동가들을 자세히 다루었다. 그러나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멈추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계속 던져준다.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조선시대 노비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이런 저런 작가의 물음에 답하며 읽다보면 더 재미있고 책의 내용에 흠뻑 빠지게 된다.

또 작가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게 된다. 3.1절의 이름을 대한민국 독립 기념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생각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고의 폭이 확장될 것이다. 작가는 이 책은 재미를 위해 읽는 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동시에 천천히 읽는 책이라고 한다. 깊게 생각하며 천천히 읽으라고 말한다.

그의 말이 옳다. 이 책은 재미로만 읽을 책은 아니다. 이 책의 내용 구성이 재미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역사에 무지해서는 안 되지 않은가? 더욱이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인 일제강점기에 대해 국민인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적은 역사의 명언도 있지 않은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는 되풀이 되기 마련이다. 이 뼈아픈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언젠가 또 이러한 수치를 겪게 될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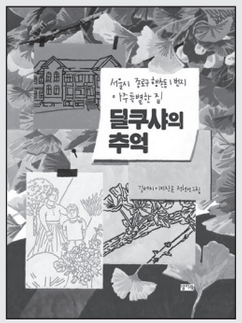
나는 이 책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사이의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 책에서 비록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역사 이야기이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역이 될 아이들이 역사책을 소홀히 읽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딜쿠샤의 추억

김세미, 이미진 글, 전현선 그림. - 찰리북. 2017.
55 p. : 삽화 ; 28 cm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아911김54ㄷ)
어린이부터

어린이를 위한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필요할 때



100년을 이어주는 특별한 집, 딜쿠샤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100년 전, 그리고 그 전후로도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던 분들의 희생 덕분이기에 그날의 일들과 이름을 기억하는 건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이다. 「딜쿠샤의 추억」을 따라가다 보면 영화 같은 사연 속 주인공들을 만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때와 마주하게 된다.

딜쿠샤는 특별한 사연을 지닌 '집'이다. 산스크리트어로 '기쁜 마음(혹은 희망)의 궁전'이라는 뜻이다. 미국인 기자였던 앨버트와 영국인 화가였던 메리 부부가 일제강점기에 서울 종로 행촌동에 집을 짓고 딜쿠샤라 이름 붙였다. 1923년 완성되어 100여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본 것들을 떠올리며 독자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는 전개된다. 3.1운동, 태평양전쟁, 8.15해방, 한국전쟁 등 한국근대사 100여 년의 주요한 역사를 딜쿠샤의 회상 속에서 만날 수 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이야기를 손자에게 들려주는 듯 푸근하고 정감어리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리움에 젖는 딜쿠샤의 감정에 어울리는 서술방식이다. 메리가 홀로 다시 찾아온 쓸쓸한 날을 그리는 장면에서는 딜쿠샤에 감정이 이입되어 애잔해지기도 한다. 독립선언서 보존과 관련 있는 브루스의 탄생 이야기는 딜쿠샤의 존재가 더욱 운명적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번질 듯 테두리 없이 색이 겹쳐지는 방식으로 그려진, 채도가 낮은 수채화풍의 그림은 아스라한 회상의 느낌을 더한다. 안개 속을 헤매는 듯, 꿈속을 더듬듯 아련한 느낌이 책에는 한자로 쓰인 독립선언서 전문과 큰 은행나무 아래 유일한 집이었던 당시 딜쿠샤의 사진이 실려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실린 젊은 시절의 앨버트부부와 어린 브루스의 모습, 집 안팎의 풍경을 전하는 흑백사진들은 조금이나마 당시를 짐작해보는데 도움이 된다.

2006년에 〈아버지의 나라〉라는 제목의 다큐영화가 만들어졌다. 당시에 고령의 노인이 되어 미국에서 살고있는 브루스가 부인, 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딜쿠샤를 찾는 과정이 그 내용이다. 다큐감독이기도 한 브루스의 딸은 아버지와 함께 방문한 제암리 전시관을 둘러보며 당시의 잔인했던 식민통치의 장면들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렸던 할아버지, 앨버트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한다. 앨버트 가족이 떠난 뒤 긴 세월동안 딜쿠샤는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도 살아남았다. 2017년에 문화재로 공식 등록된 딜쿠샤는 2018년 11월부터 복원이 시작되어 2020년 한국 독립을 도운 외국인들을 기념하는 전시관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정든 집을 떠나 전쟁 속에서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테일러 가족과 딜쿠샤를 둘러싼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호박목걸이」(메리 테일러, 책과함께, 2014)를 읽어보길 권한다. '딜쿠샤 안주인 메리 테일러의 서울살이, 1917~1948'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서양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일제강점기 상황을 전한다.

지어진 지 100여 년이 지나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 중인 딜쿠샤. 외딴 곳에 지어진 유일한 집이었던 때와 달리 복잡한 시내 한복판으로 변한 곳에서 앞으로 딜쿠샤가 마주할 새로운 한국의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 독립운동가의 자손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최근 발간되는 책들을 보면 무명씨로 남아있는 독립운동가를 알리려는 시도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딜쿠샤가 기억하게 될 새로운 100년은 왜곡되고 감춰진 역사가 바르게 복원되는 시간이길 바란다.*

*출처: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82721.html

땅 위 땅 속

추쩡쭝 글, 그림. - 현암주니어. 2018.
46p. ; 30cm
반달어린이도서관 U495추83ㄸ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장수풍뎅이의 한살이가 궁금할 때,
곤충에 관심 있는 사람



세상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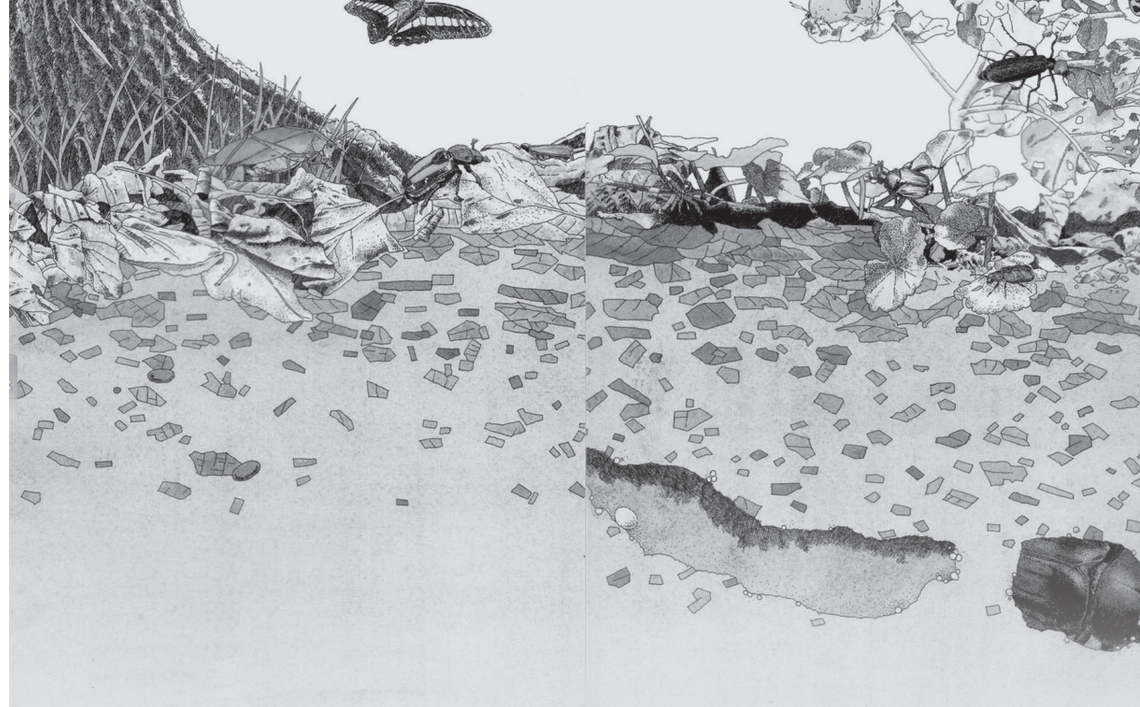
이연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장수풍뎅이의 한살이를 통해 보는 땅 위, 땅 속 곤충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표지 그림에서 "아이의 발이 곧 내려앉을 땅에는 호리병벌과 쌍살벌이 열심히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어요. 또 그 아래 땅속에는 장수풍뎅이 번데기와 여러 곤충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6월이 되면 장수풍뎅이는 알을 낳기 위해 땅속으로 들어가요. 장수풍뎅이는 우윳빛 알 몇 개를 낳고 조용히 눈을 감아요.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흙 속의 풍부한 영양분을 먹으면서 선선한 가을과 차가운 겨울을 보낸답니다. 살이 통통 오른 애벌레는 파릇한 새싹이 나오는 봄에 눈을 떠 어느새 번데기로 변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낳으려고 땅속으로 들어간 6월을 지나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여름날 밤, 낙엽 더미를 밀어내고 불쑥 나온 장수풍뎅이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땅 속과 땅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의 태어남과 성장과 죽음이 세밀화치고는 다소 굵직굵직한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저마다의 생존주기를 가지고 자연의 변화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생명의 신비가 느껴집니다. 알을 깨고 나온 애벌레들 앞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에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장수풍뎅이



애벌레의 애처로운 삶이 묻어납니다. 그래도 마침내 모든 것을 견디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에 장엄함을 느끼게 됩니다.

작가 추청쭝은 대만인으로 대만 고유의 특색을 살린 어린이 그림책을 창작해왔습니다. 대만에서 '아동청소년 과학분야 베스트 도서상'을 받았고, 2006년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그림책 원화전 비문학 부분에 입상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7년 독일 화이트 레이븐 목록(독일 뮌헨 국제청소년도서관에서 전 세계 창작물 중 예술성과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고 발표.)에 선정되었습니다.

사계절을 나타내는 색감으로는 다소 어둡고, 전반적으로 가을 겨울의 분위기인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책 뒤쪽의 땅 위 사계절 주기표를 보고 나서 페이지마다 얼마나 많은 곤충이 있었는지를 깨닫고는 놀라게 됩니다. 모든 곤충들을 알려주는 부록을 보며 다양한 곤충을 익혀보는 것은 숨은 그림을 찾듯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장 최순우 :
문화의 자존심을 알리다!

오현미 글, 노준구 그림. - 사계절, 2018.
127p. : 삽화 ; 27cm.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아998.6 오94ㅂ)
초등고학년



그럼에도… 아직까지 낯선 그 이름

이연수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그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을 가고, 그 나라의 현재를 알려면 시장을 가고, 그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을 가라"는 말이 있다. 지나간 과거를 미래의 후손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박물관에 가보는 것이다.

박물관의 유물들이 유물로 가치를 인정받기 전 박물관이 아닌 곳에 널부러져 있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치를 알 수 있을까? 박물관에서 유물이라고, 보물이라고 하는 것 중 몇몇은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는 돌, 조각, 그림들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런데 평범함이 아닌 비범하고 특별한 유물이 되기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는지를 이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으니 나의 무지함에 놀라울 따름이다.

이 책은 한국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쓴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의 저자 최순우에 대한 이야기이다,

유물과 박물관에 대해 전혀 몰랐던 평범한 고등학생 최순우(본명 최희순)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되기까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의 노력과 일생에 관한 이야기로 박물관과 최순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다.

최순우. 나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그분에 대해 몰랐다. 읽는 내내 한국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나름 조금 안다고 자부했었기에 그분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웠으며, 또 한편으로 내가 몰랐던 것은 최순우에 대해 알려진 자료가 그만큼 적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알량한 책임 회피성 생각도 들었다.

개성고보를 다니던 최희순(최순우의 본명)이 우연히 들른 개성 부립 박물관에서 그의 일생을 바꿔놓은 고유섭 관장을 만나게 된다.

최희순은 고유섭 관장이 일제 통치하에서 한국의 유물을 비웃듯이 보는 일본인에게 한국의 깨진 사금리 유물의 의미가 주는 한국 역사의 유구함을 설명하는 모습에서 감명을 받게 되고, 고유섭 관장 또한 자신의 설명을 경청하는 그의 인상적인 모습에 그를 개풍군청 고적계에 추천, 최희순이 유물과 사적지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기회를 준다. 고유섭 관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최순우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세계적인 고려청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간첩으로 오인받을 정도로 지역 답사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작은 항아리 조각을 모으고 발굴하면서 가치를 알리는 내용, 일제통치하 6.25전쟁 중에도 박물관의 유물을 지키기 위해 피난을 늦추고 밤새 목숨 걸고 포장하는 일, 유물을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해 전시 준비하는 내용 등은 한편의 대하드라마를 보는 듯 흥미진진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로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그런 그의 경력이 다른 전문직들과 비교하여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묵묵히 자기 분야에 대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유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책의 저자 오현미는 미술 전공자답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어려운 용어는 아이들이 읽기에 쉽게 풀이하였고, 책 중간중간 이해를 돕는 유물 사진 등도 수록하여 유익함을 준다. 이 책은 쉽게 쉽게 읽히지는 않는다. 줄거리는 드라마틱하여 쉽게 읽힐듯 하지만 구절구절 그의 유물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어 한참을 쉬고 읽게 된다. 더불어 관련한 유물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게 되니, 일반 동화나 소설을 읽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책을 읽고 난 후 서울에 있는 시민문화유산 1호로 지정된 최순우 옛집도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다면 더욱 감동과 유익함이 더해질 것이다. 책을 읽는 대상층으로는 고학년이나 청소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비교할수록 쉬워지는 단위

클라이브 기퍼드 글, 폴 보스턴 그림, 강채민 옮김.
- 부즈펌어린이, 2018.
96p. : 삽화 ; 25cm.
안성시 중앙도서관 (아410 기894)
초등 중학년이상

단위, 수학, 과학



쉽게 배우는 단위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측정하는 행동을 한다. 누가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다. 물건이 무겁다거나 생각보다 가볍다. 속도가 빠르다 또는 느리다. 이 외 깊다, 얕다, 높다, 낮다, 길다, 짧다, 넓다, 좁다 등이 있다. 이렇게 측정하는 도구로 단위를 사용한다. 단위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재더라도 똑같은 값이 나오도록 하는 '공통의 기준'으로 같이 사용하는 약속이다.

측정하는 단위로 길이는 미터(m), 넓이는 제곱미터(㎡), 부피는 세제곱미터(㎥), 들이는 리터(L), 무게는 그램(g)이 많이 사용된다. 이 책은 비교를 통해 우리가 편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위를 쉽게 설명한 책이다. 책 속에는 세계 인구수, 키가 가장 큰 것, 탈것의 속력, 생명의 수명 등 40개의 주제가 삽화와 함께 설명되어 있다. 차례에서는 비교할 단위에 대한 소제목이 나오고 작은 글씨로 설명이 짧게 나온다. 예를 들면 '물의 양 비교- 지구와 우리 몸 속에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의 역사 비교- 약45억 5천만 년의 지구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와 같다.

이 외에 식물의 크기 비교와 같이 아주 작은 씨앗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비교하거나 생물의 수명 비교와 같은 수명이 짧은 생물과 긴 생물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역사가 45억년이라면 아주 오래되어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 없는데, 1년으로 압축하여 보여주면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잘 제시한다. 태양계의 행성 크기를 목성은 수박, 토성은 큰 자몽, 천왕성은 오렌지, 화성은 블루베리 크기로 우리가 먹는 과일 크기와 비교하여 행성 크기마다 어떤 크기인지 쉽게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 책의 마지막에는 '비교하는 어린이를 위한 추천 웹사이트' 소개와 '단위, 알기 쉽게 비교하기!'의 추가 정보가 제시되어 단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 책은 단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으로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동식물과 사물들의 길이와 넓이, 부피, 무게 등의 단위를 서로 비교하며 흥미롭게 다시 한번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내용 설명을 위하여 다양한 크기의 삽화로 정보를 제공하며 삽화 옆에 짧은 설명에는 꼭 단위를 사용하였다. 단위 설명을 위하여 부차적으로 인체, 우주, 동물, 식물, 기계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책으로 초등 중학년이상 학생은 물론 성인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책이다.

세상에 도전한 위대한 여성들

브래드 쇼, 조지아 암슨 글. - 시공사. 2018.
192p. : 천연색삽화 ; 26 cm
안성시 중앙도서관(아990.94브293)
초등학생이상



편견에 대항하다.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최근 여성 인권과 관련된 굵직한 이슈들이 우리 사회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전과 다르게 여성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여성이 차별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어 왔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이 같은 관행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일쑤였다.

물론 아직도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여성의 권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가능하게 만든 건 과연 누굴까? 바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 덕분이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여성들을 꿈 꿀 수 있게 만들어준 위대한 여성들에 관한 책이다. 「세상에 도전한 위대한 여성들」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성공한 여성들을 각각 과학, 예술, 스포츠, 사회 운동 분야로 나누어서 수록해두었다.

각각의 여성들의 업적과 그들의 생각, 일생을 적어둔 글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또, 사이사이에 수록되어 있는 글귀들은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

예컨대 편견에 관한 유명하고 짧은 이야기인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을 보고 놀란 외과 의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서너 편정도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 짧고 강렬한 이야기들은 읽으면서 내 안의 편견을 부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각각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여성들을 수록해둔 페이지 다음, '그 다음 주자가 여러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어쩌면 또 다른 업적을 이뤄낼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책을 읽으며 나도 제 2의 헬렌 켈러가, 코코 샤넬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게 된다. 그리고 이 희망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뿌듯한 일 아닌가! 그리고 단순한 희망을 심어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적어두었다. 아이들은 이 부분을 보며 자신의 꿈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세심한 부분은 주 독자층인 어린이를 고려하여 줄글을 많이 넣기보다는 글과 그림을 2대 1정도로 넣어, 보는 내내 눈이 지루할 틈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림 자체도 톡톡 튀어서 그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들도 잘 소개해두었다. 게다가 독자들이 잘 모를 지식 부분을 잘 설명해두어 스포츠나 과학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어린이들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배려로 아이들이 전혀 관심 없었던 분야에도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폭넓게 추천하고 싶다. 저학년 어린이들은 저학년 나름대로, 또 고학년 어린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책에 대한 감상이 다를 것이다. 그들 중 누군가에게는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도,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들리는 지금,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여성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또 여성이라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의 인재로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애틀 추장 연설문

정명림 지음. - 현북스. 2018.
초등 고학년

박애, 인권, 자연, 생명, 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어린이



신대륙의 발견과 정복의 차이?

이은주
(남양주시 사서)

1942년 크리스토퍼 콜롬버스는 북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그가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때 그 대륙의 원주민(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정복한 정복자의 첫 발걸음으로 기억할 것이다.

콜롬버스가 신대륙으로 찾은 그 땅에 유럽인들이 황금찾기나 정착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밀물처럼 들어왔다. 그들의 땅에서 폭력과 질병과 탐욕을 들여올 때, 인디언들은 자연에 대한 숭고함과 인간존중의 깊은 철학으로 그들을 맞이한다.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었을까?

그들은 원주민들의 삶을 존중하고 공존하기를 정중히 청하는 척 하지만 결국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시키고 만다. 유럽인들의 욕심은 괴력을 발휘하여 원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도륙하고도 모자라, 그들을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곳에서 강제이주를 시킨다.

유럽인들은 오직 황금을 찾기 위해, 황금보다 귀한 원주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다. 공존은커녕 원주민의 삶을 약탈하고 속임수 가득 찬 거래를 원한다. 유럽인들을 대항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일어나도 날마다 가족과 부족의 목숨을 잃어야만했던 원주민들에게 미국의 4대 대통령 피어스는 땅을 팔 것을 제안한다. 마치 공정한 거래라도 시작한 것처럼 말이다.

이 책은 그런 유럽의 대표추장 미국 대통령에게 약 160여년전 수쿠아미쉬부족의 시애틀추장은 준엄하지만 체념의 연설을 시작한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당신이 한 제안을 깊이 생각해 보고 결정이 나면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나는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 조상과 친구의 무덤을 찾아갈 권리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62쪽)"

"우리 부족에게 공정하고 친절히 대하십시오.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힘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68쪽)"

얼핏 시애틀 추장의 체념 같은 연설이지만 조상들의 땅을 언제든 왕래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자신들에게 끝까지 공정하고 친절할 것과, 그들의 조상은 죽어도 힘 있는 종족이라는 힘찬 연설을 한다. 지금 유럽인들이 정복한 이 땅은 인디언들의 영혼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들과 형제로 남게 된다는 공존과 존중의 소망을 확신하면서 연설을 마친다.

이것은 힘으로만 땅을 차지하는 것이 큰 종족이 아니라,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제발 깨닫기 바라는 시애틀추장의 간절함과 자연도 사람도 함께 어우러져 살지 않으면 자연도 사람을 등질 것이라는 추장의 믿음이자 가르침이다.

이 호소는 인디언 원주민들의 아프고 아픈 역사를 보는 지금도 전 인류에게 깊이 울려 퍼지고 있다. 몰락한 종족의 체념 어리고 무력한 연설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깊은 의미는 지금도 미래도 인간으로서 삶을 이어가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온 인류의 마음을 뒤흔드는 가르침이자 호소이다.

이 책은 '천천히 읽는 책'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있다.

아이들이 읽는 동안 사람존중에 대해, 자연사랑에 대해, 자연공유에 대해, 정복자와 피정복자에 대해, 힘없는 나라에 대해, 생명경시에 대해, 물질문명 비판에 대해, 자연파괴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땅에 대해, 난국의 지도자에 대해, 연설문의 씁쓸한 여운에 대해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서 천천히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의 연설문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반대쪽에 풀어놓은 것이 친절하다.

「시애틀 추장」(수잔 제퍼슨 저, 한마당. 2013)그림책과 함께 보고 읽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김지현 글, 한유민 그림, - 그레이트 북스. 2008.
30p. ; 27.5cm.
성남시 중앙도서관 (아 408 ㅅ194하2 v.18)
6세~3학년

자기 몸을 소중히 해야 할 때



성이 뭐예요?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 때는 4월 중후반 경이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우연히 시정홍보지의 한 꼭지를 보다가 '장애의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를 봤다.

거기서 추천한 책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이다.

이 책은 제2회 한국출판문화대상의 기획·편집 부문에서 수상한 책으로 생활 속 인체와 탄생을 다룬 책이다.

과학적 상식과 그림을 통해 어린이 혹은 장애인에게 성교육을 시키기에 안성맞춤인 책이라 본다. 용어도 애매모호한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남자 아기씨는 정자, 여자 아기씨는 난자'라고 과학적이고 통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고환에서는 정자뿐 아니라 남성 호르몬도 만든다고 한다. - 나도 여태껏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줄 몰랐다. 아니 생각도 해보려고 하지 못했다. 인간에 대해 이해는 듣고 배우고 계속 깨우쳐 가야 하는 것 같다.

다시 돌아와서 여자는 난소에서 난자뿐 아니라 여성 호르몬도 만든다. 또한 수정은 무엇인지 수정이 되면 세포분열은 어떻게 하는지, 크기는 얼마만 한 지, 수정과 착상은 몇일 만에 되는지, 아기집은 얼마나 클건지를 쉽고 자세하게 알 수 있으며,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와 양서류, 조류, 파충류, 곤충류에 이르기까지 생식과 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성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지식과 배움의 일부분이겠지만 그것을 통해 나와 인간 그리고 지구상에 사는 생물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나의 몸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원치 않게 누군가 내 몸을 훔치려 한다면 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서울대 생물교육과 교수 김희백, 경상대 물리교육과 교수 손정우, 한양대 화학과 교수 최정훈 님도 추천을 해주셨다.

유아나 초등시기에도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의문을 갖게 될 때 과학교육의 기본서로 삼을 수 있으며 장애인들도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생식과 호르몬의 이해를 도와 일차적으로 자신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며, 약자(어린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까지 제대로 작동해야 건강한 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안녕, 나의 등대

소피 블랙올 글·그림, 정회성 옮김. - 비룡소. 2019.
50p. : 삽화 ; 31cm.
수원시 광교푸른숲도서관 (유808.91 비 295ㅇ)
초등 이상

바다와 등대를 좋아하는 누구나
사라져버린 직업에 대해 궁금한 아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양유진
(수원시 광교푸른숲도서관 사서)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등대처럼 세로로 긴 판형의 그림책. 등대와 등대 위에 서 있는 등대지기를 주변으로 찬란한 빛이 퍼지고 있는 책날개 앞면. 등대 안을 홀로 구석구석 다니며 일을 하는 등대지기의 일상이 그려져 있는 책날개 뒷면에 사로잡히는 그림책, 「안녕, 나의 등대」. 이 책은 등대와 등대지기의 삶을 함께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책이다.

바다 멀리 불빛을 밝게 비추어 배들이 길을 잃지 않게 안내해주는 등대에 어느 날 새 등대지기가 온다. 그는 등대의 렌즈를 닦고, 연료통의 석유를 가득 채우고, 불탄 심지 끝을 다듬고 램프를 돌리는 태엽을 감아놓는 일을 하며 업무일지에 자신이 한 일을 세세히 기록한다. 일을 마친 후에는 바느질, 낚시 등을 하며, 종종 아내에게 편지를 쓰며, 그 안에서 홀로 지낸다.

커다란 배가 석유와 먹을 것, 그리워하는 아내를 데리고 왔다. 아내는 그를 도우며 함께 지낸다. 조난 당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등대지기가 아플 때는 홀로 그 일을 대신하기도 한다. 등대지기는 자신의 아이의 탄생도 함께 기록하며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해안경비대장의 도장이 찍힌 편지를 받게 된다. 석유로 불을 밝히는 램프가 아닌 전구로 빛을 내는 새 기계를 다는 날, 등대지기는 자신의 업무일지를 마무리하며, 가족과 함께 그곳을 떠나게 된다.

바람이 부는 날, 거센 파도가 부는 날, 꽁꽁 얼어붙은 날에도 빨간 문과 지붕을 가진 하얗고 높은 등대는 언제나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저자는 그 등대의 빛을 비추기 위해 살고 있는 등대지기의 삶을 둥근 테두리 안에 그려 넣었는데, 마치 망원경 속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이처럼 등대의 안과 밖을 두루 보여주는 저자의 마음을 담은 이 책의 백미는 자신의 일을 마지막까지 기록했던 업무일지를 가슴 속에 품고 서 있는, 아련한 눈빛으로 독자를 바라보는 등대지기를 그린 그림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진 그는 등대를 떠난 이후에도 가족과 함께 등대를 바라보며 추억한다.

「루비의 소원」, 「위니를 찾아서」, 「산딸기 크림봉봉」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소피 블랙올은 이 책으로 2019년 〈칼데콧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림책을 읽는 독자를 위해 책 뒷면지에 이 책을 만든 배경, 과정, 기법 등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등대의 안과 밖을 그린 그림을 보며, 홀로 등대에 사는 느낌을 상상해보았다고 한다. 그 이후 등대 관련 사진과 책을 모아 공부하고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저자의 애정과 노력이 듬뿍 담긴 이 책을 읽어보자. 이 책을 읽고 등대를 다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때 등대를 지키고 빛을 존재하게 했던 등대지기의 삶도 함께 추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붕이 들려주는 건축 이야기

남궁당 글, 심승희 그림. - ㈜현암사. 2018.
119p. : 삽화 ; 26cm.
시흥시 중앙도서관(유540 남16ㅈ)
초등 저학년 이상

건축물에 대한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에게 추천함
건축물에 세계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음



지붕을 보면 건축물 특징이 보여요!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

현대인들이 주거하는 집은 대다수가 아파트일 것이다. 점점 고층 아파트화 된 주거지, 집에 주거할 때 편리함과 안전성을 추구하다 보니 아파트가 살기 편한 구조로서 최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인류는 기후, 위치, 종교, 환경과 같은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가옥을 잘 지어왔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이 '기후와 환경을 이겨 낸 전통 가옥', 두 번째 장이 '힘을 뽐낸 세계의 문화재'이다. 마지막 세 번째 장은 과학으로 이룬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들의 지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공존해왔는지 설명한다. 흔히 집이나 사원, 교회, 성당 같은 건물들이 어떤 양식이냐를 구분 짓는 것은 결국 지붕이 어느 양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른 것이다.

첫 장, 기후와 환경을 이겨 낸 전통 가옥에서는 눈으로 만든 이글루, 터키 카파도키아 동굴집, 몽골의 게르 등을 비롯한 세계의 전통 가옥들을 소개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북돋기 시작한다. 글 내용과 함께 선명한 컬러 사진도 충분히 수록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놓았다. 전통 가옥의 내부 및 전경 사진을 적절하게 배치해, 글과 사진을 보면 마치 그곳에 방문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두 번째 장, 힘을 뽐낸 세계의 문화재는 비잔틴 건축의 걸작 터키의 소피아 성당, 왕관 모양의 거대한 지붕을 얹어 궁전처럼 화려한 인도의 무덤 타지마할, 높이와 건축 양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첨탑과 십자가형 지붕을 얹어 신의 위엄을 뽐낸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 독특한 건축 기법으로 다섯 개의 솔방울 모양 돌탑 지붕을 얹은 불교 국가의 힌두교 종교 건축물인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 등 기념비적인 세계문화유산들을 수록했다.

세 번째 장, 과학으로 이룬 건축물은 지름 42미터의 거대한 팔각 돔을 지지대 하나 없이 올린 이탈리아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벽돌 돔과 장식용 나무 돔 사이에 만든 사람만 아는 비밀 돔을 끼워 넣어 단순하면서도 웅장한 영국의 세인트 폴 대성당, 현대 과학자들도 깜짝 놀랄 만큼 신비한 과학 원리에 기대어 완성된 석굴암, 태양열이나 지열로 에너지를 만들어 이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제로 하우스 등 과학 기술이 만들어 낸 똑똑한 건축물 등이 수록되어 있다.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길지 않고 사진 자료가 많아,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이 읽기를 추천한다. 옛 조상들이 위대한 건축물을 많이 남겨 현대에 이르러서도 연구대상이 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되었다는 점을 아이와 함께 대화하면 좋은 이야기 주제가 될 것이다.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찾은 책

청소년을 위한 책
일반 성인을 위한 책



청소년을 위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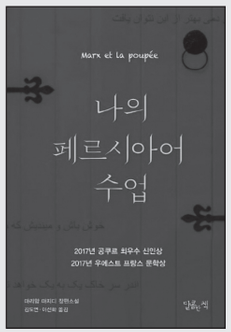


나의 페르시아어 수업	마리암 마지디	달콤한 책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누가 뭐래도 해피엔딩	크리스틴 해밀	리듬문고	**신선원**	수원시희망샘도서관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야쿠마루 가쿠	북플라자	**이연순**	반달어린이도서관
땅에서 날다	조현주	창비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바보 똥개 뽀삐	박정윤	언드리	**이병희**	안성시중앙도서관
사랑의 생애	이승우	예담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아몬드	손원평	창비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아홉 살 인생	위기철	청년사	**조연수**	김포시장기도서관
안녕, 베타	최영희 외	사계절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옥수수빵소니	박상기	창비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우리들의 비밀놀이 연구소	조유나	사계절	**신선원**	수원시희망샘도서관
유진과 유진	이금이	푸른책들	**이선희**	성남시구미도서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	김혜진 외	서유재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청소년 토지 (전12권 세트)	박경리	자음과모음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
체리새우 :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문학동네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
최초의 책	이민항	자음과모음	**엄정란**	시흥중앙도서관
팀 탈러, 팔아버린 웃음	제임스 크뤼스	도서출판 논산	**전진희**	안산시부곡도서관
페인트	이희영	창비	**안미아**	성남시도서관지원과
편의점 가는 기분	박영란	창비	**이병희**	안성시중앙도서관
호랑이의 눈	주디 블룸	창비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오오타 야스스케	책공장더불어	**김보라**	화성시립도서관

나의 페르시아어 수업

마리암 마지디 지음. - 달콤한 책. 2018.
244p. ; 19cm
863-ㅁ264ㄴ (성남시 구미도서관)
청소년 이상

이란에 관심이 많은 사람
여성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



모국어의 힘으로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나의 페르시아어 수업」은 2017년 콩쿠르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한 마리암 마지디의 첫 소설이다. 이란에서 태어난 그녀는 1986년 가족과 함께 조국을 떠나 프랑스로 망명했다. 성장 후 그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와 프랑스 문학을 가르치며 교사로 활동하다 그녀의 자전적 소설을 발표한 것이다.

이 책은 이란혁명운동을 하던 마리암의 부모가 프랑스로 망명해서, 마리암이 이방인으로 자라 프랑스인으로 살아가는 내용의 자전적 에세이 소설이다. 어머니의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이란혁명 초기의 혼돈을 겪은 마리암 마지디는 여섯 살 때 부모님과 함께 프랑스로 망명한다. 어린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했던 소녀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성장한다. 그 두려움에 그녀는 조국의 언어 배우기를 고집하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모국어를 잊은 채 성장한다.

책은 탄생이라는 제목의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탄생은 그녀가 이란에서 태어나고 겪었던 이야기, 이란혁명으로 쓰러져 간 그녀 부모님의 가족·친구들 이야기가 그려진다. 두 번째 '탄생'은 프랑스에서 이방인으로 새롭게 적응해 가면서 겪는 이야기, 세 번째 탄생은 그녀가 성장해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장마다 이란의 시와 전설들이 그녀의 성장기와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

"잘 들어라, 딸아. 언어를 배우려면 많은 수고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단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려는 언어는, 네가 언젠가 잊어버리면 영영 사라지게 돼. 그러니 절대 잊지 마라. 너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면 입에서 입으로, 머리와 가슴으로 전해져서 계속 지켜질게다."(206p)

소녀는 위와 같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어 배우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녀는 글을 읽지 못하고 부모님과 대화만 가능한 반쪽짜리 이란 사람이 되었다. 성인이 된 후에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고 속죄의 마음을 담아 페르시아어를 공부하고, 자신이 뿌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이 책은 이란 이민자의 성장 이야기와 함께 그 안에서 조국의 의미, 가족의 의미, 모국어의 의미가 담겨있는 책이다.

누가 뭐래도 해피엔딩

크리스틴 해밀 지음, 윤영 옮김. - 리듬문고. 2019.
244p .; 21 cm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843 해38ㄴ)
청소년이상

매사에 진지한 게 고민인 사람들



세상을 여유롭게 만드는 유머

신선원
(수원시희망샘도서관 사서)

「누가 뭐래도 해피엔딩」의 주인공 필립 라이트는 코미디언이 꿈인 열두 살 소년이다. 롤 모델인 인기 코미디언 해리 힐 씨의 DVD시청이 필립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동안 필립의 농담에 항상 웃어주던 엄마가 농담을 듣고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리둥절해하면서 유머감각의 위기를 느낀 필립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우상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주인공 필립이 해리 힐 씨에게 보낸 편지는 모두 14통이다.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삽입된 편지는 주인공의 속마음을 자세히 보여준다. 조언을 구한다면서 정중하게 시작된 편지는 답장이 없자 힐 씨가 바쁠 것을 예상하면서 이해한다는 두 번째 편지로 이어진다. 세 번째 편지에서는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나 걱정을 하고 다섯 번째 편지에서 급기야 불평을 한다. 이후에는 답장 받기를 포기했는지 고민 상담만 이어가다가 엄마의 병이 심각해지자 다급해진 필립은 결국 폭발한다. 답장 한번 써주면 죽기라고 하냐며 참을만큼 참았고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다. 필립의 고민은 더없이 절실하고 심각한 한편 답장을 기대하는 필립의 감정변화는 웃음을 자아낸다.

소설의 전반에 흐르는 정서는 유머이다. 어렵게 비밀을 말하는 엄마와 수지 아줌마도, 엄마의 병을 처음 알게 된 필립도 대화 속에 농담을 빠뜨리지 않는다. 화학치료를 받으면 몸의 털이 다 빠진단 얘기를 듣고 달걀처럼 맨진맨질해지는거냐는 필립의 물음에 엄마의 답은 '에그잭틀리'. '물론이지'라는 말이다. 엄마가 수술을 하고 있는 동안 걱정 때문에 손톱을 뜯는 수지 아줌마를 위로하는 것도 필립의 농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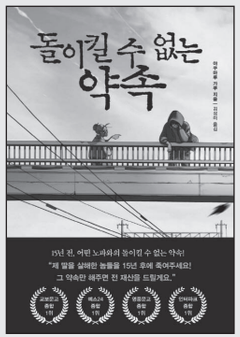
단짝 친구 앙과 나누는 대화에도 농담은 빠지지 않는다. 엄마가 빵을 굽고 눈물을 흘리는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서 시작한 대화는 머핀, 브라우니, 팬케이크 등 알고 있는 모든 케이크와 빵 이름을 대면서 포복절도로 끝난다. 그리고는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낀다. 엄마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화내는 걸 보고 나온 아침, 우울한 기분으로 납덩이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떼다가도 해리 힐 씨를 떠올리고 그가 할 농담을 상상하면서 힘을 낸다. '웃음이 최고의 약' 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지저분한 무좀에서도 벗어날 수 없을 거라 확신한다. 이 속담이 허튼 말이 아님을 이야기의 끝에서 필립 자신이 경험하게 된다.

명진 스님은 「힘 좀 빼고 삽시다」(다산책방, 2019)에서는 유머를 수행에 비유한다. 유머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즐거움을 준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묘약인 셈이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하는 유머, 필립이 믿었던 유머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여백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른 것들을 허용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유머와 농담이 긴장을 풀어 여유롭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반면 반대로 여유와 유연함 속에서 유머와 농담이 생겨날 수도 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속에서도 여유와 유연함이 필요하다. 매사 너무 진지해서 고민이라면 필립의 유머감각을 한 수 배워볼 만하다. 가벼워 보여도 결코 따라 하기 쉽지 않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야쿠마루 가쿠 저, 김성미 옮김. - 북플라자. 2018.
380p. ; 20 cm
반달어린이도서관 833.6야876ㄷ
청소년 및 성인

약속의 진중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싶은 경우,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



약속의 딜레마

이연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저자 야쿠마루 가쿠는 2005년 「천사의 나이프」로 제51회 에도가와란포상을 수상하였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파 추리소설의 한 축이며, 사회구조적 범죄를 통해 심화되어가는 현대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책은 딸을 죽인 범인들을 죽여주겠다는 약속을 한 주인공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겪는 미스터리 장편소설이다.

다카토 후미야는 15년 전 사카모토 노부코와 한 가지 약속을 한다. 당시 후미야는 양심의 가책 없이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고, 야쿠자에게도 쫓겨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어린 딸을 무참히 잃고 고통 속에 죽어가던 노부코를 우연히 만나 두 명의 살인자를 죽여주기로 한다. 그녀의 생명을 담보로 성형을 하고 새 호적을 만든 후미야는 현재 아내와 딸을 둔 평범하고 행복한 소시민이다. 그런데 말기 암으로 죽었다던 사카모토 노부코가 범죄자들의 출소에 맞춰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며 약속 지킬 것을 종용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딸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후미야는 주어진 시간 안에 살인자들을 죽이고, 자신의 딸과 행복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살인을 사주하는 사람을 찾아 나선다.

스토리가 단순하고 이야기전개의 갈래가 없어 쉽게 읽힌다. 약속 때문에 주인공이 겪는 고통이 안쓰러웠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누군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니 쉽게 후미야를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자신의 행복과 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죽여야 하는 이 딱한 상황은 무엇일까. 이 책에 나열된 파괴된 사람들의 고통이 안타깝다. 다행히 주인공이 살인을 하지 않고 딸과 가정,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는 있었어도 본인이 저질렀던 악행들에 대한 대가는 결국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타인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냉혹한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에 사회에 경종을 울릴만한 소설이다.

아쉬운 것은 이야기 전개가 마지막에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급선회 되면서 싱겁게 마무리 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후미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도 노부코가 딸의 원수를 갚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을 거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빚은 갚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의 서두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할까? 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라고 질문했는데, 우선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며, 죄 지은 자의 행복은 그 당사자의 용서유무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속'의 의미를 어두운 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땅에서, 날다

조현주 글. - 창비. 2017.
201p. ; 21cm
안성시립도서관 청813.7 조94
청소년

어떤 이유로든 가슴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추천



우리 모두에겐 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땅에서, 날다」는 창비 출판사의 79번째 청소년 문학책으로서, 조현주 작가의 첫 소설집이다. 표제작인 '땅에서, 날다'외 6개의 짧은 소설이 담겨있다. 수록된 작품들 모두 상당한 매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역시 '땅에서, 날다'가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9p.)

책장을 열자마자 독자를 맞는 문장. 알 수 없는 긴박감에 밀려 다음 문장으로 눈이 가게 만든다. 그렇게 한 번 떠밀리면 속수무책이다. 한 편이 끝나기까지 손과 눈을 떼지 못하고 끝장을 보게 되고 만다. 주인공 석태는 친구가 불구가 되는 추락 사고에 연루되어 학교를 자퇴를 한 후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검정고시를 준비하지만, 알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 친구의 추락 사고 때문이었을까? 문득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석태는 패러글라이딩에 빠져들게 된다. '지구 방위대 패러글라이딩'이라는 다소 유치한 이름의 모임에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패러글라이딩 수업을 받지만 아버지의 반대와 거듭되는 악천후로 인해 첫 활강은 계속 미뤄진다. 게다가 처음에는 독특하지만 재미있는 사람들로 생각했던 회원들의 괴상한 행동들에도 슬슬 염증이 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석태의 첫 비행은 스스로에게 커다란 해방감을 준다.

사실 이 소설의 제목 '땅에서, 날다'는 꽤 의미심장하다. 우선 문장 그대로 땅에서 날아오른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석태가 현실 속의 답답함을 첫 활강으로 털어냈으니 충분히 개연성 있는 해석이다. 하지만 제목에 찍힌 쉼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쉼표의 존재로 인해 앞선 의미와 다른 '땅에서', 즉 몸 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날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발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날듯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작품을 읽다 보면 석태가 하늘을 간절히 날고 싶은 욕구와 함께 땅, 즉 현실에서 스스로의 모습 그대로를 온전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 곳(지구방위대 패러글라이딩 모임)에선 멀쩡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14p.)

하지만 이미 궤도를 이탈한 내가 정상궤도로 돌아가기 위해, 남들과 비슷하게 살기 위해, 도드라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 과연 이게 맞는 걸까(16p.)

고딩들, 이 중졸이 니들보다 더 멋지게 살아주마!(16p.)

이러한 해석은 히말라야 원정 활강까지 함께 하자며 "너도 같이 가자, 11호"라고 말해주는 회원들의 말에 석태가 위안을 받는 것과 땅에 내려서기 전 진한 인사를 나누겠다며 다시 한 번 하늘로 오르는 모습이 방증한다.

이 소설집은 패러글라이딩, 꿈 해석, 스쿠버 다이빙 등 기존 청소년 문학에선 쉽게 다루지 못했던 독특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소재의 참신성에 기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나 '우연이 만든 음영' 같은 작품은 입시 스트레스, 가출, 왕따, 가족 간 갈등 등 흔한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글재주를 뽐내기도 한다. 또한 모바일로 대화하는 장면을 채팅창의 모습 그대로 본문에 싣는다든지, 청소년의 언어 그대로를 사용하려 노력함으로써 청소년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답답한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 조그만 들창이라도 하나 달아주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바보 똥개 뽀삐

박정윤 글. - 엔트리. 2015.
344p. : 삽도 ; 21cm
안성시립도서관 818 박74바
성인/청소년

동물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
반려동물인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하지만,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미국 플로리다의 강변을 산책하던 여학생이 악어의 습격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악어는 여학생을 입에 물고 물속으로 유유히 사라졌고, 분노한 여학생의 아버지는 사냥꾼을 고용하여 악어를 죽였다. 기사의 사진에는 여학생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배가 갈려진 악어의 시체가 있었다. 끔찍한 사건이었다. 댓글 창을 열어보았다. 여자 아이를 애도하는 댓글과 아버지의 복수에 속 시원하다는 반응의 댓글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사냥을 한 것뿐인 악어가 무슨 죄라고 목숨까지 빼앗았느냐는 댓글을 달았다. '어그로'용 댓글인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의 나에겐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뭐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이 있나 싶었다. 악어의 사냥 본능을 변호하기 위해 딸을 잃은 아비의 고통을 외면하는 건가 싶어서 기가 찼었다.

하지만 지금 저 뉴스를 듣게 된다면 아마도 당시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일반화되었고, 나 역시 그 개념에 어느 정도 수긍하기 때문이다. 동물권은 인권에 대비되어 동물도 그들의 생명권을 지키며 보호받기 위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1970년대 후반 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가 처음 제시하였다. 이후 이를 옹호하는 세력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이제는 상식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왔다.

수의사 박정윤의 에세이 「바보 똥개 뽀삐」는 바로 이 동물권에 대한 쉬운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 이 책은 총 53개의 에피소드로 엮어져있는데, 모든 이야기에 서로 다른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래서인지 각 에피소드의 첫 머리에는 귀여운 동물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표정과 생김새가 제각각이다. 물론 동물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때 TV에 소개되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동물커뮤니케이터 '하이디'와의 일화도 그려져 있고, 수의사이기 앞서 한 사업체의 수장으로서 겪는 애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하고자 하는 주된 이야기는 결국 인간과 동물 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에 관한 것, 즉 어떻게 하면 동물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 이야기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책의 제목이기도 한 첫 번째 에피소드 '바보 똥개 뽀삐'가 아닐까 싶다.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 발바리 뽀삐는 10살이 훌쩍 넘은 개로 모범적인 환경에서 생활하지는 못했다. 가족인 노부부의 말에 따르면 뽀삐는 경우에 따라서는 빠삐라고도 불릴 정도로 명확한 이름조차 없는 그냥 '똥개'다. 개는 모름지기 밖에서 키워야 하는 법이라는 그들의 신념 때문에 춥거나 덥거나 마당의 스티로폼 박스에서만 살던 뽀삐는 심각한 심장병 환자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따라 산책을 따라나서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바람에 병세가 심각해져 변변한 치료 한 번 해보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 저자는 처음에는 노부부를 무책임하고 정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뽀삐의 죽음을 앞에 두고 진심으로 슬퍼하고 울어주는 모습을 보며 생각을 바꾼다.

"비싼 사료를 먹이고, 고급스러운 집에 화려한 목걸이와 옷을 입혀 예쁘게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정작 아이들은 무엇을 먹든 어디에서 자든 개의치 않는다. 누구와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일 테니… 그럴듯한 자기 집 하나 없어도, 얻어 온 갈비 한 조각에 행복해하는 아이와 '평생'을 함께하는 것, 그 마음이 가장 모범적인 사랑인 것이다. "똥개이지만 우리 뽀삐만한 애가 없어요"라고 말해준, 십일 년을 끝까지 함께한 뽀삐의 가족에게 감사드린다. (본문 19~2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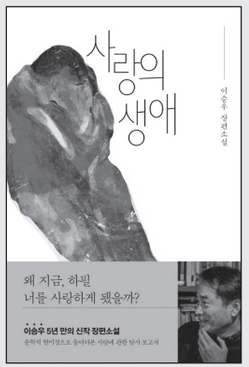
저자는 누구보다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치유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수의사이자 동물구호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같은 태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동물 대하기를 바라는 이상주의자는 아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책을 통해서도 그저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조금은 서툴러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한 소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지난 실수와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독자들의 부담도 많이 줄여준다. 마치 이렇게 위로해 주는 듯하다.

'동물 치료를 업으로 삼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실수하고, 가끔은 엉뚱한 짓으로 동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완벽하려 노력하지 말아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그 마음으로 조금씩 노력한다면 더 바랄게 없겠지요.'

사랑의 생애

이승우 글. - 예담. 2017.
292p. ; 21cm
안성시립도서관 813.7 이57ㅅ
청소년 및 성인

그래도 사랑을 믿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사랑,
알고 싶지만
파악하고
싶지 않은.
사랑.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사랑의 생애(예담, 2017)」는 「생의 이면」으로 유명한 작가 이승우가 펴낸 사랑에 관한 탐구서, 혹은 연애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승우 작가는 1959년 전남 장흥군 관산읍에서 출생하였으며, 서울신학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중퇴하였다고 합니다. 1981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에리직톤의 초상」이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또한 1991년 「세상 밖으로」로 제15회 〈이상문학상〉 우수상을, 1993년 「생의 이면」으로 제1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했고, 2002년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로 제15회 〈동서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심인광고」로 제4회 〈이효석문학상〉을, 2007년 「전기수 이야기」로 〈현대문학상〉을, 2010년 「칼」로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했고 현재는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작가 이승우는 인간에 대한 끈질기고도 집요한 성찰과 이해를 주제로 많은 작품을 써 왔는데요, 이러한 성향은 저의 개인적 추측이지만 아마도 신학 전공자(중퇴하긴 했지만!)로서의 일면이 작품에 녹아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작가의 전작을 모두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주제로 '사랑'을 선택한 것은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은 작가의 전작을 보면 '사랑'에 대한 묘사는 되도록 간략하게 그려낸다는 인상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항상 인간에 대한 집요한 탐구를 작품의 본질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오히려 조금 늦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책의 이야기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주인공 '선희'와 그를 둘러싼 남성 등장인물 '형배', 그리고 '영석'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형배'의 친구인 바람둥이 '준호'의 또 다른 이야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준호를 통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도 울림이 큰 편이지만 가장 큰 줄기는 역시 선희, 형배, 영석의 삼각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이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홀려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내부에서 생을 시작한다."(본문 8p)

'사랑'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결과물로서의 감정이 아닌, 마치 개별적 생명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사랑의 숙주이기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휘둘리는 존재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이야기 속에서 형배는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느낄 수 없던 선희를 우연히 만난 후 난데없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와 반대로 선희는 그렇게 사랑하던 형배를 다시 만났을 때, 과거의 들끓던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그리고 오히려 안도하죠.) 선희의 현재 연인인 영석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평소의 선희라면 가장 싫어할 만한 영석에게 선희는 역시 우연한 기회로 반하게 됩니다. 영석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믿지 못하던 영석은 선희에게 마음을 주면서 불같이 끓어오르는 사랑에 집착의 화신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모든 모습을 작가는 사랑이라는 녀석이 부리는 농간에 인간이 휘둘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프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갑니다. 특히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지 호르몬에 의해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며 가차없이 배격해버리는 작가의 주장에는 통쾌함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사랑'. 저는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을 가장 찌질하고 추악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장본인 역시 사랑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인간이 아름다운 공공선을 이룩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은 오로지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많이 알수록 신비함은 떨어지는 법이라고들 하죠. 신의 섭리에 의존하던 많은 부분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 이해의 범주로 넘어왔습니다. '사랑'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이름이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매우 불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굳이 왜 그런 것을 밝혀낼까? 과학자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반박할 만한 깜냥이나 자신이 없으니 그냥 '지들이 뭘 알아?'는 식으로 뭉개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내가 느껴왔던, 앞으로 느낄 사랑의 설렘이 조미료를 넣으면 음식 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단순한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랑의 생애'는 많은 위로를 줄 것입니다.

아몬드

손원평 저. - 창비, 2017.
성남시 중앙도서관 (813.7-ㅅ478ㅇ=2)
성인 및 청소년

감정의 중요성 가족의 의미를 사유하고 싶을 때



감정을 못 느끼는 아이의 성장소설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아몬드」를 읽기 시작한 지 두 시간만에 다 읽었다. 그만큼 몰입도가 높은 책이었다. 중3인 아들의 추천으로 읽었는데, 역시 청소년 소설로서 추천할 만한 포인트가 많았다. 첫째 주인공의 나이가 중3이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조연들도 그 또래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관심사인 또래 간의 우정, 부모와의 관계 등이 읽기 쉬우면서도 흥미진진하게 묘사된다. 셋째, 소재가 신선하다. 주인공이 알렉시티미아(Alexithymia), 즉 감정을 못 느끼는 병에 걸린다. 이 병은 뇌의 이상이나 유전자 이상 혹은 어릴 때 충격으로 인해 감정을 정의 내리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병이다. 이 병은 책에서 중요한 사건의 모티브가 되며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 포인트이기도 하다. 책의 표지그림이 주인공 윤재의 얼굴인 듯한데 알렉시티미아라는 병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짐작될 것이다. 넷째, 소설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다.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내며 가족 간의 사랑의 중요성을 외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감동을 준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윤재는 아기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 가족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해 가족 외의 사람들도 놀라게 했다. 이를테면 동네에서 어떤 아이가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해 죽을 지경에 이르는 장면을 목격한 윤재가 아이 아빠에게 알려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무 감정 없이 말해서 장난으로 오해한 아이 아빠는 사고현장을 늦게 발견하였고 결국 아이는 죽게 된다. 학교에 입학하여 친구들에게도 비정상인 취급을 당하며 힘들었지만(본인은 그 감정을 못 느꼈겠지만) 어머니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중3이 된다. 그런데 윤재의 생일에 사고가 나서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여 의식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때부터 윤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의외로 내 생각에는 윤재의 병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절망하며 슬픔에 빠져 있을텐데 윤재는 아무 감정 없이 자신의 생활을 덤덤하게 꾸려나가고 어머니가 전에 교육하고 강조하셨던 점들을 기억하며 학교생활도 무리 없이 해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명의 친구를 새로 사귀게 되면서 윤재의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고, 사랑의 감정도 알게 되면서 한편 의식불능이었던 어머니도 깨어나면서 해피엔딩을 맞는다.

책을 읽으며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사람의 감정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했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눈부신 문명을 만든 것은 다 뛰어난 이성의 힘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성과 감정을 둘 다 가진 인간이 냉철한 이성을 지닌 인공지능에 의해 제압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 감정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불쌍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 슬퍼할 줄 알고, 부조리한 현실에 화낼 줄 알고,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함께 기뻐할 줄 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끈 사건들은 대부분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그렇듯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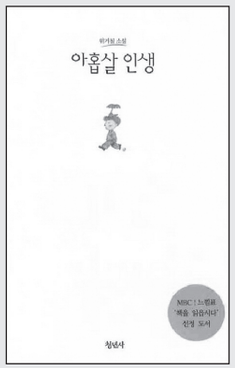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주인공이 가족을 잃기 전과 잃은 후에 힘들 때마다 용기를 준 것은 가족이었다. 비록 후반부에서는 혈연을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치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지인이 있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도 비록 직접적인 도움은 안되었지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비록 어디선가 보았던 익숙한 결말로 마무리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한 만큼,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던 소설이었고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이 읽어도 될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아홉 살 인생

위기철 소설. - 도서출판 청년사. 2001.
김포시 장기도서관 특화813.7-위18아
청소년 이상

아홉 살 인생을 거친 모든 이들에게



유년에게

조연수
(김포시 장기도서관 사서)

여러분의 유년 시절은 어땠나요? 골목길에서 들려오던 친구들의 목소리, 너무나 커보였던 학교 운동장, 짝꿍과 지우개 때문에 싸웠던 날,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며 재잘재잘 이야기하던 우리들의 꿈들. 「아홉 살 인생」은 그 시절 우리들의 유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인공 백여민은 부둣가 깡패 아버지와 가난한 전쟁 과부의 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책은 여민이의 아홉 살 인생을 이야기 합니다. 누나와 단둘이 사는 거짓말쟁이 친구 신기종, 방안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꿈꾸던 골방 철학자, 뒷집에 사는 토굴할매, 갈대마냥 종잡을 수 없는 친구 우림, 술 마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죽이고 싶어한 검은제비, 고물 수레를 끌고 다니는 외팔이 하상사. 친구들과 이웃들의 이야기가 여민이의 아홉 살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요즘 아홉 살 어린이들은 어떤가요? 여민이처럼 숲에서 나무를 타고 노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갑니다. 놀이터에서 소리 지르며 노는 어린이들을 볼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을 시간도 없이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하기에 바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어른들의 욕심이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시간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유년기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유년기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위기철 작가는 1983년 제2회 〈계몽사 아동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홉 살 인생 이외에도 「무기 팔지 마세요!」, 「논리야 놀자」, 「청년 노동자 전태일」 등의 책을 썼습니다.

자신들의 유년에게 인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아홉 살 인생을 지나 온 모든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안녕, 베타

최영희 외 지음. - 사계절. 2015.
183p. ; 23 cm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813.7 안194ㅅ)
청소년

미래세상이 궁금할 때



과학소설로 보는 미래세상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안녕, 베타」는 제1회 〈한낙원과학소설상〉 공모 수상작과 우수 공모작을 엮은 청소년 과학소설집이다. 한낙원은 작가로서 평생동안 과학소설을 써 온, 한국 청소년 과학소설의 개척자이다. 과학소설이라는 것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우주여행, 로봇, 인조인간, 홀로그램, 만능 고글 등을 소재로 미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다.

「안녕, 베타」의 주인공 진아는 자신과 똑닮은 대체인간 베타 진아와 한방을 쓰고 있다. 원인간이 시민등급 테스트 준비 같은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 봉사활동처럼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대체인간의 미션이다. 집안 형편 때문에 중고로 구입한지라 베타 진아는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진아는 베타를 감시할 겸 따라다니다가 갈등하게 된다. 베타가 자신과 닮긴 했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 같아 단순히 기계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기술이 상상을 넘을 정도로 발전한 그곳은 계급차별과 빈부격차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다. 최고 시민등급이 사는 메가시티에서는 대체인간을 둘, 셋씩 소유하는가 하면 최하위 10등급이 사는 빈민촌엔 폐자재가 쌓여 있고 비릿한 악취를 풍기는 허물어져 가는 집들이 즐비하다. 최첨단기술 문명과 신분계급차별이라는 후진성이 공존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전설의 동영상」은 청소년의 충동과 폭력성을 조절하기 위해 미국의 뇌과학자들이 고안한 뇌 조절장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이 장치를 한국의 정유업체가 사들여 홍보에 나서고 급기야는 교육부가 칩이식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게 된다. 검은 돈과 권력이 유착하게 된 결과이다. 이 와중에도 무한동력발전기라는 석유대체에너지원 설비로 비틀린 세상을 원래대로 돌리려 하는 인물이 존재한다. 그는 바로 전파사 주인 회색점퍼. 불량 칩을 이식 받은 덕분에 오히려 제정신인 동혁과 준구는 이 미션에 동참하게 된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일이기에 무모하지만 뭐라도 시도해본다는 동혁의 생각이 사뭇 의미심장하다. '열다섯 살 너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한 문장을 오래 품었다는 작가의 말에서 작품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지구인이 되는 법」은 22세기의 이야기다. 태양계로 다가오는 소행성 무리 때문에 지구는 멸망의 위기에 처한다. 10광년쯤 거리의 행성 뉴글로브를 식민지 삼아 실업자, 모험가들이 대거 이주하게 된다. 소행성이 궤도를 변경한 후에도 뉴글로브 식민회사의 수익을 위한 홍보 탓에 이주는 계속 증가한다. 세월이 흐른 뒤 뉴글로브 식민지인들은 오히려 지구인이 되는 꿈을 가지고 정착해 살던 곳의 재산들을 희생하고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지구로 돌아오려고 애쓴다. 저자처럼 '왜 하필 지구에서 태어났을까'라는 공상을 해본 독자라면 이 이야기에 특별히 흥미를 느낄만하다.

「레트와 진」은 한 소년이 선물로 받은 두 마리의 대형 애완견 이야기이다. 애완견도, 공원잔디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 구별이 어려운 세상이다. 할머니에게서 들은 '진짜배기'라는 단어는 소년에게 낯설다. 진짜 멋지다는 건지, 진짜 대단하다는 건지, 진짜 개라는 건지 많은 생각이 들지만 금세 잊어버린다. 소년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정이 든 두 애완견(로봇 개와 진짜 개)을 잃게 된다. 애완견들이 남긴 흔적을 손에 쥐고서야 그들을 대하던 마음만큼은 진짜였음을 절감한다.

「엄마는 차갑다」의 주인공은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

아가신 후 엄마 복제 로봇을 엄마라 부르고 있다. 친구들한테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 엄마가 로봇이라는 걸 들킬까봐 조마조마 한다. 아빠는 쇳덩어리 로봇을 엄마라 여기고 의지하는 주인공을 걱정한다. 어느 날 폭발사고를 겪고 나서 주인공은 로봇은 단순한 기계일 뿐임을 깨닫는다. 엄마역할을 하는 로봇을 M552라 칭하며 엄마 없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생과사를 가르는 이별의 빈자리를 로봇으로라도 채우고 싶은 심정과 그 한계를 소설은 그리고 있다.

「내 맘대로 고글」, 말 그대로 쓰기만 하면 맘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고글을 소재로 하고 있다. 고글을 귀 뒤에 삽입된 두뇌 인식칩에 연결하면 주변 상황을 맘대로 바꾸고 친구들도 만들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이 바다, 산, 들판으로 변하기도 하고 수업도 원격제어시스템으로 받기 때문에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능인 고글이 고장이 나면서 상황은 심각해진다. 수리센터 방문을 위해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가상세계에 길들여져 살아온 지 9년 만에 진짜 세상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지금부터 진짜」의 주인공 나우는 사고로 죽은 후 유령이 되어 식탁에 앉아 있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복제한 또 다른 나우에게 노심초사하며 관심을 집중하는 걸 보면서. 클론은 클론대로 주입된 나우의 기억을 조금씩 파악해가고 유령 나우의 도움을 받으며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어느새 유령은 사라지고 아빠의 도움으로 두발자전거 배우기에 성공한 클론 나우는 나만의 처음이라고 행복해한다. 이제 시작이라고.

과학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사계절출판사의 한낙원과학소설상 작품집 시리즈를 챙겨볼만하다. 「하늘은 무섭지 않아」(고호관 외, 2016), 「세 개의 시간」(윤여경 외, 2017), 「마지막 히치하이커」(문이소 외, 2018) 등의 작품들이 모두 책으로 나와 있다.

옥수수 뺑소니

박상기 글. - 창비. 2017.
79p. ; 19cm
안성시립도서관 청813.7 소54 4
청소년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지는 청소년들에게 추천



삶 속에서 뺑소니치지 않고 사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독포자'라는 말이 있다. '독서를 포기한 자'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바쁜 시간에 쫓겨 가며 공부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독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빗대, 자조하듯 만들어낸 말인 듯하다. 하지만 단순히 어린 아이들의 치기 어린 소리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독서 통계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평균 10권을 채 넘기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이 (어떠한 이유건 간에)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우려된다. 독서는 연속성을 가진 기호 활동이기 때문이다. 한참 읽지 않으면 다시 책을 손에 잡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창비의 〈소설의 첫 만남〉 시리즈는 상당히 흥미롭다. 동화와 소설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출판사 서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리즈의 작품들은 분량이 적고 내용이 간결하다. 그러면서도 무시 못 할 작품성도 갖춰 독포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박상기 작가의 소설 「옥수수 뺑소니」는 이 시리즈의 4번째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 '나'는 우연히 2번 연속으로 교통사고를 당한다. 첫 번째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제법 큰 상처도 났고 친구에게 빌린 스마트폰도 고장이 나버렸다. 사고가 난 후 대응도 첫 번째 운전자는 미안해했고 주인공의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해줬지만, 두 번째 운전자는 오히려 주인공을 탓하며 급히 자리를 떠버렸다.

하지만 '나'의 거짓말로 인해 첫 번째 사고를 냈던 사람이 오히려 뺑소니범으로 오해를 사게 된다. 이 와중에 '나'는 적당히 본인도 한 몫 챙기려는 못된 생각도 하지만, 진심으로 자기를 걱정해주는 첫 번째 운전자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뺑소니라는게 교통사고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나는 뺑소니치지 않았나. 인생의 운전자인 여러분은 어떤가요?' (작가의 말)

위에 소개된 작가의 말에 이 작품의 주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다. 주인공이 당한 첫 번째 사고의 운전자는 삶은 옥수수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는 중병에 걸린 아들까지 있었다. 돈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었던 것이다. 사고는 크지 않았고 주인공도 다치지 않았다. 게다가 사고 자체도 주인공이 갑자기 길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충분히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운전자는 한 순간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에 입원한 주인공에게 삶은 옥수수를 들고 병문안까지 가서 거듭 사과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운전자에게 덤터기를 씌워 물질적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옥수수 뺑소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운전자인가? 아니면 '나'인가? 물론 '나'가 맞다. 착한 옥수수 장사 아저씨의 선의를 악용하고 이득을 취하려 한 '나'야 말로 뺑소니범이다. 다행히도 '나'는 운전자가 준 옥수수를 먹으며, 자기가 옥수수가 아니라 '운전자의 살점'을 뜯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모든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간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충분히 어른이라고 할만 하다. 적어도 어른스럽다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어떤지, 과연 어른다운 어른인지 반성하게 해준다.

우리들의 비밀 놀이 연구소

조유나 지음. - 사계절. 2016.
188p. ; 22 cm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389 조66ㅇ)
청소년이상

노는 시간이 불안한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놀이에 관한 지식소설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계절에서 출간하는 〈지식소설 시리즈〉가 있다. 심리학, 생태과학, 미술사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론과 지식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한다면 지식소설은 자칫 소설에도 이론서에도 속하지 못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지식소설 시리즈 출간은 독서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십대들을 위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바람직한 시도이다.

「우리들의 비밀 놀이 연구소」는 시리즈의 열한 번째 책이다. '놀이'와 '연구소'라는 단어의 조합이 관심을 끈다. 게다가 '비밀'이라니, 표지에 그려진 이런 저런 놀이를 하고 있는 자유분방한 십대들의 이미지가 더해져 유쾌한 작당모의를 상상하게 한다. 저자 조유나의 이력도 평범하지 않다.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에 밴드 활동을 했었고 다큐멘터리 촬영, 축제와 캠프 기획, 출판 편집, 번역 등 분야를 넘나드는 경험을 거쳐 재미와 놀이의 가치에 매료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지식소설답게 문화 정보들이 풍부하다. 중2인 주인공 명수는 1학년 때 밴드부 활동을 했다. 가을 축제에서 난동으로 끝나버린 공연을 떠올리는 대목에서 후바스탱크라는 록밴드와 그들의 음악을 소개한다. 학창시절 밴드부 출신답게 작가는 소설에서 악기의 종류와 이름들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다. 명수처럼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영화 제작 수업, 영상센터의 카메라 대여 같은 정보들

이 유용할 것이다. 명수가 가입한 영화부에서 감상하는 영화들, 「빌리 엘리어트」를 비롯해 「스윙재즈」, 「파수꾼」 등은 저자의 영화 안목과 취향을 보여준다. 소설의 주요한 테마인 '놀이'에 관해서는 「증여론」, 「호모 루덴스」 등 다수의 책을 소개하고 있다. 폭넓은 주제 독서가 소설 창작의 바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한편, 독자를 놀이 탐구의 세계로 유도한다.

'십대를 위한 놀이 인류학'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명수는 심오한 박사님을 만나 진정한 놀이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놀이가 죄의식을 동반하게 되거나 자본에 잠식당하게 된 배경, 진정한 놀이의 의미와 필요성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보여준다. 명수는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놀이 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 또래인 십대의 놀이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이 놀이에 관해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명수가 작성한 관찰 노트에는 여느 중학교의 쉬는 시간의 장면들이 실감나게 담겨 있다. 작가가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만나 인터뷰한 결과물이다.

명수는 단짝 친구 형수, 연구소 박사님의 딸 설리와 함께 미션 수행에 나선다. 결국 난관들을 헤치고 스스로 탐구하고 시도한 끝에 인생 최고의 명장면을 연출한다. 명수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청소년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명수가 고민을 상담해 온 '뮤직맨'에게 해준 말이다. 명수가 착실하게 학원에 다니며 성적관리에만 충실했더라면 스스로 탐구한 결과로 얻은 인생 최고의 성취감 같은 것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십대의 성취감은 행복한 인생을 꾸려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놀이가 연구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놀고 싶어 하는 십대들에게 명수의 이야기는 유용할 뿐 아니라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유진과 유진

이금이 글. - 푸른책들. 2004.
285p. ; 13cm
813.6ㅍ71ㅍ v.9(성남시 구미도서관)
청소년

어릴적 성에 대해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 부당한 일을 겪었던 사람



봉쇄된 기억, 뒤늦은 사죄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창비출판사를 비롯해 각 출판사 청소년 문학상과 다양한 청소년 문학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청소년들을 대변할만한 문학들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혀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새 학년의 첫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유진이는 같은 반에 동명이인의 또 다른 유진이를 만난다. 흔한 이름의 유진이. 그러나 새 학년에서 만난 유진이는 낯설지가 않다. 유치원 시절 유진이에게 최초로 사랑의 아픔을, 질투라는 감정을 선사하며 홀연히 사라진 눈이 큰 유진이.

하지만 어쩐 일인지 눈이 크고 키가 작은 유진은 이제 그 누구보다 키가 커진 유진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2명의 이유진은 같은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같은 유치원에서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 후 각자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사건을 잊어간다. 큰 유진이는 엄마와 아빠의 보살핌 아래 상처는 있으나 그 상처를 방치하지 않고 치유하고 있고, 작은 유진이는 '깨진 그릇을 어디다 쓰냐'는 말을 아이에게 지껄였던 이기적인 어른들에 의해 상처를 어루만질 새도 없이 봉쇄 당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작은 사건들로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은 자신들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라진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아픈 과거의 기억

을 되찾고 비로소 조금 더 성장하는 유진과 유진이의 이야기이다.

아이들의 성폭력 이야기를 다루는 무거운 주제와는 달리 소설은 그다지 이야기를 어렵게 풀어내지 않는다. 이 책은 기존의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답습하듯이 작은 사건들을 통해 상처를 드러내고, 갈등을 겪고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주홍 글씨처럼 새기는 어른들의 문제야' 하고 소설은 끝을 맺는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진 이 책이 출간된 지 15년이 흐른 지금도 현장에서 청소년 추천도서로 많이 읽히고, 독서토론 도서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는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 어른들의 행동에 따라 두 어린 소녀가 겪는 심리적 고통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어른들에 의해서만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치유의 과정이 함께 하기에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

김혜진 외 지음. - 서유재. 2017.
210p. ; 20 cm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813.7 이52ㅅ)
청소년 이상

십대 소녀를 이해하고 싶은 누구나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십대 소녀



십대 소녀들의 이야기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은 10대 소녀들이 주인공인 7편의 단편소설집이다. 제목 한 번 기발하다. 루이스 캐럴의 고전, 토끼를 따라가 굴속에 떨어져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앨리스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누구나 아는 고전의 제목을 영리하게 이용했다. '들'이라는 의존명사를 붙여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십대들의 세계를 빗대 표현하고 있다. 따돌림, 진로선택, 여행의 다양성, 가족, 만남, 사랑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10대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계 중에서 가장 고립된 특별한 세계일 것이다. 루이스 캐럴의 앨리스에게 이상한 나라는 환상과 모험의 즐거운 세계인 반면 이 소설의 앨리스들에게 이상한 나라는 때로는 힘겨운 극복의 과정이다. 우리 모두가 지나왔지만 잊고 사는 그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앨리스들을 만나보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김재인. 재인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건 지금은 같이 살지 않는 친엄마 때문이다. 재인의 친엄마는 스캔들을 달고 다니는 연예인이다. 한편 집에서는 정이 없는 새엄마와 사는 게 영 불편하다. 이래저래 외롭고 불행한 나날을 보내는 재인에게 지구의 생명을 연장할지 말지의 미션이 주어진다.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재인의 선택을 궁금해 하며 소설을 읽게 된다.

문예 백일장 수상경력으로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예비 고3 소녀. 상한 번 받고 난 후에는 백일장마다 낙방이다. 이 길이 내 길인가 불안하면서도 여전히 도전한다. 칙칙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에게는 생생한 삶에 대해 쓰라는 백일장 심사위원의 충고가 와 닿지 않는다. 어느 날 대리시험에 대해 듣고 영감의 자극을 받는다.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고 그 글이 대상을 받는다면 억울해 죽을 것 같겠지만 그게 진짜 사는 게 아니냐는 말에 이상하게 설득이 된다. 꿈이 있어도 없어도 고민일 청소년기. 성적 올리기보다는 자기와 세상 탐색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작가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공항근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집의 둘째 딸인 열일곱 살 소녀. 중국인 여행객 무리와 함께 왔던 중국 소녀 안찡이 두고 간 의문의 여행 가방을 두고 이야기가 전개된다.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여행자들의 모습, 주인공과 그 가족이 했던 여행경험을 전하고 있다. 자기주도의 여행경험이 그리 많지 않을 십대들은 미래의 여행을 꿈꾸어보고 어른들은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게 될지 모른다.

일숙 씨라 부르는 새 엄마와 사는 열여섯 살 채민이. 아빠는 병이 위중해 입원해있다. 채민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일숙 씨가 철이 없다고 여기고 일숙 씨는 일숙 씨대로 채민에게 서운한 게 많다. 어느 날 채민과 일숙 씨 사이에 묵은 감정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날 채민에게 걸려 있던 저주도 풀린다.

남한에서 주위의 편견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탈북소녀 박진. 이야기에는 다른 두 명의 박진이 등장한다. 진이가 중국에서 위험에 처해있을 때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준 박철이라는 가명을 썼던 박진이 있다. 그리고 남한에서 만난 또 다른 박진은 진이라는 동명에 운명을 느꼈다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따뜻한 친구다. 작가는 기적 같은 만남에 대해 후기에서 쓰고 있다. 만남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지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고가의 브랜드 청바지를 두고 엄마와 갈등하는 민하. 패션에 관심이 많아 의상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어한다. 평소에 눈여겨 봐 두었던 청바지를 생일선물로 받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사 줄 생각이 없다. 장문의 편지로 민하를 설득하려는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민하에게는 숨이 막힐 뿐이다. 다른 비슷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딱 그 청바지라야 연출해 낼 수 있는 느낌을 엄마는 이해하지 못한다. 작가는 철저하게 민하의 입장에서 썼다. 교훈이나 계도의 관점으로 쓰지 않고 십대 주인공의 생각에 공감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청소년 소설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엄마 차에 실려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정태와 민소. 어느 날 길에서 벌어진 두 엄마들의 언쟁 후 민소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둘은 이 일로 불편한 사이가 된다. 우연히 민소는 엄마가 살아 있는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민소의 삶을 체험하고 돌아온다. 엄마의 죽음이 정태의 탓도 자신의 탓도 아님을 깨닫고 민소는 정태와는 물론 자신과도 화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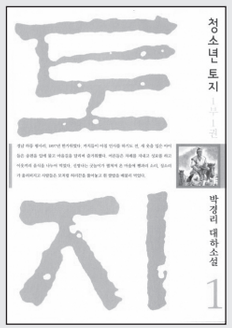
십대와 소통의 어려움으로 갈등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소설 속 앨리스들의 이야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어른보다 사려 깊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평소에 표현하지 않아 모르던 속마음을 짐작해볼 수도 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십대독자에게는 소설 속 앨리스들의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건 큰 힘이 된다.

20~30쪽의 단편모음집이라 독서를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인공과 상황설정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설이지만 참신하고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어 어른들도 몰입해서 읽을 수 있다.

청소년 토지 (전12권 세트)

박경리 글. - 자음과모음. 2015.
성남시 중앙도서관 (813.6-ㅂ172토-1)
청소년~성인

일제 강점기에 힘겹게 살면서 자주독립을 염원하던 옛 선조들의 이야기



청소년용 토지도 읽을 만해요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 사서)

박경리의 「토지」는 1964년에 집필이 시작되어 1994년에 완간되었으며 장장 25년에 걸쳐서 토지 1~5부까지 완결했다고 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어 20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출간된 셈이다. 이후 다양한 판본이 나오다가 현재는 대하소설 20권, 만화판 17권, 청소년판 12권, 동화판 37권 등이 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토지」를 읽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가 유시민 작가와 김진애 박사가 강력 추천한 것을 계기로 결국 읽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읽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그런데 살짝 부끄럽게도 오리지널 판본을 읽지 않고 청소년용으로 축약된 것을 읽게 되었다. 원판본은 전체 21권이며 5부로 나뉘어져 있고, 등장인물만 600여 명에 이른다. 반면 청소년용 토지는 전체 12권이며 등장인물도 많이 생략되어 있고 글씨 크기도 조금 큰 편이며 삽화도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듯 책의 물리적인 면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청소년용 토지도 충분히 감동적이다. 물론 원판본을 읽고 받는 감동과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청소년용 토지 자체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소설 「토지」의 1부 1권은 1897년 구한말 경상도 하동 평사리의 최참판댁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양반가문인 최참판과 최서희, 할머니 등 양반들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가 했더니 이야기의 중심은 곧 평사리의 평민들과 최참판댁에서 일하는 하녀 및 머슴들로 옮겨진다. 또한 최참판댁의 소작인, 무당, 무당의 딸, 또 다른 양반(최참판의 친척)들도 나온다. 그 외에도 독립운동가, 동학농민운동가들, 친일파들,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기생, 백정, 일제치하의 신문기자, 독립운동을 하는 한국 여자를 사랑하는 일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역사적 지리적 배경도 범위가 매우 넓다.

1부에서 구한말의 경상도 평사리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배경이 넓어지면서 토지개혁, 3.1운동, 일제강점기 만주의 용정, 하얼빈, 일본 동경에 이어 2차 세계대전의 끝 무렵 일제에 의해 핍박받으며 독립운동을 하는 한민족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들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대응하는지, 어떤 인생관을 갖게 되는지를 통찰력 있게 알려준다. 가히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소설이라 할 만하다.

작가 박경리는 청소년 토지의 서문에서 토지문학연구회에서 청소년용 토지를 엮었음을 밝히며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느끼기를 기대했다. 책의 부록에 주요인물에 대한 설명과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가계도까지 넣은 점도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 것 같다.

나라의 독립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할 청소년뿐만 아니라 긴 호흡의 소설을 대하기 어려워하는 성인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체리새우 :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글. - 문학동네. 2019.
200p. ; 14*20cm.
성남시 중앙도서관(808-ㅁ748ㅁ 42)
청소년

친구들과 관계 맺기가 어려운 청소년



나답게, 너답게. 아님 말고!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 사서)

흔히들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라고 한다.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을 함께 지내야 하는 집단생활에서 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청소년기의 관계 맺기의 가장 기본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 후 주변에 대한 배려심을 배워가는 것이다. 또래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고, 집단행동에 중점을 두고 무리에 속하는 것은 잘못된 자신 감추기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중학교 2학년 다현이는 "다섯손가락"의 멤버이다. 단체톡에서 답문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문자를 보내더라도, 아람이의 학원교재나 쇼핑백을 대신 들어도, 다현이는 이 모임이 소중하다. 초등학교 때 은따를 당한 적이 있어 지금의 멤버들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가곡이나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친구들이 진지충이라고 싫어하니 블로그의 비밀글로 적어두기로 한다.

그런데, 개학날 "다섯손가락" 멤버들이 싫어하는 노은유와 짝이 되고, 수행과제 모둠이 된 다현이는 혼란스럽다. 괜찮은 아이라고 느껴지는 은유에 대해 멤버들에게 자신있게 말하지도, 그렇다고 함께 험담을 하지도 못하게 된 다현은 더욱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나무들처럼 혼자야. 좋은 친구라면 서로에게 햇살이 되어 주고 바람이 되어 주면 돼. 독립된 나무로 잘 자라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어디에도 속하진 않았지만, 단단히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은유처럼, 다현이도 모둠 친구들에게는 스스럼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하지만, 멤버들과는 소외감이 커지게 된 주인공은 친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한 자신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당해지기로 결심한 후, 체리새우가 탈피를 하듯 블로그도 전체공개하고 멤버들과의 관계도 정리하게 된다.

제9회 〈문학동네 청소년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는 「판탈롱 순정」, 「중딩은 외롭지 않아」 등을 쓴 황영미작가의 청소년소설이다. 이 책은 시내버스나 서점, 산책길에 만난 중고등학생들의 대화들이 마음에 쌓이고, 10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심정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작가의 섬세한 관찰력과 현실적인 소재들로 또래중심의 청소년 생활을 생생하게 표현했으며, 스스로 성장해가는 주인공의 변화에 독자들이 함께 격려하게 된다. 또한 친구와 관계 맺기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너무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청소년기에는 당당하게 자신을 독립된 나무로 인정하고, 키워나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하고 싶다. 건강한 친구관계를 맺고 싶은 청소년에게 이 책을 권한다.

최초의 책

이민항 글. - ㈜자음과 모음. 2019.
237p. ; 22 cm
시흥시 중앙도서관(청813.7 이38ㅊ)
청소년 이상

새로움과 도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최초의 책은 무엇일까?

엄정란
(시흥중앙도서관 사서)

요즘 청소년 문학에서 많이 출간되는 도서는 미래를 위한 진로설계나 학업에 대한 공부법 등이 대다수이다. 성인이 되기 위해 과도기 상태로 혼란을 겪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도서를 선택해 주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지루하지 않으면서 추리, 시공간 여행, 모험, 교양지식 등을 전달해 주는 이 작품은 청소년들의 책에 관한 고정관념, 즉 재미가 없음을 깨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문학의 큰 성취로 평가받는 「시간을 파는 상점」 이후, 제8회 자음과모음 청소년 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서 작가는 2000여 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인류가 처음 만들었다는 '최초의 책'과 이를 좇는 사람들, 그리고 최초의 책을 매개로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상상력을 선보인다.

몇 해 전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는 윤수는 도서관에서 안내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풀잎도서관 사서 권영혜 선생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편이라, 자연스럽게 선생님처럼 멋진 사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게다가 도서관 인근이 미사일 기지로 결정되면서 풀잎도서관은 자연스레 폐관을 앞두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풀잎도서관을 아끼는 사람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국회에 탄원서를 보내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군사시설 그것도 국가안보에 직결된 미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기에 이른다.

폐허가 된 도서관에서 선생님을 도와 남은 책을 정리를 하던 중, 윤수는 예전에 선생님이 썼다는 「위대한 도서관과 사라진 책」의 일부를 발견한다. 그러다가 책을 보관하려고 지었다는 '비밀의 방'에 들어서게 되고 그곳에서 '최초의 책'의 선택을 받아 책 속에 펼쳐진 과거로 여행을 하게 된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 영국 런던의 토머스 모어 컬렉션 등을 옮겨 다니며 '최초의 책'을 찾아 목숨을 건 모험을 이어가던 윤수는 '최초의 책'을 좇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강원도 산골로 오게 된다. 그곳에서 앳된 소녀 권영혜를 마주하고 선생님도 과거에는 자신처럼 간절하게 꿈을 품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윤수는 최초의 책을 찾는 과정에서 왜 사서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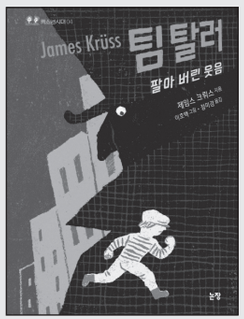
단순히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나열하던 단계를 벗어나 자기가 왜 원하는지에 진정성 있는 해답을 얻는 과정이 독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소극적 태도로 미래의 자신을 마주하기보다는 진취적이고 적극적 자세로 앞으로의 '나' 자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분명, 윤수처럼 내면의 틀을 깨고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윤수의 행동이 최초의 책에 대한 흥미보다는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것에 좀 더 초점이 있었던 점이었다. 청소년 소설이라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담은 것은 좋았지만, 그와 함께 최초의 책에 관한 흥미를 많이 보였다면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팀 탈러, 팔아 버린 웃음

제임스 크뤼스 지음, 정미경 옮김.
- 도서출판 논산, 2016.
400p. : 삽화 ; 21cm.
안산시 부곡도서관 (853 크29ㅌㅇ)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살아가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싶을 때
동화 같은 장편 소설을 읽고 싶을 때



웃음은 물질을 초월하는가?

전진희
(안산시 부곡도서관 사서)

"웃음이 있기에 인간은 동물과 다른 거지요. 웃어야 할 때에 웃을 수 있어야 사람인 거지요."

거액을 받고 웃음을 팔 수 있다면, 그 거래에 응하지 않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인간에게 웃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호하게 말한다. 인간에게는 웃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기에 인간은 다르다고.

팀 탈러는 아주 예쁜 웃음을 가진 아이다. 주변 사람들 모두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웃음. 그러나 그런 팀에게 불행이 연달아 닥친다. 엄마의 죽음, 새엄마의 학대, 아빠의 죽음까지. 팀은 점점 웃음을 잃어간다. 그리고 생각한다. '내게 돈이 많으면, 내 방이 따로 있는 큰 집을 얻을 텐데. 형은 매일 용돈을 받고, 새엄마는 뭐든 갖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팀이 도착한 곳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경마장이었다. 팀은 거기서 만난 신비한 신사의 꼬임에 빠져 거래를 하게 된다. 모든 내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대신, 자신의 웃음을 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팀이 그것에 서명을 한 순간, 아이에게서 웃음은 완전히 사라진다. 대신 경마에 이겨서 돈이 생긴다.

사람들을 함께 웃게 하는,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웃음은 그렇게 팀의 인생에서 사라진다. 이제 팀은 웃고 싶을 때 웃으려고 하면, 웃음 대신 끔찍하게 일그러지는 얼굴 때문에 영영 웃을 수 없게 된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돈이 생겨서 거만해진 꼬마로 볼 뿐이다. 팀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웃음을 팔고 돈을 얻게 되자, 불행 중에 잠깐씩이라도 반짝 빛났던 그의 행복은 사라진다.

팀은 다짐한다. 그에겐 억만장자가 될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신과 거래를 한 신사를 찾아서 웃음을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집을 떠나 긴 여정에 오른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돈만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뭐든 팔겠다고. 심지어 수명까지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인간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주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자주 거론된다. 이 이야기는 그에 대한 갈등은 거의 없다. 초반부터 주인공의 목적은 물질보다 귀한 웃음을 찾는 것. 팀 탈러가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다. 그 부분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아무리 웃음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능력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팀이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11살 남짓이긴 하지만, 10대 후반에서 이야기가 끝난다. 그러나 팀의 결심은, 흔들린 적은 있지만 바뀐 적은 결코 없다. 이 책은 청소년 대상의 소설이긴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에도 너무 갈등이 없다. 물론 이 소설에서 웃음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인간이 잃어서는 안 되는 비물질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덕분에 이야기의 구조와 목적이 직선적으로 매우 간단하여 술술 읽힌다. 또한 문장 문장마다 깊은 울림을 주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극 중 극의 대화가 굉장히 시적이며 인상 깊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훈적이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지막 부분이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도 아쉽다.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책은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자의 성향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더 용이할 수 있다. 나라면 팀처럼 웃음을 되찾으려고 할 수 있을까? 물질에 만족하고 평생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 작가의 생각이 깃든 문장들을 통해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철학적 소설이다.

페인트

이희영 글. - 창비. 2019.
204p. ; 15*21cm.
성남시 중앙도서관(808.3 ㅊ158 v.89)
청소년

부모를 이해하기 어려운 청소년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고 싶은 부모



불안정하고 불안한 존재들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 사서)

'지금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물론 유전적으로 부모가 달라진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내가 다른 배경에서 교육받고 양육되었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다. 불만족스런 상황일 때 종종 든 생각이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다. 부모도 자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착하고 효도하는 자식을 고르고, 열 손가락이 다 아프지 않게 골고루 사랑도 주고 싶을 것이다.

「페인트」는 부모가 키우지 않는 아이들을 국가가 NC(nation's children)센터에서 양육하고, 주관이 생긴 13살 청소년기부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제누는 똑똑하고 영리한 열일곱 살 소년이다. NC센터의 모든 아이들이 입양되기 위해 '페인트(부모면접. parent's interview의 은어)'를 치르지만, 제누는 입양을 통해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것만 관심인 예비부모들이 늘 실망스럽다. 20살이 지나면 센터를 떠나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하지만, 뚝딱 부모를 만들어주려는 센터의 가디들도 싫고, 팔려가는 느낌도 싫고, 사랑 없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족관계는 더더욱 싫다.

"그럼, 우리를 낳은 부모님은 사랑이 있었어?"

"형, 나는 사랑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어느 날 주인공은 아이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없다는 젊은 예술가 부부 서하나와 이해오름과 '페인트'를 진행한다. 제누는 그들의 꾸미지 않은 모습과 현실적인 답변들이 더 진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딱 맞는 관계는 없으며 서로 이해하려는 시간과 노력,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불안정하고 불안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들도 부모노릇이 처음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 그만큼 상대를 신뢰한다는 뜻 같아요.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기 약점을 감추고 치부를 드러내지 않죠.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무너져요."

단편소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로 2013년 제1회 〈김승옥 문학상 신인상〉 대상을 수상한 이희영 작가는 이 책으로 2018년 제12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했다. 부모를 선택한다는 기발한 상상과 현실감 넘치는 대화, 빠른 이야기 전개가 돋보인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 외에도 출신에 대한 선입견 등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는 소설이다. 주인공 이외에 따뜻한 룸메이트 아키, 사고뭉치 노아, 일중독 센터장 박, 꼼꼼하고 영리한 가이언 최 등 캐릭터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자신이 바라는 아이로 만들려는 욕심보다 아이와의 시간을 즐기는 마음이 먼저다. 부모는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되어 가는 것이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가족 간의 소통이 필요한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읽고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래본다.

편의점 가는 기분

박영란 글. - 창비. 2016.
234p. ; 22cm
안성시립도서관 813.7 박64
청소년

편의점을 자주 가는 분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받는 소소한 위로들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박영란 작가의 「편의점 가는 기분」을 읽었다. 편의점을 갈 때 무슨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 보았다. 답은 '아무런 기분도 들지 않음'이었다. 편의점은 누구든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다. 이름 그대로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곳. 그저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나오면 그만인 곳이다. 물건의 가짓수도 많지 않거니와 공간도 좁아 필요한 물건을 순식간에 찾아내어 구매할 수 있다. 컵라면이라도 먹지 않는 이상 편의점에서 10분 이상 머무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곳을 가는데 어떤 기분이 생긴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왜 제목을 '편의점 가는 기분'으로 정했는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이 소설의 주된 이야기는 주인공 '나'가 편의점에서 밤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의 주된 배경은 바로 '나'가 일하는 편의점인데, 이 곳이 갖는 장소적 특성이 이야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편의점은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둔 곳이라고 했다. 이러한 언급을 번복할 생각은 없지만, 이 책을 읽다보면 편의점이 갖는 또 다른 특성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위로다. 우리나라만큼 밤에 갈 곳이 많은 곳이 없다고들 하지만, 막상 새벽에 거리를 걸어보면 맘 편히 머물 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잠시라도 맘 편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잖은 위로를 받는다. 소설 속에서 편의점은 그런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렇다고 드라마틱한 위로의 장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는 곳, 잠시만이라도 추위에 꽁꽁 언 몸을 녹이고 갈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 가는 곳. 소설 속 편의점은 그런 곳이다. 그 안에서 주인공 '나', 캣 맘, 씩씩하고 당찬 꼬마 수지와 실어증에 걸린 엄마, 도둑맞은 스쿠터를 찾는 청년 등의 인물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빚어낸다. 그리고 '나'는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것들과 화해하며 한결 성숙해진다.

대학생 때 무전여행을 하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캄캄한 산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발견했었다. 방문은 잠겨있었지만 마루 쪽에 난 백열전구를 돌리자 빛이 들어왔다. 아주 흐릿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따뜻한 이불은커녕 바람을 막아줄 변변한 벽 하나도 없었지만 내가 잠시나마 걱정 없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수시로 깜빡거리는 희미한 백열등이었지만, 그 아래서 나는 크나큰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편의점 가는 기분'의 등장인물들이 편의점을 찾으면서 느꼈던 기분이 당시에 내가 느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바로 '위로 받는 기분' 말이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이곳에서는 잠깐이라도 소소하게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말이다. 어쩌면 작가는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그런 위로를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지은 것은 아닐까 짐작해 본다.

호랑이의 눈

주디 블룸 글, 안신혜 옮김. - 창비. 2018.
295p. ; 21 cm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808.9 창48ㅊ 84)
청소년이상

막연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용기가 필요할 때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호랑이의 눈」은 갑자기 아빠를 잃은 열다섯 살 소녀, 데이비가 슬픔을 치유하면서 성장해가는 내용을 다룬 소설이다. 소설의 시작은 장례식이다. 데이비의 눈에 비친 아빠의 장례식 장면과 심정이 그려진다. 가족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중 아빠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강도가 들어 총격사고로 아빠가 목숨을 잃는다. 충격을 받은 데이비에게 환경의 변화가 필요해서 엄마와 동생과 함께 고모 집으로 떠난다. 아빠의 죽음 이후 데이비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겪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스토리 구성이 흥미로워 책이 술술 잘 읽힌다. 데이비 주변의 어른들, 전학 간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 부류의 청소년 등 다양한 인물 설정도 흥미롭다. 미국 청소년 문학의 대가, 주디 블룸의 저력이 느껴진다. 미국 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속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잘 담고 있다. 작가가 실제로 로스앨러모스에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더욱 사실적이다.

원작은 1981년에 출간됐으니 고전이라 할 만하다. 원작이 출간된 지 40여년이 흐른 지금, 소설의 배경 로스앨러모스의 분위기는 얼마나 변했는지 궁금하다. 인종 간에 경계하고 차별하던 인식은 많이 사라졌을까.

데이비가 엄마, 동생 제이슨과 집을 떠나 살게 되는 로스앨러모스는 대다수의 영국계 백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동네이다. 그곳의 원자력연구소에서도 백인들은 전문직, 히스패닉계는 기술직이라는 이분법적 역할분담이 상식으로 여겨진다. 소수인종 사람들은 폭력적일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존재한다. 다른 동네를 향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경계하면서 사는 로스앨러모스의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편견과 차별을 만들어낸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인물의 대비가 잘 드러난다. 아빠와 고모부가 대표적이다. 생계를 위해 편의점을 운영하지만 화가를 꿈꾸며 그림을 그리던 아빠는 유머도 많은 사람이었다. 데이비는 늘 웃음으로 대해주던 아빠를 그리워한다. 반면 로스앨러모스의 원자력연구소에서 물리학자로 일하는 고모부는 안전제일주의자다. 백인이 대부분인 로스앨러모스를 벗어나 다른 인종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갈 때는 항상 총을 챙긴다. 스키도 열기구도 위험하다는 이유로 금지한다. 대학입시를 위한 성적관리, 비싼 집, 번듯한 직업을 중요하게 여긴다. 로스앨러모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모부와 성향이 비슷하다. 그들만의 정해진 틀에 갇혀 있는 듯하다.

고모와 고모부 몰래 헬멧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나간 날 데이비는 협곡에서 낯선 청년 울프를 만난다. 울프의 아빠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아빠를 잃어가는 울프의 심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데이비는 자신의 억눌렸던 슬픔도 돌아보게 된다. 아빠의 죽음 후 울프는 데이비에게 기약 없는 약속을 남기고 떠난다. 데이비는 울프에게 부치지 못하는 편지를 쓰면서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던 슬픔을 마주하고 마침내 아빠와의 이별의식을 치를 수 있었다. 데이비가 울프와 함께 한 시간은 짧다.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짧고 강렬한 만남은 데이비의 인생에 큰 흔적으로 남을 듯하다.

현재 나를 지배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나의 결정과 행동을 막고 있는 불안은 무엇인가. 많은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두려워한다. 데이비가 협곡 아래로 내려가 울프를 만났듯이, 엄마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 위해 다시 애틀란틱시티의 집으로 돌아왔듯이 한 발짝만 내딛어보면 무사하다는 걸 알게 된다. 제자리에서 머뭇거리기만 한다면 두려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두려움에 맞서야 하고 두려움에 직면해야 한다.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모험을 할 것인가. 두려움에 갇힐 것인가."

데이비가 울프에게 쓴 편지에 인용한 글이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오오타 야스스케 지음.
책공장더불어, 2013
136p. ; 21 cm
화성시 병점도서관(331.5414-오65ㅎ)
청소년, 성인

환경실태, 동물보호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보라
(화성시립도서관 사서)

2019년 10월, 반갑지 않은 뉴스가 들려왔다. 태풍 '하기비스' 때문에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에 보관 중이던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불어난 하천에 방류 되었단다. 1톤이 넘는 분량의 내용물이 들어있던 자루가 최소 55개 이상 유실되었고, 회수한 자루의 경우 텅 빈 것도 여러 개가 발견되었다. 오염토 등 원전사고의 폐기물은 흘러 흘러 태평양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유출된 폐기물은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해결되지 못한 잔재들이다. '동일본 대지진'은 리히터 규모 9.0의 강도로 일어났으며, 사상 최대 재난 피해를 입었다. 건물 붕괴와 대형 화재에 이어 쓰나미까지 덮쳐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냉각수 유입이 멈춘 원전도 멈추었다. 약 2만여 명이 실종되었고, 33만여 명의 주민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을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 동물들이 남겨졌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난령이 내려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급하게 대피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력함과 혼돈 속에 그곳에서 살던 동물들은 그렇지 못했다. 오래 집을 비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키우던 동물을 개집에 묶어 두고 떠나거나, 축사도 닫아두고 떠났다. 그리고 그 동물들은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굶어 죽어갔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오오타 야스스케 (太田 康介)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인 경계구역에서 동물을 돌보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그곳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의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집을 지키는 개, 숨어서 다가온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고양이, 죽어있는 시체 옆에서 살아남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돼지, 물을 마시러 수로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죽은 소. 그의 사진 속에서 죽어가는 가축들의 모습이 매우 슬프고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눈물이 맺힌 맑은 동물들의 눈동자, 슬프도록 마른 몸 등 보는 이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아픈 잔상을 남기는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시 새겨야 볼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이라는 명목하에 방사능 노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의 위험을 언제까지 모른척하거나 용인할 것인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기술들의 폐해를 언제까지 덮어둘 것인가. 연이은 악재가 아닌, 후쿠시마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듣고 싶다.



성인을 위한 책

29쇄	임소라	북노마드	**신선원**	수원시희망샘도서관
CEO 칭기스칸	김종래	삼성경제연구소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가족의 두 얼굴	최광현	부키	**임지혜**	성남시판교도서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옥	돌베게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건강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양유진**	수원시광교푸른숲도서관
그 남자네 집	박완서	현대문학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웅진씽크빅	**조혜원**	성남시분당도서관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박완서	문이당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기사단장 죽이기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임지혜**	성남시판교도서관
기적의 세기	캐런 톰슨 워커	민음사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김영하, 이우일의 영화이야기	김영하	마음산책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나를 보내지마	가즈오 이시구로	민음사	**조윤주**	안양시 벌말도서관
내 마음 조각글	노영심	자음과모음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니하오 미스터 빈	하진	현대문학	**신선원**	수원시희망샘도서관
데카메론	구윤숙	작은길	**김보라**	화성시립도서관
도서관 여행하는 법	임윤희	유유	**조윤주**	안양시 벌말도서관
딸에 대하여	김혜진	민음사	**유향숙**	성남시중앙도서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어령	열림원	**임지혜**	성남시판교도서관
딸에게 주는 레시피	공지영	한겨레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뚱뚱해서 행복한 보테로	이동섭	미진사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랩걸 :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	호프 자런	알마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마음아, 넌 누구니?	박상미	한국경제신문	**유향숙**	성남시중앙도서관
맛의 배신	유진규	바틀비	**조혜원**	성남시분당도서관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김동영	아르테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미 비포 유	조조 모예스	살림출판사	**전진희**	안산시부곡도서관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문학동네	**조혜원**	성남시분당도서관



밥벌이의 지겨움	김훈	생각의나무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백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덴스토리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나가오 가즈히로	북라이프	**조혜원**	성남시분당도서관
사고루 기담	아사다 지로	문학동네	**이선희**	성남시구미도서관
사랑의 기초 : 한 남자	알랭 드 보통	문학동네	**이선희**	성남시구미도서관
상실의 시대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사	**이병희**	안성시중앙도서관
성공한 인생	김동식	요다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숨결이 바람 될 때	폴 칼라니티	흐름출판	**조혜원**	성남시운중도서관
아리랑 - 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불꽃 같은 삶	님 웨이즈	동녘	**유향숙**	성남시중앙도서관
아무튼 피트니스	류은숙	코난북스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조혜원**	성남시분당도서관
어린이와 그림책	마쯔이 다다시	샘터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어릴 적 그 책	곽아람	앨리스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어쨌거나 청춘	이보람	교보문고	**조혜원**	성남시분당도서관
엄마 수업	법륜	휴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김민식	위즈덤하우스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고수리	첫눈	**조혜원**	성남시분당도서관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김혼비	민음사	**조윤주**	안양시벌말도서관
이것이 인간인가 :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의 기록	프리모 레비	돌베개	**김현주**	수원시바른샘어린이도서관
이기적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을유문화사	**유향숙**	성남시중앙도서관
이동진 독서법	이동진	예담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피에르 바야르	여름언덕	**조윤주**	안양시벌말도서관
자전거여행 1	김훈	문학동네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재인, 재욱, 재훈	정세랑	은행나무	**전진희**	안산시 부곡도서관
조심	정민	김영사	**이연순**	반달어린이도서관
종말의 바보	이사카 고타로	현대문학	**조윤주**	안양시벌말도서관
종의 기원	정유정	은행나무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사는 법	고코로야 진노스케	동양북스	**임지혜**	성남시판교도서관
죽은왕녀를 위한 파반느	박민규	예담	**조혜원**	성남시운중도서관
준비된 행운	알렉스 로비라	에이지21	**조혜원**	성남시분당도서관
지리산 행복학교	공지영	오픈하우스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초예측	유발 하라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외	웅진지식하우스	**유향숙**	성남시중앙도서관
출판하는 마음	은유	제철소	**조윤주**	안양시 벌말도서관
쾌락독서	문유석	문학동네	**조혜원**	성남시분당도서관
파리는 날마다 축제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숲	**조윤주**	안양시벌말도서관
페이크(fake)	로버트 기요사키	민음인	**유향숙**	성남시중앙도서관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	김겨울	초록비책공방	**조윤주**	안양시 벌말도서관
황금비늘 1	이외수	해냄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흑산	김훈	학고재	**유향숙**	성남시중앙도서관
희박한 공기속으로	존 크라카우어	황금가지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29쇄

임소라 저. - 북노마드. 2016.
155p. ; 19 cm
문학(800)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814.7임55ㅇ)
성인

어려운 글에 지쳐있을 때
휴식 같은 독서를 원할 때
독립출판물 작가의 일상이 궁금할 때



독립출판물 작가의 일상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29쇄」는 숫자 29의 쓰임을 나열하는 것으로 서문이 시작된다. 제목을 28쇄도 30쇄도 아닌 29쇄로 지은 이유 또한 서문에 쓰고 있는데 작가의 재치가 느껴진다. 책의 내용은 연속되는 29일간의 기록이다. 책을 낼 작정으로 매일 썼을까, 매일 쓰다 보니 글이 모아져 책이 되었을까 궁금했는데 나가는 글에서 누군가 읽을 걸 예상하고 쓴 특별한 일기라고 밝히고 있다. 한 달쯤 집중해서 써보기, 괜찮은 방법이다.

일본 에세이 작가 마스다 미리의 글과 분위기가 비슷하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불만들을 대놓고 따지거나 수다로 해소하기보다는 구시렁거리는 투의 글로 해소하는 것 같다. 주변에서 자주 만날 법한 배려 없는 사람들이 구시렁거림의 대상이다. 보일러 수리를 하러 와서 화장실 사용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오줌을 누는 보일러 기사, 예민한 강아지 초코에게 '쪼쪼쪼' 하지 말라는 저자에게 거지같다며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길에서 마주친 아저씨들.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보다는 양보로 포장된 포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약자의 심정을 대변한다.

교육과 학교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폭력에 분노하며 학창시절의 선도부실 폭파 상상과 흐지부지된 계획을 회상한다.(36쪽)

팔고 싶은 거라면 뭐든지 팔고 싶을 만큼 궁하지만 나라를 팔 생각은 못했는데 행사장에서 풍선을 쟁취하려는 할아버지에게 매국노 빨갱이로 몰리는 수모를 당한다. 겪은 세월이 지난했음은 인정하지만 맘에 들지 않는다고 빨갱이 운운하며 억지 쓰는 어른을 비판하고 있다.(43~44쪽)

옷을 사러 가서 사이즈와 색깔 때문에 한참을 고민해 골랐는데도 착용해보고 평소 자신의 사이즈를 잘못 알고 있었더라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어떤 날의 일기이다. 그게 뭘 또 엄청나기까지 한 깨달음일까 싶다가도 '자신의 몸을 정확히 아는 건 중요하지. 그렇지! 엄청난 거 맞네.'하고 수긍을 하게 된다.

독립출판물 작가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마켓에서 저서를 직접 팔면서 겪었던 일. 책이 팔리지 않아 4천원을 깎아 팔면서 의기소침하다가 머핀을 건네며 응원해주는 이들에게 힘을 얻고 저자의 책을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 달라는 거금의 후원자에게 위안을 받는다. 꿰매서 책을 만드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해서 하루에 20권을 만들어냈단다. 글쓰기 위해 빈 종이를 대할 때마다 매번 당황하게 되고, 쓰고 나서는 좌절하게 된다고 털어놓고 있다. 책 한 권에 매겨진 값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단어와 문장을 고르며 좌절의 시간을 통과한 수고로움의 환산인 것이다.

원고 청탁을 받고 책방폐업 경험을 글로 써야 하는데 마감이 다가오도록 써지지 않아 애먹다가 이런저런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눈물 콧물을 뺀 후에야 한 시간 만에 글을 완성하고는 원고료 받아 맛있는 거 사먹을 생각을 했단다. 글쓰기의 과정은 그렇구나 싶어 짠해지려는 순간 밝아진 글쓴이의 모습이 그 위에 겹쳐진다. 독자를 들었다 놨다 진득할 틈을 주지 않으니 "책 크기는 손바닥만 하지만 잔영만은 어떤 고전 못지 않다."고 하면 과한 평일까. 인도 출신 비평가 가야트리 스피박은 "우리는 평이한 글에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스피박 넘기」, 스티브 모틴 저, 앨피, 2005) 어려운 문장을 곱씹어 소화해내는 맛이 있음을 잘 알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매번 어려운 책만 읽을 수도, 그럴 필요도 없으니 알찬 휴식 같은 독서를 원할 때 임소라 작가의 책은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CEO 칭기스칸

김종래 저. - 삼성경제연구소. 2002.
151p. ; 21cm.
경영학(325)
성남시 중앙도서관(325 ㄱ924ㅆ)
청소년~일반

유목민에게 현재의 답을 찾을 때



디지털 노마드 시대 칭기스칸을 배워야 할 이유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유목민에게 배우는 21세기 경영전략.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다." 글이 책 안에서가 아니라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온 듯하다.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 21세기를 살다 간 사람들이 있다. 12~13세기까지 겨우 150년을 지배하다 갔지만 칭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777만 평방 킬로미터로 알렉산더 대왕(348만 평방 킬로미터)과 나폴레옹(115만)과 히틀러(219만), 세 정복자가 차지한 땅을 합친 것보다 넓다. 위의 팩트만으로도 정복자로서의 칭기스칸은 대단하다. 어떤 전술을 썼으며, 어떤 꿈을 그려주었기에 몽골 민족이 하나가 되어 정복의 길에 목숨을 내놓았을까?

몽고는 '아둔한 옛 것'이라는 뜻의 한자식 표현이다. 몽고는 변변한 문자 하나 갖지 못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기에 문명을 만드는 것보다는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한 기술이 남달랐다. 대제국이 되는 데는 '꿈'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다. '만인이 꾸는 꿈은 현실이다.'라는 명분. 비전의 공유는 열린 사고를 할 때이다.

이 조그마하고 얇은 책은 어쩌면 역사의 주력이 아닌 변방의 유목민의 특성을 보인다. 약해 보이나 막상 읽어보면 동서남북 초원과 대륙으로 정복을 향해 말을 달려 나가는 몽고의 전사들 같다. 역사를 맞이하고 적응하게 하는 추진력과 기존에 정착민의 역사관으로 유프라테스문명과 양쯔강 문명으로 시작하여 동양과 서양 혹은 국가별로 일관되고 힘겹게 배워왔던 기존의 역사관을 파괴하고, 정착민과 유목민이라는 새로운 역사관을 정립하게 함으로써 세계관을 확장 시켰다. 300페이지가 넘는 책의 내용도 거창하게 어려운 단어로 머나먼 논리를 다양하게 펼치기보다는, 단순하지만 일관된 팩트에 근거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다.

과거 유목민이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이동하면서 배웠을 오프라인 사고체계와 생활양식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소양이다. 현재 온라인 세계가 주동력을 가진 이 때에 시기적절하게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이 책은 살아있는 지표 같은 유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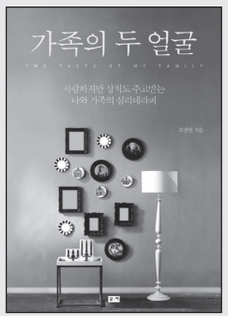
온라인 세계는 경계가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져 새로운 규칙과 룰을 정해야 하지만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해서 많은 사람이 따를 때 규칙과 룰이 다시 세워지는 시대라고 본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배워야 하는지를 과거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길을 찾고, 개념을 갖추고, 세계관을 정립해 갈 수 있었던 나에게는 읽는 즐거움과 더불어 무한 공감을 넘어 배우고 또 익히고 싶은 책이 되었다. 사고의 전환을 주는 몇 안 되는 책 중에 단연 으뜸에 속한다. 2002년, 초판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읽었던 책인데 아직도 생생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읽어도 삶의 방향을 확연히 밝혀주는 책이다.

작가는 「김종래의 몽고이야기」라는 꼭지로 오랫동안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연재되었다. 1952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를 거쳐 주간조선 부장과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거쳐 편집국 부국장을 역임하셨다.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우 교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밀레니엄맨」, 「유목민이야기」 등이 있다.

가족의 두 얼굴

최광현 저. - 부키. 2013.
374 p. : 삽화 ; 22 cm
철학(100)
성남시 운중도서관 (189.24ㅊ338ㄱ)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찾는 사람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늘 외로운 사람
나의 아이가 나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



같이 혹은 따로, 가족에 대하여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표준국어대사전) "집"은 사람이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해 지은 건물로 가족들은 (보통) 한 집안에 모여 산다. 집 밖에서 쏟아지는 여러 상황들을 겪은 사람들은 하교 혹은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고 편안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다.

이렇듯 집은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재충전을 하기 위한 소중한 공간이다. 만일 그곳에서조차 쉬지 못한다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족의 두 얼굴」은 가족의 슬픈 이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다. 작가는 한세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이자 트라우마 가족치료 연구소 소장으로 가족 안에서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불행, 낮은 자존감, 불편한 인간관계 등의 뿌리가 가족 안에 있다고 보고 오랜 기간 가족 문제에 대해 공부했다.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상처를 주고 받아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 간의 심리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책은 여러 실제 상담 및 연구 사례들을 나열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저자의 경험들을 소개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여 글을 읽을수록 그의 생각에 동조하게 된다.

가까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 관찰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족"과의 관계가 바로 그럴 것이다. 특히 심리학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철학서를 처음 접하는 독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너무 친근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관계 사이에서 난 크고 작은 상처들은 인성 형성과 미래 자신의 삶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작가의 글은 미처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각성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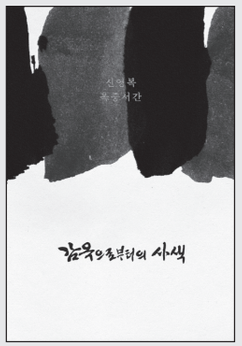
특히 첫 장 "어린 시절의 나를 돌아보다."는 부모라면 꼭 한 번쯤 읽어보기를 권한다. 자신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3장의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을 통해서 구성원 안에서 소외받고 있을 우리 가족은 누구인지 한 번 생각해보고 정상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려준다.

상당히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담백한 글솜씨 덕분에 마음 깊이 와 닿는다. 그리고 간간히 등장하는 아들 이야기에 얼마나 그가 아이를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다정한 아버지로서의 작가도 글 속에서 만날 수 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옥 저. - 돌베게. 2013.
일반도서 (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809.9-ㄱ436ㅇ)
성인

억울한 상황에서 차분히 자신을 성찰하고 싶을 때



20년을 감옥에서 견디게 해준 것은…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20년 징역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부모 형제를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사회의 소식을 접하기 힘들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는 삶. 이 책은 신영복이라는 저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0년 20일을 보내면서 (1988년 8월 14일 특별 가석방되고 출소 10년 후인 1998년 3월 13일에 사면 복권으로 공민권을 회복)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들과 엽서를 모아 만든 책이다. 신영복은 당시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후 1965년 숙명여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강사로 있던 중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책에 언급된 구속되기 전 에피소드를 읽어보니 저자의 성품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영복은 강사로 있던 시절 지인들과 인근에 소풍을 가게 되었는데 가는 길에 행색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어린 아이들(초등 고학년 정도)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만 잊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로부터 안부 편지를 받게 된다. 편지를 읽고 아이들과 즐거운 만남, 그 이후 무심했던 자신의 마음을 자책하며 아이들에게 답장을 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만남이 반복될수록 아이들은 점점 신영복을 믿고 따르며 신영복도 지금으로 치면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해주려 노력하며 경제적 사정으로 중학교 진학이 어려운 아이에게는 수업료를 내주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람간에 소박한 정을 나눌 줄 알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줄도 아는 신영복은 옥중에서도 비록 편지이긴 하지만 지인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자아성찰을 하기도 하고, 바깥 세상 소식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동생이나 형에게 충고를 하기도 하고,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 교도소 내 고양이의 가출소식, 학교 다니는 조카들 교육에 대한 의견 등을 전하기도 한다.

책에는 명문장이 많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신영복의 책에서 뽑아낸 문장 모음 글도 돌아다닐 정도다. 정말 책을 읽다 보면 무릎을 칠 만큼 좋은 문장들이 많이 보이므로, 끝까지 읽은 후엔 저자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감옥이라는 성에 갇혀 독방에서 홀로 고독과 외로움 끝에 나온 사색의 결과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라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너무 더워서 옆에 동료를 미워하게 되는 여름,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하는,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에서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하는 여름을 20번을 겪어낸 사람이 썼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정갈하고 단아하고 우아하고 고상한 글들은 감옥 밖의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억나는 문구들을 적으면서 글을 끝맺도록 하겠다.

"요즘은 춥도 덥도 않아 징역살기에도 가장 좋은 때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 없이 헌옷 입고 봄볕에 앉아 있는 즐거움이 은자의 아류쯤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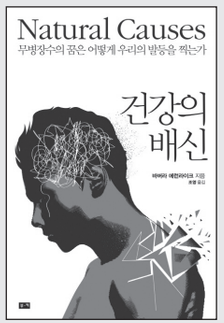
"사랑이란 생활의 경작이며 갑자기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미는 신선미, 지속성을 그 본질로 한다. 부단히 자신을 갱신하지 않으면 미는 지속되지 않는다. 긍정적 미래로 열려 있는지 현재 속에 닫혀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건강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저, 조영 옮김. - 부키. 2019.
292p. : 22cm
사회학
선경도서관
성인

**건강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보다 중요한 것은

양유진
(수원시 광교푸른숲도서관 사서)

우리는 왜 건강해지고 싶은가. 아프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비슷하게 대답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꾸준하게 운동한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매사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등등.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사회가 생각해왔던 건강에 대한 믿음들은 과연 증명될 수 있는 것일까.

대장 내시경·갑상선 검사·유방 조영 검사 등의 수많은 건강검진 항목이 과잉진료 측면은 아닌지.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제시하는 목표나 감당하지 못할 기대치에 맞추어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감정을 명상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등을 의례적으로 따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긍정의 배신」, 「노동의 배신」, 「희망의 배신」으로 우리 사회에 이름을 알린 미국의 사회비평가 바버라 에런라이크다. 저자는 우리에게 「건강의 배신」이라는 책으로 무병장수에 대한 꿈에 대해 최신 과학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또 다른 물음을 제기한다. 그 물음의 시작은 저자가 읽었던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의 기사였다.

면역체계가 실제로는 종양의 성장과 확산을 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그 기사는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면역체계가 우리의 몸을 지켜준다고 믿고, 의사들과 건강 및 의학에 대한 책들이 알려주는 면역 체계 강화 방법들을 신뢰하고 있었다.

세포들은 스스로 의사결정이라고 부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경쟁하고, 어떤 명령도 따르지 않고,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암세포들을 돕는 아주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세포도 결국 유기체이고 우리와 똑같다. 중요한 사실은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세포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도, 의학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숙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상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개인에게 엄격하게 절제하고 통제했던 방식 또한 바꿔야 되지 않을까. 2000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저자는 지금도 매일 스트레칭 요법을 지속하면서도 자신의 식탐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꽤 많이 먹는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삶이란 그런 즐거움을 포기하기엔 너무 짧고, 또 그러한 즐거움이 없다면 너무 길 것이다.” 무병장수의 꿈을 지키기 위한 힘든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녀처럼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넘치지 않게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살아 숨 쉬는 세상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의료와 과학, 운동 등에 대한 맹신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지는 않는가.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믿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 남자네 집

박완서 저. - 현대문학, 2004.
일반도서 (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813.6-ㅂ398그ㄴ2)
성인

첫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을 때



첫사랑의 민낯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어떤 책을 읽다가 소설 「그 남자네 집」이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이며 첫사랑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고민하지 않고 곧장 읽게 되었다. 박완서의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 속 인물들이 어느 정도의 교양과 학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있는 척 하든지) 그 속을 들여다 보면 허영과 무지에서 헤맬 때가 많다. 그런 점은 곧장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소설 「그 남자네 집」도 그랬다.

첫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 순수한 순간이며 가장 아린 시간들이기도 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그 남자네 집」에서는 첫사랑의 순간조차도 속물적으로 묘사한다. 이를테면 주인공은 자신이 명문대학 출신인 데 반해 첫사랑 대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워하며,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신과 백수인 상대방이 결혼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마침 알게 된 직업이 은행원이며 기와집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서두른다. 결혼생활 중 권태를 느끼게 되어 옛날의 첫사랑을 만나 짜릿한 스릴을 느끼면서도 그 첫사랑이 곧 시력을 잃게 되자 그와 더 이상의 관계를 맺지 않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결혼생활이 권태로울 때는 시어머니가 정성껏 해주는 음식도 그래봤자 재료의 맛을 넘어설 수 없다고 비난하다가도 첫사랑과의 밀회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올 때는 그 점이 정말 든든한 부분이라고 위안한다. 사실 이런 점들은 현실의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갈등하는 부분이다. 첫사랑의 순수함에 들떠 있다가도 상대방에 대해 현실의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작가는 인간 본연의 속물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들을 치밀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어준다.

소설은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시대적 배경이 되는 전후의 어려운 사회상과 어려움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모습도 그려낸다. 포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첫사랑과 시장을 다니며 군것질을 한다.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미군에서 빼돌린 물건을 팔아 어린 조카들의 얼굴에서 지방이 부족해서 생긴 피부병인 버짐이 없애준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남편 대신 포목점을 열어 생계를 유지하고, 전쟁터에서 전사한 오빠대신 가족들을 건사하는 여성들도 여럿 보인다. 어려운 사회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나무로 만든 기와집으로 감지덕지하던 가족들이 이층집으로 이사하여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2층 거실을 자랑스러워 한다. 한 방에 4~5명씩 자다가 10명도 넘게 잘 수 있을 듯 보이는 방들을 보며 기뻐하기도 한다. 소설의 앞부분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6~70년대에는 커피 선물을 꽤나 귀하게 여기다가, 소설의 뒷부분에서는 커피 선물을 예전 같지 못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커피믹스를 맛보고 기뻐하는 미국교포는 오히려 커피믹스를 선물 받고 좋아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좋아진 것이다.

인물 사전에서 검색해보니 박완서 작가의 작품세계를 '자신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집요하게 다루거나 소시민적 삶과 물질중심주의와 여성억압문제를 그린 내용이 많다'고 설명한다. 「그 남자네 집」이야말로 작가의 작품세계를 잘 대변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의 이중적인 심리가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로 리얼하게 묘사된 점은 독자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듯하다. 그런 점들은 우리 모두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일부이기도 하다. 아름답게 미화하고 싶은 첫사랑도 그 내막을 캐보면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사가 아닐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저. - 웅진씽크빅. 2005.
343p
일반도서
성인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싶을 때



서로를 이해하는 힘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우리나라는 1910년에 일제에 합병되었고(경술국치), 1945년에 해방되었으며, 1950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겪었으며, 군부독재 시절을 거쳐 엄청난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현재는 2019년. 수많은 질곡으로 이루어낸 지금의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 한국의 노인 세대들은 전쟁을 실제로 겪고 폐허가 된 곳에서 맨몸으로 일어난 세대이고, 중장년 세대는 경이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세대이다. 반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전쟁이라던지 독재와는 먼 평화로운 시대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저성장이라는 늪에 빠져 미래를 꿈꾸기 힘든 환경에서 힘겨워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세대를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다. 점점 커져가는 세대갈등, 혐오 등으로 서로를 이해하기는커녕 서로를 힘겨워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고 생각한다.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는 바로 일제강점기와 전쟁 시기를 살아야만 했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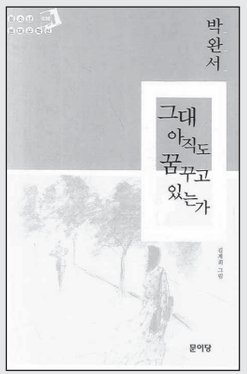
우리 세대는 전쟁세대를 역사책의 한 부분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1930년대의 일제의 식민정책과 해방 이후의 정치적 상황만 자세히 배울 뿐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일반 민중들의 의식과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 작품은 작가이자 주인공인 '박완서'의 유년시절과(일제강점기) 학생시절(해방과 전쟁)을 다룬 자전적 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배경과 감정이 생생하게 와 닿는다.

농촌사회의 구성원이었던 주인공 완서가 도시 생활을 적응하는 모습에서 우리 문학작품에서 왜 그리 농촌사회의 향수가 짙게 배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완서의 오빠의 모습에서 당시의 젊은이들이 왜 '사회주의'에 열광했는지 또 그게 얼마나 흔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어떤 시절을 살아내더라도 결국에는 비슷한 삶이라는 것이다. 부모세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며 또 어떻게든 가족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악착같이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간다. 어떠한 시대든 인간의 모습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모두 비슷하다. 일제강점기나 전쟁의 아픔에도 어디에나 사랑은 피어나며 어디에나 삶을 향한 의지는 존재한다. 나는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근본적으로 보면 비슷한 삶의 모습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모두의 소망은 다르겠지만,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며, 내가 속한 사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하는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서로를 이해하는 단계가 아닐까. 앞으로 우리 모든 세대가 문학작품을 읽기도 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작가 박완서 선생님도 하늘에서 미소를 지어주시지 않을까.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박완서 저. - 문이당. 2007.
일반도서 (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813.608-ㅊ258-36)
성인



회색 빛 시대의 희망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재혼을 준비 중인 연인들의 이야기라는 것만 알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한번 결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재혼에 접근하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책인 것으로 짐작했다. 읽어보니 굉장히 통속적인, 어디서 들어본 듯한 아침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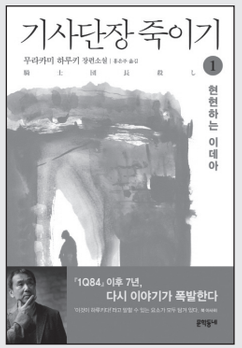
결혼에 실패한 문경.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동창과 사귀면서 재혼에 대한 행복한 삶을 꿈꾼다. 한편 부인과 사별한 혁주는 문경을 만나면서 재혼을 고려하지만 결혼한 적 없는 젊은 여성과 결혼하라는 어머니의 성화에 변심하게 된다. 혁주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문경은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앞둔 혁주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고 고심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다. 문경은 비록 이혼을 했지만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던 멋진 여성에서 혼전임신을 한 부도덕한 선생님이자 미혼녀로 전락하고, 학교에서도 쫓겨난다.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놀이방을 운영하면서도 괜한 오해로 문을 닫게 되고 결국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살림을 이어가던 중 자식이 대를 잇지 못하게 된 걸 알게 된 혁주의 어머니로 인해 곱게 키우던 아이를 혁주의 호적에 올리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혁주는 결국 문경으로부터 자신의 피가 섞인 아이를 문경으로부터 빼앗으려고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다. 결국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편지에 도장까지 찍어 보낸 혁주의 경솔함으로 인해 아이는 문경의 곁에 남게 되었다.

설마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책은 1989년에 초판이 나왔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이야기이다. 소설의 상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여성차별적이며 여성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 그래서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했다. 그러나 30년 전이라면 충분히 일어날만한 일이다. 개정판을 낸 2007년에 쓴 작가의 말을 살펴보니 더욱 이해가 간다. 1989년에 초판을 낼 당시, 여성의 희생이 불가피한 가부장제도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도 비인간화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자 했으며 너무 급진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다고 한다. 또한 법과 제도는 하루아침에도 뜯어고칠 수 있지만 미풍양속이란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켜 온 관습들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님을 경고한다. 그리하여 사회문화가 더욱 발전하여 이 책이 여성잔혹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상황이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류의 영화, 드라마는 아직도 재탕, 삼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결말 - 문경이 법적으로 아이를 되찾음 -에서 희망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려면 여성들 자신도 주인공 '문경'과 같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사단장 죽이기

무라카미 하루키 저, 홍은주 역. - 문학동네. 2017.
문학(800)
성남시 판교도서관 (833.6ㅁ666기 v.1,2)
일본식 기담에 관심이 있는 독자

클래식, 고전, 위스키, 그림, 색에 관심 있는 독자



"화성의 아름다운 운하 이야기" 하듯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는 초상화 화가인 주인공이 일본화의 대가인 친구 아버지 집에 머물게 되면서 겪게 되는 기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의 1편에서는 주인공 일상이 변화되어 친구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이웃들 그리고 기이한 상황들이 쉴 새 없이 펼쳐지고 2편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연결 고리를 맺으며 결말을 맞게 된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일본화의 대가로 나오는 '아마다 도코히코'가 그린 「기사단장 죽이기」에 대한 작가의 끊임없는 언급이다. 책의 제목과 같은 그림을 제시하여 아마다 도코히코의 과거 젊은 시절부터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입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겪었던 상황들을 소개한다. 특히 과거 독일과 일본이 일으킨 세계대전 당시에 휘말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해국 국민으로만 여겨져 온 일부 참전 일본인의 삶에 대해 (피해국 후손으로서) 알 수 있게 된다. 짧지만 강렬하게 묘사되었던 아마다 도코히코 동생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는 피아니스트였지만 징병되어 만주사변이 일어난 시기에 참전한다. 작가는 '그의 삶이 피아노를 치기 위해 사용되었던 손이 총검을 들게 되었다'고 회상하고, 가해국, 피해국을 막론하고 그 안에 휘말려버린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쟁을 묘사하는 "칼"의 등장은 그림 속 기사단장의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피와 희생을 요구하는 도구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클래식을 사랑하고 세간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늙은 화가의 작업실에는 LP판이 가득하고 그 흔한 텔레비전도 없다. 공간은 철저히 내향적이고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다. 그곳에 잠시 거주하던 주인공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피해 잠시 은둔할 수 있었고 결국 원하는 바를 깨닫고 이를 성취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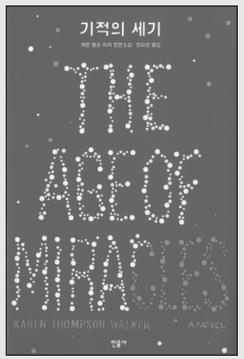
작가의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클래식, 양주(위스키), 그림, 색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작가의 깊은 조예를 엿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소설 속 등장인물의 대화시간, 위스키를 즐기는 장면 그리고 차를 마시는 등의 일상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클래식 음악이다. 다양한 상황에 맞게 음반을 척척 고르는 주인공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작가의 높은 지적 수준을 알 수 있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문외한들은 빈번히 안내되는 명곡들에 의해 장면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기사단장 죽이기」는 중·고등학생보다는 성인이 읽기에 적합한 소설이다. 작품 속 성적 묘사는 주인공의 심리상태를 이해하는데 좋은 단서가 되지만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는 작가의 의도 혹은 이면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기적의 세기

캐런 톰슨 워커 저, 정회성 옮김. - 민음사. 2014.
385p.
일반도서
성인

SF소설이 읽고 싶을 때



당신이 믿고 있던 세계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하루는 24시간이다. 과연 시간이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 해가 뜨고 지는 막연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24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과연 24시간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영원한 것일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익숙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살짝 비틀어 쓴 이야기가 「기적의 세기」이다. 이 책의 내용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하루의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소설 속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슬로잉 현상'이라고 부르고 슬로잉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일조량과 중력의 변화로 식물이 말라죽고 새들은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된다. 고래는 자기장의 변화로 길을 잃고 해변으로 밀려와 죽는다. 사람들 또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상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선택은 다분히 이성적이다. 하루의 시간이 48시간까지 늘어나게 되자 인류에게는 큰 혼란이 닥쳐온다. 갑작스러운 시간의 증가로 인해 교통, 통신, 금융 모든 것이 마비되자 결국 늘어난 하루를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제도'를 유지하는 '클락타임' 제도를 실시한다. 늘어난 하루의 시간과 상관없이 24시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클락타임'제도를 버릴 수 없는 대부분의 인류는 해가 떠 있는 낮에도 24시간 시간 안에서는 밤이 될 수 있고, 해가 진 밤에도 낮처럼 학교에 등교하고 출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실제의 시간을 살아간다. 이들은 '리얼타임'에 따라 산다. 늘어난 낮시간에만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자면서 인류는 두 가지의 다른 시간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소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일까. 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변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에 대한 답을 주인공 줄리아의 행동으로 보여준다. 줄리아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와 노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가 한낱 우주의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짧은 삶은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고, 울고, 견디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이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김영하, 이우일의 영화이야기

김영하 글, 이우일 만화. - 마음산책. 2003.
일반도서 (예술)
성남시 분당도서관 (688.09-ㄱ841기)
성인

재미있는 수필이 읽고 싶을 때



영화인 듯 아닌 듯, 영화 같은 이야기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이 책은 김영하 작가가 초기에 낸 책이다. 지금은 폐간된 「스크린」이라는 잡지, 「씨네21」 등에 기고했던 영화칼럼을 30여 편 모았고 거기에 만화를 곁들인 책이다. 내용은 영화 감상문(?)을 표방하고 있지만 글의 처음부터 후반부까지 영화와 딱히 관련 없는 글이 이어지다가 마지막 5줄 정도만 영화 얘기가 나온다. 서평을 쓰려고 온라인 서점을 검색해봤더니 여전히 판매 중이며 판매순위도 꽤 높았다. 그만큼 이 책은 딱히 영화에 관한 글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민망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촌철살인처럼 정곡을 찌르는 문장이 하나씩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표 소설가가 쓴 글답게 별것 아닌 에피소드인데 구구절절 재미나다.

이 책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글은 책장을 넘기자마자 나오는 '작가의 말'과 작가의 '자기소개' 글이다. '자기소개' 글에 저자는 자신을 '약간 알려진 소설가'라고 칭하고 있으며, 자전거 타기, 몽상, 대화, 쇼핑을 즐겨하며 자신의 소설과는 달리 밝고 명랑한 편이라고 소개한다. '작가의 말'에는 자신이 이 책에 나오는 글들을 연재하다가 잡지사로부터 짤린 이야기와 짤린 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독자에게 띄우는 고별사를 소개한다. 게으르고 무능한 필자에게 반드시 걸려온다는 그동안 수고했다는 전화 한 통을 받고 더 이상 무서운 편집자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신나서 술을 마시고 마포일대 어딘가에서 잠들었다는 무용담과, 그동안 인간 불쌍해서 격려해준 독자들, 뭐 이런 놈이 다 있냐며 열 받은 독자들, 나보다 못한 놈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흐뭇해한 독자들에게 애절한 사랑의 인사를 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작가의 자기소개에서 묘사한 본인의 성격과 같이 밝고 명랑한(?) 고별사를 읽으며 김영하 작가를 달리 보게 되었다. 그 동안 「읽다」, 「보다」, 「듣다」 에세이 시리즈들과 단편소설들을 읽고는 괜한 선입견으로 근엄하고 진지한 작가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이다. 그러한 선입견을 가진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 김영하 작가의 진면목을 알게 될 것이며 이제 그만 소설 쓰고 잡지 칼럼가로 돌아와 달라고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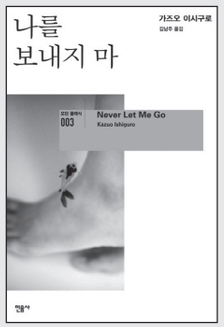
다음으로 재미있는 글은 '영화 좋아하시죠'라는 글. 이 글은 매달 매주 영화잡지에 영화칼럼을 연재하는 작가로서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주장하는 글이다. 가난한 작가의 생활을 염려한 스크린 편집장의 권유로 처음 이 길에 들어섰지만, 명색이 창작자로서 영화를 너무 안 보고 사는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과 1년 내내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었지만, 여전히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고 팩트체크를 하고 있으며 사람 많은 공짜 시사회보다 대낮의 인적이 드문 영화관을 더 좋아한다고 토로한다. 독자에게 "이 글이 영화잡지에 기고하는 글 맞아?", "이러니까 짤렸구나…"라며 작가의 '짤림'을 깊이 이해시키는 글이지 않은가?

그 밖에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법한, 적당히 관객이 들었던 30여개의 영화에 대한 글들은 앞부분을 읽을 때는 절대 영화에 관한 글인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읽게 되는 소설 못지 않게 재미난 글로 채워지며, 끝부분에 잠깐 언급되는 영화 소개하는 글도 촌철살인처럼 독자의 마음에 다가온다. 일부러 짧고 굵게 영화를 소개하려는 목적일까 라는 의심(?)도 해본다. 영화 칼럼 외에 부산국제영화제 탐방기도 소개되는데 어쩌면 별것 아닌 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쓸 수 있는지 감탄을 하게 되며, 칼럼마다 곁들여지는 만화들도 B급 감성 충만한 글과 그림으로 가득하여 이 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라 하겠다.

나를 보내지마

가즈오 이시구로 지음, 김남주 옮김.
- 민음사, 2009.
399p. ; 21cm
문학(800)
안양시 평촌도서관(843.6 가77나)
성인

'인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을 때



어느 날 창밖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서 있다면?

조윤주
(안양시 벌말도서관 사서)

"어느 날 창밖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서 있었다."

어느 날 창밖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면 어떨까? 이 소설은 '인류가 복제인간을 만드는 기술을 지녔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내용이 전개된다. 복제인간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를 위해 복제된 존재로, 탄생 후 보통의 인간 사회와 다른 세계 속에 산다. 헤일셤이라는 등장인물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곳 말이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훈련을 거쳐 복제인간을 간병하는 간병인 역할을 하거나,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이 책을 펼쳤을 때, 이런 설정을 바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이 소설은 주인공 '캐시'의 입장에서 바라본, 즉 복제인간으로서 세상을 봤을 때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캐시는 현재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유년시절을 보냈던 헤일셤 학교에서의 추억들을 떠올리곤 한다. 친구들과 다니며 별것 아닌 일에 수다를 떤 일들, 친한 친구 토미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했던 일, 루스와 잘 지내다가도 이따금씩 싸운 일 등이 캐시의 기억 속엔 있다. 그 모든 감정들이 기뻤던 것은 아니지만, 캐시는 그 감정들이 담긴 헤일셤을 그리워한다. 헤일셤을 나와 간병인이 되기 전에 갔던 코티지에서는 헤일셤 학교 출신들 외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 크리시와 로드니라는 헤일셤 출신이 아닌 친구들은 노퍼크라는 도시에 갔다가 루스의 근원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 캐시, 루스, 토미 셋이 크리시와 로드니를 따라 노퍼크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헤일셤부터 코티지까지 우정을 유지한 캐시, 루스, 토미는 코티지에서 생긴 오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캐시는 간병인이 되었고 루스와 토미는 몇 번의 기증을 한 상태다.

이 책을 읽으며 초반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복제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을 잘 인지하며 읽기가 쉽지 않다. 그들의 일화에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캐시가 헤일셤의 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캐시의 마음속 고향 같은 곳이 헤일셤이기 때문이다. 간병인 생활을 하며 다시 만나게 되는 루스와 토미는 여러 감정이 담겼던 과거의 일을 상기시켜 주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 그저 헤어져 있던 시간을 아쉬워할 뿐이다. 루스는 토미와 캐시 사이에서 들었던 질투 어린 마음을 인정하기도 하는 걸 보면 그들에게도 어리광을 부리는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좀 더 커가면서 성욕에 눈뜬 캐시, 루스, 토미는 자신들에게 나타난 욕망에 충실하거나 당혹스러워한다. 성년이 된 아이들은 헤일셤 출신들에게만 주어지는 2~3년 정도의 '기증 유예' 제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담을 찾아가기도 한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큰 반항은 시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느낀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감정과 욕망을 캐시와 루스, 토미도 느끼고 있었다. 그럼 복제인간과 인간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 소설 속 인물들을 보면 탄생의 방법이 다른 점 말고는 태어난 뒤에는 모두 같은 인간일 뿐이다.

이 책은 무엇이 복제인간을 복제인간으로서 살게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기증의 '완결'을 앞둔 이들은 소설의 후반에 다다를수록 삶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마음속 고향은 타의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 곳이었고, 어릴 적 가졌던 마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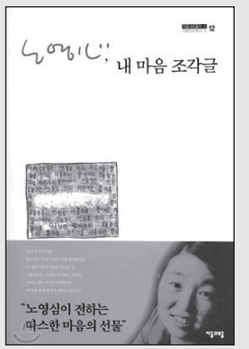
응어리들은 결국 '완결' 앞에서 화해와 용서로 자연스레 녹아내린다. 한때 아이들의 속에 차오른 성욕은 자신의 근원자를 사회의 하급 계층으로 만들어 버린다. 우여곡절 끝에 진실한 사랑을 확인한 캐시와 토미는 기증 유예를 시도해보기도 한다. 고작 2~3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복제인간은 인간을 위해 종속된 운명을 지닌다. 그들이 보통 인간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캐시는 초반에 별 어려움 없이 간병인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간병인 생활의 마지막에 루스와 토미가 떠나가게 된다. 홀연히 노퍼크로 차를 몰고 간 캐시는 그때서야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소설 속에서 캐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큰 반항을 하지 않았고 삶의 큰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던 그녀에게 마지막 간병은 많은 슬픔을 몰고 왔다.

SF장르를 다루는 영화 속 인물들과 달리 캐시와 루스, 토미는 자신의 운명을 크게 거스르지 않는다. 사실 이런 모습이 보통의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운명을 바꾸는 일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고, 헤일셤 교사들처럼 좌절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기도 하다. 추억과 욕망, 그리고 꿈을 헤아리며 살기에도 바쁜 이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이다. 자유가 허락된 시간. 죽음에 초연한 모습을 한 복제 인간들은 임종을 앞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럼 복제인간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복제인간이 오감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 갇혀 삶에 대한 꿈을 지닐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내 마음 조각글

노영심 저. - 자음과모음. 2001.
112p
일반도서
성인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싶으신 분들께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일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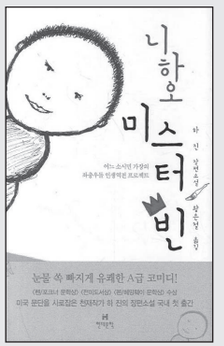
'희망사항', '그대 내게 다시', '이별 없던 세상'의 작사를 쓴 노영심의 글은 쉬운 글이지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따뜻하다. 이 책은 음악가 노영심의 시집이다. 들어가는 말에서 "이 책에 실려 있는 것은 글로 쓴 음악쯤으로 봐 주세요. 저는 노래 몇 곡으로 '가수'로 불리다가, '작곡가'로 불리다가 여기에 언감생심 '시인'이라는 또 하나의 재료가 첨가된 '비빔밥' 같은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 모두가 음악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은 음악이 나인, 그래서 가질 수 있었던 마음의 현상이려니 하고 그냥 넘겨 보아 주시길 바라요." 라고 말한다. 노영심의 시들은 그녀의 머리말만큼이나 순수하고 또 깨끗하다. 지나치게 꾸미지 않고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는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감정들을 순수한 언어로 표현해 낸다.

예를 들면 34세 음력 생일을 맞은 그녀가 자신에게 쓴 편지에서 '나는 좋은 아이이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진실하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아이'라고 표현하기 힘든 나이임에도(물론 아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兒의 의미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내면을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보듬고 인정해준다. 난 아직 20대의 나이이기 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지, 내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일에는 소홀하게 된다. 이 부분은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보

통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가정에서의 역할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정작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본인의 내면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면서 원래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꿈이나 소망이 희미해진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에게 지워진 이름에 충실하게 되는 것. 점점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생각을 잘 감추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짙어져간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감추고 살다 보면 어느새 그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점점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 작가 노영심은 끊임없이 주변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다. 단순히 시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수려하고 완벽한 시는 아니지만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문장들이 오히려 더 시너지를 낸다. 오히려 서투른듯하면서도 소박한 글들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물들인다. 살뜰히 담아낸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들이 아름답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걸까'하고 고민하는 시점에 그녀는 말한다.

니하오 미스터 빈

하 진 저, 왕은철 옮김. - 현대문학. 2007.
263p. ; 20 cm
문학(800)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843하78ㄴ)
성인



소시민 샤오 빈의 인생역전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무모하게 진실을 좇는 사람이 있다. 대충 넘어가면 편할 텐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러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된다. 하진의 소설 「니하오 미스터 빈」의 주인공 샤오 빈이 그렇다.

공장노동자인 빈과 메이란 부부의 아파트 할당을 둘러싼 고민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상적일 것만 같은 아파트 할당제에 부패한 권력이 개입되면서 빈의 분노와 투쟁은 시작된다. 순리대로라면 빈의 차지가 되어야 할 아파트가 뇌물로 환심을 산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것이다. 빈은 비료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마추어 화가이자 서예가이다. 부패권력에 맞서는 방법도 예술가답다.

"사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억제하려고 애쓴다. 요컨대, 진정한 학자의 붓은 선을 장려하고 악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17쪽)

「고대중국사상의 본질」이라고 문구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글은 사뭇 진지하다. 권선징악을 진정한 학자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집을 배당받지 못한 개인적인 울분이 부패한 권력을 벌주는 정의감으로 치환되는 대목이다.

빈에게는 루쉰의 아큐가 떠오르게 하는 면이 있지만 그의 예술적 열정과 에너지만큼은 수준급이다. 권력자들의 부패를 알리기 위해 밤마다 그의 붓은 바쁘게 움직인다. 겁이 없는

데다 상상력과 성실함을 갖춘 예술가의 저항은 권력자들을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한다. “나무가 너무 크면 가구를 만드는 데 쓸 수 없다는 옛말이 있소. 그게 내 운명이오.”라고 할 정도로 자부하는 그의 예술적 재능은 비단 서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물아일체, 호접지몽의 연기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놀라움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이 쇼를 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했다. 어찌 된 일인지 연기를 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무의식적으로 자기망각의 영역을 들어가 어떤 인물이나 대상과 완전한 합일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예술적 성취의 이상적인 상태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중국예술의 역사에서 고대의 수많은 거장들이 강조했던 것이었다. 다시 한 번, 예술적 혼이 자기도 모르게 그를 사로잡은 것이었다.” (221쪽)

중국의 사회상 또한 엿볼 수 있다. “그들이 기억하기로 그처럼 활기가 있고 과단성이 있었던 때는 모든 사람이 밤에 전단지를 만들고 구호를 쓰며 붓을 들고 싸웠던 문화혁명의 초기가 유일했다.”는 구절을 볼 때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적어도 문화혁명 후인 듯하다. 노동자와 간부들의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배추, 순무, 당근을 배당하는 문제를 얘기한다. 한 아이만 낳으라는 국가의 정책을 어기는 사람은 일 년치 보너스도, 이년 동안 급료인상도 받지 못한다. 빈이 밤마다 비리 고발성 작품을 만들어 언론에 기고하고 선거장에서 플랜카드 시위를 하고도 그렇다할 제재를 받지 않는 걸 보면 노동자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었던 듯하다.

저자 하진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출신 작가이다.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며 미국 문단에서 주목받은 이유를 곳곳에 등장하는 천의무봉의 묘사들에서 찾을 수 있다. 아파트 배당에서 제외되어 실망한 아내에게 원망을 들은 저녁, 담배를 피우는 빈을 둘러싼 대기와 소음들은 심란한 마음을 대변한다. 빈의 사건을 조사해서 억울함을 푸는데 도움을 줄 기자 송과 함께하는 장면에서 밤하늘의 달은 구름을 조각내는 은빛 낫이라 비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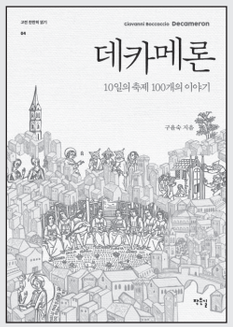
소설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는 해학적이다. 빈과 두 지도자와의 다툼의 과정은 한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다. 빈은 고발하는 글을 써서 점점 상위 감독기관(인민공사 - 현청의 본부 - 북경의 국가평의회)에 보내는 것으로, 두 지도자는 빈을 정신병자 혹은 미친놈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엎치락뒤치락한다. 두 지도자가 하는 일이란 자신의 비리를 물고 늘어지는 한 노동자에게 보복할 궁리를 하는 것이다. 호시탐탐 비웃을 기회만 엿보면서. 서로 육탄전을 벌이고 쌍욕을 하는 건 다반사다. 두 지도자는 참 찌질하다. 빈이 출세하는 걸 막기 위해 정신적,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몰아가다가도 상대가 울부짖으며 저주를 하면 또 겁먹고 어쩔 줄 몰라한다.

빈이 개인의 억울함을 풀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겪는 부조리함을 알리는 방법으로 일관되게 기대는 것은 언론이다. 작은 지역 신문 「환경」에서 시작해 북경의 권위 있는 잡지 「법과 민주주의」에 기사를 싣기 위해 대단한 첩보작전을 펼치기도 한다. 역시 미디어의 힘은 크다. 권력을 갖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언론인 것은 사회주의에서도 마찬가지라니. 사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권력자의 외압과 약자의 편에서 저널리즘을 실현하려는 쪽의 대결구도를 잘보여주는 소설이다.

데카메론

구윤숙 저. - 작은길. 2014.
304p. ; 23 cm
문학(800)
화성시 봉담도서관(883.09-구67e)
청소년, 성인

고전, 쉽게 읽기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들

김보라
(화성시립도서관 사서)

1340년대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페스트. 유럽 인구의 약 삼분의 일 정도가 사망했다. 남녀노소, 계층 고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다. 페스트는 유럽인들의 사고, 종교 및 계급사회 등 모든 상황을 바꾸고 흔들었다. 이전 시대 사람의 활동이 기반이 되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흑사병의 충격적인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지주의 금은보화를 득해 졸부가 되거나, 아무나 성직자가 될 수 있었다. 절대적인 도덕이나 신성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글자에 불과한 시대. 이런 대혼란의 시기를 글로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데카메론」이다.

「데카메론」은 1353년에 완성되었다. 페스트를 피해 시골 별장으로 피신을 하는 7명의 여인과 3명의 청년 총 10명의 젊은이가 열흘 동안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며 총 100개의 이야기를 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제목도 '10일 동안의 이야기'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데카메론'이다. '고전'이라는 타이틀과 선뜻 손에 잡기 어려운 분량의 책이라 읽기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구윤숙이 쓴 「데카메론」은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준다. 작은길출판사의 〈고찬찬〉(고전 찬찬히 읽기) 시리즈 네 번째 책으로, 데카메론의 주요 꼭지들을 작가만의 시선으로 읽기 쉽게 해설해 주어 좀 더 그것에 접근하기 쉽게 도와준다. 작가의 말대로 이 책은 '고상한' 고전이라기보다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좀 별난 산문집처럼 느껴진다. 피렌체에서 골목마다 들려오는 누군가네 집에서 먹거나, 이야기하거나, 사랑하고, 복수한 이야기들을 모아 뒀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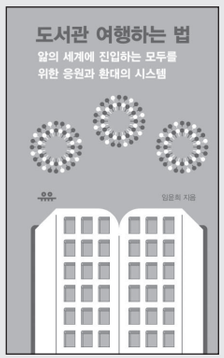
그러나 문학계에서 「데카메론」의 입지가 가볍지 않다. 1348년 페스트가 일어난 당시 역사의 현장에 있는 듯한 묘사들은 리얼리즘 문학의 시초로 볼 수 있다. 무차별적 죽음으로 계급, 종교 등 그간 인간을 억죄던 틀이 파괴되고 혼돈이 된 사회에서 구성원 누구나 욕망을 가진 인간이며, 모두 평등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주인공들이 각자의 시선에서 펼치는 이야기를 통해 넌지시 보여준다. 개인이 부각되고 중요해지는 근대문학의 특징을 이런 구조에서 읽을 수 있으며 거의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죽음, 종교, 에로스, 중세의 왕과 기사, 그리고 민중의 삶이라는 다섯 개 주제 아래 100편 중 24편의 이야기를 추려 소개한다. 원전의 부분을 작가의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였다. 에피소드가 어렵지 않다. 인간의 욕망이란 밖에서 보면 이렇게 유치하고, 가볍고, 원초적이다. 자잘한 성취감으로 행복한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도 행복할 것 같다. 당대 문학계에서는 냉대를 받았으나, 민중들한테 널리 구전되었다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작가의 쉽고 유머러스한 해설 때문에 술술 읽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고전, 쉽게 다가서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

도서관 여행하는 법

임윤희 저. - 유유. 2019.
160p. ; 19cm
총류(000)
안양시 평촌도서관(026 임6619도)
청소년, 성인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관심이 많은 사람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는 사람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고찰

조윤주
(안양시 벌말도서관 사서)

"당신이 생각하는 도서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서관 이용의 경험이 좋았거나 도서관의 분위기를 좋아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저자는 도서관 이용을 즐기던 사람이었고, 외국 여행 중에 도서관의 의외의 모습에 반하여 자칭 '도서관 덕후'가 된 이다. 국내 도서관뿐만 아니라 외국의 도서관까지 섭렵하는 저자의 '도서관 여행'은 어떨까?

저자는 자신의 도서관 여행을 크게 외국 도서관, 국내 도서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폈다. 외국 도서관을 이용했던 경험은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던 도서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모르는 것을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물어보는 것이 익숙한 우리와 달리 외국에서는 도서관 사서에게 가서 물어본다. 아이들의 호기심이 가득한 질문에 대한 답부터 연구자들을 위한 자료까지 준비한다. 책을 출판한 저자들의 감사 인사에는 꼭 자신을 도와준 사서의 이름이 언급된다. 도서관의 서비스 또한 매우 섬세하다. 도서관을 상징하는 로고와 도서관에서 나눠주는 물품을 예쁘게 디자인하는 것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 지 고민한 뒤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나선다. 지역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한 자료실을 꾸미기도 한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도 도서관은 유용한 공간이 된다. 우선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서관들은 여행자들을 위해 지역 안내 지도를 갖추고 지역의 명물을 소개하는 자료들을 비치한다. 정보가 부족했던 여행자들에겐 도서관의 자료들이 여행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도서관에 오는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노숙자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이기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 샤워 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서비스로 모두가 편안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사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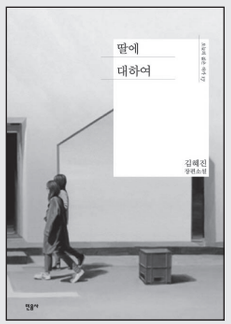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도서관 이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현실을 같이 조명하고 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 편이다. 저자가 도서관의 3요소라 강조하고 있는 사서는 최소 운영인원으로 장시간의 개관시간을 감내하고 있었다. 게다가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형태는 공부하러 열람실을 가거나, 남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고3 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 도서관도 있다고 한다. 도서관에 대한 딱딱한 이미지도 존재하지만, 국내에도 이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도서관들이 있다. 요즘은 현장에서 도서관 이용률을 늘리기 위해 도서관의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다. 수많은 책들 중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도서에 대한 안내를 하는 '북 큐레이션'이라든지, 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직접 책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주제를 특성화하여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음반을 수집하고 들어볼 수 있는 뮤직 라이브러리나 디자인, 여행 등 전문 지식을 다루는 도서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도서관의 문화가 긴 시간에 걸쳐 발전한 것은 아니다. 불과 1980~90년대 까지만 해도 저자는 폐가식 도서관을 이용하곤 했다. 현재는 서고를 제외하고는 폐가식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거의 없다. 목록 카드가 없어지고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책을 찾는 것도 20년 내에 이룩한 일이다. 도서관에서의 소음 허용도 요즘에서야 어린이 자료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아직도 도서관을 '독서실'로 부르는 이들도 있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 도서관 덕후인 저자는 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도서관 이용자들이 공론화하거나 도서관과 관련 있는 출판계에서의 협업 증대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단순히 원하는 책을 이용하던 도서관, 공부하려고 열람실을 갔던 도서관에서 벗어나 보자.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사서의 손길이 닿은 안내문들을 읽는 순간, 익숙한 도서관도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딸에 대하여

김혜진 저. - 민음사. 2017.
214p. ; 20cm.
한국현대소설
성남시 중앙도서관 (813.6 ㅇ367 v.17)
청소년~일반

성소수자들을 이해하고 싶을 때



너희는 가족이 될 수 있어?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첫 번째는 '그린과 그 애(레인)는 가족인가?' 하는 질문이다.

전통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주인공은 도저히 딸을 이해할 수가 없다. 딸에게는 7년 동안 함께 지내온 동성의 '그 애'가 있다. 그 둘은 단순한 친구의 사이가 아니다. 주인공과 딸은 삶의 형태에 대하여 끊임없는 평행선을 달린다.

어느 날, 딸에게 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없으니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더니 딸은 "혼자서는 결정을 못해! 레인과 의논해 볼께!" 라고 한다.

'정말 속이 상해요. 그 애는 왜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노력조차 안 하는 걸까요?'

'엄마, 레인은 내 친구가 아니라고. 나한테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라고. 그냥 내 가족이라고.'

왠지 사회에서 금기시 되고 있는 것을 주인공 자신도 정면으로 보는 것을 피하고자 했으나 딸과 그 애가 자신에 집에 들어와 한 공간을 쓰게 되면서 그들의 삶과 일상을 잔잔하되 치열한 고민을 갖게 한다.

딸의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의 갈등과 대치는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고, 불편함은 계속될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인정하는 것이 낯설고 위험한 것 같으나,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여겨준다면 어떨까. 제목처럼 '너희는 가족이 될 수 있어?'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난, "가족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싶다.

두 번째 질문은 '젠의 노인요양소 생활과 죽음이 어떠한가?' 이다.

젠은 젊어서 미국과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복지사업을 왕성하게 했으며, 얼굴도 모르는 필리핀 소년 띠팟에게 매달 돈을 보냈던 인물이다. 지금은 늙었고, 치매가 심해지고 있으며, 동전만하던 욕창이 주먹이 들어갈 만큼 커지고 있다. 젠이 안쓰럽고, 메마른 슬픔으로 목이 메인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이 되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다. 사회 시스템이 가족 없고, 돈 없으며, 치매 걸린 노인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적 예우도 없이 가혹하고 무뢰하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없단 말인가!

작가는 젠의 이야기를 통해 외면하고 싶은 문제를 직시하게 한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어령 저. - 열림원. 2015.
402p. ; 21 cm
문학(800)
성남시 판교도서관 (814.7ㅇ796ㄸ c.2)
세상의 모든 자녀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책



이상한 새, 이상한 바람, 혹시 너인가 해서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작가는 글을 쓰고 그 끝에 "굿나잇, 민아야"라며 다정한 인사를 건넨다. 어린 아이에게 건네는 굿나잇 키스는 늘 삶에 바쁜 젊은 아빠가 인사하러 들어온 어린 딸에게 잠시의 눈 맞춤과 인사도 하지 못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이제는 떠난 아이에게 건네는 늦은 인사다. 젊은 아빠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일컫는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의 주인공 이민아씨는 2012년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그는 대학을 3년 만에 조기 졸업한 수재였고, 미국에서 부장검사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늘 공부 잘하는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그런 딸이 어느 날 이혼을 하고 자식을 잃고 실명의 위기와 함께 암 선고를 받아 아빠의 품으로 돌아왔다. 평론가로, 대학교수로 그리고 문화부장관으로 정신없이 바삐 살던 아버지는 딸의 실명이라도 막고자 모든 인맥을 동원하며 노력했으나 결국 하늘로 돌아간 딸을 위해 아빠는 딸에게 우편번호 없는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글이 바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이다.

글은 글쓴이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부모로서 딸의 이혼을 봐야 했고, 병명도 밝혀내지 못한 채 첫 손주를 잃어야 했으며 또 다른 손주는 자폐 판정을 받아 늘 마음 졸여야 했다. 그럼에도 활기찬 삶을 살던 딸은 병세가 위독해졌다.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작가는 지난 날 딸을 잉태하던 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기억을 더듬어 시와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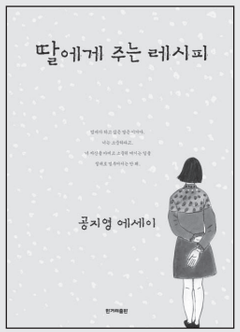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자식으로는 태어났다. 만일 부모가 되어 작가의 상황에 처한다면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전혀 가늠되지 않는다. 글쓴이에게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경황이 없었고, 딸에 대한 애정표현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후회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그래도 저자는 딸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나는 결혼해 너를 잉태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자궁 속 아이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고맙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떠나간 아이를 기억하며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되새긴다.

이 책은 한 아버지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가족과 부모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을 선물해준다. 특히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이해하기에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미혼인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혹시 가까운 가족을 잃은 사람이 읽는다면 고통에 한숨 내쉴 수도 있지만 혼자만 감내했을 아픔을 글쓴이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깊은 슬픔이 옅어지기를 희망한다.

딸에게 주는 레시피

공지영 저. - 한겨레. 2015.
일반도서 (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814.7-ㄱ433ㄸ)
성인

요리와 문학으로 위로 받고 싶을 때



딸에게 주는 레시피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작가 공지영은 문학과 수필을 넘나들며 다양한 글을 써왔는데 이 책은 요리와 문학을 잘 버무린 산문집이다. 27개의 초간단 요리 레시피를 안내해주면서 음식에 얽힌 에피소드와 이제 성인이 된 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를 대비해 응원해주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날엔 시금치샐러드, 자존심이 깎이는 날 먹는 안심스테이크, 세상이 개떡같이 보일 때 먹는 콩나물해장국, 아픈 날에는 녹두죽과 애호박부침, 술 마신 다음 날엔 두부탕, 모든 게 잘못된 것같이 느껴지는 날엔 꿀바나나 ,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파이 등. 냉장고에 있는 간단한 재료들로 1~20분만에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다. 오랜 가정주부 경력(?)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음식들은 저칼로리이고 맛이 강하지 않은(짜거나 맵거나) 요리들이어서 건강에도 무척 좋아 보인다.

세상이 개떡같이 보이는 날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콩나물 해장국을 해 먹어 본적이 있는데 꽤 맛이 있었고 음식을 먹은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파이'의 경우 쉽게 볼 수 없는 참신하고 간단한 레시피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지영 애플파이'로 웹에서 검색해보니 많은 블로거들이 실제로 만들어 본 모양이다. 사과를 얇게 썰어 접시에 깔고 계피가루를 뿌린 다음 밀가루 2, 설탕2, 버터 2스푼을 잘 섞어서 위에 뿌리고 오븐에 15분 구우면 끝이다. 애플파이 레시피는 모두 집에 있는 재료들이니 당장 오늘이라도 공지영이 설명한대로 샤워하기 전에 오븐에 넣어놓고 샤워 후 따뜻할 때 먹어볼까 한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샤워 후 달콤하고 따뜻한 애플파이를 먹으면 나의 삶이 남부럽지 않은 삶임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날엔 시금치샐러드'는 재료도 시금치, 치즈가루, 올리브유 단 3가지이고 심지어는 불을 때는 수고조차 필요 없다. 저자에 따르면 재료를 섞고 치즈가루를 '성질대로' 뿌리면 끝이다. 조금 배부르고 싶다면 오이나 아보카도, 파프리카를 곁들여서 예쁜 도자기 접시에 올리면 손님 접대용 전채요리로도 좋고 바게트나 토스트에 곁들여도 아주 맛있단다. 저자가 일러준대로 샐러드를 다 먹고,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라벤더 오일을 섞은 로션을 온몸에 바르면 이보다 더 좋은 힐링이 어디 있을까?

정성을 들인 요리는 인생이 힘들 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기운을 북돋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감을 높이기도 한다. 우리는 우울해서, 슬퍼서, 행복해서, 즐거워서, 외로워서, 때로는 짜증이 나서 맛있는 음식을 찾는다. 요새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음식들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가끔은 어떤 사람과의 추억이 음식의 맛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식사장면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이 책은 딸이 있으면 딸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인생과 요리이기도 하고, 엄마에게 직접 이야기 들으며 요리를 해 먹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 책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요리를 먹고 자라온 내가 어느덧 아이를 낳아 키우며 남편과 아이를 위해 요리를 하고 있다. 우리 가족들도 내가 해주는 요리를 먹으며 공지영의 책처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음식을 맛있게, 남기지 않고 다 먹기만을 바랬는데 더 나아가 우리 엄마가 이런 요리도 해주었지 추억하며 힘들 때 떠오르는 위로가 되는 요리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다.

뚱뚱해서 행복한 보테로

이동섭 저. - 미진사. 2010.
264p.
ISBN 9788940803837 : 18,000
일반도서
성인

예술을 업으로 삼는 분들



보테로, 볼륨의 세계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페르난도 보테로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화가는 아니지만 그의 작품은 누구나 한 번쯤 봤을 정도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던 '모나리자의 패러디' 작품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의 모나리자는 굉장히 풍만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뚱뚱한 모나리자가 주인공인 작품이다. 다들 쉽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이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이다.

이 책은 페르난도 보테로의 삶과 그의 작품을 통해 그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지 자세히 설명해 준다. 한국에서는 보테로의 작품 중 인물화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보테로의 작품은 인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물까지도 뚱뚱하게 그린다. 그가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는 걸까. 그는 왜 모든 것들을 뚱뚱하게 그리는 걸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보테로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 (그림 속)인물들이 뚱뚱해요? 아닙니다. 그들은 볼륨감이 있는 거죠. 그건 마술과 같고, 아주 유혹적입니다. 저는 현대 화가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볼륨을 되찾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또한 자신의 작품에 특정한 메시지를 담는 편도 아니라고 한다. "사실, 제 작품엔 메시지가 없어요. 내게 그림이란, 특정한 예술 스타일의 측면에서 비롯된 시적인 작업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해 왔어요. 과거의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은 특정한 스타일로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의 환상을 창조해 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작가가 뚱뚱한(볼륨 있는)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자신만의 회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실제로 보테로가 활동한 시대에는 추상미술과 팝아트가 대세였고 당대의 미술가들은 대세미술을 따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보테로는 고전 작품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당시의 유행하는 화풍이 아닌 자신만의 스타일로 승화시켰다. 초반의 그의 작품은 평론가들에게 혹평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보테로는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했다. 현재 그는 미술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술가가 되었다. 그가 성공을 위한 작품을 그렸다면 지금만큼 사랑받는 화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페르난도 보테로가 주는 메시지는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보테로의 풍만한 볼륨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란다.


벨라스케스와의 자화상, 1986, 유채, 218×185cm, 개인 소장

랩걸 :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

호프 자런 글, 신혜우 그림, 김희정 옮김.
- 알마, 2017.
412p, : 천연색삽화 ; 22 cm
순수과학 (400)
안성시립도서관 481.5 자294
청소년 및 성인

식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식물을 키워보고 싶은 사람



사람과 식물의 닮음에 관한 이야기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랩걸」은 '식물'에 관한 이야기일까? 사람에 관한 이야기일까? 랩걸의 작가 '호프 자런'은 글쓰는 일을 업으로 삼는 전문 작가는 아닙니다. 식물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실험실(lab)에서 과학을 하는 여성(girl)이지요. 작가는 미국에서 춥기로 유명한 미네소타 오스틴 지역 태생입니다. 혹독한 날씨 탓이었을까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바깥보다는 아버지가 몸담고 있는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의 실험도구들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던 순간부터 어쩌면 그녀의 과학자로서의 커리어는 시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예비된 운명의 길을 걷듯 과학자로의 길로 들어서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족한 연구기금, 여성 과학자를 바라보는 학계의 차가운 시선, 건강 악화, 임신과 출산 등 숱한 위기를 겪으며 자존심과 과학자로서의 실존성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그녀의 분투는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어쩌면 버텨내며) 버클리, 조지아, 존스 홉킨스를 위시한 그야말로 미국에서 난다하는 공대에서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랩걸」은 과학자로서 어느 정도 커리어가 안정된 지금, 자신의 삶과 연구하면서 알게 된 식물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면에서는 작가 자신의 회고록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 식물에 관한 연구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다 다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식물과 사람(호프 자런 본인)에 관한 이야기가 반반 섞여 있다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식물의 삶.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고 강해지며 결국은 스러지는 모습. 또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처절한 생존 투쟁을 보고 있자면 묘하게 인간의 그것과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 구성의 힘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가 식물의 생장과정(1부 뿌리와 이파리, 2부 나무와 옹이, 3부 꽃과 열매)에 따라 목차를 구성한 후 자신의 삶을 그 목차에 맞게 배치·구성함으로써 나무와 인간의 삶이 얼마나 닮아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작가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때 본인의 눈으로 바라본 의견을 담백하게 전달합니다. 그렇다보니 인간의 사고를 거친 식물에 대한 이야기의 형태를 갖게 되고, 은연중에 식물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됩니다. 저절로 '아! 식물이 정말 인간과 닮았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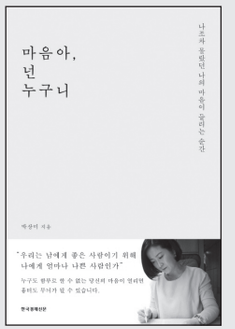
"어쩌다 한 번씩 식물은 새로운 잎을 만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촐라 선인장의 가시는 낚시 바늘처럼 날카롭고 단단해서 거북의 질긴 피부를 뚫을 정도다. (중략) 아마도 최근 1000만년 사이에 어떤 식물 하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파리를 펼치는 대신 가시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촐라 선인장처럼 말이다. 바로 이 아이디어 덕분에 건조한 지역에서 새로운 식물이 터무니없이 크게 자라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98p)

이 문장은 특히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데, 약간은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선인장의 가시가 사실은 나무의 잎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모든 선인장이 가시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아이디어의 확산이었죠. 어느 한 객체가 잎 대신 가시를 냄으로써 사막에 적응하기 쉽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이 확산에 확산을 거듭하다가 일반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선인장이 가시를 낼 만한 이유는 인정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단단하고 날카로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촐라 선인장의 가시는 거북이의 질긴 피부를 찢어낼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선인장의 가시에 잘못 찔려 생명을 잃는 동물이나 곤충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에게만 있을 줄 알았던 '악의의 전염성'을 발견했다면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데도 가시를 날카롭게 벼린 선인장의 선택이, 마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의 상처나 불행 따위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악의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악의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까지 말이죠. 또한 작가는 짧지 않은 과학자로서의 경력에서 자신의 동료와 가족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를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 역시 나무의 상호 의존성(나무는 전염병의 위기에 닥쳤을 때 화학적 신호를 바람에 실려 보내 다른 나무에게 위기 상황을 알려준다고 합니다!)과 매치합니다. 이렇게 세련된 방식을 통해 작가는 궁극적으로 나무와 인간 모두 살아있는 생명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간과 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비록 한쪽은 거의 일방적으로 얻고 한쪽은 잃는 관계지만)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과학적인 내용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어느 과학자의 진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아, 넌 누구니?

박상미 저. - 한국경제신문. 2018.
304p. ; 22cm.
경수필
성남시 중앙도서관 (818 ㅂ2925ㅁ)
청소년~일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법



마음이 열리면, 흉터도 무늬다.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박상미 교수가 쓴 「마음아, 너는 누구니?」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책으로 자연스럽게 치유의 길로 안내한다. 요즘 '마음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관한 책들도 많이 출판되었고, 상담소도 많아졌다. 그러나 그 관심에 비하여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실천은 미비한 것 같다. 안다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상처도 보였다. 열심히 일하며 반백년을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20대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50대가 되면 안정적인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떠오른다. 50대인 지금,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균형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깨닫는다.

작가는 이미 내 안에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몇 가지를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따라 해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첫째, 행동하면 뇌가 따라간다.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의 첫 표정이 하루를 간다고 한다. 그러니 자신을 향해 웃어주자. 스티브 잡스도 아침마다 자신을 향해 웃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긍정의 주문을 걸어보자. 웃을 때 뇌는 긍정성을 발휘한다고 한다.

둘째, 나의 부정적인 습관과 습성을 버려보자. 우리는 살면서 남들에게 지적당하고, 나의 특성을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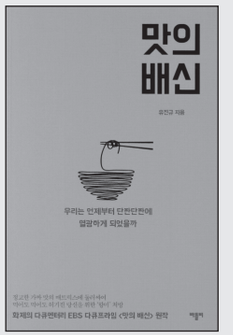
었을 것이다. 내 삶이 왜 이런가 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거나 상처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적질을 떠올려 보기 바란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부정적인 면일 것이다. 이제 그것을 적어보고, 버리려고 노력해 보자. 부정적인 습관과 습성을 버리고 평소 내가 좋아하고 존경할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적어보고 흉내를 내는 것으로 채우자.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고, 완전히 나와 일체하여 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 책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하는 이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작가는 경찰대학교 교양과목을 담당하면서 '더 공감 마음학교'의 대표로 강연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맛의 배신

유진규 저. - 바틀비. 2018.
328p.
일반도서
성인

음식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먹거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



우리가 먹을 것을 선택할 권리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 생물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호흡을 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답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독서를 사랑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책에 담겨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대해 의문을 던져주는 행위. '우리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준다. 유진규가 던져주는 책 '맛의 배신'이 묻는 질문은 '음식'이다.

환경다큐멘터리 전문 PD인 그는 여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동안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먹는 데 집착하고 과식하는 이유를 집요하게 파헤쳐 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쳤던 '맛'에 대한 충격적 진실을 접하고 이 책을 썼다. 우리는 왜 식사 후 배부르다고 하면서 또 달콤한 디저트를 또 먹을까? 그리고 자기 전 왜 또 허기를 느끼고 야식을 먹고, 다음날 불쾌한 기분을 느끼며 잠을 깰까? 그리고 왜 이 모든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는 걸까.

이 모든 질문들의 정답은 '향미'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진화해왔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으면 제대로 음식 맛을 느낄 수 없듯이 향미는 '맛'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현재 우리가 섭취하는 수많은 음식들은 합성착향료에 범벅되어있다. 합성착향료는 실제 바닐라, 딸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 아이스크림, 바닐라 라떼 등 향기로운 달콤함으로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합성착향료의 조합이고 그 조합은 음식 중독을 유발하고 인간의 향미에 대한 민감성을 둔화시킨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진짜 향미'에 대한 관심조차 잃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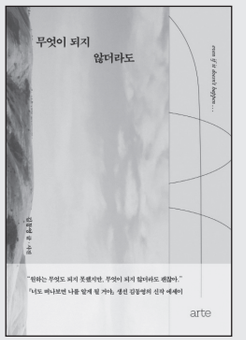
이 책에서 '합성착향료'의 발명은 단지 인공향의 탄생이 아닌 농산물과 우리 식탁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한다. '합성착향료'는 음식 고유의 향을 추구하는 인간의 필수적인 요소를 앗아갔고 농산물 시장은 더 크고 더 빨리 수확하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더 영양가 없고 더 향미가 없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신선한 음식이 주는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과 맛에 대한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스스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김동영 저. - 아르테. 2017.
284p ; 13*19cm.
문학(에세이)
성남시 중앙도서관(818 ㄱ714ㅁ)
일반

책으로 위로받고 싶은 어른



마음이 까끌거리는 당신에게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이 책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는 단순하다. 아등바등 살아가는 중에 눈길은 끈 제목,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때문이었다.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고,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삶이라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무엇"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단상들 속에서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라고 당당히 외치는 이 에세이에 대해 궁금해졌다.

이 에세이는 첫 번째 '살아간다', 두 번째 '떠난다', 마지막으로 '돌아온다'의 세가지 섹션으로 나눠져있다. 여행작가로 알려진 작가가 일상을 살아가다 훌쩍 되도록 멀리 떠나 외로움, 초라함, 고독함을 받아들이고 타지가 익숙해질 무렵, 길을 시작할 때와 그리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작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애매하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으며, 안고 살아가게 되더라도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길 바라며 일상을 살아내라고 위로한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어.
목적도 없이 가던 길을 잃어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조급해 하지 않고
아무리 달려도 늘 제자리일지라도,

이미 자리 잡은 친구들과 비교해 내가 초라해도 주눅 들지 않고
이뤄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꿈을 악착같이 잡고 늘어지며
내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어.

비록 지금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모두 우리가 선택한 것이니까
후회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렇게 잘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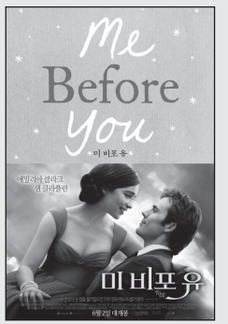
여행 산문집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로 유명한 김동영 작가는 「나만 위로할 것」, 장편소설 「잘 지내라는 말도 없이」를 썼고, 산문집 「당신이라는 안정제」를 주치의 김병수 선생과 함께 썼다. 그 밖에 주방 보조, 자동차 정비, 음반과 공연 기획, 밴드 매니저, MBC FM4U 음악작가 등 다양한 일을 했다. 그 중 델리스파이스 〈항상 엔진을 켜둘게〉를 비롯해 몇 곡의 노래를 공동 작사하기도 했으며, 연남동 인적 드문 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글 작업을 하고 있다.

마음이 흔들리고, 일상을 살아내기에 지친 어른들에게 이 에세이를 추천하고 싶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고, 멈추었다 읽어도 좋다. 여행작가이지만 무조건 여행을 찬양하지도 않고, 마음이 아픈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의 고민을 함께 느껴볼 수 있다. 한 인간의 삶을 옆에서 잔잔히 읽어내고, 함께 위로받길 바래본다.

미 비포 유

조조 모예스 저, 김선형 옮김. - 살림출판사. 2013.
536p. ; 21cm.
로맨스소설
안산시 부곡도서관 (843-모64ㅁㄱ)
사랑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어른들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을 때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면 ?

전진희
(안산시 부곡도서관 사서)

"Happily Ever After?"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 사랑도 시작은 언제나 어렵고, 그 끝은 더더욱 어렵다. 평온하고 따뜻한 사랑도 있지만, 불타오르고 위태로운 사랑도 있다. 현실은 동화가 아닌지라 항상 "Happily Ever After(그 후로 그들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동화같은 결말이 드물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은 두 사람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럴까?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해줄까? 모든 고통과 시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법처럼?

오랫동안, 새로움이란 것은 루이자에게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루이자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오랜 시간 일했던 카페가 문을 닫고, 그동안 곁에 있었던 남자친구와도 위태로워진다. 웨이트리스로 그 자리에 쭉 머물러 있던 그녀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은 간병. 그녀가 간병해야 할 사람은 매우 까탈스럽고, 성격도 안 좋은 사지마비 환자이다. 그녀는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버틴다. 그의 부모가 주는 많은 돈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윌은 살아 있는 동안 매 순간 괴로워한다.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에겐 사고가 남긴 신체의 끔찍한 고통보다도, 자기가 했었던 그리고 앞으론 하지 못하게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고통이 더 컸다. 누구보다도 활동적이었던 그는 좋아하는 운동도, 운전도 다시 하지 못한다. 누구보다도 유능했던 그는,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벗어나고 싶어한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믿기지 않는 현실을.

강제로 일상에서 벗어나게 된 두 사람. 환경부터 성격까지 너무나 다른 이 두 사람은 서로 부딪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이 사랑이 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밤이 오면 밀려오는 윌의 악몽을 루이자가 없애줄 수 있을까?

이 소설은 로맨스 소설이다. 그러나 달콤하지만은 않다. 보통, 우리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야기 속에서는 말이다. 루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을 사랑하고, 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자를 사랑한다. 그러나, 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다.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이.

처음에 만났을 땐 서로의 다름으로 으르렁거리다가, 서로가 가진 상처를 이해하다가, 서로 사랑에 빠졌으니, 막 빠진 사랑에 달콤해야 하건만. 루이자는 그에 깊이 취할 새도 없이 큰 시련을 마주한다. 윌이 오래전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루이자가 이것을 안 순간, 진정으로 시작된다.

존엄사는 비교적 최근부터 논쟁이 되어 온 주제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다. 그럼 죽을 때라도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고 싶다고, 그러나 누군가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한다.

작가는 이 무거운 주제를 로맨스, 사랑과 결합시켰다. 로미오와 줄리엣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죽는 연인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랑은 이뤘으나 고통은 없앨 수 없어서 죽고자 한다. 윌은 루이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층 더 고통스럽다. 그녀를 제대로 만질 수도,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만짐을 당해야 하고, 그녀가 해주는 것을 받기만 해야 하기 때문에.

루이자는 당연히 그가 살기를 바란다. 그가 자신과 함께 있어주길 바란다. 그녀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그가 살아 있는 것, 그뿐이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떤 쪽으로 결말지어질까?

독자가 사랑을,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소설이다. 물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도, 로맨스 소설로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당신이 루이자라면, 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이 죽음을 극복하는가, 죽음이 사랑을 극복하는가?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저. - 문학동네. 2016.
388p.
일반도서
성인

사회에서 함께 지켜 나가야 할 정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책.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이 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인 문유석 판사가 쓴 '소설'이다.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의 모습을 그리되, 그것을 재판하는 '판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그려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소설에서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법정'을 꿈꾸는 초임판사 박차오름 판사와 이를 걱정스럽게 보는 임바른 판사와 꾸짖는 한세상 부장판사, 이 세 인물들이 다양한 재판과 그에 대한 판결을 제시하면서 판사의 역할과 직업적 갈등과 고민에 대해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이 책의 줄거리를 얼핏 보면 '박차오름'이라는 초임 여성판사의 영웅적(?)이야기를 통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소설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소설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정의(定義)'에 대한 가치란 쉽게 정의내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험한 행동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손쉽게 저지르며 살아가는 모습이 소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법정'이라는 목표는 실행가능할까. 강자란 무엇이고 약자란 무엇일까. 설사 강자와 약자가 나뉘어져 있다고 해도 강자는 항상 '악(惡)'이고 약자는 항상 '선(善)'일까? '미스 함무라비'는 판사가 사건을 판단하고 선고를 내리기 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뇌에 빠지는지에 대해 다루면서 이 논제를 단순히 판사의 책무로만 다루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판단하는 일은 어떤 의미이고 그걸 지켜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까'에 대한 좀 더 깊고 넓은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예를 들면, 이 소설에서는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언론과 이에 대해 경계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반 대중들의 모습이 자주 나온다. 가령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수 에피소드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기사보다는 '박차오름' 판사의 외모(이를테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근하는 모습)가 더 화제가 된다. 그리고 대중들은 아주 쉽게 동요된다. 이러한 모습들은 소설 속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낯설지 않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실은 내용까지도 어디서 본 듯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소설 속의 대중들의 모습은 마치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작가는 현실사회의 문제를 불편한 언어로 설득하지 않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또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 에피소드를 보여주며 대중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곳을 보아야 하며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비추며 살아가야 할까. 결국 사회는 개인의 집합이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지하고 바꾸어나가면 된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격언이 있듯 이 소설을 읽는다면 적어도 우린 반은 온 거다. 자, 앞으로의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밥벌이의 지겨움

김훈 저. - 생각의나무. 2004.
일반도서 (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814.6ㄱ995ㅂ2)
성인

밥벌이가 지겹지만 툭 털고 일어서고 싶을 때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도서관의 사서에게 저자 김훈은 친근하다. 왜냐하면 펴낸 책이 많은 편이고, 도서관에서 책 선정할 때 선호하는 각종 문학상을 많이 받은 작가이며, 무엇보다도 작가의 매니아 팬층이 두터운 편이어서 책이 나올 때마다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김훈의 책을 이제야 처음으로 읽게 되었을까? (최근에 김훈의 신작 '연필로 쓰며'를 읽었다) 그동안 김훈의 글이 변한건지 내가 변한 건지 둘 다 변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읽은 모든 글 중에 가장 명료하고 똑똑하게 잘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2004년도에 나온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을 읽어 보았다. 아! 김훈의 글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변한건가 보다. 전에는 김훈의 글이 너무 뼈대만 있고, 설명이 없고, 주제도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설명이나 군더더기 없는 '뼈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건지… 그래… 사람은 변하는 거고 변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예전과 달리 지금은 김훈의 글을 좋아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밥벌이의 지겨움」은 대부분의 글이 재미있었지만 특히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글이 좋았다. 밥벌이는 정말 지겹다. 물론 노동은 신성하고 거룩한 행위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하는 반복되는 일들이 지겹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다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밥벌이를 해야 한다. 때로는 밥벌이 행위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기도 한다. 때로는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하는 밥벌이라는 행위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살고 싶지 않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살이의 모순된 면을 '밥벌이의 지겨움' 이라는 글은 담담하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아련하게 털어놓는다. 글의 마지막 부분을 곱씹어보며 글을 마치겠다.

-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근로감독관들아 제발 인간을 향해서 일하라고 조져대지 말아 달라 (일하라고 보채지 않아도 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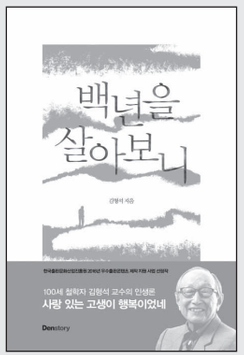
제발 이제는 좀 쉬라고 말해 달라. 이미 곤죽이 되도록 열심히 일했다.

- 나는 밥벌이를 지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밥벌이가 삶의 목표라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게 뭐가 있겠는가. 이 점을 명심하자)
-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밥을 벌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 없다.

백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저. - 덴스토리(Denstory). 2016.
일반도서 (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199.1-ㄱ986ㅂ)
성인

노년기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인 분들



백년을 살고 깨달은 것은…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저자 김형석은 1920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다. 이 책을 펴낼 당시 97세였고 지금은 100세가 되셨다. 저자의 근황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최근에도 강연을 하시는 등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고 계셨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로 일컬어지고 있고, 60-70년대에 철학 관련 저서를 많이 펴냈으며 1960년대부터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저자의 약력을 보고 책이 어렵고 난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기우였다. 읽기 쉬운 편한 문체로 저자 자신의 인생관, 100년을 살아온 소감, 가족이야기들을 담담히 서술하여 읽기 좋다.

100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옛 성인들은 행복이란 파랑새와 같아서 결국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 무소유가 행복이라는 사람도 있다. 명예나 경제적인 풍요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성공을 행복의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여정이 아닐까. 그렇다면 100년을 사신 분은 그 긴 여정 속에, 그 길었던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저자는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장 값진 행복'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100세를 사신분이 하신 말씀이니 믿음이 가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전 세대를 아울러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대부분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한 세대이다. 책의 맥락을 살펴보면 '사랑이 있는 고생'의 의미는 시대적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으나 사랑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여 결실을 거두었다는 뜻인 것 같다. 그래서 불행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한다.

행복한 인생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런데 저자의 결론은 경제력은 인격의 수준에 맞게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인격이 70인데 경제력은 90이면 그 넘치는 20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저급한 인격의 사람이 넘치는 경제력을 소유하게 될 때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은 신문기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그러니 돈과 경제는 결코 행복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마음이 맞는 배우자와 말년을 보내는 것은 당연히 행복한 인생이다. 그런데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 한쪽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먼저 저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말년에 재혼을 하게 되거나, 또는 뒤늦게 각자의 인생을 살고자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주변의 상황, 자식입장, 상대방 입장, 경제적인 부분 등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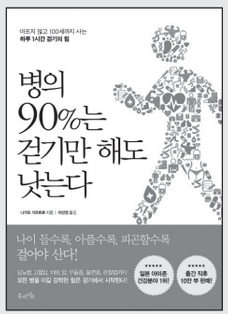
저자는 조선말기,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4.19, 민주화운동 등 한국의 근현대사를 몸소 겪으며 그 현장에 있었고 시인 윤동주, 작가 황순원, 인촌 김성수, 김수환 추기경, 김일성 등 유명인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거나, 일하였거나, 지인으로 알고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 저자가 자서전을 펴내면 꼭 읽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책들을 엮어서 저자의 생각을 담은 책보다는 실제로 역사를 겪은 사람이 쓴 역사책은 좀 더 생생하고 진실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100년을 살았다면 인생에 대한 색다른 소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읽어보니 저자 자신의 인생관, 100년을 살아온 소감, 가족 이야기, 늙어 간다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 겪은 이야기와 저자 자신의 생각들을 솔직하게 서술하여 백세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한다. 100년을 사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나가오 가즈히로 저, 이선정 옮김.
- 북라이프. 2016.
284p,
일반도서
성인

운동을 싫어하지만 건강하고 싶은 사람



스스로 찾는 건강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길어졌다. 그렇다면 사람은 과거보다 건강해졌을까? 물론 물리적인 수명은 늘었을지 모르지만 각종 만성질환, 비만, 암, 우울증 등 흔히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질병들 때문에 현대인들은 오히려 더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곤 한다. 자신들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과 건강한 식단이라는 것을 모두 알지만 실천하지는 못하고 마음속 한 켠에 건강에 대한 우려심을 지니고 살아간다. 우리는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운동의 종류는 참 많다. 헬스, 수영, 필라테스, 요가, 복싱, 주짓수 등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세상에는 다양한 운동이 있다. 이 운동들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일까? 이 책은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적어도 '걷기'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건강에 대한 걱정만 많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피곤하다고 집에서 누워만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일본의 의사 나가오 가즈히로는 '걷기'가 치명적인 질병을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병의 진행속도를 늦춰줄 수 있고 몇몇 질병을 완치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실제로 치매에 걸린 환자가 계속해서 걷기를 반복했을 때와 요양원에서 갇힌 생활을 했을 때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걷기만 해도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지면서 치매가 완화된다. 치매 환자를 걷지 못하게 하거나 사회와의 접점을 차단하는 간병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한다.

작가는 또한 암환자의 경우에도 걸을 수 있는 만큼은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걸어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료를 감당할 최소한의 체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걷기'는 자율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위장의 연동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 시켜준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변비 등 위장과 관련된 질환을 낫게 해준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경제적인 가난보다는 정신적인 가난에 시달리는 사회이다. 이로인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작가는 바로 '걷기'가 어떠한 약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 우울증이란 뇌내의 세로토닌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데, 걸으면 이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은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흔히 병원을 찾는다.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 먹는다. 그래도 낫지 않는다면 병원에 다시 방문해 주사를 맞거나 더 센 약을 처방받아 먹는다. 병이 낫는다면 우리는 다시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 질병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이 아니다. 약물 복용으로 병이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습관적인 약 복용은 오히려 약물 의존성만 높아진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우리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신과 몸이 행복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움직이고 걷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과 건강은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이 책을 읽는다면 그 첫 걸음을 좀 더 쉽게 뗄 수 있지 않을까.

사고루 기담

아사다 지로 저. - 문학동네. 2006.
383p. ; 14.5cm
문학(소설)
833.6ㅇ151사 c.2 (성남시 구미도서관)
청소년 이상

기묘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높은 자리는 무르고 위험하다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사고루'는 자신의 세계에서 나름 최고로 인정받은 이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남에게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모임에서 독을 토해내듯 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책은 총 다섯 개의 기묘한 사연을 묶은 책이다.

'대장장이'에서는 대대로 보검을 감정하는 도쿠아미 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도쿠아미 가문의 이익을 위해 세이소를 가문에 들였다가 내쫓아 버리자, 전설의 장인 세이소가 도쿠아미 가를 비웃듯 옛 보검들을 위조해 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전화'는 첫사랑의 기억을 못 잊는 여자가 평생 첫사랑의 주변을 맴돌며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엑스트라 신베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무라이가 영화 촬영장에 나타나 매번 그가 죽었던 그 날을 반복하는 이야기이다. '백 년의 정원'은 평생 정원을 사랑하다 정원 자체에 마을을 뺏겨 살인까지 하게 되는 여자의 이야기이다. '비 오는 밤의 자객'은 평범한 소년이 끔찍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야쿠자의 오야붕이 되는 사연을 말한다. 위와 같이 기묘한 다섯 가지 사연 안에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낸 비극이라는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고루(沙高樓)는 모래로 쌓은 높은 누각이다. 인간은 언제나 그 높은 누각 너머에 행복이 있다는 듯 필사적으로 오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욕망이 결국 인간을 넘어서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괴물이 되게 한다는 것을 소설의 주인공들을 통해 보여준다.

"신기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보면 모두 진실한데도, 그런 진실된 인간들이 모이면 어째서 이런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그러고 보면, 인간이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신이 만든 가장 열등한 생물이라는 느낌도 드오. 만들어지다 만 생물이란 생각이 들지 않소?"(「비 오는 밤의 자객」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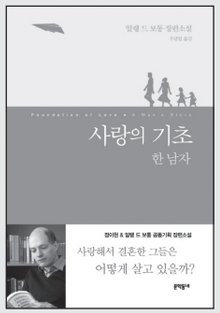
야쿠자였던 특이한 이력이 있는 작가는 '비 오는 밤의 자객'의 야쿠자를 통해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자신의 생각을 위와 같이 읊조리듯 이야기한다.

이 책이 주는 또 다른 재미는 일본의 고유문화와 정신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장장이'에서는 일본 전통문화인 '일본도'에 대해 알 수 있고, '백 년의 정원'에서는 일본식 정원에 대해, '엑스트라 신베에'는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어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사랑의 기초 : 한 남자

알랭 드 보통 저, 정이현 역. - 문학동네. 2012.
191p.
문학
성남시 구미도서관 (808.3ㅅ134)
성인

결혼생활에 지친 사람
사랑의 완결에 대해 궁금한 사람



생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사랑의 기초」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가 어떻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벤은 마흔 살로 중년의 위기를 제대로 겪고 있다. 그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위기감을 느끼며 육체적으로 소원한 결혼생활에서 오는 절망감으로 급기야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고민하는 양가감정의 상황이 그려진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그리고 있다. 책은 총 20가지의 소제목에 주인공 벤이 느끼는 사랑과 결혼생활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사랑의 본질에서는 결혼 전 느끼는 사랑의 감정과 결혼 후 느끼는 사랑에 감정에 대해 그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 씁쓸함을 이야기하고, 감정과 이성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녀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결혼 후 느끼는 다양한 사랑의 변화에 대해 40대 남성의 시점에서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법 배우기에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맛본 안온한 느낌을 자신의 상대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어른의 사랑은 아이일 때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상상해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믿는 기혼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직장에서 치이고, 자녀 양육에 치이다 보면 둘만의 긴밀한 사랑을 느낄 여유는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이라는 감정은 희미해지고 동료애를 느끼며 자신들만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중년 남성의 시선으로 결혼 이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이 책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노력과 희생이라는 뻔한 귀결로 이어진다. 하지만 생판 남남인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평생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 책은 결혼생활의 민낯을 미리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사랑은 변하지만 그 또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이어서 그 변화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를 하게 해 주는 책이다. 다만 이미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씁쓸함을 피할 수는 없는 책이다.

상실의 시대

무라카미 하루키 저, 유유정 옮김.
- 문학사상사, 2008.
514p. ; 23cm
문학 (800)
안성시립도서관 833.6 무292상
청소년 및 성인

소중한 것, 또는 사람을 잃는 고통에 괴로워해 본 적있는 분들에게 추천



상실, 잃는다는 것의 허무함에 관한 이야기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정말 오랜만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읽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독서회에서 이 책을 다루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상실의 시대」를 읽은 것은 2002년, 병역을 마치고 복학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복학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따위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를 찾았던 날이었습니다. 과사무실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나, 녀석의 수업이 끝난 후 같이 점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책이나 읽으며 기다릴 요량으로 학교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자료실 입구에 알록달록한 게시판 같은 것이 있어 무언가 하고 봤더니, 그해의 누적 대출 실적이 높은 책의 목록이었습니다. 대부분 당시의 신간이거나 고전문학이 순위표를 채운 가운데, 놀랍게도 「상실의 시대」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있었습니다. 2002년도면 이 소설이 세상에 나온 지 열다섯 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인기가 높다는 것에 적잖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 서가에 책이 있기에 얼른 대출했습니다. 하지만 「상실의 시대」는 막 군대를 제대하고 넘쳐나는 자유의 기운을 만끽하던 22살의 젊은이에게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세세히 떠올릴 수는 없지만, 작품 전반에 흐르는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와 서로를 좋아한다면서 겉돌기만 하는 주인공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게 떠올려집니다. 또 맥락 없이 펼쳐지는 등장인물들의 정사(情事)에 황당했던 기억도 납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감할 수 없었던 내용이랄까요?

첫 만남 이후 다시 17년이 흘러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을 때, 저의 마음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당시 느꼈던 음울한 불쾌감이 똑같이 느껴지게 될 것만 같다는 걱정과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느 정도 바뀐 지금, 새로운 무언가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두 감정이 묘하게 섞여, 첫 페이지를 넘기는 저의 손을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와타나베가 함부르크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 안에서 비틀즈의 노래 "노르웨이의 숲"을 들으며 시작합니다. 와타나베는 그 음악과 함께 극심한 두통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19살 때의 자신을 회상합니다. 와타나베는 고베(神戶)에서 상경하여 사립대학 연극과에 들어간 19세의 대학생입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 그에게는 '기즈키'라는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즈키는 당시의 와타나베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자살을 합니다. 그 후 와타나베는 기즈키의 애인이었던 나오코와 도쿄에서 우연히 만나 육체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와타나베와 나오코는 기즈키에 대한 어두운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고, 심지어 나오코는 그 뒤 마음의 병을 얻어 교토(京都)의 산속 요양소로 들어가 버립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괴로워하는 와타나베는 도중에 나오코와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미도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코와 미도리의 사랑 사이에서 와타나베는 갈등을 합니다. 그렇게 거듭되는 혼란 속에서 나오코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시 읽는 「상실의 시대」는 '다시 읽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소설의 시작인 함부르크 공항에서 와타나베가 겪는 혼란부터, 이런 장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느낌이었습니다. 와타나베의 혼란이 저에게 전염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과는 별개로 많은 것을 깨닫고 새로이 느끼게 해준 재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키라는 작가의 존재감에 대해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때는 이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을까? 의아할 지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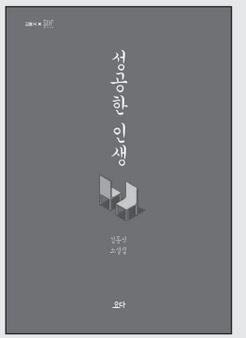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1949년 교토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교 문학부 연극과에서 공부했습니다. 1979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군조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데뷔했고, 1982년 「양을 둘러싼 모험」으로 노마문예신인상을, 1985년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로 다니자키준이치로상을, 1994년 「태엽 감는 새」로 요미우리문학상을 수상했고, 2005년 「해변의 카프카」가 아시아 작가의 작품으로는 드물게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2006년 체코의 〈프란츠카프카상〉을, 2009년 이스라엘 최고 문학상인 〈예루살렘상〉', 2011년에는 〈카탈루냐국제상〉 등 유수의 국제문학상도 수차례 수상했으며, 전 세계 4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됐을 정도로 명실상부한 세계적 클래스의 작가입니다. 하루키의 작품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현대인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상실감을 끊임없어 겪으며 사는 젊은이들의 혼란스러움을 그려내는 데 탁월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상실의 시대」는 하루키의 그런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라는 소설 속 문장처럼, 삶 속에서 반복되는 소중한 사람의 상실 속에서 인물들이 겪는 혼란함과 쓸쓸함을 너무나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저 밝기만 했던 20대 초반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소설의 훌륭함을 지금에라도 느껴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던 것을 지금은 절절히 알 수 있게 됐을까요? 아마도 제가 그동안 상실의 아픔을 겪어왔기 때문인 듯합니다. 좋은 문학 작품은 세월의 흐름을 이겨내고 끝내 살아남아, 결국엔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법입니다. 「상실의 시대」도 그런 자격이 충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실하며, 즉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잃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라도 사랑받을 작품입니다.

성공한 인생

김동식 저. - 요다. 2018.
176p
일반도서
성인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을 찾는 사람



성공한 인생이란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김동식의 「성공한 인생」은 단편 소설을 모아 놓은 소설집이다. 작가 김동식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는 하나 글쓰기에 대해 배운 작가는 아니다. 대학도 가지 않고 액세서리 공장에 취직해 10여 년을 일했다.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 공포 게시판에 창작글을 올리기 시작해 1년 반 동안 300여 편의 글을 썼다. 2017년 소설집 「회색인간」을 출간하며 데뷔했다. 그의 소설을 읽어보면 굉장히 문체가 간결하고 서사가 뚜렷하다. 문학적인 측면보다는 이야기에 집중되는 그의 소설은 쉽고 또 유쾌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들의 핵심을 찌른다.

소설집의 제목이자 첫 번째 단편인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 김남우는 수능 만점을 받게 해주겠다는 귀신에게 자신의 평생의 월요일을 준다. 그리고 또 다른 귀신에게 5급 공무원 시험 합격을 제안받고 화요일을 넘겨주게 된다. 그리고 여배우와 결혼을 위해 또 다른 요일을 넘겨준다. 결국 김남우는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귀신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는 서울대를 나오고 고급공무원으로 살며 여배우를 아내로 맞았지만, 과연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의 소설은 대부분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가벼운 이야기를 던져주지만 그 핵심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성공한 인생'도 귀신이라는 소재로 빗대어 표현한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모두가 원하는 대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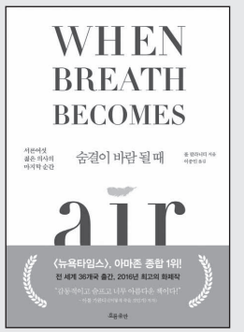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전국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삶을 모두 입시에 바친다. 그리고 이어지는 취업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모두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잣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느라 우리 자신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 난치병에 걸린 환자들을 위한 신약을 일부러 소량만 풀어 놓는 행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완벽한 정의란 존재 하는가', '대중의 의견은 언제나 옳은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을 한 편의 이야기로 전달해준다. 이야기 자체는 우화나 SF형식으로 쉽게 다가오지만 그 후의 떠오르는 질문들은 가슴 한 켠을 묵직하게 한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할까.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과 '행복'은 어떤 의미일까. 이 책은 이에 대한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숨결이 바람 될 때

폴 칼라니티 저, 이종인 옮김. - 흐름출판. 2016.
284p.
일반도서
성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을 때



당신의 마지막 모습

조혜원
(성남시 운중도서관 사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모두 죽는다. 내가 죽는 순간은 언제이며, 그 순간 나는 어떤 모습일까. 죽음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 대답해 주는 책이 바로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 될 때」이다.

폴 칼라니티는 미국인으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고 영국에서 철학 석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이 있던 그는 의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의사의 길을 걷게 된다. 모교인 스탠퍼드 대학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최고의 의사로 손꼽히는 등 그에게는 정말 앞으로의 창창한 미래만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레지던트 생활을 1년 남짓 남길 무렵 말기 암 진단을 받는다. 폴은 죽음에게서 환자를 끌어오던 의사에서 순식간에 시한부 환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늘 인지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당장 내일 사고를 당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사조차 못하고 떠나갈 수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범죄자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은 사람이 태어나는 일 만큼이나 흔한 일이다.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죽음'이다. 그렇게 벼락같이 찾아온 죽음 앞에서 의사 폴 칼라니티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떠났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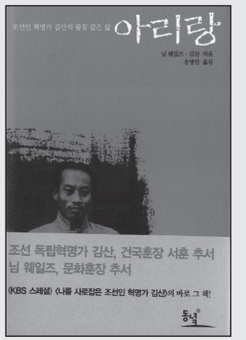
폴은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의 양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남겨진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계획 했고 또 끊임없이 실행했다. 자신의 죽어가는 몸과 시간을 객관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을지 생각했고 또 실천했다. 그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신의 일터로 복귀했다.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도 다시 수술대 앞에 섰고, 최선을 다해 완벽한 수술을 해냈다. 그는 시한부의 몸으로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다했고,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의 뜻과 마음을 에세이를 통해 남겨주었고 또 세상에게 들려주었다.

이 에세이는 이야기의 흐름이나 기승전결이 그리 완벽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글을 쓴 폴의 몸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 호전되기도 하다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암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쓴 글이기 때문에 그의 심리 상태와 생활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약간은 거칠게 진행되는 그의 글에서 생생하게 '죽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죽음이라는 것이 계획한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한다, 죽음은 이런 것이다'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고 글을 썼고 직접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허망하게 떠난 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은 마지막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리랑–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불꽃 같은 삶

님 웨이즈, 김산 저, 송영인 옮김. - 동녘. 2005.
512p. ; 19cm.
정치학 인물
성남시 중앙도서관 (340.99 ㄱ755ㅇ3)
청소년~일반

독립운동가 김산이라는 인물이 궁금할 때



김산의 흔적이 주는 희망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책을 펼치면 그가 살아 숨 쉰다.

1937년 중국 예안의 초여름 어느날, 미국인 여류 기자 님웨이즈와 조선인 독립운동가 김산이 처음 만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를 만나게 된 건 어디까지나 호기심 때문이다. 님 웨이즈는 루쉰 도서관에서 영문책자를 빌려간 사람들의 명단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는 여름 내내 모든 종류의 책과 잡지를 수십 권씩 빌려 가고 있었다.

님 웨이즈 : 이렇게 많은 책을 빌려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사서 : 이 사람은 중화소비에트에 파견된 조선대표입니다. 지금 군정대학에서 일본 경제와 물리,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님 웨이즈 :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서 : 외교부에 가 보세요.

어떤 사람 : 그 사람은 극비대표입니다. 아마 당신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님 웨이즈 : 아하, 그래요(실망)

일주일 뒤, 님 웨이즈의 사무실.

호위 소년병 : 웬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님 웨이즈 : 들어오시라고 해요

임시문으로 사용하던 솜이 든 푸른색 커튼을 학자의 손처럼 야윈 손이 옆으로 밀어젖혔다. 그러자 실내조명을 받으며 크고 인상적인 사내의 모습이 조용히 나타났다.

님 웨이즈와 김산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 이 「아리랑의 노래」라는 작품이 탄생했다.

님 웨이즈의 눈(서양 미국인의 객관적인 눈)으로 당시 조선 사람 김산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세상에 알리는 귀한 자산이 되었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해가던 지식인과 혁명가들, 특히 한국인 독립혁명운동가들은 엄청난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정열과 희망을 드러내고, 증언하지 않고는 못 배길 그들의 총체적 삶을 일부라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당시 미국에서도 공산주의를 철저히 막는 중이어서 금서로 지정되었다가 일본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데 50년이 걸렸다.

이 책을 한국에 소개한 리영희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나와 님 웨이즈의 「아리랑」과(영어판과 일어판의 제목은 「아리랑의 노래」 이나 한국어판은 「아리랑」으로 되어 있음.)의 만남은 지금부터 30년 전인 1960년 봄이었다. 훗날 장지락으로 본명이 밝혀진 주인공 조선 혁명가 '김산'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처음 읽으면서 받은 감동은 그 후 나의 삶의 방향과 내용에 지울 수 없는 크고 깊은 흔적을 남겼다. 「아리랑」을 펼치는 것은 나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지치고 좌절되고 실의에 빠졌을 때는 '김산'을 찾았다. 그는 내게 감히 미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나에게 빛이 되어 주고 힘이 되어 주곤 했다."

「아리랑」은 1953년 일본 조일서방에서 출판한 일본어판이었다. 1959년 가을 합동통신사 외신부 기자로서 미국무성 후원으로 노스웨스턴대학 대학원 신문학과의 6개월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도쿄의 어느 큰 서점에서 찾았다.

또 님 웨이즈가 에드가 스노우의 전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 에드가 스노우가 주로 마오쩌둥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에서 다루지 못한 지도자들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었다.

김산의 전기를 이 책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그녀가 김산에게 느낀 친화감은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여서 마침내 별도의 단행본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은 후 나의 심정을 좀 더 멋지게 표현한 리영희 교수님의 말로 빌리자면 '자신은 학자가 아니라 저널리스트였고 멀리서 '남의 일'을 '관찰'하면서 '연구'만 하는 태도보다는 김산이라는 혁명가의 뒤를 따르는 당사자의 심정이었다.'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아리랑」을 읽으면서 극한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나는 '김산'의 사상가적 지성과 좌절 속에서 더욱 강인해지는 혁명가적 신념에 감동을 받는 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피트니스

류은숙 저. - 코난북스. 2017.
153p. ; 18 cm
문학(800)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818 아36ㅋ 1)
성인

만사 제치고 운동을 해도 되나 죄책감이 들 때



인권운동가, 피트니스에서 깨달음을 얻다

신선원
(수원시 희망샘도서관 사서)

판형이 작은 책은 휴대가 간편하고 읽기에 부담이 없다. 이런 작은 판형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시리즈가 있다. 2017년부터 위고, 코난북스, 제철소 세 출판사에서 함께 만들고 있는 〈아무튼 시리즈〉다. 문장에서 비중 없이 추임새처럼 쓰이는 부사, '아무튼'. 작고 사소한 것들의 재발견이라는 시리즈의 컨셉에 잘 어울리는 단어이다.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라고 책날개에서 소개하고 있다. 각 권의 주제는 쇼핑, 스웨터, 택시, 잡지 등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이다. 심지어 이런 것도 책의 주제가 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구성이라 골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 첫 번째 책이 「아무튼 피트니스」이다.

저자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책도 여러 권 낸 중년의 여성이다. 어느 날 새벽에 찾아온 통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의사에게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고도 '알리바이'용 운동을 하면서 1년을 보낸다. 건강검진을 받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고서야 근력운동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을 한다. 25년여 인권운동을 한 저자는 교육, 자문, 집회 등의 일정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쑤셔 넣다시피 한 운동을 한 달간 하고 나니 몸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얼음판에 미끄러져 깁스를 하게 되어 한 달 넘게 운동을 못하게 된다. 그동안 운동을 향한 그리움을 키우게 된 저자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날 새내기의 설렘을 느낀다. 그렇게 시작한 헬스를 1년 반 동안 하면서 자신과 주변을 새롭게 발견해가는 과정을 이 책에 적었다.

「아무튼 피트니스」는 몸을 매끈하게 만드는 노하우와 방법들을 소개하는 여느 피트니스 책과는 다르다. 중년 여성의 운동 도전기를 쓴 또 다른 책 「마녀체력」(이영미, 남해의봄날, 2018)의 주인공이 철인 3종을 완주하는 것에 비하면 저자 류은숙의 운동 목표는 소박하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빡센 운동이 아니라 뒷산을 마실하듯 몸을 길들이는 운동과 호젓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고도비만에서 과체중이 되고, 숨어 있던 쇄골을 발견하고, 혈압약의 양이 줄고, 원인을 모른 채 숙명처럼 달고 살던 통증이 사라진 것이 1년 반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서 얻은 변화이다. 무엇보다도 학창시절부터 가졌던 몸혐오에서 벗어난 게 가장 만족스러운 변화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활력을 찾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게 된다. 몸에만 신경 쓰는 이들을 폄하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한다. 저마다 사연과 내력이 있으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지 말자면서.

인권운동가로서의 감수성이 개인과 사회에 관한 성찰로 글에 잘 녹아있다. 1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세 번씩 만나던 트레이너 나이스와 헤어지고 트레이너가 자주 바뀔 수밖에 없는 체육관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게 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듣고도 예사로 넘기지 않는다. 특정한 나이를 정상, 표준으로 보고 나이듦을 혐오하는 나이주의에 문제를 제기한다.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 삶을 의미하기에, 늙지 않기를 바라는 대신 나이듦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돈과 시간을 들여 헬스를 하고 있는 자신을 줄곧 해명하고 있다. 농사짓는 후배에게 운동한다는 자랑을 했다가 힘쓸 일도 많은데 왜 거기다 힘을 쓰냐는 핀잔을 듣는다. 힘을 써야 할 중

요한 일이 많지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운동이 즐거워서 힘을 쓰는 사치를 부리겠다고 항변한다. 또 넬슨 만델라의 일화를 통해 운동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평생을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고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는 아흔 다섯에 사망할 때까지 거의 매일 역도클럽에 다녔다. 도피생활 중에도 매일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나 한 시간 가량을 뛰었다. "나의 주된 관심은 연습이었다. 철저한 연습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훌륭한 방법임을 알게 된 것이다. 연습을 격하게 한 뒤에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더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115~116쪽)는 만델라의 태도가 저자에게 최고의 운동 스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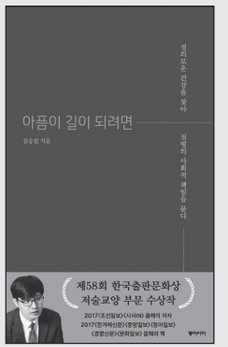
운동은 외모지상주의자의 허세가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고 극복해가는 수련의 과정이다. 운동하는 매순간 통찰과 깨달음이 이어진다. 정확한 부위에 생각을 보내고 움직이라는 트레이너의 말을 몸으로 깨닫는 순간을 경험한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리인 것 같기도 한 그 애매한 짧은 순간에 자기 역량에 솔직해지는 것, 도전할 줄 알면서도 물러설 줄 아는 것, 도닦는 연습이다. 철봉 매달리기와 팔운동을 지루하게 반복한 후에 등과 팔뚝에 힘이 생기는 건 평생 공부와 같다.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선 단어와 문장을 읽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피트니스의 지루함을 반복되는 일상에서 소소한 성취와 기쁨을 찾아야 하는 삶에 비유한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릴 에너지가 생긴다."는 한 마디는 세상을 구하느라 자기 한 몸 돌볼 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이들이 곱씹어봐야 할 말이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저. - 동아시아. 2017.
320p.
일반도서
성인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이 책의 작가는 사회역학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사회역학이란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바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학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질병'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죽음' 등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에 책임이 있다. 이 책은 질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는 책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던져주는 책이다.

1930년대 일본, 레이온 기계를 돌리는 공장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사례가 보고되고 이황화탄소 중독은 흔한 질병이 된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레이온 기계에 대한 규제가 내려졌고 그 기계는 우리나라에 배상금 중 일부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황화탄소 중독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1991년까지 생산되면서 무려 9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 중독 진단을 받는다. 그럼에도 그 레이온 기계는 1994년 중국 단둥시 화학섬유공사에 팔려간다. 우리 또한 그 기계의 위험

성을 알면서도 다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질병을 고스란히 되돌려준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차례로 제시한다. 평범한 삶을 사느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에 대해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많은 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돌아보게 해준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질병을 일으키는 차별과 혐오, 고용불안, 재난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보려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책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힘은 작지만 또 그 개개인 모여 한 공동체가 되고 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제도가 될 수 있고 약속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입을 열어야 한다. 혐오와 차별을 멈추어야 한다고.

어린이와 그림책

마쯔이 다다시 저. - 샘터. 2003.
일반도서 (총류)
성남시 중앙도서관 (598.48-ㅁ226어)
성인

그림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어린이에게 그림책은 어떤 의미인가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먼저 이 책의 저자와 우리나라에서 책을 내게 된 계기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쓰이 다다시이다. 그는 일본의 유명한 출판사 회장이며 그림책의 제작, 평가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또한 엮은이인 이상금 교수에 의하면 마쓰이 다다시는 본인이 이 책 출간으로 인해 받는 저작료를 일제 강점기에 탄압받았던 화성 제암리교회에 헌금하였다고 한다.

이 책에서 크게 인상 깊었던 몇 가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들이 읽은 책에 대해 질문하지 말자. 그림책의 으뜸 가치는 즐거움과 기쁨이다. 어른들이 욕심껏 내세운 잡다한 목적들은 아이에게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는다. 그림책은 어린이에게 한없이 즐거워야 하며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공상은 계속되야 한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내가 재미있는 영화를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염소는 몇 마리야', '이 부분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니',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설명해줄게',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니', '착한 일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지?' 등 책 읽는 도중, 또는 읽은 후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면 아이는 책을 읽는 동안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엄마가 던진 질문이 떠올라 책읽기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야기의 세계로 푹 빠지지 못하고 책읽기의 즐거움이 반감된다. 따라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나면 어린이를 그대로 내

버려 두고 혹시나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더라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둘째, 그림책으로 듣는 언어체험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 책읽기와 글자읽기는 다르다. 스스로 힘겹게 글자로 읽은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보다 다섯 살 어린이가 귀로 듣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쉽고 즐거움이 더 클지도 모른다. 듣는 독서도 잘 못하는 어린이가 많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떠오르는 마음속의 영상을 그리며 책을 들어야 한다. 책 읽는 능력은 상상력에 의해 좌우된다. 상상력은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발전하며 체험의 기회를 가장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그림책이다. 그림책을 통해 반복되어 쌓인 영상 경험이 상상의 질을 결정한다. 당연히 예술적으로 뛰어난 그림이 좋다. 그래서 독서력은 유아기때 얼마나 좋은 그림책을 접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셋째, 그림책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림책의 으뜸 가치는 즐거움과 기쁨이다. 어른들이 욕심껏 내세운 잡다한 목적들은 아이에게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는다. 그림책은 어린이에게 한없이 즐거워야 하며 그림책을 덮고 나서도 공상은 계속된다. 그림책을 어린이에게 읽어주는 행위는 어른과 아이가 정신적으로 손을 잡고 떠나는 여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아이에게 더 빨리 글자를 익혀서 혼자 책을 읽으라고 하지 말자. 그것은 부모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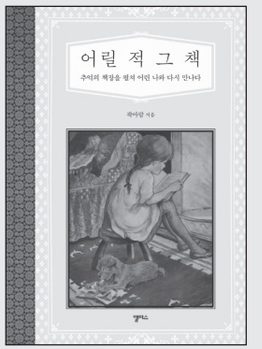
저자는 결국 독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독서는 당장 학교 성적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그 어린이가 한평생 살아갈 인생 성적표에 깊은 관계가 있다. 독서는 공부도 아니고 학습도 아니다. 오히려 놀이에 더 가깝다. 3세부터 시작하여 5-6세까지 책의 기쁨을 알게 된 어린이는 평생 책을 가까이 할 것이다. 프랑스 국립아동도서관 이름이 '책의 기쁨을 위하여'임을 명심하자."

이 책을 읽은 지 10년도 더 되었는데 당시에 좋은 책을 알게 되어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난다. 사서로서 그림책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림책 관련 독서 이론책을 꽤나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은 그중에 가장 뛰어난 보석 같은 책이었고, 당시에 출간된 그림책 관련 책들이 모두 이 책의 아류작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는 모든 어른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다.

어릴 적 그 책

곽아람 저. - 엘리스. 2013.
일반도서 (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809.9-ㄱ436ㅇ)
성인



나를 성장하게 해 준 추억의 책들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가끔은 책을 소개하는 책을 읽는다. 직장이 도서관이지만 책 읽는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책을 통해 좋은 책을 추천받을 수 있고, 책의 내용과 저자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근래에 읽은, 책을 소개하는 책 중에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는 역사서의 역사를 서술했다. 당연히 시대별로 가장 뛰어난 역사책을 소개해주고 역사서의 흐름을 배울 수 있어 역사책 고를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일본의 유명 어린이책 출판사대표가 쓴 「어린이와 그림책」은 어린이 그림책에 대해 고견을 얻을 수 있고 그 책에 언급된 어린이 그림책들은 훌륭한 추천도서 리스트가 되었다.

「어릴 적 그 책」은 1979년생인 지은이가 어린 시절 읽던 책을 찾아 읽으며 자신을 만들어준 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린 시절 읽던 책들은 지금은 절판되어 중고매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소공녀」와 같이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는 책도 있다. 책의 표지를 칼라판 사진으로 삽입하였고 줄거리와 느낌을 소개해준다. 책과 연관된 사연을 소개하고, 책을 다시 구하는 여정, 어릴 적 느낌과 어른이 된 지금의 다른 느낌들도 알려준다. 20권 이상의 책들이 나오므로 적어도 같은 시대 어린 시절을 보낸 독자들은 최소한 1~2권이라도 아는 책이 나올 것이다.

책의 주제와 소재들도 매우 다양하다. 「다락방의 꽃들」 처럼 이런 책을 아이가 읽어도 되

나 싶을 정도로 근친상간이나 학대가 나오기도 하고, 「꿈꾸는 발레리나」와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멋진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와 어린 소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기도 한다. 세계대전을, 거대담론보다는 어린아이들이 배고파하고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을 잃기도 하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으로 서술하는 전쟁 동화책, 「스물네 개의 눈동자」, 「슬픈 나막신」도 있고, 형제가 모험을 겪다가 다른 사후세계에서 만나고자 동반자살하기도 하는 모험 책, 「사자왕 형제의 모험」 등 약 20권 이상의 책들로 구성된다.

어린 시절 읽은 책은 내면을 단단히 구축해준다. 다양한 책의 내용들은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어린 시절, 책의 내용이 세상의 전부인 양 푹 빠져서 읽었던,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해 준 책들을 어른이 되어 다시 읽어본다는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나 자신을 만나보는 것과 같은 것일 듯하다. 물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성들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가 느꼈던 부분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고, 달라진 나의 감성을 반추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든다.'라는 옛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읽어야 할 책 리스트에 이 책에서 추천하는 몇 권을 넣게 되었다. 이번 여름휴가에는 추천받은 책을 통해 80년대로 돌아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르지만 순수하고 수줍었던, 어린 나와 성장한 나를 만나게 하고 싶다.

어쨌거나, 청춘

이보람 글·그림. - 교보문고. 2011.
292p.
일반도서
성인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생각해보면 모두가 청춘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취업 준비를 하던 공시생시절,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루하루를 절실한 마음으로 살았었다. 아침 8시면 도서관에 도착했고, 12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출발하는 하루를 살았다. 살아온 날들에 비하면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나 혼자 뒤처지고 있는 기분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일까 하는 불안함에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수험생인 내 모습이 초라해 고개를 잘 들지 못했다.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 내 자신을 마주친다면 한 번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 "너는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누구보다 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주눅들지 말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아가. 너는 그럴 자격도 있고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다. 우리 세대의 청춘은 그렇다. 다른 세대가 보기에 배고파본 적 없고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세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신을 알아주는 이 없고 어디까지 열심히 해야 할 지 모르는 경쟁사회에서 우리 세대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몰아세우며 살아간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었다 할지라도 행복한 미래를 자신할 수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

이 만화는 이러한 청춘들에게 따스한 미소로 위로를 해주는 책이다. 주인공 현정이는 9급 공무원 준비생이고 친구 대리는 현정이의 절친한 친구다. 현정이를 중심으로 현정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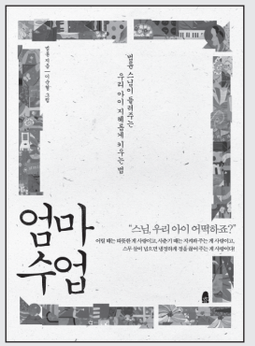
애와 수험생활, 가족과의 에피소드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과 청춘들의 부모님 세대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달해준다. 만화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읽히지만 전달해주는 내용은 어느 장르의 글보다 더 묵직한 감동을 준다. 현정이의 어머니의 재혼, 사귀던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죽음, 친구 대리의 예비 시어머니의 암투병 등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흔한 일들의 과정을 이겨내는 현정이와 주변 사람들의 인간다운 모습이 눈물을 자아내게 하지만 재치있는 유머와 귀여운 그림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짓게도 한다.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과거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일들이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 일이 아니었던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우리는 분명 똑같은 실수를 하며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네 사는 모습이 아닐까.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서로 위로하며, 또 한 번 웃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청춘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모두 현정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바탕 웃고 울면서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엄마 수업

법륜 저. - 휴(休). 2011.
일반도서 (기술과학 양육 500)
성남시 중앙도서관 (598.1-ㅂ754ㅇ)
성인

자녀에게 부모다운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독자



엄마(아빠)가 되기 전에 읽으면 더 좋아요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엄마수업」의 저자는 법륜스님이다. 스님이 쓰신 책이라 해서 종교적인 색채가 있을 거라 짐작하기 쉽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다. 저자가 스님이지만 보통 사람의 윤리를 담은 보편적인 내용을 가진 책이다. 또한 제목이 '엄마수업' 이라 해서 자녀를 둔 엄마들만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엄마, 아빠, 그리고 장차 부모가 될 성인들은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라 할 수 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문장이 있다.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
"자식을 심성이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먼저 부모의 심리가 안정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자식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이 문장을 깊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상에는 다양한 갑을관계가 존재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내가 본의 아니게 '갑'이 되기도 하고, 피치 못해 '을'이 되거나 심지어는 '병', '정'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만큼은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을'이 된다. 본인이 원해서 그러고 있으니 누구를 원망도 못한다. '을 중에 을'이 되었으니 자식을 이기고자 시도해봤자 백전백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을 다스리고 심리를 안정시켜 우선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듯 부모자식관계는

이율배반적인 관계이지만 하늘이 내려준 축복된 인연이며, 어떤 종교 쪽에서는 엄마라는 존재는 신이 모든 인간에게 가까이 존재하기 힘드니까 신 대신 만든 존재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명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때로는 냉정한 사랑)을 주는 엄마라는 존재가 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 본문을 살펴보자.

1장. 자식 사랑에도 때가 있다.

첫 번째 장부터 쉽지 않다.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세 살까지는 헌신적인 사랑을,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며, 사춘기가 오면 지켜봐 주고, 성인이 되어서는 냉정한 사랑을 주자는 내용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천사 같은 아이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퍼붓다가 사춘기가 오면 갑자기 지켜보기만 하고(안보고 떨어져 지내는 게 차라리 쉬울듯하다) 성인이 되면 냉정하게 정을 끊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이다.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하듯 자식 사랑도 타이밍인 것이다.

2장. 부모의 성품이 아이를 물들인다.

내 울타리에 가두려 하지 말 것, 자식이 본인 일은 알아서 한다고 하면 기뻐할 것, 아이를 위한다면 먼저 배우자를 존중할 것, 시행착오 할 기회를 줄 것을 등을 당부한다. 지위와 돈,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세상이 뭐라 하든 엄마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엄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라야 나중에 결혼해서도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권한다.

3장. 공부 스트레스가 아이를 망친다

당신은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아이에게 엄마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그런데 자식을 자신의 욕망을 대신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요."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좀 놀아라."라고 받아주면 아이도 공부에 대해 심하게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성적 가지고 지금 놀 때야?" 하면서 자꾸 야단치거나 강요하다보니 점점 더 공부가 싫어진다. 또한 중학생이 되면 공부만 강요하지 말고 부모의 어려움과 고통도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아이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다 보면 오히려 더 빨리 성숙하고 어른이 된다.

4장.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마음 닦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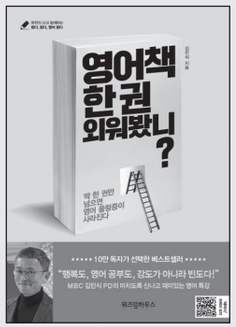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핵심은 미움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부모가 화를 많이 내면 자식이 그것을 대물려 받고 자식은 그것을 손자에게 물려준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 부모 자신의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면 결국 부모가 나쁜 사람이 되고 부모가 나쁜 사람이면 나도 나쁜 사람의 자식이라 종자 자체가 좋을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무의식중에 자기 긍정성이 생긴다. 이렇게 내 상처가 치유되면 자식에게도 따뜻하고 너그러운 부모가 될 수 있다.

저자는 본문의 내용에 드문드문 옛 우화를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해주고, 엄마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해주는 등 진정한 부모로서의 마음공부를 하게 해준다. 내 경우도 부모가 되기 전에 알았다면 더 좋았을 내용이 대부분이고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김민식 저. - 위즈덤하우스. 2017.
292p.
일반도서
성인

영어공부 방법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사람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



목표를 이루는 방법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한국 사람에게 '영어'란 어떤 의미일까? 초등학생 때부터 정규 교육과정에서부터 배우는 과목이지만 정작 10년이 넘게 배우고도 외국인을 만났을 때 말 한마디 거는 게 참 어렵다. 모든 한국인이 겪는 문제 아닐까? 졸업 이후에도 취업시험, 승진시험 등을 위해 평생 영어를 배우지만 왜 우리는 영어를 잘하지 못할까. 한국의 영어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지만, 이미 이렇게 받아온 교육방식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는 영어를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이 책의 저자는 공대를 나와서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드라마 PD가 된 사람이다. 삶의 경험으로 배운 영어와 그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보여주면서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부여와 학습방법을 소개해준다.

작가는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은 과에 가서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기 위해 영어를 공부한다. 오롯이 독학으로 이뤄낸 영어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통번역 대학원까지 진학한다.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본 미국 드라마 '프렌즈'를 보고 한국의 '프렌즈'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방송국에 입사하게 된다. 그리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방송국장님이 보던 아카데미 시상식을 동시통역하게 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꿈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게 되고, 그 기회로 시트콤 '뉴논스톱'을 연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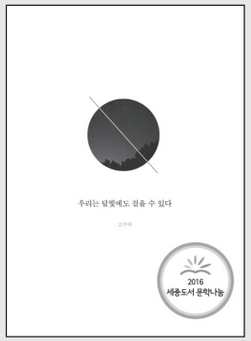
작가가 영어공부를 했던 이유는 불확실한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확실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취미 삼아 하는 공부라면 그냥 즐겁게 해도 되겠지요. 하지만 인생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공부하고 싶다면 무조건 책을 외우세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단계별로 책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 준다.

우리의 목표가 반드시 '영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진정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인생을 바꾸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 책은 단순히 '영어 학습과 관련한 책'이라기보다는 영어공부에 빗대어,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이뤄가는 방법에 대해 쓴 책이다. 이제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고수리 저. - 첫눈. 2016.
284p.
일반도서
성인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드라마는 어디에나 있다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그리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 나의 경우에도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날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날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직장을 가고, 학교에 가고 정해져 있는 일상들을 살아내면서 느끼는 고단함 때문이리라. 그럼에도 우리는 소소한 일들에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아니, '때문에'일지도 모르겠다. 만약 나를 둘러싼 나의 삶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은 방송작가 고수리 씨가 'KBS 인간극장'의 대본을 쓰면서 생긴 에피소드와 일상생활의 귀퉁이들을 모아 엮은 에세이집이다. '인간극장'의 다큐 특성상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보는 장면이 많은데 이 책은 '인간극장'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일화와 작가의 일상에서의 소소한 일들을 짧은 단막극처럼 이야기를 풀어낸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 낯설지 않다. 에세이 속의 작가의 가족들과 친구들, 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언제나 곁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실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준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고, 사랑을 잃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그게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게 삶을 채워나가는 방법이다. 서로 사랑하며 기억하고 또 다시 살아가는 것. 그 순간들을 위해 우리는 때로 불행을 함께 이겨내기도 하고 지루한 일상을 버텨내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가 버텨내는 순간들을 왜 버티고 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각자는 '삶'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자. 뻔하디 뻔한 말일지 몰라도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자주 잊곤 하니까. 이 책을 읽을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고 또 떠올리며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란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김혼비 저. - 민음사. 2018.
277p. ; 20cm
예술(600)
안양시 평촌도서관(695.4 김95ㅇ)
성인

운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을 때



운동에 매료될 시간을 갖는다는 것

조윤주
(안양시 벌말도서관 사서)

운동신경이 좋지 않았던 탓에 학창 시절의 체육 시간을 떠올려보면 운동장보단 벤치에 눈길이 가곤했다. 나뿐만 아니라 '운동'을 즐길 줄 몰랐던 친구들은 대부분 벤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을 좋아했고, 축구나 농구를 하는 남학생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운동장에서 허락된 시간에 충실했다. 그렇게 운동장을 사용하는 건 주로 남학생, 벤치에서 수다 떠는 건 주로 여학생이었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는 운동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질문한다. '우리는 정말 운동을 싫어했던 걸까?' 그 질문을 통해 사실 우리는 어떤 운동에 매료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음식이나 음악, 영화 등에 대한 호불호는 정확히 인지하지만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운동신경을 발휘했을 때 쾌감이 드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은 축구에 대한 흥미를 느낀 저자가 축구를 시작하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다. 저자가 축구를 시작했을 때의 느낌은 총체적으로 '드라마 같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의 연습량이 경기에 출전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해 출전을 마다했지만, 실전을 참가해봄으로써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음을 깨닫고 경기를 출전하게 된다. 만화 '슬램덩크'에서 나오던 특훈(특별훈련)이 주인공의 성장을 도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기합보다 더 폭력적이었다. 축구를 하는 사람이 혼자서 한두 해 연습하는 것으로 멋있는 스킬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TV를 보며 '저 선수 왜 저렇게 축구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실전 경기에서 더 도움이 되듯이.

운동을 하는 게 드라마같지 않은 것은 축구에 임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에서도 알 수 있다. 축구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지만, 어쩌다보니 축구팀에 합류한 사람들도 많았다. 프로 축구에 관심을 가져서 팀에 합류하게 된 저자와는 달리, 축구를 하는 순간에만 축구에 대한 관심을 쏟는 팀원들도 있다.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도 저자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축구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축구는 축구를 피상적으로 좋아하고 여자들에게 맨스플래인을 시도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축구로 인해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던 나날들을 간직한 사람들의 것이다. 경기장의 관중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90분의 경기 시간 동안 집중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닐까.

'축구'를 즐기는 여자 축구팀과 그들의 대결 상대인 노인 축구팀원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축구 선수의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임을 알 수 있다. 조만간 삶의 끝을 마주하더라도 축구 유니폼 속의 등번호를 간직하고 떠나는 노인 축구팀이나, 여자 축구에 대한 무시 속에서도 현실에 굴하지 않고 축구 활동을 이어나가는 여자 축구인들을 통해, 고정관념과 상관없이 자신을 위한 취미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아하고 호쾌한 일인가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인가 :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의 기록

프리모 레비 글, 이현경 옮김. - 돌베개, 2007.
340p. : 20cm.
일반도서 (문학)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중888-레48ㅇ)
고등학생 이상 성인

전쟁의 참상을 알려줄 때
역사를 알고 싶을 때



선과 악, 옳음과 그름

김현주
(수원시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사서)

프리모 레비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유대계 화학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 파시즘에 저항하는 지하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당해 아우슈비츠에 수용, 1945년 토리노로 돌아왔다. 1947년 수용소의 삶을 기록한 첫 책, 「이것이 인간인가」, 1963년 수용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담은 「휴전」(돌베개, 2010), 1986년 유서와도 같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돌베개, 2014)를 발표한 후 1987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 '수용소 3부작'은 나치의 폭력성과 수용소 안에서 벌어졌던 현상들을 가로지르는 기억과 고통, 권력 관계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제목을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가해자인 나치를 향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더할 수 없는 폭력성과 비인간성을 나타내는 나치들을 지칭하는지, 수용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인간 본능에 충실하며 동물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지 헷갈린다. 작가는 수용소 생활 이후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진다. 예를 들면, 수용소에서 체계를 세워 실천하여 동물이 되지 말아야 할지, 체계가 없는 것에 적응하며 본능에 충실할지의 의문과 가라앉은 자(죽은자)와 구조된 자(살아남은 자) 중 어느 쪽이 진짜 증인들일까? 라는 의문. 이런 기억과 의문의 고민들이 그를 우울증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까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레비는 "수용소는 생존을 위한 투쟁 상태에 놓인 인간이라는 동물의 행동에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실험장이다"(p.132)라고 한다. 궁핍과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 앞에서는 수많은 사회적 습관과 본능이 무용지물이 된다. 특히 같은 수용자들 중에서도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인간상은 슬프면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들에게 학습된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은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되며 그들을 비사교적이고 무례한 괴물로 만든다. 수용생활의 말미에 레비도 화학실험실에서 일하면서 일종의 특권을 누렸는데, 이는 생존 후 그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자유를 되찾았을 때 생존자들에게 남은 것은 그 체제에 저항하지 않고 옆자리의 동료의 도움을 외면했던 수치심과 죄책감이었다. 레비 자신도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고 살아남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어 40년을 고민하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펴내지 않았을까.

작가와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경우도 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1999)가 그렇다. 영화의 배경도 이탈리아, 주인공도 유대계 이탈리아인으로 같고 다만 온 가족이 다 수용소에 간다는 설정만 다르다. 영화 속에서 수용소의 모습과, 노동, 가스실 등의 상황이 전개되는데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 책 속의 상황을 조금은 상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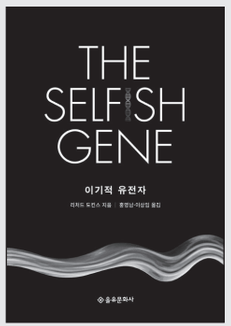
인간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가했을 때 이성적으로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비처럼 생각을 지우고 본능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것이 전쟁의 참혹함이다.

작가는 이 책을 인간 정신의 몇몇 측면에 대한 조용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썼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한다. "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이라는 단어가 수용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지 한 번 생각해보라고."(p.130)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저, 홍영남, 이상임 옮김.
- 을유문화사, 2015.
543p. ; 22cm.
생물학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모476.1 ㄷ82ㅇ)
청소년~일반

내가 누구인가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



이기적 > 이타적 유전자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참으로 어려울 수 있는 책을 선택했다. 사서다 보니 문과적 함양이 더 많은데, 다방면의 책을 접하고 가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는 기질 때문에 읽는데 고생을 했다.

학창시절에 생물에 대한 이해가 나름대로 높았고, 빨랐으며 재미도 있어서 이 책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저자의 학문에 대한 깊이는 따라갈 수 없을만큼 풍부하여 어려움을 느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이해가 짧다는것도 조심스럽게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리쳐드 도킨스가 자신있게 내민 「확장된 표현형」(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루지 못했던 지식을 기술한 책)에 또 도전하고픈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다윈의 진화론 이후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술했을뿐 아니라 유전자가 객체를 통해서 복사하고 전달하게끔 하는 진정한 생태계 주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기에 흥미를 당기기 때문이다.

「이기적 유전자」는 1976년에 초판을 발행하여 1989년에 개정을 한번하고 30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반박하거나 문제제기를 했어도 지금까지 저자가 수정을 하거나 개역을 한 적이 없다. 이제 「이기적 유전자」는 정설이 되었다. 저자는 지금까지 출판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주역을 보충하여 출판은 했어도 논리가 틀린적은 없었다고 한다. 다윈의 계보를 잇는 생물학계의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본다.

'밈-새로운 복제자'를 소개하는 11장에서는 생물학의 학문적 확장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 같았다.

"새로이 등장한 수프는 인간의 문화라는 수프다. 새로이 등장한 자기 복제자에게도 이름이 필요한데 그 이름으로는 문화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명사가 적당할 것이다. 이에 알맞은 그리스어 어근으로부터 '미멤 mimeme'이라는 말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진 gene(유전자)'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한 단음절의 단어다. 그러기 위해서 위의 단어를 밈meme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이렇게 단어를 정의하고 밈의 복제적 형태와 특성을 설명하는데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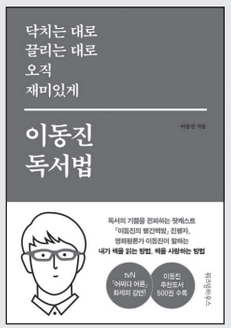
이 책을 쓴 리쳐드 도킨스도 대단하지만 한국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번역한 분들에게도 경의를 표하게 된다. 각종 생명체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영국에서 사용하는 학명을 한국에서도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하였다. 역자홍영남은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이학박사를 학위받았다. 또다른 역자인 이상임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까치의 번식 성공과 자손 성비의 연간 변이'로 박사학위를 받고 생명과학부 행동생태 및 진화 연구실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이기적 유전자」는 2010년에 개정판으로 26쇄를 발행, 2015년에 36쇄를 발행한 것이 최근으로 40년이 가까이 오는데도 전혀 세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최신 발표한 사이언스 주제같이 신선할 것이다. 더 깊이 있게 소개하지 못하여 안타깝지만 이 책은 독자의 앎에 대한 욕구를 즐겁게 해주는 그 이상일 것이다.

이동진 독서법

이동진 저. - 예담. 2017.
202p. ; 19 cm
총류 (000)
안성시립도서관 029.4 이25ㅇ
청소년 및 성인

독서(혹은 책)에 관한 나름의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



어느 지독한 독서광의 애정 어린 참견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독서에 관한 나와 너의 고민

사람은 왜 책을 읽는 걸까요?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에 답할 깜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럼 일단 질문의 폭을 좁혀볼까요? 너는 왜 책을 읽는 거냐? 대답하기 쉽네요. 바로 '재미있으니까'입니다. 네. 저는 책이 재미있기 때문에 읽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미란 재미가 있어야 하는 법! 문제는 재미를 제일 우선 가치로 두다 보니 독서이력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책보다 더 재미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저에게는 두 차례 정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0살 무렵 친구를 따라 간 읍내 오락실에 마음을 뺏겼을 때였고, 대학생 때 알게 된 PC 게임의 세계에 빠져들었을 때가 두 번째였습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탐닉을 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위기 때는 스스로도 이러다가 게임중독자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위기감이 들 정도로 무섭게 빠져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냈고, 독서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준 길잡이는 역시(다름 아닌) 책이었습니다. 책이 주는 재미는 등대의 등불처럼 은근한 끈기로 저에게 돌아올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마도 책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게임이라는 칼립소에게 붙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분명한 진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재미를 위해 책을 읽다 보니 독서의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단순히 독서를 취미로만 삼는다면야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서로서 누군가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 주는 것이 일종의 의무가 된 지금, 이는 나름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명색이 사서라면 독서의 폭도 좀 넓어야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책을 사랑하는 이라면 아마도 (독서에 관한)저마다의 고민 한 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해답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지요.

독서에 관한 작가의 애정 어린 참견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 「이동진 독서법」(예담)은 바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동진은 영화평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모 일간지에서 영화 관련한 글을 쓰는 기자로서 십 수 년을 근무했습니다. 작가로서 적지 않은 책을 집필했지만 저자의 본업은 어디까지나 영화와 관련한 일입니다. 그런 그가 독서법에 관련한 책을 냈습니다. 영화평론가가 뜬금없이 독서법 관련한 책을 낸 데에는 '빨간 책방'이라는 책 소개 팟캐스트를 오래도록 진행해 온 경험과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작가 자신이 (자타가 공인하는)엄청난 독서광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작가가 독서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런저런 생각과 풍부한 독서 경험에서 찾은 다양한 팁을 자유롭게 풀어놓은 글입니다. 1부에서 우리는 많은 위안과 함께 독서에 관한 새로운 방향 정립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넓이의 독서', '느리게 읽어도 상관없다', '책을 숭배하지 말아요', '때로는 도전도 필요하다' 등과 같은 장은 평소 독서에 관해 사람들이 느낄 법한 고민에 대해 속 시원한 해답을 들려줍니다. 특히 좁은 독서의 폭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았던 저에게 '때로는 도전도 필요하다' 장에 나와 있는 다음 글귀는 적잖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독서를 즐기는 것과 어려운 책에 도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책을 통해 지적인 성취감을 얻는 동시에 독서력에도 도움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 다른 책을 훨씬 더 즐겁게 읽을 수 있거든요. 가끔은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의 책에 도전해보세요. 일단 시작해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힘든 일은 아닐 겁니다."(68P)

2부 '읽었고, 읽고, 읽을 것이다'는 〈씨네21〉의 이다혜 기자와 나눈 대담을 담은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결국 1부의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색다른 내용은 없다고 할 것이나 아무래도 형식의 차이에서 오는 친근감과 이해의 수월성이 있습니다. 3부는 작가의 독서 이력 속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책 500권을 뽑아 놓은 목록인데요, 내가 읽은 책이 있나 없나를 찾아가면서 읽는 재미가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듯해서 제법 쏠쏠합니다.

물론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정답일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와 닿지 않거나 공감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완독에 관한 집착이 있는 저로서는 완독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꼭 완독해야 하나요' 같은 장은 왠지 탐탁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나 하고는 전혀 맞지 않네!' 한다면 그 뿐입니다. 그냥 작가와 독자와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입니다. 이 책이 독서에 관한 일종의 방법론인 만큼 저런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아마 작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염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엄청난 독서이력을 자랑하는 작가가 독서에 관한 자신의 애정을 담아 펴낸 이 책은 읽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어디까지나 꼰대의 훈장질이 아니라, 같은 취미를 가진 포괄적 의미의 친구로서 당신에게 전해주는 애정 어린 참견이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피에르 바야르 저, 김병욱 옮김. - 여름언덕. 2008.
237p. ; 19 cm
문학(800)
안양시 평촌도서관(809 바63ㅇ)
성인

책을 많이 읽었지만 모르는 책에 대해서도
아는 체하고 싶을 때
진정한 독서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



진정한 독서란 무엇일까?

조윤주
(안양시 벌말도서관 사서)

진정한 '독서'란 무엇일까?

1년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어야 많이 읽는다고 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이 10명 중 4명의 비율이라는 요즘, 우리가 일주일에 한 권씩만 읽어도 1년에 약 50여권을 읽게 되고 주위에서는 '너 책 좀 읽는구나?'하는 눈빛으로 볼 것이다. 하지만 한 해 출판되는 책은 약 7만 권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책을 읽는다 해도 1,400분의 1 가량 읽는 셈이다. 과연 한 해 동안 50여권을 읽는 것이 책을 많이 읽은 것이라 할 수 있을까?

현대인의 삶은 바쁘고 독서권수에 비해 출판권수가 엄청나게 많아 모든 책을 다 소화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책에 대해 아는 사람'이고 싶을 때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책을 읽는 행위는 지성인 이미지로 이어진다.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책 잘 읽는 방법」이란 책을 내면서, 독서의 이유는 '있어 보이려고'라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중에는 책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읽고, 잘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책들이 많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처럼 '읽지 않은 책'을 논하는 책은 없다. 그래서 덥석 이 책을 골랐다. '어떻게 읽지도 않고 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저자는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해야 하는 '독서의 의무', 책을 정독해야 하는 '정독의 의무', 책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는 '정확해야 할 의

무'와 부딪치며 독자들이 독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책을 읽지 않는 행위 즉, '비독서'임을 강조하고 비독서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눈다. 책을 전혀 읽지 않은 경우, 대충 훑어본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경우, 읽었으나 내용을 잊은 경우이다. 이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문학작품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며 이렇게 책을 안 읽는 것에 대해 당당한 이들이 있다면서 '비독서'에 대한 예찬을 시작한다.

비독서의 유형에 이어 저자는 이런 '비독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순간에 대해 역시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사교 생활 중, 선생 앞에서, 작가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야기 속에서 비독서가들이 어떻게 자신의 '비독서력'을 발휘하였는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비독서력을 굳건히 할 4가지 대처 방안도 문학 작품 속 캐릭터들을 예시로 들며 제시한다.

이 책을 읽고 '아, 이런 방법으로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아는 체를 해야겠다!'라고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책은 비독서에 대한 내용을 살피며 '진정한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비독서의 유형 중 '책의 내용을 잊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도 앞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다시 읽게 되는데,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과연 내용을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온다. 몇몇 외국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너무 길어 앞에 메모지를 부착해 이름들을 적으면서 봐야 좋은 것들도 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 틈틈이 읽는 경우 혹은 책을 읽다가 말았는데 오랜만에 책갈피가 꽂힌 부분부터 읽으려 하면 앞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도 꾸역꾸역 완독을 하고 나면 이 책을 '읽은 책'으로 간주하는데 과연 이것이 '읽은 책'일까? 몇 개월 지나면 대략의 스토리만 머릿속에 남고 주인공의 이름이라든지 세세한 책 속의 장치들은 기억이 나지 않게 되는데 말이다. 이 경우를 통해 우리의 독서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을 전혀 읽지 않는 경우'를 통해 오히려 독서가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에 나오는 사서는 책 한 권에 연연하지 않고 책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기 위해 책의 제목과 목차 말고는 읽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독자는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들을 위주로 읽기 때문에 비슷한 스타일의 책을 보는 경우가 많다. 고전을 안 읽는 사람, 비문학을 안 읽는 사람, 문학을 안 읽는 사람, 과학 도서를 안 읽는 사람 등 자신의 취향에 따라 책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시간이 없고, 1주일에 한 권을 읽어도 많이 읽는 시대에 관심이 없는 책을 읽겠는가? 이런 선택이 오히려 편향된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모든 책을 다 읽어서 박식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시간 제약이 많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런 비독서의 환경에서 우리는 좀 더 당당하게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담아 말해보면 어떨까? 그것이 비독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자전거여행1

김훈 저. - 문학동네. 2014.
일반도서 (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814.6-ㄱ995ㅈ2)
성인

우리나라 산천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김훈의 글로 들여다보고 싶을 때



자전거를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온다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어렸을 때는 자전거를 타면, 불어오는 바람과 주변에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좋았다. 어른이 되니 불어오는 바람과 주변에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도 좋지만, 자전거로 인해 멀리 갈 수 있는 확장성이 마음에 들었다. 걸어서는 가기 힘들고 차를 타고 가기에는 좁은 길들을 자전거는 멀리 멀리 데려다 주었다. 게다가 자전거는 휴대하기도 비교적 편리하고 자동차처럼 매연을 남기거나, 덩치가 크지도 않다. 대신 적당한 칼로리를 소모하여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적당한 속도는 나를 기분 좋게 해준다. 자전거는 굴 속 같은 자동차와는 달리 탁 트인 세상에 나를 노출시켜주고 지나는 사람들을 직접 맨눈으로 관찰 할 수 있게 해준다.

가족이나 지인 등과 함께 할 때가 많은 자동차 타기와는 달리 자전거는 나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디로 갈 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지, 멈출 지, 갈지, 언제 쉴 지 내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점들로 인해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평일에는 자전거 타기가 힘들고 주로 주말에만 자전거를 탄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전거를 타고 멀리 여행 가 본 적은 없다. 계획만 세울 뿐 실천에 옮기지 않는 이유는 집근처 자전거 길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훈 작가님이 쓰신 자전거 여행 1권을 읽으면서 자전거 여행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 책에서 작가는 남해 여수, 섬진강부터 구례, 소백산, 광릉수목원, 여의도 잠실, 강원도 고성까지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자전거로 여행했고 그 풍경들을 가슴과 머리에 와 닿게 친절하게 묘사해주었다. 책을 읽고 나면 그곳들을 가보고 싶어진다.

그곳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나무와 나뭇잎, 강물과 연못과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 노인들을 만나고 싶어진다. 자연은 자연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 잘 모른다. 그런 점들은 자연과 생명들을 직접 가서 느껴봐야 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나 기차로 여행지에 도착하여 계획대로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를 타고 맨몸으로 바람과 향기를 느끼며, 발길가는 대로의 풍경을 친구삼아 사람 다니는 길을 따라 다니는 것이야말로 여행의 진정한 재미가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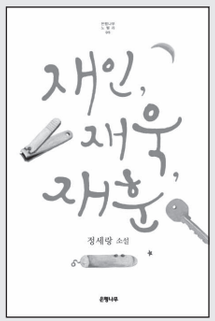
작가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될 것이지만 특히나 기억나는 부분은 책의 뒤쪽에 소개되는 섬진강 근처의 임실군 덕치면에 사는 아이들 이야기이다. 머리에서 햇볕냄새가 나는 마암 분교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 책의 백미이다. 물고기의 생리를 잘 아는 아이들, 학교에 등교하면서 각자 자기 집에서 키우는 돼지들을 걱정하는 아이들, 외래종인 배스를 낚시로 잡아 개밥으로 줄줄 아는 아이들, 일기장에 온통 '새', '꽃', '개', '옥수수', '나무' 같은 단어로 채울 줄 아는 아이들은 아름다운 섬진강변에 살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다.

전교생 17명인 이 작은 분교에서 매일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솟아오른다고 한다. 사랑이 있고 죽음이 있고 가난과 슬픔이 있고 희망과 그리움도 있다. 아름답고 신나는 아이들 이야기에 못지않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사연들도 그곳의 자연만큼 신비하고 풍요롭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나. 이 책을 마음에 품고 우리나라 여행을 다닌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 코로 들어오는 향기들, 손에 닿는 것들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리라.

재인, 재욱, 재훈

정세랑 저. - 은행나무. 2014.
172p. ; 19cm.
소설
안산시 부곡도서관 (813.7 정54ㅈ)
성인

누군가를 구하고 싶은 사람
일상 속 영웅을 만나고 싶은 사람



소소한 영웅들

전진희
(안산시 부곡도서관 사서)

"누군가를 구하는 일은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특별한 경험이야."

올해, 유명한 히어로 영화 시리즈가 끝났다. 이런 히어로 영화 속 영웅들은 도시를, 지구를, 우주를 구한다. 각자의 사연과 힘을 안고, 목숨을 걸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재인, 재욱, 재훈 삼남매도 그런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즐겨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물론 최첨단 강철갑옷을 얻은 것도, 무한히 재생하는 신체를 얻은 것도 아니다. 그들이 다 같이 칼국수를 먹고 얻은 듯한 능력은 소소하다. 첫째 재인은 손톱깎이가 고장나고 벤치가 긁힐 정도로 강력한 손톱, 둘째 재욱은 위험을 감지하면 붉게 변하는 시야, 막내 재훈은 엘리베이터를 조정하는 능력을 얻었다.

이 능력이 왜 생겼는지,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게다가 각자에게 뒤이어 도착한 정체불명의 소포 속 물건과 'SAVE'라는 단어와 함께 적힌 숫자는 그들을 더욱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이 숫자대로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 지방으로, 해외로 각자 흩어진 세 남매는 이러한 상황을 서로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각자의 일상에서 자신만의 전투를 치르기 시작한다.

히어로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영웅들에겐 영웅 탄생의 비화가 있다. 유전자 조작 거미에게 우연히 물려서 초인적인 힘을 얻은 피터 파커. 그는 도주하는 도둑을 그냥 보내버렸는데 그에게 벤 삼촌이 공격당하여 사망한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벤의 말을 되새기며 그제서야 진짜 '스파이더맨'이 된다.

그러나 세 남매는 그런 시련을 겪은 적이 없다. 물론 매번 여자와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다를 반복하는 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지도 아래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랐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색이 조금 이상한 칼국수를 먹은 것뿐이다.

그들은 철보다 강한 손톱과 위험을 감지하는 시야와 엘리베이터 조정 능력으로 도시와 나라와 지구와 우주를 구하지도 않는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현실의 히어로, 영웅은 그런 비현실적인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단 한명이라도 위험으로부터 지켜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웅이 아닐까.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도. 극악무도한 빌런을 무찌르는 게 승리가 아니라 존재들을 구해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영웅적 행동이 아닐까.

이 소설 속 인물들이 영화 속 히어로들과는 달리 사소한듯 특별한 능력으로 주변인들을 구해내는 것도 그런 이유다. 강력한 힘으로 우주를 구해내는 것은 실제 사람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소소한 힘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들은, 이 정도라면 실제 어디엔가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엄청난 규모의 영웅 판타지가 아니라 소소하고 따뜻한 구조자의 이야기. "히어로까지는 아니라도 구조자는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재욱이 한 이 말은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 구조자는 많을수록 좋다고. 영화 속 히어로들처럼, 아니 소설 속 세 남매처럼 '어떤 능력이 있지 않아도 우리도 누군가를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조심

정민 저. - 김영사. 2014.
294p. ; 22 cm
문학 (800)
반달어린이도서관 818정38ㅈ
청소년 및 성인

마음을 닦고 싶은 사람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
잔잔한 인생 처세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



내 마음의 주인

이연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반달어린이도서관은 매월 넷째 주에 '다산 독서모임'을 진행한다. 4월에 선정하고 토론하였던 책이다.

「조심」은 마음을 잘 붙들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의미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성취를 얻어도 쭉정이의 허망한 삶이니 옛글을 거울로 삼아 세상과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사자성어로 된 백 편의 글을 모았다고 한다.

저자 정민은 한양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모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등 옛 선인들의 지식과 지혜를 연구하고 이를 다수의 저술로 남기고 있다.

이 책은 대의보다는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삶을 가꾸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국가와 세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조언도 빠뜨리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밑줄을 그으며 읽게 된 깨달음과 통찰의 책이다. 평소 무슨 일이든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은 끝장을 보아서는 안 되고, 말은 다 해서는 안 되고, 복은 끝까지 누리면 못쓴다. 한 자락 여운을 남겨두라는 석복수행(惜福修行)의 조언이 나의 마음을 울렸다. 욕됨도 묵묵히 참아야 하고 좋은 일은 그저 없음만 못하려니 생각하라는 다소지분(多少之分)은 삶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통하고 탁월한 것은 기이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할 따름이라는 겸손의 자세도 마음에 와닿는다. 내가 비록 백번 옳고 저가 비록 백번 그르다 해도 서로 끊임없이 공격한다면 벌써 더러운 것과 결백한 것이 같아지고 만다는 것에서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물러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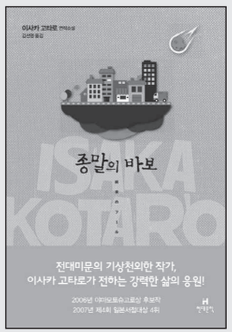
책을 읽고 나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 제대로 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 한 켠으로 버겁다. 하지만 책을 읽고 사유하고 나눔으로써, 바른 방향을 향해 한걸음 내딛는다면 봄 날씨 같은 마음을 조금은 붙잡을 수 있을 않을까.

"십년 독서(무목적의 온축 속에 큰 안목이 생긴다) : 이걸 배워 어디 써먹고 저걸 익혀 돈 벌 궁리 하지 않는 오직 독서를 위한 독서의 시간이다. 그 무목적의 온축 속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터진다."(본문 중)

종말의 바보

이사카 고타로 저, 김선영 옮김. - 현대문학. 2015.
378p. ; 20cm
문학(800)
안양시 평촌도서관(833.6 이52종)
성인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을 때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조윤주
(안양시 벌말도서관 사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그때까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문득 TV를 보니 8년 후 소행성과의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이 소설은 그 뉴스가 나온 지 5년 뒤, 종말까지 3년이 남은 시점의 일본 센다이 힐즈타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한번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라면 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대부분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우며 미래를 상상하지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는 가정을 해보며 어떤 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인지 되새겨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이 소설의 설정은 다소 특이합니다. 지구 종말은 5년 전에 예견되었고, 앞으로 지구 종말까지는 3년이 남았습니다. 뉴스에서 지구 종말 소식을 전하자마자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강도가 판을 치다가, 5년이 지나니 세상이 다소 잠잠해져 종말이 가져다주는 패닉은 수그러듭니다. 이 시점에서 작가는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줍니다. 왜 애매하게 3년이라는 시간을 설정한 것일까요?

이 소설은 '종말의 바보', '태양의 딱지', '농성의 맥주', '동면의 소녀', '강철의 울', '천체의 돛배', '연극의 노', '심해의 저주' 등 8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편이 센다이 '힐즈타운'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단편의 내용은 평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일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가정불화가 심각했던 가족이 화해하는 일, 불임인 줄 알았는데 임신이 된 부부의 이야기,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을 품는 일, 애인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체육관에서 체력 단련을 하는 이야기, 오랜만에 대학 친구를 만나 대학 시절 관심을 가졌던 일에 대해 되새겼던 이야기, 진짜 가족이 아니지만 진짜 가족인 양 타인에게서 안정감을 느끼는 일,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일. 이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봄직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지구 종말'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좀 더 특별해집니다.

이 책의 단편들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나뉩니다. '종말의 바보', '심해의 지주'는 권위적인 아버지로 인해 상처받은 자식들이 종말을 앞두고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화해를 하는 내용입니다. '농성의 맥주'와 '천체의 돛배'에는 과거 죽은 자신의 가족을 대신해 복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태양의 딱지', '동면의 소녀', '강철의 울', '연극의 노', '심해의 지주'에서는 3년 남은 시간을 나름의 방식으로 알차게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편들을 통해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시간을 위해 그동안의 묵었던 갈등을 해소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시간이기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3년이 길든 짧든 새 생명은 태어나고, 한 소녀는 연애를 꿈꾸기도 합니다. 킥복서는 매일 자신을 단련하던 체육관에 나가 운동을 하고, 연기를 꿈꿨던 이는 현실에서 누군가의 가족을 연기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달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하는 와타베는 연체된 비디오를 받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들 성실하게 무언가를 하는 걸까요? 시간의 설정이 생각이 납니다. 지구 종말 소식을 들은 암담한 시점에는 삶에 대한 성실함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의 시간이 다 지난 종말 3년

전의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란의 시간을 겪고 이성을 차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로 지구 종말을 맞이하기엔 긴 시간이니까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지구 종말이 예견된 이후로 삶에 성실함을 보여도 종말예견 이전과 이후가 같지 않습니다만, 강철의 킥복서 '나에바'는 종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체육관에 옵니다. 그는 종말이 오기 전부터 이미 '종말'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바 군은 내일 죽는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배우는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했다.

"똑같습니다." 나에바 씨의 대답은 쌀쌀맞았다.

"똑같다니, 뭘 할 건데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로 킥과 레프트 훅뿐이니까요."

"그건 연습 얘기잖아요? 아니, 내일 죽는다는데 그런 짓을 하겠다고?"

재미있네, 하고 배우는 웃었다고 한다.

"내일 죽는다면 인생이 바뀝니까?"

글자라서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나에바 씨의 말투는 분명 정중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의 인생은 몇 년짜리 인생입니까?" (215p.)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나오기 쉬운 답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해보는 것일 겁니다.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돈을 펑펑 써본다든지 등의 일들이요. 하지만 나에바의 말을 보고 나면 인생이 좀 더 의미 있기 위해선 꾸준함이 필요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8편의 등장인물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왜 하루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선 소행성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이런 지구 종말이 찾아오진 않겠습니다만,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잠시 잊었을 때에 종말을 앞둔 센다이 힐즈타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새겨 볼만합니다.

종의 기원

정유정 저. - 은행나무. 2016.
383p. ; 21cm
문학(소설)
813.6ㅈ4545ㅈ (성남시 구미도서관)
청소년 이상

인간 본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



내면의 '어두운 숲' 들여다보기

이선희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정유정 작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한 국내 몇 명 안되는 작가이다. 그녀의 작품은 치밀한 인물묘사 및 배경설정 등 철저한 구상을 바탕으로 작품 세계를 구축한다. 그녀의 작품 중 「28년」에서는 '박동해'로, 「7년의 밤」에서는 '오영제'로 철저한 악인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주변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마저 파괴한다. 작가는 그녀가 그려온 악인들은 모두 이 책의 주인공인 '유진'이에게로 도달하고자 했던 과정이라고 밝혔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 우리의 본성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 '어두운 숲'을 안으로부터 뒤집어 보여줄 수 있으려면, 내 안의 악이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점화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가는지 그려 보이려면…. 결국은 '나'여야 했다고.

작가가 언급한 대로 「종의 기원」은 악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유진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인간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반복을 낳게 된다. 그것이 타인에 대한 상해이든 살인이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익과 생존이다.

어느 날 유진은 온몸이 피 범벅된 채 침대에서 깨어난다. 당황한 것도 잠시 유진은 거실 피 웅덩이에서 어머니의 시체를 발견한다. 그리고 드문드문 살아나는 기억을 맞추어 보며

자신이 지난밤 어머니를 죽였던 것을 기억해 낸다. 그 후 그는 차례차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해하며 봉인돼있던 살인자로의 각성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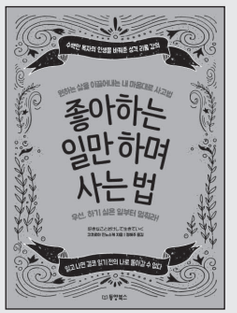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체자로서의 '나'로 살인하는 행위에 대한 생생한 묘사이다. 그가 사냥하듯 밤거리에서 여인들을 쫓을 때나 첫 살인을 하고 짜릿해 하는 과정,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죄의식은커녕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린 것에 대한 분노 등 일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살인자의 머릿속을 보고 있는 듯한 세세한 살인의 과정에 대한 묘사는 우리를 빠져들게 한다.

'악인'은 분명 존재한다. 유진이처럼 악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악인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저마다 '어두운 숲'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악의'가 나를, 내 주변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사는 법 : 원하는 삶을 이끌어내는 내 마음대로 사고법

고코로야 진노스케 저, 정혜주 옮김.
- 동양북스. 2016.
235p. ; 21 cm.
철학(100)
성남시 운중도서관 (199.1ㄱ394ㅈ)

사직서를 옷 속에 품고 다니지만 제출할 생각은 없는 직장인
직장 생활은 힘들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정년 퇴직해야 하는 직장인



혹 하는 제목에 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임지혜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회사로 향하는 출근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직장인 이라면 고코로야 진노스케의 「좋아하는 일만하며 사는 법」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19년간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심리치료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후 심리 상담사의 길을 선택했고, 「약해지지 않는 마음」,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 「나를 믿는 용기」, 「마음에 구멍이 뚫릴 때」 등의 다수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저자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직장인들이 겪었을 만한 상황들을 모두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 이유", "하기 싫은 일을 멈추고 즐거운 인생을 만드는 비결", "나를 가로막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방법",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는 방법" 등에 대해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사와의 관계, 휴가 내는 방법, 책임감 등에 대해 언급하여 직장 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가정, 학교 혹은 직장에서 배워왔던 "노력"에 대한 작가의 범상치 않은 시각은 독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주입되었던 "상식"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들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작가는 자신의 감정 그대로 솔직하고

시원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책이 주는 즐거움은 여러 사회 관계 속에서 꼭꼭 감춰왔던 감정을 표출시켜 준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 사이에 꽂혀 있어도 책등 제목만으로도 독자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참지 말고 일단 말해보라'는 저자의 독자적인 상담 스타일은 인내심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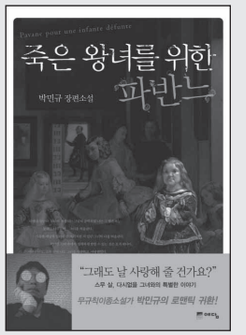
하지만 독서를 할수록 거북한 문장들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나쁜 남자는 여자가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쁜 남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어떤 여자와 사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가치가 없는 사람)가 되고 싶은 여자가 붙어 있으면 나쁜 남자가 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자는 '피해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한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저자의 주장대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여자가 세상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반문해봅니다.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사람과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글쓴이의 발언은 옮긴이가 번역을 잘못한 것인지, 독자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심한 생각입니다. 생각할수록 기분 나쁜 이 문구를 통해 저자는 정말 '자기 하로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진정한 본인 글대로 사는 사람이네' 하고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글도 모든 독자를 이해시키거나 동감을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샐러리맨들의 암담한 현실에 대해 적나라하게 조언해 주는 작가의 청량감 있는 글들은 퇴사를 결심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 권해주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우연히 서가에서 이 책을 만나게 된다면 통독하지 말고 책과 목차를 읽는 수준에서 잠시 위로 받기 바랍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박민규 저. - 예담. 2009.
420p, ; 21cm.
일반도서
성인

삶의 이유를 찾고 싶을 때
한 편의 사랑이야기가 보고 싶을 때



당신은 어떤 빛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조혜원
(성남시 운중도서관 사서)

이 소설은 소설가 박민규씨의 아내의 물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제가 아주 못생긴 여자라면 말이죠. 그래도 절 사랑해 줄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소설이다.

이 책은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최초의 소설이다. 비단 소설의 주인공이면 당연히 멋지고 아름다울 주인공을 상상하기 마련인데,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은 배우인 아버지를 닮아 아주 잘생긴 남성인 반면, 여주인공은 너무 박색이어서 한번쯤 놀라 다시 돌아볼 만큼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다. 세상에는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랍도록 못생긴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둘의 조합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 그만큼 잘생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해야 하다는 인식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토록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 설득력을 주기 위해 작가는 남주인공의 어머니가 박색이었고 그로 인해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어머니의 대한 연민의 감정을 여주인공에 대한 호감으로 표현해낸다. 둘은 그렇게 그의 호기심부터 출발하지만 둘만의 이야기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의 사랑을 채워간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에 열광한다. 인간은 모두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모두가 아름다워지고 싶어한다. 사람의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을 끊임

없이 부러워한다.

남녀 주인공이 유원지에서 하루를 보내는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한다. '이왕 태어났는데 저건 한번 타봐야겠지, 여기까지 살았는데… 저 정도는 해봐야겠지, 그리고 긴긴 줄을 늘어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버리는 것이다. 삶이 고된 이유는 어쩌면 유원지의 하루가 고된 이유와 비슷한 게 아닐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자신의 행복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유원지의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3분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3분이 실은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도 허비한 시간이 아까워 행복한 척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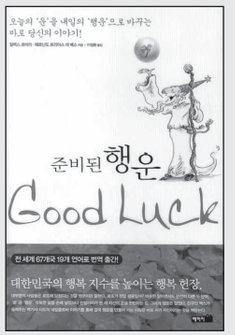
이러한 바보 같은 세상에서 작가는 "우리 손에 들려진 유일한 열쇠는 '사랑'입니다. 어떤 독재자보다도, 권력을 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강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략) 와와 하지 마시고 예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의 빛을 서로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더이상 부끄러워하며 부러워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빛을 밝히고 또 서로에게 비춰주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빛을 보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은 그것만으로도 짧은 삶이다.

준비된 행운

알렉스 로비라, 페르난도 트리아스 데 베스 저,
이정환 역. - 에이지 21. 2006.
141p, ; 21cm
일반도서
성인

헛된 행운을 좇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준비하는 법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이 책의 내용은 짧고 간단하다. 한 노인이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어린 시절 이웃에 살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 친구는 하는 일마다 '운'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하자 노인이 친구에게 한 이야기를 해준다.

그 이야기는 한 왕국에서 시작된다. 한 왕국의 마법사가 기사들을 불러모아 행운의 클로버를 찾아오라는 임무를 준다. 넓고 위험한 숲에서 행운의 클로버를 찾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기에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기사는 백기사와 흑기사 단 둘뿐이었다. 그 둘은 숲에 가서 숲의 정령들에게 클로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령들의 대답은 절망스럽게도 숲에는 행운의 클로버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 백기사와 흑기사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한다. 흑기사는 클로버가 없다는 말에 좌절해 마법사를 원망하느라 클로버를 얻지 못하지만 백기사는 클로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결국 클로버를 피워낸다.

참 읽기 쉬운 우화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쉽게 전달해준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과 행동들이 그저 반복되는 것만 같고 아무런 발전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목표와 희망을 잊으면 안된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가 '수저'일 것이다. 흔히들 금수저, 흙

수저라고 하는데 이는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자본주의에서의 계급을 뜻한다. '수저'라는 단어는 부가 대물림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는 없다고 하며 자조하면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포기하며 살아야하는 걸까. 'N포세대'라는 단어에 맞게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한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 나는 우리 사회와 개인이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클로버 씨앗을 발견한다면 그 씨앗을 키우고 피워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클로버를 키워낼 수 있는 '씨앗'이다. 적어도 사람들이 씨앗을 틔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씨앗' 정도는 모두에게 공정히 배분될 수 있는 사회. 그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와 공동체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며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오길 간절히 바래본다.



지리산 행복학교

공지영 저. - 오픈하우스. 2010.
일반도서 (수필)
성남시 중앙도서관 (814.6-ㄱ433ㅈ)
성인

지리산에 사는 사람들이 궁금할 때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낄 때



자연인들을 만나다

남현정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가수 안치환의 9집 앨범에는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이라는 곡이 있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삼 대째 내리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지 마시고…

그래도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세석평전의 철쭉꽃 길을 따라
온 몸 불사르는
혁명의 이름으로…
최후의 처녀림 칠선계곡에는
아무 죄도 없는
나무꾼으로만 오시라…

이 가사의 원저자는 이원규라는 시인인데 그는 지리산에 살고 있으며 종교인·일반 시민·동료 시인 박남준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를 슬로건을 내걸고 한반도 도보순례를 하였다.

이 책은 공지영 작가가 지리산에 사는 시인들(한반도 도보 순례를 하였던)과의 인연으로 지리산을 다니며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초판은 2010년에 나왔고 2017년에 개정판이 나왔다가 현재는 절판상태다. 물론 판매가 안되어서 절판이 되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책인듯하다. 당시 주요 언론에서 좋은 평을 받았고 우석훈 , 유시민 등 유명인으로부터 추천도 받았다. 또한 개인적으로 공지영에 대한 선입견을 바꾼 계기가 된 책이었다. 도회적이고 똑똑한 '차도녀'같은 이미지였던 공지영 작가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책에는 돈 없어도 잘 놀고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지리산과 섬진강을 벗 삼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도시에서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공지영 작가는 관찰자이자, 화자로서 지리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담아 버무려 내었으며 작가 본인도 도시의 생활에 염증을 느낄 때마다 지리산으로 내려오는 작가캐릭터(?)로서 한 몫을 해낸다. 워낙 글솜씨가 뛰어난 작가여서 첫 문장부터 술술 금방 읽힌다.

「지리산 행복학교」는 책의 제목이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학교이기도 하다.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지리산에서 술 먹고 밴드 공연하고 천렵하며 놀던 사람들이 그동안 참 잘 먹고 잘 놀았으니 '우리가 술만 먹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자 하여 주위를 돌아보니 지리산에는 예술가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하여 기타반, 사진반, 퀼트반, 목공예반 등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본의 아니게 움직이는 학교여서 면사무소, 까페 등에서 수업하다가 작업실을 기부한 사진작가 덕분에 실제 학교 건물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학교의 모습이 궁금하여 구글에서 '지리산 행복학교'라고 검색했더니 실제로 (인터넷)까페에 정식명칭 '지리산문화예술학교' 로 불리는 학교가 검색되고 유투브에는 관련 동영상도 있다. 까페 대문에 "교사가 학생이 되고 학생이 교사가 되는, 배움 이전에 서로 마음을 나누는 학교"라고 되어있다.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비슷한 느낌이다. 귀농한 기타리스트, 시인, 환경운동을 하는 스님, 노총각 목수 등 이들의 사연은 제각각 다르지만 서로 돕고 마음을 나누고, 자연과 더불어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수 만 년 전부터 자연인이었으며 도시에서 살아온 지는 얼마 안 되었기에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모습이 더 잘 어울리고 자연 속에서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가끔 TV 속에서 도시를 떠나 시골에 정착한 사람들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시골에 살게 된 이상 자연과 가까워지고 자연을 이용하며, 때론 자연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런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살면 어떨까 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의 삶을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나 같은 도시 친화적인 사람들일수록 이 책을 꼭 읽고 실행은 어렵지만 책에서나마 자연의 삶을 느껴봤으면 한다.

초예측

유발 하라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외 지음,
오노 자즈모토 엮음, 정현옥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2019.
231p. ; 22cm.
사회학(330)
성남시 구미도서관 (331.544 ㅊ292 c.2)
청소년~일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때



미래를 맞는 자,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라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1장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 유발 하라리

2장 현대 문명은 지속할 수 있는가
- 제레드 다이아몬드

3장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닉 보스트롬

4장 100세 시대는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 린다 그래튼

5장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다니엘 코엔

6장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 조앤 윌리엄스

7장 혐오와 갈등은 사회를 어떻게 분열시키는가
- 넬 페인터

8장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
- 윌리엄 페리

"미래를 맞는 자.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라!"

이 말은 영화 '인랑'에서 발췌했다. '인랑'의 작가는 아마 영국의 사학자 에드워드 카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가는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한다"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초예측」을 소개하면서 먼저 Index와 '미래를 맞는 자,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라'를 운운한 것은 일단 질문이 현시점에서 화두가 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초예측」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기억하는 견지에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8명의 세계 석학들로부터 분야별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그들이 먼저 연구하고 고민했으니 들어보고자 낸 책이다.

진화생물학,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4차산업을 이끌 인공지능 과학, 현실 정세분석가를 통한 우리를 위협하는 동북아 핵의 질문까지 우리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견을 듣고, 우리는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대응을 배우고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인 8명 석학들의 저서소개를 소개하자면,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등이 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쇠」, 「문명의 붕괴」, 「어제까지의 세계」 등이 있다. 닉 보스트롬은 「슈퍼 인텔리전스」, 린다 그래튼은 「100세 인생」, 「핫스팟」, 그리고 국내에는 미출판된 「글로우」 등이 있다. 다니엘 코엔은 「악의 번영」과 「호모 이코노미쿠스」, 「세계화와 그 적들」 등이 있다. 조앤 윌리엄스는 「백인 노동자 계급」 이란 책이 있지만 국내 미출간이다. 넬 페인터는 「백인의 역사」(국내 미출간)을 썼다. 윌리엄 페리는 「핵 벼랑을 걷다」(창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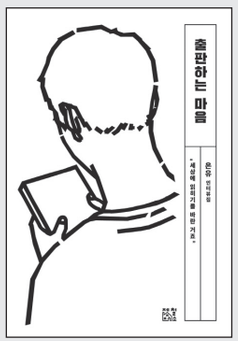
인터뷰 형식으로 완성된 이 책은 세계적 석학들의 숨소리까지 듣는 듯하여 읽기에 좋았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 책은 또 다른 생각의 길을 가이드 해주는 책이다. 이 책 외에도 저자들이 저술한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은 스스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50여 페이지를 모두 기억하기보다는 가장 단순한 것에 종종 가장 중요한 의미가 숨겨있다고 하니 쉽고, 단순한 사실 속에서 지극히 중요한 진실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출판하는 마음

은유 저. -제철소. 2018.
343p. ; 19cm
총류(000)
안양시 평촌도서관(013.04 은66ㅊ)
성인

'책'과 관련된 여러 직업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협동의 결과물, "책"

조윤주
(안양시 벌말도서관 사서)

책 한 권이 독자에게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손을 거치는가? 흔히 책은 작가의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책을 만드는 데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과 출판사 등의 정보가 수록된 판권지를 보면 책을 만드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권지에는 지은이, 펴낸이, 엮은이, 번역가 등의 이름이 있다. 마치 TV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엔딩 장면과 동시에 흘러가는 무수한 이름들처럼.

"책은 부단한 협동의 결과물이다. 저자의 힘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며 출판사라는 보통명사 뒤에는 편집자, 북디자이너, 마케터, 제작자, MD, 서점인 등의 숨은 노동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분업 시스템 하에서 책은 무서운 속도로 생산되고 독자의 눈앞에 전시되다 사라진다. 출판계 종사자들은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고 아침마다 수치로 제시되는 판매량 성과에 쫓긴다."(14p.)

서문에 나온 저자의 말처럼 책이란 작가 한 사람만의 결과물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숨은 노동의 끝에 완성된 것이다. 이 책은 문학 편집자를 시작으로 저자, 번역자, 인문도서 편집자, 북디자이너, 출판 제작자, 출판 마케터, 온라인 서점 MD, 서점인, 1인출판사 대표 총 10명을 인터뷰한 인터뷰집이다. 목차의 직업들만 봐도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이 있고,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업종의 사람들에 눈길이 간다.

저자가 인터뷰 대상으로 섭외한 사람들은 그 일을 오래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문학편집자 김민정은 편집자로서 기존 시인선 시리즈와는 색다른 시인선을 선보였다. 10만부 시집의 주인공 박준 시인을 발굴한 것도 그다. 본인 스스로가 시인이기도 하여 시인의 마음으로 시인선을 낸 것이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김경희 저자는 회사를 다니며 느꼈던 솔직한 마음을 '독립출판'의 형태로 책을 낸다. 그는 직접 책의 내용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책의 모양새를 만들고 서점에 가서 납품을 한다. 스스럼없고 거침없는 실천으로 두 권의 책을 만들었다.

성공적인 기획을 하는 편집자와 독립출판으로 입소문 나는 저자처럼 독자들이 어느 정도 아는 이들도 있지만,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이들의 노력도 있다. '만만한 번역이 없다'는 번역 15년차인 홍한별 번역자는 원고가 끊길까 걱정을 한다. 오랜 세월 번역을 했음에도 번역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출판 시장이 안 좋아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번역'일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새내기 인문 편집자 이환희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열정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처음 편집자로 일할 때의 시행착오를 교본삼아 점점 더 섬세한 편집자가 되어간다. 1인출판사를 운영하는 이정규 대표는 '혼자'라는 점을 강점으로 삼아 쉽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책을 기획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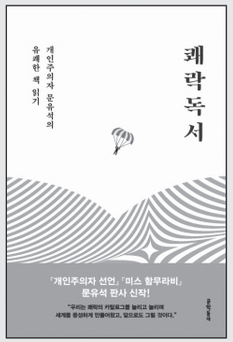
이미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은 '북디자이너'의 역할이 커졌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표지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출판 제작자는 책의 단가를 조절하여 책이 잘 인쇄되는지 체크하는 일을 한다. 독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적정선의 가격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바쁘다. 저자, 편집자, 북디자이너, 출판 제작자 등을 거친 책은 출판사 마케터와 서점인들에게 건네진다. 마케터는 책을 잘 홍보해야 하고, 서점인들은 책을 어떻게 하면 손님들의 눈에 띄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온라인 서점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책을 골라 소개하는 MD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인터뷰를 한 사람들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이 내고자 하는 책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하우를 쌓는다.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 않을까. 주목받는 몇 개의 직업 외에는 그 직업들을 뒷받침해주는 직업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어떤 물건을 사든, 서비스를 받든 그것을 위해 뒤에서 노력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듯 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책을 읽으면 각자의 '출판하는 마음'이 어떻게 쌓여 책이 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쾌락독서

문유석 저. - 문학동네. 2018.
264p.
일반도서
성인

책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과 독서를 취미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유희로서의 '독서'

조혜원
(성남시 분당도서관 사서)

이 책의 주제는 작가 문유석의 '즐겁게 독서하는 방법'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책을 직업적으로 대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너무 어렵게 대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책과 가까이 있는 직업군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책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고전은 물론 어려운 책도 술술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정관념. 나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책을 많이 읽느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늘 책을 좋아는 하지만 읽은 책은 별로 없다는 답변을 했다. 왠지 모르게 어려운 고전은 하나도 읽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그런 책을 많이 모르는 '나'라는 사람이 독서에 대해 아는 척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책을 좋아하고 즐기면서도 스스로를 부끄러운 독서를 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자신이 독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독서를 하는 행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도 아니고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행위도 아니다. 하지만 어쩐지 '독서'라는 행위는 어려워 보이고 다가가기 어려운 취미라는 생각이 대중들에게도 깊이 박혀있는 듯하다. 이러한 점을 가볍게 타파해주는 책이 「쾌락독서」이다.

어떠한 작가를 좋아하고 작가의 생각과 책 속의 인물들과 자신의 삶을 함께 비교도 하고 상상도 하면서 "취미로서의 독서"를 가르쳐준다. 또한 작가가 읽은 책 중,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좋은 책들을 추천해 주는데 그 리스트를 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결국 이 책은 취미로서의 독서 방법에 대한 제시, 다른 책으로의 독서활동의 확장까지 자연스럽게 제안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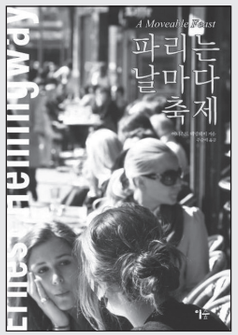
서평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번 서평을 쓰면서 단순히 이용자분들에게 책을 권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즐거운 유희로 여기고 가까이 하는 방법을 전달해주는 서평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사서지만 내가 사랑하는 책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전파하는 사서가 되고 싶다. 책이 어렵고 딱딱한 취미가 아니라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절대로 해보지 못할 환상 속 세계에서 주인공과 함께 하는 경험 또한 가능하게 해 주는 취미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

책을 유희로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전국 출판계, 문학전공자, 사서 등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파리는 날마다 축제

어니스트 헤밍웨이 저, 주순애 옮김. - 이숲. 2002.
368p. ; 23cm
문학(800)
안양시 평촌도서관(843 헤38파)
성인

색다른 파리 여행을 해보고 싶을 때



헤밍웨이의 시선

조윤주
(안양시 벌말도서관 사서)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주인공은 우연히 차를 타고 파티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피츠제럴드 부부를 시작으로 피카소, 헤밍웨이 등 당대 유명했던 예술가들을 만난다. 책을 읽으며 '이런 훌륭한 작품을 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하고 상상해보던 주인공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다. 「파리는 날마다 축제」는 이 영화 속 등장인물 중 '헤밍웨이'의 시점으로 당시 파리의 일상을 보여주는 책이다. 가상의 주인공을 설정하지 않고, 헤밍웨이 자신이 느꼈던 파리의 모습을 담은 책이라 영화보다 더 현실감 있는 1920년대 파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책 속의 헤밍웨이는 20대의 헤밍웨이다. 헤들리 리처드슨과 결혼하였고, 아이도 하나 낳은 상태다. 그는 원고료로 생계를 이어가던 작가로, 돈이 없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지 않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돈을 아끼느라 부인 몰래 고픈 배를 움켜쥐고 공원으로 향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부는 마음이 풍족했다. 헤밍웨이는 책을 빌려주고 자신의 작품 활동을 응원해주는 서점을 찾았고, 부부는 곧잘 여행을 떠나 여행지에서 함께 책을 읽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파리에는 이 부부와 친하게 지내는 당대 유명 예술가들이 있었기에 파리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 헤밍웨이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거트루드 스타인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헤밍웨이는 공원을 걷다 거트루드 스타인의 집에 가서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곤 하였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사이가 멀어져버렸다. 한편 이 책에서 제일 인상적인 일화를 함께 한 작가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스콧 피츠제럴드이다. 스콧 피츠제럴드와의 첫 만남부터 그와 함께한 리옹 여행 등 스콧 피츠제럴드와 헤밍웨이의 시트콤같은 일화를 볼 수 있다. 「위대한 개츠비」를 집필하기도 했고 자신의 아내 젤다를 많이 사랑했던 그의 좋은 이미지와는 달리, 헤밍웨이와의 인연은 다소 재미있게 볼 수 있다. 거트루드 스타인과 스콧 피츠제럴드 외에도 당시 활약했던 시인, 소설가, 화가 등을 헤밍웨이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이 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책 속에서 느껴지는 부인 헤들리 리처드슨에 대한 사랑과 그의 집필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볼 수 있다.

시중에는 파리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관광지를 안내하는 책부터 요즘 파리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을 골라서 소개하는 책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파리에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을 여행 에세이로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은 헤밍웨이가 직접 보고 느낀 바를 통해 파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롭다. 헤밍웨이가 다녔던 장소들이 아직도 파리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직접 헤밍웨이가 다녔을 법한 곳들을 가보는 것 또한 파리를 재미있게 여행하는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 판테옹과 소르본 대학 주변, 뤽상부르 공원과 그가 자주 들렀던 셰익스피어 컴퍼니 서점과 카페를 직접 방문해 보자. 헤밍웨이뿐만 아니라 유명한 예술가들이 파리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짐작해볼 수 있다.

페이크(FAKE)

로버트 기요사키 저, 박슬라 옮김. - 민음인. 2019.
581p. ; 22cm.
경제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327.04 ㄱ625ㅍ)
청소년~일반

돈에 대해 알고 싶을 때



가짜 뉴스와 정보에서 진짜 돈과 자산을 지켜라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믿고 읽는 작가 로버트 기요사키.

책 제목을 과감하게 「FAKE페이크」라 짓고, 표지는 빨간색으로 강렬하다. 이것으로 호기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무엇이 거짓이고, 가짜란 말인가? 작가는 가짜 돈, 가짜 교육, 가짜 자산으로 범주하며 논리를 펼쳐간다. 돈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세뇌되었다. 세뇌란 자신의 생각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은 패배자다."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부자는 빚을 돈처럼 사용한다."
"부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 일정 과정을 통해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이 삶의 정규 코스다. 자본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이며 생활의 안정을 찾아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전문직이나 임금 노동자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설사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돈을 저축하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권리를 지키고 싶어한다. 그런 사람이 당신의 저축과 집, 그리고 은퇴 자금이 당신의 자산이 아니고 부자들의 자산임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세뇌당한 것이고, 이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한다.

집을 사지도 말고 돈도 모으지 말고,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집을 사고, 돈을 저축하고, 빚을 갚고, 주식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믿음을 고수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저 "깨어나라"고 말하고 싶은 것뿐이다.

부자들은 빚과 세금, 부동산과 무한수익을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빚과 세금, 부동산과 무한수익에 대해 가르쳐 준 적이 있는가? 학교에서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있는가? 그런 경제적 이해가 없다면,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를 해 본 적이 있다면 늦지 않았으니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세법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에 관한 법이다. 고소득 전문직인 S에 해당하는 의사나 변호사, 혹은 E에 해당하는 임금 노동자들은 부를 증식하는 방법을 혼자서 플레이한다. 그러나 B와 I에 해당하는 사업가나 투자자는 팀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경리나 회계사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다 읽을 때도 혼란과 정리가 안 된 듯한 기분이 든다면 다시 읽어보기를 바란다.

철저히 세뇌된 S나 E에 속한 부류일 수 있으니…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

김겨울 저. - 초록비책공방. 2019.
244p. ; 19cm
문학(800)
안양시 벌말도서관(818 김14활)
성인

색다른 독서 에세이를 보고 싶다면



모든 이야기는 얽혀있다.

조윤주
(안양시 벌말도서관 사서)

모든 이야기는 얽혀있다.

우리는 소설을 읽고 그 소설이 주는 여운을 어떻게 정리할까? SNS에 사진을 찍어 그 당시의 느낌이 함축적으로 담긴 한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고, 블로그나 노트에 책에 대한 감상을 길게 정리할 수도 있다. 책을 읽는 건 우리에게 흥미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책 속의 인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지 등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한다.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는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독후습관에 철학적인 시각을 덧붙여 작품들을 조명하는 책이다. 등장인물에 대한 생각, 저자의 메시지 그리고 이 작품이 쓰인 시대 상황 등 이 소설 속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인간'이다. 독자 각자 어느 인간에 더 초점을 두냐의 차이일 뿐, 사실 우리 모두는 소설을 통해 '인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이 책은 저자가 감명 깊게 읽은 4개의 소설에 대해 느낀 바를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각각의 소설을 통해 4가지의 키워드를 떠올렸고, 그 키워드들은 추상적이지만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소설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 등을 빌려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선택한 키워드는 '운명', '고독', '시간', '상상' 4가지이다. '운명'에 해당하는 소설은 임레 케르테스의 작품 「운명」으로, 임레 케르테스 본인이 경험했던 일을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간 '죄르지'라는 인물의 이야기로 풀어낸 소설이다. 소설 속 인물들의 '운명'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자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 한다.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 정말 개인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일까? 결국 운명이 개개인에게 주어졌다면 인간은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존재로,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노동으로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운명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이 그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내게 된 것이 아닐까. 저자는 「운명」의 주인공 죄르지의 '운명'에 대한 생각과, 베토벤의 '운명'에 대한 생각을 비교하기도 한다. 그리고 죄르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든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관련이 깊은 인물, '아돌프 아이히만'의 이야기를 담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함께 언급한다. 한 개인의 무의식적인 혹은 도덕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 참혹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개인에게 주어진 세세한 운명이 있다는 것보단 인간이 끊임없이 삶에 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 운명 혹은 숙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고독'에 해당하는 소설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다. 「프랑켄슈타인」 속 화자는 세 명이다. 이 세 명의 화자를 통해 각자의 고독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화자 '로버트 월턴'과 그와 이야기를 나눈 '프랑켄슈타인 박사',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괴물, 이 3명이 이 소설의 화자이고, 각각 화자가 느낀 고독을 소설 속에서 보여준다. 저자는 「프랑켄슈타인」을 읽으면서 세 화자 모두에게서 자신이 느꼈던 고독과 비슷한 고독을 마주하게 된다. 자신의 친구가 되어 줄 사람이 없다는 데에서 생기는 고독과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삶의 평화가 깨진 이의 고독, 그리고 자신을 만든 사람에게 버림받

는 이의 고독, 이 3가지 모두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고독의 종류가 아닐까. 그리고 이 고독들은 메리 셸리의 삶에 빗대어 봤을 때, 메리 셸리 본인의 고독과 매우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본인의 소설을 본인의 이름으로 발표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 메리 셸리의 어머니가 절로 떠오른다. 메리 셸리의 어머니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의 권리옹호」를 통해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계몽주의 시대에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잔다」라는 책의 제목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던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딸 메리 셸리가 괴물 이야기 「프랑켄슈타인」을 탄생시킨 것이 떠오르게 만든다.

저자는 「프랑켄슈타인」 속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괴물의 고독과 관련하여 존 밀턴의 작품 「실낙원」을 언급한다.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괴물을 만들고,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보면 인간은 꼭 예술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 창조하면서 살아가게 됨을 알 수 있다. 그 창조한 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든 내가 만든 것이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은 '시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대를 이어도 비슷한 이름이 계속 나열되고, 이름처럼 대를 이으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신화 같은 소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혼동하게 만든다. 저자가 언급한 사실에 의하면 사실 우리는 시간을 인지하며 산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시간에 대한 연구 덕분에 우리는 시간을 시, 분, 초 단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 시간을 인식하게 되었을 뿐 사실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시간은 흐른다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반복되면서 인간은 그 시간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작아진다. 거대한 '시간'이라는 존재 앞에서 작아진 우리는 그럼에도 삶에 충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그 답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찾고자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시간과 관계없이 내면을 다질 수 있는 수단으로 '명상'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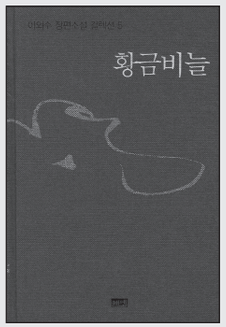
사람들은 삶에 대한 성찰도 좋지만 소설을 읽으면서 다른 세계를 상상해보는 것에 가장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저자는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 테드 창이 구축한 상상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 한다. 단순히 판타지적인 혹은 SF 소설로서의 설정을 상세히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미를 담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상상을 시작하는 것이 테드 창의 작품에서 주목할 점이라 말한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에 대한 상상을 볼 수 있다. 시간을 앞서 미래를 내다본 주인공에게, 과거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같은 사람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사람에게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자신이 기억하는 미래의 모습을 알게 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당신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딸을 가짐으로써 딸을 가지지 않은 전의 기억 상태로 다시는 되돌아 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은 기억의 조각으로 구성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다.

4편의 작품과 그와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작품들을 같이 살펴보면 그동안의 독서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관련이 없을 것만 같았던 다른 작품들이 같이 떠오르기도 하고, 주인공에게 감정 이입을 하거나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나 자신의 삶과 같이 떠오르게 된다.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무수한 이야기들은 모두 얽혀있는 것이 아닐까.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작품들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읽는 독자의 삶까지 모두 이야기로 얽힌다는 걸 이 책을 읽으며 느낄 수 있다.

황금비늘 1

이외수 저. - 해냄. 1997
242p. ; 천연색삽화 : 23 cm
문학 (800)
안성시립도서관 813.6 이65 1
청소년 및 성인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추천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다는 평범한 진리에 관한 이야기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어릴 때부터 책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책을 즐겨 읽는다고 할 수 없었던 나를 본격적인 독서의 세계로 이끈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외수 작가의 '벽오금학도'였습니다. 고등학교 학급문고서가에 꽂혀있던 책이었는데, 읽게 된 계기는 아주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독특했기 때문이었죠. 심심한데 책이나 읽어볼까? 큰 기대 없이 펴든 책이 저를 사로잡았고, 그 이후 그때까지 나온 이외수 작가의 책 대부분을 어렵사리 구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외수 작가는 본래 문학의 길을 꿈꾸던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교대를 다니며 미술학도의 길을 준비하던 이외수는 197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견습 어린이들」이 당선되면서 의도치 않게 문학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후 「꿈꾸는 식물」(1979), 「장수하늘소」(1981), 「칼」(1982), 「벽오금학도」(1992) 등의 대표작을 써내면서 확고한 팬덤을 형성하게 됩니다. 팬덤이 형성된 작가 대부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외수 만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작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색이 짙다', '글이 너무 감성적인 측면에만 치우친다', '글의 내용이 항상 비슷하다' 등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뒷말이 많은 작가에게 왜 그렇게 빠져들게 되었던 걸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사춘기 남자 아이의 감수성을, 작가 특유의 몽환적이면서도 신비한 느낌의 글이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괜스레 사람이 미워지던 저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존재로 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글들이 참 많은 위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은 작가주의적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찌됐든 이 경험으로 인해 독서가 주는 즐거움을 피부 깊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서의 길로 들어서게 해준 단초를 제공해 준 셈이기도 하니, 많은 구설과 극명하게 갈리는 호불호와 상관없이 이외수는 저에게 참 고마운 작가입니다.

그렇게 고마운 작가의 글 중 하나를 최근에 읽게 됐습니다. 바로 '황금비늘'이라는 작품입니다. 우연히 도서관 서가에서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외수 작가의 글은 대부분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초판이 1997년 출간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재미없어서 내가 몰랐을 거야'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책을 펴들었지만,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고 처음 벽오금학도를 펼쳤을 때처럼 순식간에 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초월적인 신비의 힘을 지닌 물고기 '무어'를 중심소재로 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동명'이라는 작은 아이입니다. 동명은 비상한 기억력을 지닌 천재 소년이었지만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우연한 기회에 동명은 보육원에서 탈출하고, 의붓아버지가 되는 신체장애인, 눈은 멀었지만 마음이 누구보다 밝은 조선생, 낚시로 도인의 경지에 오른 무간선 할아버지 등 여러사람을 만나면서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보다 증오를 먼저 배운 동명이 어떻게 스스로의 고통을 직시하고 영혼을 갈고 닦아, 신비의 물고기 '무어'와 마주하는지를 다룬 이야기로서 이외수 작가 특유의 동양적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훌륭한 성장소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초판은 1997년 동문선 출판본이지만, 제가 읽은 것은 2005년 해냄출판사에서 펴낸 것입니다. 제가 읽은 판본은 2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한권으로 묶어서 나온 것도 있답니다. 1, 2권 합치면 500페이지에 가까운 상당한 분량이지만 부담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외수 작가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겠지만, 그의 글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작가 특유의 편안하고 신비한, 그러면서도 유머가 가득한 이야기로 인해 지루한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책 속에서 저의 마음을 끌었던 많은 문장 중 하나를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나무는 풍상에 시달리면 그 줄기가 뒤틀리고, 인고에 시달리면 그 뿌리는 쓴 법이라. 허나 줄기가 뒤틀렸다고 그 꽃이 아름답지 않은 나무가 어디 있으며, 뿌리가 쓰다고 그 열매가 향기롭지 않은 나무가 어디 있더냐" (본문 중)

흑산

김훈 저. - 학고재. 2011.
407p. ; 19cm.
한국소설(813)
성남시 중앙도서관 (813.6 ㄱ995흐 c.4)
청소년~일반

종교에 대한 신념이 필요할 때



정약용 일가 중심으로 천주교 정착 민생 이야기

유향숙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서슬퍼런 유교가 조선을 지탱하고 있던 18~19세기. 대의명분으로 조선을 지키려고 유교를 숭배하는 시기에 서양 사학이 들어왔다. 누구나 보고 들으면 타당하고 순리에 맞는 이치에 매료되는 사학을 조선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가려보려고 애를 썼다. 애를 쓰면 쓸수록 조선을 지탱하는 지배계급의 명분 때문에 망하는 쪽으로 흘러갔을 뿐이다.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박해만 안했어도 튼튼한 조선은 100년은 더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명분에 분분해서 실리를 잃고, 타이밍을 놓친 경우라고 본다.

그 시대를 살았던 황사영,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그리고 수많은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들이고 모진 고문으로 죽어간 민초들. 그들은 왜 목숨에 위협을 무릎쓰면서까지 천주교를 지켜 내려 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용기있게 했을까?

이 소설책으로 그 모든 의문에 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용기와 숭고했던 삶의 이야기가 소설로 탄생하여 그 시대에서 살고 있는 듯한 생생한 재미를 주었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면서 시작된다.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그렇게 썼겠구나 싶다.

주문모(1752~1801) 신부는 중국인으로 베이징 교구 신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조선 파견 선교사에 임명되어 1794년(정조 18) 12월, 조선으로 들어와 포교 활동을 하다가 1801년(순조 1)에 일어난 신유박해 때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은 김대건 아드레아 신부는 헌종 11년에 서해를 통해 입국하던 중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포교도 하지 못하고 군문효수로 순교하면서 천주교가 얼마나 자생적으로 민초들에게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신부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민초들의 삶에 광범위하고 깊게 들어갔으며, 그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신적 갈망은 몇 명 수뇌하는 정약종을 능지처참하고 정약전을 유배 보내고 황사영을 사형에 시킨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유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이며, 과학적이고 실용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유토피아를 제시한 학문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은 종교로서 어느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순리만은 거스를 수 없다는 교훈을 얻는 그런 책이었다.

김훈 작가가 발표한 「남한산성」과 「흑산」을 읽어 보았다. 김훈작가는 간결하면서 흥미와 전달력을 잃지 않는 필력으로 그 시대를 다각도로 풍부하게 이해하고 픽션을 써 내려가는 존경하는 작가이다. 이 책에 얼마나 정성과 심혈을 기울였는가는 뒷부분에 참고문헌과 연대기, 낱말풀이들을 기술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소설의 재미도 놓치지 않은 「흑산」을 같이 읽어보길 권한다.

희박한 공기 속으로

존 크라카우어 저. - 황금가지, 2007.
411p. ; 23cm
문학 (800)
안성시립도서관 848 크2922
청소년 및 성인

등산을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



그들은 왜 산에 오르는가?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산악인의 필독서

최근에 산을 오르는 것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주말 하루를 온종일 잠만 자다시피 하고도 피로가 풀리지 않은 날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뭐라도 운동을 해야지 그냥 있어서는 건강을 해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서 집 근처에 있는 칠보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 발로 걸어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 어려울 것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해발 300미터도 채 되지 않는 야산 수준의 고도를 오르는데도 힘이 쭉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영하를 오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온 몸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습니다. 왠지 오기가 생겨서 시간 날 때마다 그 산을 찾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산을 오르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몸에 체력이 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더군요. 그러다보니 이게 또 재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해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등산 관련 책을 찾아 찾아보다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 「희박한 공기 속으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아웃도어 전문기자인 '존 크라카우어'가 1996년 일군의 에베레스트 등반대와 함께한 여정을 르포 형식으로 써낸 책으로, 발간하자마자 세간의 큰 관심을 받으며 오래도록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산악인이라면 꼭 읽어야할 필독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실에 다가가고자 흘린 작가의 땀 냄새 묻은 책

「희박한 공기 속으로」는 사실 1996년에 있었던 산악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일컬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 참사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1996년 5월, 잡지사 '아웃사이드'의 요청으로 '존 크라카우어'는 저명한 산악인인 '로브 홀'을 따라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르기로 합니다. '로브 홀'은 영리 목적의 등반대인 '어드벤쳐 컨설턴트'의 사장이었는데, 유명 잡지인 '아웃사이드'에 자신의 회사에 관련한 기사를 냄으로써 큰 광고효과를 노릴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경쟁사인 '마운틴 매드니스'인 '스캇 피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에베레스트는 '전인미답의 여신적 산'이라는 신비한 이미지는 사라지고, 누구나 어느 정도의 돈(입산료 및 가이드비용)과 체력이 있다면 '로브 홀'이나 '스캇 피셔'와 같은 전문 가이드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정상을 오를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존 크라카우어가 함께 한 여정에서 에베레스트는 자신의 잔혹한 일면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1996년 5월 10일, 초모랑마의 정상을 향했던 로브 홀과 스캇 피셔의 등반대는 산 속에서 엄청난 눈폭풍을 만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칩니다. 겨우 살아남았던 작가는 동료들을 잃은 충격으로 괴로운 와중에도 그 비극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는 생각에 이 책을 써냅니다. 사고의 충격과 희박한 공기, 영양 부족, 극심한 피로 등 당시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생존자들의 기억이 제각각인 탓에, 저자는 명료한 글을 써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기자로서의 본분과 등반대 동료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저자의 그 고된 노력의 흔적과 땀내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산에 오르는 것일까?

나는 사실 목숨을 걸고 험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제일과 무병장수를 인생의 지표로 여기는 나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미적분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산악인이 했다는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오른다'라는 유명한 말도 일견 마음을 움직이는 구석이 없지는 않았지만 곱씹을수록 실소가 나는, 치기 가득한 어린아이의 말로만 느껴졌죠. 이 책을 읽으면 혹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과 욕망을 한 데 안은 산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는 허영호 대장의 소개글에 그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덮고 나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합니다. 오히려 위험한 산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만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그 들은 왜 산에 오르는 것일까요?

작가인 존 크라카우어는 '등산은 기본적으로 도전과 위험이 혼재'한 스포츠라고 했습니다. 극복해야 할 위험이 클수록 매력이 커지는 스포츠라는 것이죠. 해수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산소, 언제든 변덕을 부려도 이상하지 않은 기후, 폐수종, 뇌수종 같은 치명적인 고산병 등 모든 위험을 종합선물세트로 가지고 있는 해발 8,000미터 급의 고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겐 연인의 입맞춤처럼 설레는 것으로 다가온다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저의 공감 여부와는 별개로 이 책이 주는 재미는 충분합니다. 자연이 주는 극도의 시련 속에서 발하는 동료애와 이타적 정신은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충분합니다. 논픽션이지만 마치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촘촘한 작가의 글솜씨도 강력한 흡입력을 갖습니다. 그들의 도전을 마음속 깊이 공감할 수 없는 저 같은 사람마저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도전과 생환을 응원하게 만들 정도로 말입니다.



내가 권하는 **어린이 책**

[최우수작]
푸른시간
– 장혜지 (경기도 파주시)

[우수작]
(이름을 빼앗긴 소녀) 에바
– 김지율 (경기도 수원시)

비구름이 찾아온 날
– 김신혜 (경기도 의왕시)

[장려작]
쓸모없는 악어
– 곽희선 (경기도 고양시)

열세 살에 마음 부자가 된 키라
– 김예나 (고양시 백신초등학교)

마술피리
– 백승효(경기도 파주시)

바삭바삭 갈매기
– 조영준 (고양시 도래울초등학교)

엄마는 해녀입니다
– 정난희 (경기도 동두천시)



최우수작

하루를 마무리하는 푸른 시간

장혜지 (경기도 파주시)



푸른시간

이자벨 심레르 저,
박혜정 역.
하늘콩. 2018.

스마트폰 시대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온종일 작은 화면에 시선을 가둬놓느라 눈이 자주 피로하다. 뻑뻑한 눈을 들어 탁 트인 곳을 바라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 속에서 피로를 씻는다. 2017년 '뉴욕타임스 최고의 그림책 상'을 받은 「푸른 시간」은 고요한 자연의 모습을 책에 옮겨 놓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작가는 해가 저물고 밤이 다가오는 짧은 푸른 시간을 포착해 다양한 파란색으로 자연 속 동식물들을 묘사한다. 온통 파란색인 겉표지에 기대감을 가지고 표지를 넘기면 속면에 다양한 파란색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페일블루, 아쿠아마린 블루, 사파이어 블루, 인디고 블루, 코발트 블루, 미드나이트 블루 등 점점 진해지는 다양한 파란색을 알려준다. 책을 첫 장부터 빠르게 넘기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의 색이 짙어짐을 알 수 있다.

큰 판형에 간결한 글과 양면 가득 채운 그림은 평화로운 풍경에 더 집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크게 그려진 동물 외에도 작은 동물들이 세세하게 풍경을 채워서 그림의 크고 작은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재미가 있다. 밝고 어두운 다양한 파란색과 대비되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등 보색을 사용해 동물들을 화려하게 묘사한다.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서 역동감이 넘치는 색감과 세밀하게 묘사한 동물의 털, 새의 깃털, 꽃잎 등에서 작가의 섬세함이 엿보인다.

큰어치, 푸른 여우, 푸른박새, 대머리호로새, 물망초, 초롱꽃, 제비꽃 등 많은 동식물이 나오지만 '푸른 시간'이라는 테마로 묶인 이야기는 단절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다. 멀리서 보는 평온한 풍경과 가까이서 보는 동물들의 생명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분한 파란색이 신비롭다.

밤이 오고 모든 생명체는 푸르름이 사라진 어스름 속 숨죽인 모습으로 표현된다. 마지막 장을 넘긴 속면지에는 세계지도와 동물들의 서식지가 실루엣 그림으로 표시돼 아이와 함께 동물들을 맞춰볼 수 있다.

하루의 푸른 시간은 짧지만, 이 특정 시간을 담은 그림책은 원하는 만큼 옆에 두고 오래 읽을 수 있다. 어린이뿐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성인도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다. 잠이 잘 오게 하는 파란색은 마음을 편하게 해줘 잠자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책으로도 맞춤이다. 하나의 색깔로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2013 칼데콧 영예상을 수상한 로라 바카로 시거의 「세상의 많고 많은 초록들」도 추천한다. 자연 또는 색을 이용한 미술놀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도시에서 살면 소음과 눈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고요한 자연에 귀를 기울이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작가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해 질 녘의 순간을 포착하고 그림을 그리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다. 영감을 받는 눈과 귀를 가둬놓지 말고 열어둔다면 각자 자신만의 아름다운 시간, '푸른 시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심사평]

소박한 목소리가 돋보였던 작품

유현미 (평택시 배다리도서관장)

이 서평은 좋은 책을 고르고 자신이 그 책을 왜 좋아하는 지 담담히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서평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책의 감상과 크게 관련없는 지식의 상찬을 마련하여 독자들을 작품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를 범하기 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에 집중함으로써 독자들을 작품으로 한걸음 더 가깝게 안내합니다. 가짓 수는 많으나 젓가락 갈 곳 없는 상차림보다 소박하고 정갈한 밥상이 입맛을 돋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푸른색 하나로 해가 지고 밤이 오는 짧은 시간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푸른 색 하나로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다채로운 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함이 존재하는 지를 이야기하고,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와 하나 안에 존재하는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평자는 책이 가진 철학을 어려운 이론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한 장 한 장 책을 공들여 묘사함으로써 책의 충실한 안내자를 자처합니다.

'온통 파란색인 겉표지에 기대감을 가지고 표지를 넘기면 속 면에 다양한 파란색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페일블루, 아쿠아마린 블루, 사파이어 블루, 인디고 블루, 코발트 블루, 미드나이트 블루 등(중략)…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의 색이 짙어짐을 알 수 있다. '

'큰어치, 푸른 여우, 푸른박새, 대머리호로새, 물망초, 초롱꽃, 제비꽃 등 많은 동식물이 나오지만 '푸른 시간'이라는 테마로 묶인 이야기는 단절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다.'

서평자의 이야기를 가만 가만 따라가다 보면 특별한 설명 없이도 작품에 불어넣은 작가의 푸른 색의 영감과 휴식같이 아름다운 찰나의 '푸른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좋은 재료를 골라 재료의 맛을 잘 살린 소박한 음식과 같은 서평이라 할 만합니다.

[심사평]

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좋은 서평

공정자(안성중앙도서관 사서팀장, 문헌정보학 박사)

서평은 도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아직 책을 읽어보지 못한 독자로 하여금 책을 읽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푸른 시간」에 대한 본 서평은 좋은 서평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골고루 담겨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을 수 있는 해가 저물고 밤이 다가오는 짧은 시간으로 간명하게 요약한다. 이 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면지에 대한 설명이다. 앞면지에 대하여 "다양한 파란색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페일블루, 아쿠아마린 사파이어 블루…"와 뒷면지에 대하여 "세계 지도와 동물의 서식지가 실루엣 그림으로 표시돼 아이와 함께 동물들을 맞춰볼 수 있다"와 같다.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리 세로로 긴 판형인데 서평자는 책의 외형적인 특징을 알려준다. 그림책의 주요 특징인 그림에 대하여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서 역동감이 넘치는 색감과 세밀하게 묘사한 동물의 털, 새의 깃털, 꽃잎 등에서 작가의 섬세함이 엿보인다."와 같은 설명과 평가가 상세하다.

또한 이 책과 같이 하나의 색깔로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책으로 「세상의 많고 많은 초록들」과 비교하며 유사한 주제의 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평을 읽는 독자에게 "영감을 받는 눈과 귀를 가둬놓지 말고 열어둔다면 각자 자신만의 아름다운 시간, '푸른 시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말을 걸며 생각을 유도한다.

서평 대상인 「푸른 시간」은 다소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서평자가 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관된 주제를 글로 잘 표현한 우수한 서평이다.

마지막으로 서평 공모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수작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게 해 준 책 '이름을 빼앗긴 소녀 에바'

김지율 (경기도 수원시)



(이름을 빼앗긴 소녀) 에바

조안 M. 울프 저,
유동환 역.
푸른나무. 2010.

나는 매년 굿네이버스에서 주최하는 희망 편지 보내기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 대회에 소개되는 어린이들의 사연은 참 다양하다. 대부분은 나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로 학교 대신 일터에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다닐 자유와 마음껏 뛰어 놀 자유를 빼앗긴 아이들 얼굴은 아주 어둡고 슬프다. 그 사연들을 보고 나는 처음으로 자유와 인권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자유와 인권에 관한 책들 중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바로 「이름을 빼앗긴 소녀 에바」이다. 많은 친구들이 이 책을 읽고 교훈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기 전, 나는 2차 세계대전에서 핍박받은 민족이 유대인 뿐 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체코, 폴란드도 독일에게 심각한 공격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독일군은 체코에 있는 리디체 마을을 공격했다. 이것은 히틀러의 부하를 죽인 레지스탕스 전사 몇 명이 리디체 마을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해서 시작된 것이다. 나중에 단순히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명령이 내려진 후였다고 한다. 그래서 리디체에 살고 있던 남자들은 모두 총살을 당하고, 여자들은 수용소로 보내지고 말았다.

그 과정에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은 살아남았다. 그 아이들은 아리안 외모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 아이들은 교육을 받은 후, 각각 독일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밀라다도 아리안 외모를 가진 아이였다. 밀라다는 독일 가정에 입양되기 전에 교육을 받았고, 본래 이름 대신 '에바'라는 독일식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교육원에서는 체코인과 폴라드인 모두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독일 이름을 가져야했다. 게다가 독일말만 쓰도록 강요받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벌을 받아야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모국어를 잊어갔다.

이런 불행한 상황에서도 밀라다는 할머니가 주신 보석핀을 보며 힘을 얻었다. 그 덕분에 밀라다는 본인의 체코 이름은 물론 가족에 관한 기억도 계속 간직할 수 있었다.

몇 년 후, 밀라다를 비롯한 모든 아이들이 독일인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밀라다는 베르너 가정에 입양되었고, 새로운 남동생과 언니도 생겼다. 그런데 새 아버지는 남동생만 유독 예뻐하셨다. 그래서 소련군이 침략했을 때, 남동생만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다. 새 아버지와 동생이 사라진 후, 새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밀라다는 지하실에서 숨어 지냈다. 하지만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자, 밀라다는 다시 체코로 돌아가게 되었다. 밀라다가 고향에 도착하니 어머니만 생존해 계셨다. 밀라다는 어머니에게 그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밀라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참 당연한 일인데, 밀라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던 것 같다.

이 책은 얼핏 보면 안네의 일기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읽어보면 훨씬 생생하고 재미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다. 주인공은 만들어낸 것이지만, 배경이나 이야기는 실제이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주어서 흥미롭다.

실제 105명의 리디체 아이들 중에 살아남은 아이는 고작 17명 뿐이었다고 한다. 독일군 때문에 목숨을 빼앗긴 아이들의 아픔 때문인지 이 책은 내 기억에 오래 오래 남아있다.

누구에게나 자유와 인권이 있다. 자유와 인권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 소중함을 알기 힘들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을 읽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새삼 깨달게 되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은 공기를 잃은 것과 같다. 숨을 잘 쉴 수 없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할 게 분명하니까 말이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아선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럼 그들은 숨을 쉴 수 없어서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쟁도 슬픔도 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심사평]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공감한 따뜻한 글

유현미 (평택시 배다리도서관장)

이번 공모전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서평이 다수 최종 심사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대회보다 학생들이 공들여 쓴 작품이 더 늘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인 듯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책을 해석하고 공감하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서평자는 구호단체를 통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갖게된 인권과 자유에 대한 관심을 책의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인종주의에 의한 학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씌어진 체코 소녀 밀라다의 이야기에 가슴 아파 하며 「안네의 일기」를 떠올리는 가 하면 동시대 지구촌에서 고통받는 친구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나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로 학교 대신 일터에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다닐 자유와 마음껏 뛰어 놀 자유를 빼앗긴 아이들 얼굴은 아주 어둡고 슬프다'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참 당연한 일인데, 밀라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던 것 같다.'

'누구에게나 자유와 인권이 있다. 자유와 인권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 소중함을 알기 힘들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을 읽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새삼 깨달게 되었다.'

주인공 밀라다의 아픔에 같이 아파 하며 책을 읽은 어린 독자가 자유와 인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보편의 가치임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 감동을 줍니다. 작가가 인류사의 아픈 단면을 도려내어 어린 독자들의 눈 앞에 재현하는 고된 작업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가 바로 작가로서나 한 인간으로서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유임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린 독자의 마지막 말로 심사평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아선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럼 그들은 숨을 쉴 수 없어서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쟁도 슬픔도 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린 독자의 바램대로 전쟁도 슬픔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수작

내 마음과 만나는 날

김신혜 (경기도 의왕시)



비구름이 찾아온 날

케이티 하네트 저,
김경희 역.
트리앤북. 2018.

그림책 「비구름이 찾아온 날」은 외톨이 소녀와 비구름의 특별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구름들을 다 쫓아버린 어느 날, 혼자 남은 비구름은 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공원에도 가보고 사람 많은 길거리를 다녀 봐도 아무도 비구름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지요. 포기하려는 즈음 비구름은 아이비라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우울해 보이는 모습이 자기처럼 외로워 보였거든요. 비구름은 아이비를 졸졸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내내 보니 아이비의 표정은 항상 짜증으로 가득합니다. 결국 아이비는 비구름에게도 "날 좀 내버려 줘!"라며 심술을 잔뜩 부리지요. 비구름은 아이비가 왜이렇게 심술을 부리는 지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아이비의 생활을 자세히 관찰하지요. 그리곤 아이비가 짜증내고 심술을 부리는 건 몹시 슬프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비구름은 아이비를 위해 깜짝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아이비네 꽃집의 식물들에게 시원하게 비를 내려줍니다. 힘을 내서 열심히 내려주었지요. 다음날 꽃집의 꽃들은 생기를 되찾고 아이비는 깜짝 놀랍니다. 아이비는 비구름에게 고마워하고 둘은 맑은 날에도 궂은 날에도 함께 꽃을 가꾸며 행복하게 삽니다.

이 책은 우울하고 외로운 한 소녀가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울하고 외로운 아이비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더 다가

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구름의 이미지를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슬픈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빨리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마치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까봐 안절부절 하기도 하지요.

이 책에서도 비구름이 친구를 찾아 나설 때 사람들은 다 비구름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 또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 아무도 그 감정을 만나려고 하지 않지요.

항상 긍정적으로 밝은 마음으로 지내는 게 좋은 일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슬프고 외로운 감정들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픈 마음을 만나고 들여다보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스스로가 슬픈 마음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드러내지 못합니다. 혹시 남들에게 우울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지 않을까, 내 슬픔을 드러내봤자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을까 등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비구름은 막 포기하려든 찰나 아이비를 만납니다. 아이비는 비구름이 따라오게 내버려 두다가 결국은 화를 냅니다. 내 안의 슬픔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모습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니까요. 슬픔이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이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슬픈 마음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슬픈 마음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을 도닥여 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슬픔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아이비는 비구름을 만나 자신의 몹시 슬픈 마음을 이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구름에게 도움도 받지요. 꽃집의 꽃들이 비구름의 도움으로 생기를 얻게 되니까요. 둘은 함께 있음으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이렇듯 자신의 슬픈 감정을 만나는 일은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일이지요.

아이들과 이 책을 함께 읽고 나누며 슬픈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픔은 지우고 없애야 하는 나쁜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나누고 싶습니다.

[심사평]

슬픈 감정을 세밀하게 드러낸 서평

공정자(안성중앙도서관 사서팀장, 문헌정보학 박사)

「비구름이 찾아온 날」은 한 소녀와 비구름과의 만남으로 감정을 이야기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슬픔보다 기쁨이라는 감정을 늘 갖기 원한다.

서평자는 이 책에서 "우울하고 외로운 한 소녀가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친구를 만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울하고 외로운 아이비가 자신의 슬픈 감정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더 다가왔습니다."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세밀하게 드러낸다. 서평 제목은 "내 마음과 만나는 날"로 이 책을 잘 표현하였다.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로 "자신의 슬픈 감정을 만나는 일은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일이지요."라며 이 책 속에서 주는 슬픔의 감정을 새롭게 해석하며 책을 읽는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책이 "아이들과 함께 슬픈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하며 상황에 맞는 이용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책의 줄거리를 상세히 요약하고 결말까지 알려주는 등 내용 요약이 전체 서평분량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 서평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책을 읽고 싶은 궁금증에 대한 자극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한편 「비구름이 찾아온 날」은 그림책으로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엮어간다. 이 책에서 그림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서평자는 「비구름이 찾아온 날」에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 색, 그림을 통한 감정 표현 등 그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평가 내용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겠다. 더불어 표지, 면지 등 책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책 속에 없는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서평은 비구름과 주인공 아이비를 통하여 만남과 슬픔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감정을 새롭게 바라보았다는 면에서 우수하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바라보는 서평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다.

마지막으로 서평 공모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려작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어.

곽희선 (경기도 고양시)



쓸모없는 악어

삼형제.
코끼리아저씨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총총 띄어있는 별빛들을 바라보는 '악어'는 독자에게 묻는다.

"넌 행복하니?"

모든 독자를 뜨끔하게 만드는 질문을 담은 표지로, 이 책은 시작한다.

주인공인 악어가 친구를 찾으러 떠난 여정에서 닭과 당나귀, 양, 염소를 만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나 친구가 되고 싶어 먼저 다가간 악어에게 "넌 무엇을 할 수 있니?" 하고는 쌩, 뒤돌아 떠나버린다.

당나귀는 사람들의 수레를 끌어주고, 닭은 사람들에게 달걀을, 양은 따듯한 털을, 염소는 우유를 준다. 반면, 악어는 늪에서 지내는 그냥 '악어'일 뿐이다. 그렇게 악어는 이 책의 제목인 '쓸모없는 악어'로 치부되어 버린다.

번번이 친구가 되기를 거절당하는 악어에게 감정이입이 되며 덩달아 시무룩해질 때 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 악어는 닭에게 묻는다.

"사람에게 알을 낳아주는 넌, 행복하니?"

처음 들어보는 엉뚱한 질문에 고개만 갸웃거리는 동물들에게, 악어는 "행복은, 그냥 너이면 돼" 라는 울림 있는 말을 건넨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들은 '쓸모없어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야기하며 주저한다. 그 때 이를 지켜보던 별빛이 "바보!"라는 말과 함께 모든 걱정을 일축시켜버린다. "그래 그래, 우린 그냥 행복하면 돼" 라는 동물들의 외침과 함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다.

이야기의 흐름을 도와준 큼직한 삽화와 간결한 대화체로 술술 책장을 넘기지만,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마음 속 어딘가 울림이 전해져온다.

살아온 날 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어린이에게, 이 책은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쓸모' 있고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의 주인공인 악어를 통해 전달한다.

남에게 도움이 되면 '쓸모 있다',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표현이 자연스레 사용되는 이 시대에서, 책 속에 별이 "바보!"라는 외치는 것에 괜히 부끄러움이 밀려온다. 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가르침을 받아온 독자들이라면 아마 같은 기분을 느낄 것이다. 행복을 찾아 떠나면서도 두려움을 가지며 망설였던, 닭, 당나귀, 양, 염소는 오랜 시간 가르침을 통해 얻은 '쓸모 있어야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생각해본다. 따라서 이 책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야하는 어른들에게 깨우침을 호소하기도 한다.

최근 세이브 더 칠드런의 만 10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주간 행복했니?"라는 질문의 응답결과를 책정한 '행복점수'에서, 우리나라는 최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행복'이라는 물음 앞에, 우리 아이들도 머뭇거리지는 않을까?, 바람에 몸을 맡기는 악어처럼 행복을 따라 나설 수 있을까?

아마 악어처럼 행복을 따라 나설 것이라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행복'이란 물음에 답을 해주는 듯하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즉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국 쓸모없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다.

장려작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김예나 (고양시 백신초등학교)



열세 살에 마음 부자가 된 카라

보도 섀퍼 저,
을파소

고양시 초등학생 삼학년 친구들아, 너희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행복해. 나는 고양시에 있는 백신초등학교에 다니는 삼학년 일반 김예나라고 하는 너희들의 친구란다. 나와 함께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은 어떠니? 어떤 책이냐고? 잘 들어줘. 이제부터 시작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열세 살에 마음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이야. 나는 이 책을 읽고서 우리가 지금 꼭 열세 살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키라처럼 얼마든지 마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이 책의 저자는 '보도 섀퍼'라는 독일인이야. 이 분은 세계적인 경영인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셔. 보도 섀퍼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활을 했었다고 해. 그 경험으로 쓴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를 시작으로 키라가 좀 더 성숙해지게 되는 모습을 담은 「열세 살에 마음 부자가 된 키라」도 쓰셨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중요함과 사람 속 마음의 세계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야.

총 3부로 나뉘어져 있고, 1부에는 장학금을 받고 교환학생으로 뽑혀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되는 키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2부에는 키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일곱 가지 교훈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며 느낄 수 있어. 3부에는 키라의 마음 안의 세상 속에서 하얀 돌을 찾아내는 내용이야. 캘리포니아의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게 된 키라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사촌도 찾고 여러 교훈도 배우게 되지. 키라가 겪는 모험 이야기로 펼쳐진 책 속에는 생동감이 넘쳐나서 내가 마치 키라가 된 것 같은 착각도 들어서 책 바다에 푹 빠져들어 갔어.

내가 하는 말 한 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 예를 들면 "너는 그것도 못하니?"라는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야. "함께 다시 하자"라는 말은 기쁘고 가슴이 벅차올라. 말에는 힘이 있대. 말대로 되는 힘이래.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듯이 말대로 돼 버릴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쁜 말 씨앗을 많이 뿌려 놓으면 우리는 예쁜 말 화초들과 함께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될 거야. 상상해 봐.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니? 나도 벌써 마음부자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콩닥거려. 우리들 마음속에 흰 돌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 참, 흰 돌이란 하얗고 고운 바른 마음이래.

'행복한 사람들은 순간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들의 기분을 새롭게 바꾸며 작은 행복을 우리의 큰 기쁨으로 바꿔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키라를 통해 일곱 가지 교훈을 배웠을 때 가장 와 닿았던 것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기'였어. 언제나 내가 느끼며 행동하고, 내 글을 읽는 친구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어딘가 혼자 있게 될 때, 생각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할 거야. 너희들이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마음속의 흰 돌을 찾아 판단과 결정과 실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을게. 나도 너희들처럼 내 마음의 흰 돌도 찾아보려고 한단다.

마음부자가 된 키라를 읽고 다음 권을 기대하는 마음까지 넣어 글을 마치고 있어. 우리 모두 만날 수는 없지만 책 속에서 함께 느끼며 만나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릴게.

- 키라와 너희들을 사랑하는 예나가 이천십구 년 어느 날에.

장려작

오페라를 좋아하세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를 읽고

백승효 (경기도 파주시)



마술피리

마르코 심사 저,
김서정 역,
우리교육

「마술피리」라고? 책 제목을 보는 순간 피리부는 사나이 이야기가 떠올랐다. 피리를 부는 사나이를 따라 아이들이 모두 사라지는 내용의 그 이야기말이다. 하지만 이 책은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그림책으로 만들어놓은 책이었다. 책 표지의 피리 부는 남자가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바로 타미노왕자였다. 마술피리가 과연 어떤 마술을 부릴까 상상하며 책장을 넘겨보았다. 이 책은 오페라를 보러 온 사람들이 객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림들로 시작한다.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큐알코드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어볼 수 있다. 이 책을 보는 어린이들은 반드시 큐알코드를 찍어서 음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서곡이나 밤의 여왕 아리아를 듣는다면 마치 오페라 공연장에 와 있는 기분일 테니까 말이다. 난 실제로 오페라를 본 적은 없지만 모차르트가 누구인지는 안다. 피아노학원에서 모차르트의 '작은 별' 연습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모차르트가 200년전에 이 음악을 만들었고, 마술피리 이야기는 절친인 슈카네더가 지었다고 한다. 주인공 타미노 왕자는 괴물과 맞서 싸우다가 기절한다. 세 여자가 나타나 왕자를 구해주고 밤의 여왕이 나타나 타미노에게 부탁을 한다. 바로 태양과 빛을 다스리는 사라스트로의 궁전에 갇힌 공주를 구해달라는 것이다. 신비한 힘이 서린 마술피리도 함께 말이다. 아 참 그리고 파파게노라는 새잡이도 왕자를 따라나선다. 파파게노는 은으로 만든 글로켄슈필이 있다. 밤의 여왕은 사실은 악당이었다. 공주에게 사라스트로를 죽이라고 하고, 자신이 태양 왕국을 갖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타미노 왕자와 공주는 온갖 고생 끝에 시험을 통과한다. 침묵의 시험이 가장 어려운 테스트 같았다. 그리고 밤의 여왕이 쳐들어와도 태양빛이 어둠을 물리쳐 밤의 여왕이 영원한 밤으로 물러나는 결말에 안심이 되었다. 타미노 왕자가 파미나 공주랑 결혼하는데 파파게노도 파파게나라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행복해 보였다. 파파게노와 파파게나가 함께 부른 이중창, 밤의 여왕 아리아를 꼭 들어보길 추천한다. 이중창은 둘이서 부르는 노래이고 아리아는 1명이 혼자 부르는 노래이다. 그런데 오페라와 뮤지컬이 헷갈려서 뭐가 다른지 찾아보았다. 오페라는 무대에 서는 사람이 성악가이고, 뮤지컬은 배우가 연기한다. 또 오페라는 노래 위주로 대사가 거의 없지만 뮤지컬은 배우의 연기나 대사가 많다. 노래와 춤, 이야기가 함께 무대에서 공연되는 예술이 공통점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둘 다 흥미로운 이야기다. 마술피리를 만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소개도 책 속에 나온다. 오페라가 지루하고 졸린 어른들만의 공연인 줄 알았는데, 이 책에서는 오페라가 진짜 신나는 일이라고 말해준다. 특히 파파게노가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은 웃기고 재미있었다. 나는야 새잡이 언제나 유쾌해 하이사 홉사사! 제일 좋았던 곡 〈파파파 파파게나!〉를 들으며 엄마 아빠 손잡고 오페라 공연장에 가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오페라는 어렵지 않아.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야. 궁금하다면 내가 추천하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장려작

먹고래
(책 읽고 이야기 다시쓰기)

조영준 (고양시 도래울초등학교)



바삭바삭 갈매기

전민걸 글, 그림.
한림출판사

〈1부〉

나는 고래야! 먹는 걸 좋아하지.

시원한 물속과 플랑크톤, 새우를 좋아하는 특별한 고래야.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일 좋았어.

어느 날, 투명하게 생기고 둥둥 떠다니는 걸 봤어.

나는 호기심에 삼켜 보았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런게 엄청 많은 거야!

나는 그게 해파리인줄 알고 삼켰어.

엄청 많이 먹었지.

너희들도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면 그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나는 점점 살이 쪄서 바다 친구들이 모두 날 '먹고래'라고 불렀어.

그래도 난 그걸 계속 먹었지.

어느 날 뚜루뚜루 상어가 말했어.

어떻게 말했냐고?

상어는 내가 이상하다고 말했어.

그런데 나는 지금 바다에 있지 않아!

왜냐고?

나는 지금 죽어 있거든….

〈2부〉

안녕? 난 먹고래야.

지금은 하늘 나라에 살고 있지.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고?

바다처럼 생겼어.

나는 하늘 길을 가던 중, 한 갈매기를 만났어.

이야기를 나눠보니 자기가 '바삭바삭 갈매기'의 주인공으로 출연했었다고 하는 거야.

그 이야기에 출연해서 먹었던 바삭바삭 과자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

나는 페트병을 먹고 죽었었거든….

나는 갈매기와 친구가 되어 사이좋게 지냈어.

왜냐면? 그 친구가 '바삭바삭 갈매기' 이야기를 들려줬거든….

〈3부〉

나는 바삭바삭 갈매기야.

파란 하늘과 구름은 언제 봐도 기분 좋지.

어느 날, 엄청 큰 배가 내가 살고 있는 바위섬에 왔어.

그 배 뒤에서는 아이들이 무언가 던지고 있었어.

'바삭바삭' 그것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날다가 하늘이 무너져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갈매기가 어디론가 날아갔지.

그 후로 한동안 갈매기를 만나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갈매기가 무엇을 들고 오는걸 보았어.

그것은 갈매기가 말한 과자였지.

갈매기는 말했어.

이게 그 '바삭바삭'이야.

궁금한 마음에 나도 먹어 보았지.

헉!!!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 또 먹고 싶다……

그러자 갈매기가 말했어.

이 맛에 길들여지면 더 이상 자유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바삭바삭'을 휙 던졌어.

장려작

오늘도 딱 나의 숨만큼만 살아가자

정난희 (경기도 동두천시)



엄마는 해녀입니다

고희영 저.
난다.

어제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치열하게 살아냈을까 아니면 조금 나태했을까. 내가 가진 역량을 다 발휘했을까 아니면 반도 꺼내 보이지 못했을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어제보다 더 나아지지 못하면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자책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제목이나 내용만 가볍게 읽다보면, 해녀가 사용하는 용어나 도구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놓아서 단순하게 '해녀'에 대해 소개하는 책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의미로 책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책 내용을 찬찬히 곱씹으며 읽다보면 삶의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린다. 이를테면 나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하는 것 같은.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의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욕심내고 있었나. 내 그릇보다 많은 것을 채우다 몇 번이나 그릇을 쏟아버린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글 속에서 엄마는 깊은 바닷속에 있는 커다란 전복을 따기 위해 무리하게 숨을 참고 물질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행히 할머니가 나타나 구해주었지만, 바닷속에서 과하게 욕심을 부렸다가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꾸지람도 함께 듣게 된다. 욕심의 결말이 죽음이라는 것이 좀 과장되었나 싶기도 하지만, 바닷속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삶에서도 그렇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무리를 하게 되면 결국 내 몸을 삶이 아닌 죽음으로 조금씩 더 밀어 넣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끔찍하지만 현실이다. 일이 생긴 후에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변해야 할 것은 내일이 아닌 지금인 것이다.

마지막페이지에 나오는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라는 말은 꽤나 힘 있는 질책과 동시에 위로가 되어주는데, 지금껏 욕심인줄도 모르고 손에 쥐려 애썼던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슬쩍 놓을 수 있게 도와준다. 어린이를 위해 쓰여진 동화이지만, 치열하게 요즘을 살아가는 어른들이 읽으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놓아주면 내일까지 덩달아 행복해질 삶을 살 수 있다.

2019
경기도사서
서평단
추천도서
목록



2019 경기도사서서평단 추천도서 목록

[그림책]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1	곰씨의 의자	노인경			문학동네	2016	978-89-5464-231-6
2	곰이 된 피나	페이아코			국민서관	2019	978-89-11-12658-3
3	궁딩팡팡	이덕화			길벗어린이	2019	978-89-5582-488-9
4	그 나무가 웃는다	손연자	윤미숙		시공주니어	2016	978-89-5278-251-9
5	그 말 내가 전할게	길상효	송은경		씨드북	2019	979-11-6051-265-6
6	기계일까 동물일까	레티시아 드베르네		시아	보림	2017	978-89-1155-1
7	긴 여행	프란체스카 산나		차정민	풀빛	2017	978-89-7474-298-0
8	나무늘보야, 어디 가?	오무라 도모코		고향옥	시금치	2018	978-89-923715-1-3
9	나미타는 길을 찾고 있어요	마르 파본	마리아 히론	엄혜숙	풀과바람	2016	978-89-8389-659-9
10	나의 초록 스웨터	엄혜숙	권문희		키다리	2019	979-11-5785-220-8
11	나의 초록색 가족	토마 라바셰리		김지애	씨드북	2018	979-11-6051-221-2
12	납작한 토끼	바두르 오스카르손		권루시안	진선아이	2019	978-89-7221-592-9
13	내 친구들을 소개할게	엘레나 아그넬로	아드리 르 루	강이경	머스트비	2016	978-89-9843-300-0
14	내가 보여?	박지희			웅진주니어	2019	978-89-01-23465-6
15	너, 그러다가!	홍하나			아이앤북	2019	979-11-5792-145-4
16	너의 마음은 하늘과 같아	브론웬 빌라드	로라 킬린	이재석	뜨인돌	2019	978-89-5807-721-3
17	노란 리본	허가윤	윤문영		우리교육	2017	978-89-8040-170-3
18	누가 진짜 나일까?	다비드 킬리		나선희	책빛	2017	978-89-6219-245-2
19	누구 손잡을까?	튀버 벨트감프	바우터르 튈프	유동익	국민서관	2019	978-89-1112-646-0
20	눈	박웅현	차승아		비룡소	2018	978-89-491-0700-4
21	동구관찰	조원희			엔씨문화재단	2016	979-11-9636-820-3
22	드르렁 : 문크그림책	문크			북극곰	2019	979-11-86797-69-3
23	떨어질 수 없어	마르 파봉	마리아 지롱		이마주	2018	979-11-89044-09-1
24	린 할머니의 복숭아나무	탕무니우		조윤진	보림	2019	978-89-433-1197-1
25	마들린느의 예절 수업	존 베멀먼즈 마르시아노		엄혜숙	한솔수북	2008	978-89-535-5022-7
26	말도 안 돼!	미셸 마켈	낸시 카펜터	허은미	산하	2017	978-89-7650-492-0
27	맨발로 축구를 한 날	조시온	이덕화		찰리북	2018	978-89-94368-86-3
28	바닷가 탄광마을	조앤 슈워츠	시드니 스미스	김영선	국민서관	2017	978-89-11-12600-2
29	부모님 제대로 키우는 법	카타리나 그로스만-헨젤		윤혜정	듬뿍	2017	979-11-9576-301-6
30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허은미	김진화		여유당	2018	978-89-92351-63-8
31	비 오는 건 싫어	사토 와키코		예상열	한림	2017	978-89-7094-301-5
32	사진관집 상구	유애로	유석영 사진		보림출판사	2018	978-89-433-1172-8
33	삼거리 양복점	안재선			웅진주니어	2019	978-89-0123-087-0
34	서서 걷는 악어 우뚝이	레오 리오니		엄혜숙	마루벌	2009	978-89-5663-262-9
35	선	이수지			비룡소	2017	978-89-4911-277-0
36	세상 끝에 있는 너에게	고티에 다비드, 마리 꼬드리			키다리	2019	979-11-5785-217-8
37	쉬잇! 다 생각이 있다고	크리스 호튼			비룡소	2017	978-89-4911-268-8
38	식물도 움직여?	레베가 E. 허쉬	미아 포사다	김경연	현암주니어	2018	979-89-323-7463-5
39	안녕, 우리들의 집	김한울			보림출판사	2018	978-89-43-3119-19
40	어서 오세요	세바스티엥 조아니에	요안나 콘세이요	최성웅	웅진주니어	2019	978-89-0122-986-7
41	여우지만 호랑이입니다	코리 R. 테이버		노은정	꿈꾸는달팽이	2019	978-89-3957-140-2
42	완두	다비드 칼리	세바스티앙 무랭	이주영	진선아이	2018	978-89-7221-577-6
43	우리 가족 만나볼래?	율리아 귈름		황정혜	후즈갓마이테일	2017	979-11-956413-8-3
44	으뜸 헤엄이	레오 리오니		이명희	마루벌	2013	978-89-5663-432-6
45	이백하고도 육십구일	칼 데스카, 로알			책빛	2018	978-89-6219-274-2
46	자유 자유 자유	애슐리 브라이언		원지인	보물창고	2019	978-89-6170-708-4
47	작은 벽돌	조슈아 데이비드 스타인	줄리아 로스먼	정진호	그레이트북스	2018	978-89-271-9160-5
48	적당한 거리	전소영			달그림	2019	979-11-9616-985-5
49	전쟁 : A Guerra	조제 조르즈 레트리아	안드레 레트리아	엄혜숙	그림책공작소	2019	979-11-8682-522-8
50	줄리의 그림자	크리스티앙 브뤼엘	안 보즐렉		푸른책들	2019	978-89-5798-011-8
51	최강 청결 히어로 비누매	우에타니			아이세운	2018	979-11-6233-497-3
52	추억을 담은 지도	프란 누뇨	주잔나 첼레이	김지애	씨드북	2018	979-11-6051-149-9
53	콩 풋콩 콩나물	고야 스스무	나카지마 무쓰코	엄혜숙	시금치	2015	978-89-7175-3
54	콩고에서 온 편지	박준형, 홍지민	고현영, 이기호, 이다현		딜라이트리	2019	979-11-960448-2-4
55	크게 작게 소곤소곤	로마나 로맨션, 안드리 레시브		김지혜	길벗어린이	2018	978-89-5582-483-4
56	파랑오리	릴리아			킨더랜드	2018	978-89-5618-750-1
57	하루	강혜진			논장	2018	978-89-84143-35-7
58	학교가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	아담 렉스	크리스티안 로빈슨	김서정	북뱅크	2019	978-89-6635-097-1

[그림책(동시)]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1	생각하는 감자	박승우			창비	2014	978-89-364-4453-6
2	엄마의 품	박철	김재홍		바우솔	2015	978-89-8389-604-9

[어린이문학]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1	3월이 방학인 학교	송승주			책읽는곰	2019	979-11-5836-134-1
2	DMZ 파라다이스	송준식			푸르름	2018	979-11-8904-153-3
3	고양이 펠리체의 사뿐사뿐 세계여행	조반나 조볼리			찰리북	2019	978-89-9436-89-6
4	곤니치와, 일본	조피아 파비야 노프스카 - 미칙	요안나 그로호츠카	이지원	풀빛	2018	979-11-6172-008-1
5	그래서 슬펐어?	고정욱	송혜선		거북이북스	2018	978-1-11-6094-401-3
6	꼬마 시장과 원자력 발전소	고수산나			꿈터	2018	979-11-8824-037-1
7	나는 소심해요	엘로디 페로탱		박정연	이마주		979-11-89044-10-7
8	나는 피구왕이 될 거야	정진	이상윤		알라딘북스	2018	978-89-8401-790-0
9	나랑 도서관 탐험 할래?	나탈리 다르장			라임	2019	979-11-8920-819-6
10	나비가 된 소녀들	정란희			현암주니어	2017	978-89-323-7449-9
11	노란 샌들 한 짝	캐런 린 윌리엄스, 카드라 모하메들	둑 체이카	이현정	맑은가람	2007	978-89-92017-76-1
12	또 다른 연못	바이 파이글	티 부이	이상희	밝은미래	2018	978-89-6546-318-4
13	똥전쟁	오미경			시공주니어	2018	978-89-5278-654-8
14	마음이 그랬어	박진아			노란돼지	2018	979-11-5995-050-6
15	모모	미하엘 엔데		한미희	비룡소	2018	978-89-4919-002-0
16	발레하는 호랑이	파비 산티아고			재능교육	2016	978-89-7499-786-1
17	보리바다	김미영			고래뱃속	2018	978-89-9250-583-3
18	빤쓰왕과 공포의 장난감	앤디라일리		보탬	파랑새	2018	978-89-6155-740-0
19	빨간 벽	브리타 테켄트럽		김서정	봄봄출판사	2018	979-11-889-090-94
20	빨간볼	안 더 킨더르		정신재	내인생의책	2014	978-89-97980-95-6
21	소금차 운전사	올라도 위크스		홍한결	단추	2019	979-11-9617-529-0
22	손으로 보는 아이, 카밀	토마시 마우코프스키	요안나 루시넥	최성은	소원나무	2018	979-11-86531-64-8
23	쉬! 나는 섬이야	마크 얀센			주니어김영사	2018	978-89-3498-192-3
24	스즈짱의 뇌	다케야마 미나코			봄나무	2019	979-11-5613-128-1
25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세라 저코비			미디어창비	2018	979-11-8662-183-7
26	아름다운 것은 자꾸 생각나	신현이			문학동네	2018	978-89-5465-397-8
27	안녕, 우주	에린 엔트라다 켈리			밝은미래	2018	978-89-6546-310-8
28	올레, 스페인	모니카 비엔-쾨니히스만	마리아 멕	이지원	풀빛	2018	979-11-6172-073-9
29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	김을호			크레용하우스	2019	978-89-5547-626-2
30	잃어버린 책	서지연	제딧		웅진주니어	2019	978-89-01-23151-8
31	자유 자유 자유	애슐리 브라이언			보물창고	2019	978-89-6170-708-4
32	장갑	로마나 로마니신, 안드리 레시프		황연재	책빛	2019	978-89-6219-275-9
33	조선 엿장사 큰노미	최주혜			키즈엠	2018	978-89-674-991-50
34	지하차도 건너기	하모	한아름		우주나무	2019	979-11-89489-04-5
35	초코가루를 사러 가는 길에	박지연			재능교육	2018	978-89-7499-342-9
36	평화를 보는 눈	정주진			개마고원	2015	978-89-5769-284-4
37	하늘을 울리는 바이올린	송재찬	박세영		밝은미래	2016	978-89-6546-244-6
38	호랑이가 책을 읽어준다며	존 버닝햄	정희성		창비	2018	97-911-8662-185-1
39	호텔 파라다이스	소윤경			문학동네어린이	2018	978-89-5465-203-2

[어린이비문학]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40	(다 같이 돌자) 미래 직업 한 바퀴	박주혜			김영사	2018	978-89-349-8372-9
41	3.1 운동 일기	김영숙	장경혜		풀빛	2019	979-11-6172-119-4
42	나는 본다	로마나 로맨션, 안드리 레시브		김지혜	길벗어린이	2018	978-89-55824-84-1
43	난민이야기	샤들리히 수잔	알렉산더 폰 크노레	조연주	니케주니어	2019	979-11-8972-201-2
44	내가 타는 차	이안	박재현	초등교사 모임 감수	아르볼(지학사)	2019	979-11-6204-052-2
45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까요?	이주영			현북스	2019	979-11-5741-154-2
46	딜쿠샤의 추억	김세미, 이미진	전현선		찰리북	2017	978-89-943-6873-3
47	땅 위 땅 속	추펑쭝			현암주니어	2018	978-89-3237-461-1
48	박물관장 최순우	오현미	노준구		사계절	2018	978-111-6094-401-3
49	비교할수록 쉬워지는 단위	클라이브 기퍼트	폴 보스턴	강채민	부즈펌어린이	2018	979-11-87504-50-4
50	세상에 도전한 위대한 여성들	브래드 쇼, 조지아 암슨			시공사	2018	978-89-5278-729-3
51	시애틀 추장 연설문	정명림			현북스		979-11-5741-133-7
52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김지현	한유민		그레이트북스	2008	89-91745-20-2
53	안녕, 나의 등대	소피 블랙올		정희성	비룡소	2019	978-89-491-1376-0
54	지붕이 들려주는 건축이야기	남궁당	심승희		현암사	2018	978-89-9327-409-3

[일반도서(청소년)]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1	나의 페르시아어 수업	마리암 마지디			달콤한 책	2018	979-11-9628-010-9
2	누가 뭐래도 해피엔딩	크리스틴 해밀		윤영	리듬문고	2019	978-89-6513-543-2
3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야쿠마루 가쿠		김성미	북플라자	2018	978-89-9827-479-5
4	땅에서 날다	조현주			창비	2017	978-89-3645-679-5
5	바보 똥개 뽀삐	박정윤			언트리	2015	979-11-5761-130-0
6	사랑의 생애	이승우			예담	2017	978-89-59134-82-3
7	아몬드	손원평			창비	2017	978-89-36445-678-8
8	아홉 살 인생	위기철			청년사	2001	978-89-7278-228-5
9	안녕, 베타	최영희 외			사계절	2016	978-89-5828-926-5
10	옥수수뺑소니	박상기			창비	2017	978-89-3645-858-4
11	우리들의 비밀놀이 연구소	조유나			사계절	2016	978-89-5828-967-8
12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	김혜진 외			서유재	2017	979-11-9576-485-3
13	최초의 책	이민항			자음과모음	2019	978-89-5443-986-2
14	페인트	이희영			창비	2019	978-89-3645-689-4
15	편의점 가는 기분	박영란			창비	2016	978-89-3645-675-7
16	호랑이의 눈	주디 블룸		안신혜	창비	2018	978-89-3645-684-9
17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오오타 야스스케			책공장더불어	2013	978-89-97137-05-3
18	유진과 유진	이금이			푸른책들	2004	89-5-798-01-3
19	청소년 토지 (전12권 세트)	박경리			자음과모음	2015	978-89-5707-001-7
20	체리새우 :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문학동네	2019	978-89-54-65475-3
21	팀 탈러, 팔아버린 웃음	제임스 크뤼스		정미경	도서출판 논산	2016	978-89-8414-249-7

[일반도서]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1	29쇄	임소라			북노마드	2016	979-11-865-6131-7
2	CEO 칭기스칸	김종래			삼성경제연구소	2002	89-7633-213-X
3	가족의 두 얼굴	최광현			부키	2013	978-89-6051-301-3
4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옥			돌베게	1998	978-89-7199-109-1
5	건강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조영	부키	2019	978-89-6051-719-6
6	그 남자네 집	박완서			현대문학	2004	978-89-7275-427-5
7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웅진씽크빅	2005	978-89-0105-159-8
8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박완서			문이당	2007	978-89-7456-379-0
9	기사단장 죽이기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2017	978-89-546-4611-6
10	기적의 세기	캐런 톰슨 워커		정회성	민음사	2014	978-89-3748-950-1
11	김영하, 이우일의 영화이야기	김영하	이우일		마음산책	2003	978-89-8935-135-1
12	나를 보내지마	가즈오 이시구로		김남주	민음사	2009	978-89-3749-003-3
13	내 마음 조각글	노영심			자음과모음	2001	978-89-9844-7333-1
14	니하오 미스터 빈	하진		왕은철	현대문학	2007	978-89-7275-389-6
15	데카메론	구윤숙			작은길	2014	978-89-98066-05-5
16	도서관 여행하는 법	임윤희			유유	2019	979-11-8968-308-5
17	딸에 대하여	김혜진			민음사	2017	89-374-7317-3
18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어령			열림원	2015	978-89-7063-795-2
19	딸에게 주는 레시피	공지영			한겨레	2015	978-89-8431-909-7
20	뚱뚱해서 행복한 보테로	이동섭			미진사	2010	978-89-4080-383-7
21	랩걸 :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	호프 자런	신혜우	김희정	알마	2017	979-11-5992-096-7
22	마음아, 넌 누구니?	박상미			한국경제신문	2018	979-88-9474-439-1
23	맛의 배신	유진규			바틀비	2018	979-11-9625-055-3
24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김동영			아르테	2017	978-89-5097-306-3
25	미 비포 유	조조 모예스		김선형	살림출판사	2013	978-89-5222-782-9
26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문학동네	2016	978-89-5464-353-5
27	밥벌이의 지겨움	김훈			생각의나무	2004	89-849-8317-9
28	백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덴스토리	2016	979-11-8571-643-5
29	병의 90퍼센트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나가오 가즈히로		이선정	북라이프	2016	979-11-8545-957-8
30	사고루 기담	아사다 지로			문학동네	2006	89-5460-207-X
31	사랑의 기초 : 한남자	알랭 드 보통		정이현	문학동네	2012	978-89-5461-819-9
32	상실의 시대	무라카미 하루키		유유정	문학사상사	2008	978-89-7012-369-1
33	성공한 인생	김동식			요다	2018	979-11-8909-906-0
34	숨결이 바람 될 때	폴 칼라니티		이종인	흐름출판	2016	978-89-6596-195-6
35	아리랑 - 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불꽃 같은 삶	님 웨이즈		송영인	동녘	2005	89-7297-483-8
36	아무튼 피트니스	류은숙			코난북스	2017	979-11-8860-500-2
37	아픔이길이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2017	978-89-6262-195-2
38	어린이와 그림책	마쯔이 다다시			샘터	2003	978-89-4641-405-1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ISBN
39	어릴 적 그 책	곽아람			앨리스	2013	978-89-6196-152-3
40	어땠거나 청춘	이보람			교보문고	2011	978-89-9723-526-1
41	엄마 수업	법륜			휴	2011	978-89-8431-511-2
42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김민식			위즈덤하우스	2017	978-89-6086-313-2
43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고수리			첫눈	2016	979-11-9553-822-5
44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김혼비			민음사	2018	978-89-3743-757-1
45	이것이 인간인가 :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의 기록	프리모 레비		이현경	돌베개	2007	978-89-7199-264-7
46	이기적 > 이타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	이상임	을유문화사	2015	978-89-324-7163-1
47	이동진 독서법	이동진			예담	2017	978-89-5913-526-4
48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피에르 바야르		김병욱	여름언덕	2008	978-89-8934-897-9
49	자전거여행 1	김훈			문학동네	2014	978-89-5462-620-0
50	재인, 재욱, 재훈	정세랑			은행나무	2014	978-89-5660-833-4
51	조심	정민			김영사	2014	89-3-496-811-5
52	종말의 바보	이사카 고타로		김선영	현대문학	2015	978-89-7275-726-9
53	종의 기원	정유정			은행나무	2016	978-89-5660-995-9
54	좋아하는 일만 사는 법	고코로야 진노스케		정혜주	동양북스	2016	979-11-5703-206-8
55	죽은왕녀를 위한 파반느	박민규			예담	2009	978-89-59-13391-8
56	준비된 행운	알렉스 로비라	페르난도 트리아스 데 베스		에이지21	2006	978-89-9109-520-5
57	지리산 행복학교	공지영			오픈하우스	2010	978-89-9382-446-9
58	초예측	유발 하라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외		정현욱 오노 자즈모토 역	웅진지식하우스	2019	978-89-01-22961-4
59	출판하는 마음	은유			제철소	2018	979-11-8834-306-5
60	쾌락독서	문유석			문학동네	2018	978-89-5465-384-8
61	파리는 날마다 축제	어니스트 헤밍웨이		주순애	이숲	2002	978-89-9422-834-1
62	페이크(fake)	로버트 기요사키		박슬라	민음인	2019	979-11-5888-534-2
63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	김겨울			초록비책공방	2019	979-11-8635-852-8
64	황금비늘 1	이외수			해냄	1997	89-7-3376-48-9
65	흑산	김훈			학고재	2011	978-89-5625-162-2
66	희박한 공기속으로	존 크라카우어			황금가지	2007	978-89-6017-020-9

색인

도서별

(다 같이 돌자) 미래 직업 한 바퀴 212
29쇄 292
3.1 운동 일기 214
3월이 방학인 학교 132
CEO 칭기스칸 294
DMZ 파라다이스 134
가족의 두 얼굴 296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298
건강의 배신 300
고양이 펠리체의 사뿐사뿐 세계여행 136
곤니치와, 일본 138
곰씨의 의자 10
곰이 된 피나 12
궁딩팡팡 14
그 나무가 웃는다 16
그 남자네 집 302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304
그 말 내가 전할게 18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306
그래서 슬펐어? 140
기계일까 동물일까 20
기사단장 죽이기 308
기적의 세기 310
긴 여행 22
김영하, 이우일의 영화이야기 312
꼬마 시장과 원자력 발전소 142
나는 본다 216
나는 소심해요 144
나는 피구왕이 될 거야 146
나랑 도서관 탐험 할래? 148
나를 보내지마 314
나무늘보야, 어디 가? 24
나미타는 길을 찾고 있어요 26
나비가 된 소녀들 150
나의 초록 스웨터 28
나의 초록색 가족 30
나의 페르시아어 수업 246
난민이야기 218
납작한 토끼 32
내 마음 조각글 317
내 친구들을 소개할게 34
내가 보여? 36
내가 타는 차 220
너, 그러다가! 38
너의 마음은 하늘과 같아 40
노란 리본 42
노란 샌들 한 짝 152
누가 뭐래도 해피엔딩 248
누가 진짜 나일까? 44
누구 손잡을까? 46
눈 48
니하오 미스터 빈 319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까요? 222
데카메론 322
도서관 여행하는 법 324
돌이킬 수 없는 약속 250
동구관찰 50
드르렁 : 문크그림책 52
딜쿠샤의 추억 224
딸에 대하여 326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328
딸에게 주는 레시피 330
땅 위 땅 속 226
땅에서 날다 252
떨어질 수 없어 54
또 다른 연못 154
똥전쟁 156
뚱뚱해서 행복한 보테로 332
랩걸 :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 334
린 할머니의 복숭아나무 56
마들린느의 예절 수업 58
마음아, 넌 누구니? 337
마음이 그랬어 158
말도 안 돼! 60
맛의 배신 339
맨발로 축구를 한 날 62
모모 160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341
미 비포 유 343
미스 함무라비 346
바닷가 탄광마을 64
바보 똥개 뽀삐 254
박물관장 최순우 228
발레하는 호랑이 162
밥벌이의 지겨움 348
백년을 살아보니 350
병의 90퍼센트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352
보리바다 164
부모님 제대로 키우는 법 66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68
비 오는 건 싫어 70
비교할수록 쉬워지는 단위 230
빤쓰왕과 공포의 장난감 166
빨간 벽 168
빨간볼 170
사고루 기담 354
사랑의 기초 : 한남자 356
사랑의 생애 256
사진관집 상구 72
삼거리 양복점 74
상실의 시대 358
생각하는 감자 126
서서 걷는 악어 우뚝이 76
선 78
성공한 인생 361
세상 끝에 있는 너에게 80
세상에 도전한 위대한 여성들 232
소금차 운전사 172
손으로 보는 아이, 카밀 174
숨결이 바람 될 때 363
쉬! 나는 섬이야 176
쉬잇! 다 생각이 있다고 82
스즈짱의 뇌 178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 180
시애틀 추장 연설문 234
식물도 움직여? 84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236
아름다운 것은 자꾸 생각나 182
아리랑 - 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불꽃 같은 삶 365
아몬드 258
아무튼 피트니스 368
아픔이길이되려면 371
아홉 살 인생 260
안녕, 나의 등대 238
안녕, 베타 262
안녕, 우리들의 집 86
안녕, 우주 184
어린이와 그림책 373
어릴 적 그 책 375
어서 오세요 88
어쨌거나 청춘 377
엄마 수업 379
엄마의 품 128
여우지만 호랑이입니다 90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382
옥수수뺑소니 265
올레, 스페인 186
완두 92
우리 가족 만나볼래? 94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 188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384
우리들의 비밀놀이 연구소 267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386
유진과 유진 269
으뜸 헤엄이 96
이것이 인간인가 :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의 기록 388
이기적 > 이타적 유전자 390
이동진 독서법 392
이백하고도 육십구일 98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 271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395
잃어버린 책 190
자유 자유 자유 192
자유 자유 자유 192
자전거여행 1 398
작은 벽돌 102
장갑 194
재인, 재욱, 재훈 400
적당한 거리 104
전쟁 : A Guerra 106
조선 엿장사 큰노미 196
조심 402
종말의 바보 404
종의 기원 407
좋아하는 일만 사는 법 409
죽은왕녀를 위한 파반느 411
준비된 행운 413
줄리의 그림자 108
지리산 행복학교 415
지붕이 들려주는 건축이야기 240
지하차도 건너기 198
청소년 토지 (전12권 세트) 274
체리새우 : 비밀글입니다 276
초예측 418
초코가루를 사러 가는 길에 200
최강 청결 히어로 비누매 110
최초의 책 278
추억을 담은 지도 112
출판하는 마음 420
콩 풋콩 콩나물 114
콩고에서 온 편지 116
쾌락독서 422
크게 작게 소곤소곤 118
팀 탈러, 팔아버린 웃음 280
파랑오리 120
파리는 날마다 축제 424
페이크(fake) 426
페인트 282
편의점 가는 기분 284
평화를 보는 눈 202
하늘을 올리는 바이올린 204
하루 122
학교가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 124
호랑이가 책을 읽어준다며 206
호랑이의 눈 286
호텔 파라다이스 208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 428
황금비늘 1 432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288
흑산 434
희박한 공기속으로 436

저자별

가즈오 이시구로 314
강혜진 122
고수리 384
고수산나 142
고야 스스무 114
고정욱 140
고코로야 진노스케 409
고티에 다비드, 마리 꼬드리 80
공지영 330, 415
곽아람 375
구윤숙 322
길상효 18
김겨울 428
김동식 361
김동영 341
김미영 164
김민식 382
김세미 224
김승섭 371
김영숙 214
김영하 312
김을호 188
김종래 294
김지현 236
김한울 86
김형석 350
김혜진 271, 326
김혼비 386
김훈 398, 434, 348
나가오 가즈히로 352
나탈리 다르장 148
남궁당 240
노영심 317
노인경 10
님 웨이즈 365
다비드 칼리 44
다케야마 미나코 178
레베가 E. 허쉬 84
레오 리오니 96,76
레티시아 드베르네 20
로마나 로마니신 194
로버트 기요사키 426
류은숙 368
리처드 도킨스 390
릴리아 120
마르 파봉 54
마리암 마지디 246
마쯔이 다다시 373
마크 얀센 176
모니카 비엔-쾨니히스만 186
무라카미 하루키 308, 358
문유석 346, 422
문크 52
미셸 마켈 60
미하엘 엔데 160
바두르 오스카르손 32
바버라 에런라이크 300
바이 파이글 154
박경리 274
박민규 411
박상기 265
박상미 337
박승우 126
박영란 284
박완서 302, 304 ,306
박웅현 48
박정윤 254
박주혜 212
박준형 116
박지연 200
박지희 36
박진아 158
박철 128
법륜 379
브래드 쇼, 조지아 암슨 232
브론웬 빌라드 40
브리타 테켄트럽 168
사토 와키코 70
샤들리히 수잔 218
서지연 190
세라 저코비 180
세바스티엥 조아니에 88
소윤경 208
소피 블랙올 238
손연자 16
손원평 258
송승주 132
송재찬 204
송준식 134
신영옥 298
신현이 182
아담 렉스 124
아사다 지로 354
안드리 레시프 194
안재선 74
알랭 드 보통 356
알렉스 로비라 413
애슐리 브라이언 100, 192
앤디라일리 166
야쿠마루 가쿠 250
얀 더 킨더르 170
어니스트 헤밍웨이 424
엄혜숙 26, 58, 76, 106, 114
에린 엔트라다 켈리 184
엘레나 아그넬로 34
엘로디 페로탱 144
오무라 도모코 24
오미경 156
오오타 야스스케 288
오현미 228
올라도 위크스
우에타니 110
위기철 260
유발 하라리 418
유애로 72
유진규 339
율리아 귈름 94
은유 420
이금이 269
이덕화 14, 62
이동섭 332
이동진 392
이미진 224
이민항 278
이보람 377
이사카 고타로 404
이수지 78
이승우 256
이안 220
이어령 328
이외수 432
이주영 92,222
이희영 282
임소라 292
임윤희 324
전소영 104
정란희 150
정명림 234
정민 402
정세랑 400
정유정 407
정주진 202
정진 102,146
제레드 다이아몬드 418
제임스 크뤼스 280
조반나 조볼리 136
조슈아 데이비드 스타인 102
조시온 62
조앤 슈워츠 64
조원희 50
조유나 267
조제 조르즈 레트리아 106
조조 모예스 343
조피아 파비야노프스카 138
조현주 252
존 버닝햄 206
존 베멀먼즈 마르시아노 58
존 크라카우어 436
주디 블룸 286
최광현 296
최영희 262
최주혜 196
추찡쭝 226
카타리나 그로스만-헨젤 66
칼 데스카, 로알 98
캐런 린 윌리엄스, 카드라 모하메들 152
캐런 톰슨 워커 310
코리 R. 테이버 90
크리스 호튼 82
크리스티앙 브뤼엘 108
크리스틴 해밀 248
클라이브 기퍼트 230
탕무니우 56
토마 라바셰리 30
토마시 마우코프스키 174
튀버 벨트감프 46
파비 산티아고 162
페이아코 12
폴 칼라니티 363
프란 누뇨 112
프란체스카 산나 22
프리모 레비 388
피에르 바야르 395
하모 198
하진 319
허가윤 42
허은미 60,68
호프 자런 334
홍지민 116
홍하나 38
황영미 276

서평자별

공정자 24, 28, 54, 56, 64, 72, 82, 84, 110, 114, 214, 216, 230, 445, 451
김보라 172, 288, 322
김현주 68, 106, 190, 388
김현진 38, 116
남현정 258, 274, 298, 301, 306, 312, 330, 348, 350, 373, 375, 379, 398, 415
박지원 98, 132, 134, 142, 148, 156, 182, 188, 192, 196, 202, 218, 220, 222, 232
신선원 42, 224, 248, 262, 267, 271, 286, 292, 319, 368
안미아 14, 18, 40, 46, 88, 90, 104, 122, 276, 282, 341
양유진 238, 300
엄정란 136, 150, 176, 178, 200, 240, 278
유향숙 58, 76, 96, 128, 152, 154, 170, 236, 294, 326, 337, 365, 390, 418, 426, 434
유현미 10, 50, 444, 448
이병희 252. 254. 256. 265. 284. 334. 358. 392. 432. 436
이선희 16. 74. 78. 80. 86. 94. 184. 246. 269. 354. 356. 407
이연수 60. 62. 108. 138. 140. 146. 186. 204. 228
이연순 162. 164. 206. 226. 250. 402
이은주 12. 20. 70. 92. 126. 144. 166. 174. 194. 198. 234
임지혜 32. 36. 52. 120. 124. 158. 212. 296. 308. 328. 409
전진희 168. 180. 208. 280. 343. 400
조연수 22. 26. 30. 34. 44. 48. 66. 100. 102. 112. 118. 160. 260
조윤주 314. 324. 386. 395. 404. 420. 424. 428
조혜원 304. 311. 317. 333. 339. 347. 353. 361. 636. 371. 377. 383. 385. 411. 413. 423

2019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사서들의 책 이야기, 2019

발행일 2019년 12월 18일
글쓴이 2019 경기도사서서평단
기획운영 정은영
편집 이현주
발행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1625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68 (신풍동 123-69)
TEL. 031)252-5237
홈페이지 www.Library.kr / www.BookMagic.kr
제작 디자인달

ISBN 978-89-93395-83-9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무단전재와 무단복재를 금합니다.
이 책은 2019 경기도사서서평단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책 속 서평과 목록은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www.BookMagi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작가와 독자 사이에 사서가 있다.
책을 읽게 하는 역할,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조언을 덧붙이는 사람들.
어떤 책을 골라도 좋을 만큼 넉넉한 공간을 꾸려가는 사람들. 사서.
그리고 그 공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약 없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사서들 말이다.

- 기획자의 글 중에서 -

9 788993 395839 03010
비매품
ISBN 978-89-93395-83-9